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책임연구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봉환(숙명여자대학교·교수)

황매향(경인교육대학교·교수)

허은영(백석중학교·교사)

연구보조원: 조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변동 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거로서, 청소년정책수립의 방향설정과 청소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그동안 정부부처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생산해온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 정책 관련 영역에 대한 행정통계 자료를 여러 자료에서 수집·가공하여 제시하거나, 1~2년의 단발적인 비정기 실태조사로 진행되어 왔음.
-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통계 자료의 경우 각 조사의 목적에 따라 설문문항이 상이하고, 표집방법이나, 조사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된 통계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 지표의 각 영역에 대한 기존의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실제 의식과 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지표개발과정을 거쳐 지표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이에 2009년도 조사에서는 청소년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향후 청소년 지표 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한국 청소년들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 수립과 방향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내용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 청소년 지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영역의 설정과 세부 설문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관련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의 구성과 세부 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발된 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음.
-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문항이해도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문항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였음.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전국 설문조사

-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설문문항을 토대로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음.
- 모집단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였고,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수집된 자료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지역별 현황을 분석·제시하였고, 각 영역별 현안에 대해 요구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4)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 결과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두 편의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음.
- 또한 각 세부 영역에 대해 보다 심화된 분석을 함으로써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과 관련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정책제언

1)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진로·직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 기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으나 실제 진로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본 조사 결과 진로 관련 심리검사 경험을 제외하고 진로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평균 30% 정도만이 자신이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따라서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로교육 방식 중 효과성이 높게 나온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진로교육 지도 방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행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일정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궁극적으로는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전문상담교사 양성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진로지도 전문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 현재 진로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직업가치 추구에 있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자신이 결정한 미래의 직업을 위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임.

5)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 자녀들의 진로발달 촉진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부모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또한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달리 ‘교육 및 연구 관련직’, ‘의료 및 보건 관련직’,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관련직’ 등 높은 수입과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직업에 편중되어 있었음.
-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임.

6)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낮았음.
- 또한 학교급이 낮은 중학교 학생들보다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

7) 학업중단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진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 취약한 집단인 학업중단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8)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 본 조사 결과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간에 진로개발 역량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이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할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더라도 진로개발 역량의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따라서 각 기관의 진로 프로그램 개최에 있어 사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는 효과성 평가를 하여 다음 행사 때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9)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정보의 보급을 위한 진로 관련 사이트 인지도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 많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위주의 인터넷이나,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직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TV·라디오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로 관련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뉴와 정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됨.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11
II. 이론적 배경	13
1. 진로 및 직업관련 개념의 이해	15
2. 청소년 진로지도의 필요성 및 목적	16
3. 학교에서의 청소년 진로지도의 중요성	20
4.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와 내용	23
5. 선행연구 고찰	30
III.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41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 및 지표 타당화	43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	68
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구성개념	74
IV. 조사개요	89
1. 조사설계	91
2. 조사대상	96
3. 조사내용	96
V. 조사결과	101
1. 진로·직업 의식	103
2. 진로·직업 경험	146

3. 진로·직업 역량	252
4. 배경변인	278
VI.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정책적 활용	295
<조사결과 분석보고 1>	
1. 서론	297
2. 이론적 배경	299
3. 연구방법	305
4. 연구결과	307
5. 논의	318
<조사결과 분석보고 2>	
1. 서론	321
2. 이론적 배경	323
3. 연구의 방법	330
4. 연구결과	332
5. 논의 및 시사점	347
VII. 결론 및 제언	351
1. 종합논의 및 결론	353
2. 정책적 제언	356
참고문헌	365
부록	375
[부 록 1: 최종 설문지]	377
[부 록 2: 전문가 의견조사 1차]	393
[부 록 3: 전문가 의견조사 2차]	415

표 목차

<표 II-1> 청년패널 6차년도(2006년) 설문내용	31
<표 II-2> 진로교육지표조사 구성 요소	34
<표 II-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 내용	36
<표 III-1>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1차안)	44
<표 III-2>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명단	45
<표 III-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46
<표 III-4>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47
<표 III-5>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분석 결과	48
<표 III-6> 각 하위요소의 문항 타당성 분석결과	49
<표 III-7>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수정된 내용	58
<표 III-8>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59
<표 III-9>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59
<표 III-10>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분석 결과	60
<표 III-11> 각 하위요소의 문항 타당성 분석결과	61
<표 III-12>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	69
<표 III-13>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	71
<표 III-14>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 모델의 적합도 지수	73
<표 III-1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83
<표 III-16> 「진로와 직업」 교과영역의 영역 및 내용요소	84
<표 III-17>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85
<표 III-18>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최종안	87
<표 IV-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표집틀	91
<표 IV-2> 목표표본 수	92
<표 IV-3>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92
<표 IV-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93

<표 IV-5>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 수	93
<표 IV-6> 조사대상자 현황	96
<표 IV-7>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항목에 따른 조사내용	97
<표 V-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03
<표 V-2>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104
<표 V-3>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105
<표 V-4> 많은 돈을 버는 것	106
<표 V-5>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	107
<표 V-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108
<표 V-7>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109
<표 V-8>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110
<표 V-9>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111
<표 V-10>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2
<표 V-11>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3
<표 V-12>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114
<표 V-13>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115
<표 V-14>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116
<표 V-15>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	117
<표 V-16>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118
<표 V-17>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19
<표 V-18> 돈(자본)/재산	120
<표 V-19> 근면함과 성실성	121
<표 V-20>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122
<표 V-21> 인맥	123
<표 V-22> 좋은 성품	124
<표 V-23> 자기 개발	125
<표 V-24> 운이나 요행	126
<표 V-25> 가정배경	127

<표 V-26> 학벌	128
<표 V-27> 뚜렷한 목표의식	129
<표 V-28>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130
<표 V-29> 진로·직업태도의 문항별 및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132
<표 V-30>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별 차이 분석	133
<표 V-3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	134
<표 V-3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135
<표 V-3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36
<표 V-3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137
<표 V-3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	138
<표 V-3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139
<표 V-3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140
<표 V-3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	141
<표 V-3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42
<표 V-4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	143
<표 V-4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46
<표 V-42>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147
<표 V-43>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147
<표 V-4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148
<표 V-45>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148
<표 V-46>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149
<표 V-47>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149
<표 V-48>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50
<표 V-49>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150

<표 V-5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51
<표 V-51>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51
<표 V-5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52
<표 V-53>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	153
<표 V-54>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154
<표 V-55>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155
<표 V-56>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156
<표 V-57>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157
<표 V-58>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	158
<표 V-59>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159
<표 V-60>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0
<표 V-61>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161
<표 V-62>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2
<표 V-63>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63
<표 V-64>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4
<표 V-65>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65
<표 V-66>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166
<표 V-67>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167
<표 V-68>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에 대한 지표 항목 별 평균과 표준편차	168
<표 V-69>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169
<표 V-70>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170
<표 V-71>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171
<표 V-72>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172
<표 V-73>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173
<표 V-74>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74
<표 V-75>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75
<표 V-76>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176

<표 V-77>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177
<표 V-78>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78
<표 V-79>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79
<표 V-80>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79
<표 V-81>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0
<표 V-82>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180
<표 V-83>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181
<표 V-84>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181
<표 V-85>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182
<표 V-86>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3
<표 V-87>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4
<표 V-88>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5
<표 V-89>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186
<표 V-90>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187
<표 V-91>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188
<표 V-92>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89
<표 V-93>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90
<표 V-94> 진로박람회(엑스포)	191
<표 V-9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191
<표 V-96>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192
<표 V-97>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2
<표 V-98>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193
<표 V-99>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194
<표 V-100> 진로박람회(엑스포)	195
<표 V-101>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196
<표 V-102>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197
<표 V-10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8
<표 V-10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199

<표 V-105>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00
<표 V-106> 진로준비행동	205
<표 V-107>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06
<표 V-10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다	207
<표 V-109>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 램을 본 적이 있다	208
<표 V-1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209
<표 V-111>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210
<표 V-112>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 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211
<표 V-113>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 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212
<표 V-114>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3
<표 V-115>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214
<표 V-116>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215
<표 V-117>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19
<표 V-118>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220
<표 V-119>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222
<표 V-120>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223
<표 V-121>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224
<표 V-122> 아르바이트 시급	226
<표 V-12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228
<표 V-124>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첫 번째+두 번째)	230
<표 V-125> 아르바이트 구한 방법	231

<표 V-126>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233
<표 V-127>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234
<표 V-128>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235
<표 V-129>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236
<표 V-130>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237
<표 V-13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238
<표 V-132>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239
<표 V-133>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40
<표 V-13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241
<표 V-135>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242
<표 V-136>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243
<표 V-137>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244
<표 V-138> 지난 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245
<표 V-139>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246
<표 V-140>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247
<표 V-141>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248
<표 V-142>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249
<표 V-143>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별 및 지표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253
<표 V-144>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 분석	254
<표 V-145>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5
<표 V-146>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6
<표 V-147>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7
<표 V-148>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8
<표 V-149>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59
<표 V-150>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60
<표 V-15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261
<표 V-152>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 지 알고 있다	262

<표 V-153>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263
<표 V-154>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264
<표 V-155>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65
<표 V-156>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66
<표 V-157>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267
<표 V-158>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68
<표 V-159>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69
<표 V-160>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270
<표 V-16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271
<표 V-162>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72
<표 V-163>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 정할 것이다	273
<표 V-164>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274
<표 V-165>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275
<표 V-166> 진로직업 선택 시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출처(첫 번째+두 번째)	279
<표 V-167> 진로·직업 관련 정보원(첫 번째+두 번째)	281
<표 V-168> 중학교 졸업 후 계획	282
<표 V-169>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283
<표 V-170> 나의 장래 희망직업(직업 분야별)	285
<표 V-171>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직업 분야별)	287
<표 V-172> 나의 장래 희망직업(세부 직업별)	289

<표 V-173>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세부 직업별)	291
<표 VI-1> 조사대상의 학년별·성별 분포	306
<표 VI-2> 하위 척도별 문항 번호 및 내적 합치도 계수	307
<표 VI-3> 내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308
<표 VI-4> 외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309
<표 VI-5>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310
<표 VI-6> 성공요인에 대한 외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310
<표 VI-7> 진로 의사 결정성의 학년별 차이	311
<표 VI-8> 진로 의사 결정 확신성의 학년별 차이	311
<표 VI-9> 진로 의사 결정 준비성의 학년별 차이	312
<표 VI-10> 진로 의사 결정 독립성의 학년별 차이	312
<표 VI-11> 진로 정보 탐색 행동의 학년별 차이	313
<표 VI-12> 진로 개발 준비 행동의 학년별 차이	313
<표 VI-13> 진로 준비 행동 전체의 학년별 차이	314
<표 VI-14> 자기 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314
<표 VI-15> 직업 세계 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315
<표 VI-16>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315
<표 VI-17> 진로·직업 역량 수준의 학년별 차이	316
<표 VI-18> 진로 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 발달 수준 차이	317
<표 VI-19> 연구 대상 현황	330
<표 VI-20> 변인 설명 및 분석 방법	331
<표 VI-21> 성별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2
<표 VI-22> 학교 급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2
<표 VI-23>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3
<표 VI-24> 거주지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3
<표 VI-25> 경제 여건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3
<표 VI-26> 부모 학력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4
<표 VI-27> 부모 직업 여부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335

<표 VI-28> 과목별 학업 성취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35
<표 VI-29>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개발 역량	336
<표 VI-30> 진로 정보 수집 방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37
<표 VI-31> 직업 가치 문항 별 평균	338
<표 VI-32> 직업 가치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38
<표 VI-33> 직업생활에서의 성공 요인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39
<표 VI-34> 학교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0
<표 VI-35>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1
<표 VI-36> 학교 진로교육 관련 장애 문항 별 평균 및 순위	342
<표 VI-37> 가정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3
<표 VI-38> 가정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4
<표 VI-39> 기관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4
<표 VI-40> 기관 진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5
<표 VI-41>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6
<표 VI-42> 아르바이트 체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346

그림 목차

[그림 III-1]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측정모형(표준화 계수)	73
[그림 III-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과정	86
[그림 V-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103
[그림 V-2]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104
[그림 V-3]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105
[그림 V-4] 많은 돈을 버는 것	106
[그림 V-5]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107
[그림 V-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108
[그림 V-7]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109
[그림 V-8]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110
[그림 V-9]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	111
[그림 V-10]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2
[그림 V-11]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3
[그림 V-12]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114
[그림 V-13]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115
[그림 V-14]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116
[그림 V-15]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117
[그림 V-16]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118
[그림 V-17]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119
[그림 V-18] 돈(자본)/재산	120
[그림 V-19] 근면함과 성실함	121
[그림 V-20]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122
[그림 V-21] 인맥	123
[그림 V-22] 좋은 성품	124
[그림 V-23] 자기개발	125

[그림 V-24] 운이나 요행	126
[그림 V-25] 가정배경	127
[그림 V-26] 학벌	128
[그림 V-27] 뚜렷한 목표의식	129
[그림 V-28]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130
[그림 V-29] 진로·직업 태도의 문항별 평균	132
[그림 V-30]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34
[그림 V-3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135
[그림 V-32]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36
[그림 V-33]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37
[그림 V-34]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38
[그림 V-3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139
[그림 V-36]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140
[그림 V-37]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41
[그림 V-38]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42
[그림 V-39]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43
[그림 V-40]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46
[그림 V-4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153
[그림 V-42]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154
[그림 V-43]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155
[그림 V-4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156
[그림 V-45]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157
[그림 V-46]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158

[그림 V-47]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159
[그림 V-48]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0
[그림 V-49]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161
[그림 V-5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2
[그림 V-51]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63
[그림 V-5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64
[그림 V-53]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65
[그림 V-54]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166
[그림 V-55]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167
[그림 V-56]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에 대한 지표 항목 별 평균 비교	168
[그림 V-57]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169
[그림 V-58]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170
[그림 V-59]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171
[그림 V-60]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172
[그림 V-61]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173
[그림 V-62]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74
[그림 V-6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75
[그림 V-64]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176
[그림 V-65] 진로·직업관련 기자재가 필요하다	177
[그림 V-66]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78
[그림 V-67]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182
[그림 V-68]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3
[그림 V-69]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4
[그림 V-70]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85
[그림 V-71]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186
[그림 V-72]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187
[그림 V-73]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188

[그림 V-74]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89
[그림 V-75]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190
[그림 V-7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194
[그림 V-77] 진로박람회(엑스포)	195
[그림 V-78]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196
[그림 V-79]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197
[그림 V-80]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8
[그림 V-81]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199
[그림 V-82]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00
[그림 V-83] 진로준비행동	205
[그림 V-8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06
[그림 V-8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다	207
[그림 V-86]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 램을 본 적이 있다	208
[그림 V-87]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209
[그림 V-88]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210
[그림 V-89]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211
[그림 V-90]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 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212
[그림 V-91]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3
[그림 V-92]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214
[그림 V-9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 물 등을 읽어 보았다	215

[그림 V-94]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19
[그림 V-95]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220
[그림 V-96]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221
[그림 V-97]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223
[그림 V-98]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224
[그림 V-99]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학년별)	225
[그림 V-100]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전체,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	225
[그림 V-101] 아르바이트 시급(전체, 성별, 교급, 거주지별)	226
[그림 V-102] 아르바이트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227
[그림 V-103]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첫 번째+두 번째)·	229
[그림 V-104] 아르바이트 구한 방법	231
[그림 V-105]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232
[그림 V-106]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234
[그림 V-107]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235
[그림 V-108]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236
[그림 V-109]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237
[그림 V-11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238
[그림 V-111]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239
[그림 V-112]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40
[그림 V-113]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241
[그림 V-114]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242
[그림 V-115]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243
[그림 V-116]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244
[그림 V-117] 지난 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	245
[그림 V-118]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전 적이 있다	246
[그림 V-119]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	247
[그림 V-120]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248
[그림 V-121]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249

[그림 V-122] 진로·직업 역량의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252
[그림 V-123]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5
[그림 V-124]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6
[그림 V-125]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7
[그림 V-126]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58
[그림 V-12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59
[그림 V-128]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60
[그림 V-129] 나는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261
[그림 V-130]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 는지 알고 있다	262
[그림 V-131]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263
[그림 V-132]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264
[그림 V-133]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65
[그림 V-134]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 후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66
[그림 V-135] 진로 결정하기 전 사람들의 의견 듣고 생각할 것이다 ..	267
[그림 V-136]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68
[그림 V-137] 직업 지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69
[그림 V-138] 직업을 알아 볼 때 그것이 내 성격, 흥미와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270
[그림 V-139]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271
[그림 V-140] 직업이 요구하는 학력 및 자격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72
[그림 V-141]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	273
[그림 V-142]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274
[그림 V-143] 진로결정에 대해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275
[그림 V-144] 진로·직업 선택 시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출처(첫 번째+두 번째)	278
[그림 V-145] 진로·직업 관련 정보원(첫 번째+두 번째)	280
[그림 V-146] 중학교 졸업 후 계획	282

[그림 V-147]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283
[그림 V-148] 나의 장래 희망직업(직업 분야별)	284
[그림 V-149]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직업 분야별)	286
[그림 V-150] 나의 장래 희망직업(세부 직업별)	288
[그림 V-151]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세부 직업별)	2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거로서, 향후 청소년정책수립의 방향설정은 물론 청소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1993년 청소년 지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4년과 1997년 총 3회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는 행정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과 지표 체계에 맞추어 수집된 통계 자료를 재구성 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설정하고,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조사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3년도에 ‘청소년개발지표(youth development indicators)’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지표의 개발 배경은 2003년에 진행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과학화·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이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2003년도에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003년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지표의 구성 체계 및 개별지표 항목(총 244개)을 산출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의 다섯 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6년 연구에서는 2005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에 대한 타당화

작업과 2004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를 토대로 각 지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 연구에서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은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 통계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생산해온 청소년 통계는 1~2년의 단발적인 비정기 실태조사나 기초 지표개발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발성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이나 표집방법, 조사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한 측면에 대한 단순한 실태를 조사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정책의 전 영역에 대한 조망이 어려웠고, 조사 변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2006년도 연구에서는 2005년도에 개발된 측정도구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시되었던 결과부문 측정영역에 대한 문항의 적절성, 내적일관성, 각 영역의 요인구조 등의 문제점을 수정·보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과부문 각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표개발과정을 통해 확정된 지표체계에 따라 2007년도와 2008년도 조사에서는 배경(9개 지표항목), 투입(9개 지표항목), 과정(54개 지표항목), 결과(11개 지표항목)에 대한 총 83개 지표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고, 결과부문 5개영역(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 총 17개 지표항목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지표개발과정을 거쳐 완성된 청소년 발달지표 각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의 의의와 결과부문 측정도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발달지표에 대한 제한점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청소년 발달지표의 경우 최초 개발 당시 전통적으로 교육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 분석적 접근법(system analysis approach)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청소년 발달지표의 근간이 된 2003년도 청소년 개발지표의 경우 Benson & Satio(2001)의 체제 분석적 접근방법을 청소년 개발의 이론적 개념 틀로 설정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 개발의 이론적 개념들을 크게 배경부문, 투입부문, 긍정적 발달 촉진요인 그리고 결과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배경부문에는 청소년 개발의 투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배치하고, 투입부문에는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 등의 청소년 발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setting)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발달지표의 과정부문에 해당하는 긍정적 발달 촉진요인은 향후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자산(asset)들로서 여기에는 소속감, 연대성, 지지획득, 정체감, 효능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부문은 청소년개발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단기적, 장기적 결과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체제 분석적 접근법을 근거로 개발된 청소년 발달지표의 경우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를 배경, 투입, 과정으로 분류하고 청소년 발달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목적을 5가지의 측정영역(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표체계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지표체계에 있어 투입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체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에서 한 개인이 투입과 과정 및 결과로 이어지는 순환적 체계의 조사대상으로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투입,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지표항목도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 각 영역의 조사내용이 서로 관계가 없는 각 지표항목의 단순한 통계치 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결과부문은 핵심영역 단위별로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을 조사하여 측정한다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대한 태도나 의식만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의 시급성, 시의성 및 정책적 활용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결과부문에 해당되는 지표영역의 경우 청소년 발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제한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기본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지표 각 영역에 대한 기존의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발된 지표항목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지표개발과정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조사에서는 청소년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진로·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에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의 4년차 연구이다. 이 절에서는 2006년도부터 진행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해 각 연구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2006년도)

- 체제 분석적 관점에서 청소년 발달체제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제 현상을 수량화하여 집약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로 제시함.
-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자료가 없는 청소년 발달의 결과부문 16개의 지표항목은 새로운 조사를 통해 개발·확정하고 그 외 청소년 발달의 배경, 투입, 과정 단계의 83개의 지표항목은 기존의 원천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총 99개의 지표항목으로 제시함.
- 문헌검토 및 연구진회의 그리고 외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2005년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최종 측정도구를 생산함.
- 한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2000여명을 확률 표집하여 최종 확정된 발달부문 결과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5년도에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측정 속성들을 보여주었음.
-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발달의 배경-투입-과정-결과를 종합한 청소년 발달종합지표체계가 완성됨.
- 2006 한국청소년발달종합지표는 현존하는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 및 새롭게 생산된 조사 자료들을 배경-투입-과정-결과의 흐름 속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청소년들의 환경, 생활, 의식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총체적 모습을 가늠할 수 있음.

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2007년도)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항목별 통계 Meta Data Inventory 구축(100개 항목)하였고,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의 체계와 항목(기존 원천통계수집 83개 항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함.

- 2007년 새로운 조사를 통한 결과지표에 대해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전국 표집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 발달의 결과부문 17개의 지표항목은 새로운 조사를 통해 개발·확정하고 전국 청소년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엄정한 표집과 자료의 정선을 거쳐 최종 결과를 생산함.
- 조사모집단의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내용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됨. 먼저 조사대상의 확대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둘째, 2007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확대를 통해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의 한 유형인 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의 구축을 통한 추세분석(trend study)과 생애집단(cohort study) 연구를 가능케 해줌.
- 또한 2007년도 청소년들의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정의적, 직업적 특성과 역량들이 연령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횡단적 분석과 동시에 동일 cohort 청소년들의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특성과 역량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까지 가능케 해 줌.

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2008년도)

- 발달지표 배경, 투입, 과정 부문 83개 지표항목의 원천통계를 수집하였고,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의 3개년도 자료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대한 17개 지표항목에 대해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지표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체제 분석적 방법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계

속되고 있으며, 결과부문 지표항목의 정책적 실효성의 문제로 새로운 지표항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적·정책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청소년 문화적 자본과 관련하여,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음. 또한 2007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였음.
-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 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한 신규 통계의 수요 분석, 기존 통계와 신규 수요 통계와의 중복 문제 등을 검토·분석 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 2008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에 근거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항목에 대한 자료수집과 실제 조사를 통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음. 또한 현행 지표체계의 제한점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지표조사에 대한 계획과, 지표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4)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연구내용

청소년 지표의 연구목적인 개별지표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들이 향후 정부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청소년 관련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료(raw data)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간의 조사결과는 각 조사의 목적에 따라 설문문항이나 표집방법, 조사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진행되어온 지표들은 객관적인 사실과악 위주의 지표개발과 행정통계 중심의 결과제시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정책적 방향의 사회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태도 등 주관적 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의 제1권에서는 청소년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역 중 청소년의 진로·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 및 실제 행위를 파악하여 이 영역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 수립과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9년도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를 중심으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개발

청소년 지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영역의 설정과 세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의 구성과 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발된 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문항이해도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개발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청소년 지표 전국 설문조사

개발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설문문항을 토대로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기법을 활용하여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결과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과 관련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조사결과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후, 각 영역별 현안에 대해 요구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지표 영역의 설정과 세부 문항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개발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은 진로·직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6명, 진로·직업 관련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3명, 통계담당공무원 2명, 진로담당 중·고교 교사 2명 등 총 1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3) 예비조사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해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각 2개씩을 표집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조사대상자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4) 전국 단위 표본조사 실시

청소년 지표에 대한 전국 단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표본 수는 중·고등학생 약 6,509명이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5) 기타 연구추진 방법

○ 정책협의회 -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과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방향의 설정과 주요연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워크숍 - 조사결과에 대한 영역별 정책 방향의 설정과 제언을 위해 학계, 공무원 및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현지조사(출장) -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및 연구진회의를 통해 확정된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진이 예비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설문내용과 설문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수정 조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 및 직업관련 개념의 이해
2. 청소년 진로지도의 필요성 및 목적
3. 학교에서의 청소년 진로지도의 중요성
4.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와 내용
5. 선행연구 고찰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및 직업관련 개념의 이해

진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기 이전에 우선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용어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상위개념인 ‘진로(career)’라는 말은 한 개인이 생애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김계현, 1995). 그런데 진로라는 용어는 매우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커리어란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축적해 놓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면서 과거적인 뉘앙스가 녹아 있다. 이에 더하여 커리어는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행로’라는 말도 들어있는 미래지향적인 용어이기도 하다(진미석, 1999).

둘째, ‘직업(vocation)’이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을 의미한다. 한국직업사전(중앙고용정보원, 2003)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계속적이라 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하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중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은 각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목표에 접근해 가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 최근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인데, 이는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총칭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여기에서는 항상 교육적 작용이 중시된다.

다섯째,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란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형식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이와 유사하게 이무근(1999)도 직업교육을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재의 직무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섯째, 진로지도를 위한 수단의 하나인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진로계획, 진로·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적응, 진로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ing)’은 선택 가능한 직업의 결정, 각 직업의 조건들, 취업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취업을 돕는 활동을 지칭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직업상담 전문가 지칭 ‘직업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설정하여 시행에 옮기고 있다. 진로상담의 한 부분으로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학상담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선택, 계열선택, 학과선택 등을 돕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일곱째,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되는 ‘진로지도(career guidance)’란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애동안 그들의 진로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자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이 여러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로서 진로계획, 의사결정, 적응문제 등을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 진로지도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논거는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결정과 선택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창(1994)은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진로결정을 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1)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2) 부모위주의 진로결정, (3)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4) 왜곡된 직업의식, (5)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장석민(1997)은 ‘개인 발달적 측면’에 관련된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1) 적성과 능력을 포함한 자아특성의 발견과 계발, (2)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3)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 및 태도 육성, (4) 진로선택의 유연성과 다양성 제고, (5) 능동적 진로개척 능력과 태도의 육성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진로지도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적재적소의 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학생 개인’의 측면에 비중을 두면서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진로지도

청소년기는 흔히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로 일컬어진다. Erikson(1963)에 따르면 발달상 이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개인이 아동기에 이루어 놓은 동일시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아탐색을 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인 정체감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때 맞게 되는 위기는 역할의 혼미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고 불리 운다. 그는 이 시기에 형성되는 새로운 자기인식은 어린 시절의 장난기나 치기어린 도전적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생을 헌신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Erikson은 진로의 선택과 한 직업에의 헌신이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Piaget(1969)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단계의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단계의 사고로의 전환은 대략 12세경에 시작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반에는 문제해결과 계획을 세우는 일 등이 상당히 비체계적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설 설정은 물론 추상적인 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과 더불어 정신적인 조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획득한다. 이 단계가 되면 여러 상황에서 자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성인들의 직업세계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에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전제로 한 진로지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지도를 통하여 분명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은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물론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진로지도

현대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진로지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노동시장 역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1,000여 개의 새 직종이 생겨났고, 300여 개의 직종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새로 개정된 『한국직업사전』 2판에 따르면 1995년 말 현재 국내 직업의 종류는 모두 11,537개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 1986년 발간된 1판에 비해 1,086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물론 그중 일부는 직업분류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직업들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연구원, 인공위성 개발원, 초전도 연구원, 행사 도우미, 이미지 관리인 등이 새로 생겨난 대표적인 직업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직업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반면 300여 종의 직업은 자취를 감추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 안내원, 타자수, 활판 인쇄원, 합성고무 건조원 등은 이제 직업사전에서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요즈음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치 아래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들은 시장경제의 논리,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등인데, 이들은 모두 ‘경쟁력 향상’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업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둔 대부분의 예비 직업인들은 이력서 한 번 제대로 내밀어 보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 평생직장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 평생 직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47%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5~10년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진로상담

진로지도의 맥락에서 본다면 대학입시는 일단 ‘진학상담’과 관련된다. 그리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입시는 중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변해 왔다. 대학입시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목적은 ‘교육의 정상화’에 있었다. 그러나 그 목적의 달성에는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해 전형을 다

양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9년도에 신설된 대학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전형’, ‘기초학문육성’, ‘미래과학자전형’ 등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대학이 입학사정 전문가(Admission Officer)를 채용, 지원자의 성적·개인의 환경·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평가기준이 성적에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므로 ‘점수 올리기’ 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각 대학이 자유롭게 전형절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모로 ‘새 시대에 걸맞은 대입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내용의 입시기준은 수능·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가정환경·리더십·특기·소질·국외이주 경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대학 입시는 ‘대학별 자율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학의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새 대학입학 제도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제도에 적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제도에서보다도 진로준비와 진로선택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는 새 대학입학 제도의 내용을 면밀히 숙지하고 그에 상응한 진로지도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 학교에서의 청소년 진로지도의 중요성

1) 학생들의 고민사항으로서의 진로문제

학교에서의 청소년 진로지도가 왜 중요한가는 먼저 자신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연도에 관계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원식, 1985;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1).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고민사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러 연구들은 그들의 고민사항 중 ‘진로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난 ‘성적문제’ 역시 진로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진로문제는 중등학생 시절을 지나 대학생이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받으려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대학생활문화원을 찾아온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복수응답을 허용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업 및 진로문제’로 나타났고, 정서적 문제, 교우관계 문제, 성격문제, 이성 및 성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6).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고민을 조사한 결과 적성 및 진로문제, 학업문제, 학자금 및 경제문제, 대인관계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7).

2) 교실붕괴와 진로지도의 문제

교육 붕괴 혹은 교실붕괴라는 것이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나병현, 2001). 일본에서는 교실붕괴라는 말보다는 교실판괴(教室破壊)라는 말로 이러한 현상을 요약하고 있다. 교실판괴란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떠들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거나,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 뒤에서 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며,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학습도구를 가져오지 않는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현상을 지칭한다(우마코시 토오루, 2001). 이는 우리가 지칭하는

교실붕괴와 같은 개념이다.

교육 붕괴 혹은 교실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쯤 교실붕괴가 왜 일어날까 하는 것을 붕괴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교실붕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교육내용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학습동기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소한 의미를 부여한 점이 없지 않다. 즉 지식교육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 지식교육 자체의 비판으로 잘못 확대된 느낌이 짙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을 편파적으로 강조하다보니 그러한 견해가 더욱 지배적으로 흘러간 것이다. 아마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내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통기본교육의 내용은 충분히 체득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사의 진로지도능력이 전문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향상된다면, 그것이 곧 붕괴되어가고 있는 교육을 정상으로 되살리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진로교육의 탄생배경과 진로지도의 문제

미국에서 ‘진로교육’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에 미국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이무근, 1999). 특히 학교교육은 일의 세계와의 연관성이 미흡하였다. 즉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일의 세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

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결정의 방법,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일에 관한 태도를 기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모두 학교에서 학습이 요구되었던 내용과 학교를 떠난 후 무엇을 할 것인가의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학교교육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학교교육을 마치고 떠나는 졸업생들 중 급변하는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상과 같이 미국이 당면하고 있었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제기된 것이 진로교육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도 여기에서 분석된 미국의 당시 현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에 관련된 교사의 능력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와 내용

1)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

(1)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증진

Parsons(1909)가 특성요인 이론을 제안한 이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첫 번째 요체로 상정되어 온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올바른 이해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이해란 보다 정확한 이해, 객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일과 직업세계에 관련된 올바른 자기인식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종류도 수없이 많아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전문화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의 내용도 복잡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직업세계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성

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다.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이러한 자기이해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개인적 측면에서 진로지도의 또 다른 목적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래 세계는 급속하게 산업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전문화,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2만~3만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이에 버금가는 직업의 종류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미래 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머지않아 현존하는 직업의 50% 정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며, 존속하는 직종의 경우도 일의 방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 없이 진로 혹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들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단편적인 측면만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직업세계의 다양한 측면과 변화양상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진로지도의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진로지도의 최종 결과는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떤 ‘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된 자신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진로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능력발휘의 기회, 거주지, 친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Tolbert, 1980).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매우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일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편견에 의해서,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 다른 외적인 욕구를 추구하다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Gelatt(1962)는 진로지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결정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4)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현대사회를 일컬어 ‘지식 및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보화 시대를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가공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서는 ‘정보제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직업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서 선택을 하도록(informed choice)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상담자는 단순히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일도 해야 하지만, 학생 내담자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 이는 교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교사 혼자서 그 많은 직업정보를 수집해서 학생이 원하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해 주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행에 옮겨보도록 안내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진로정보 탐색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다.

(5)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

진로지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는 성장하는 동안에 이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겠지만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내용은 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이란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직업은 생계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을 천시하거나 싫어하는 풍조를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된 원인의 하나도 따지고 보면 직업을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돈과 권력, 혹은 명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보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전통적인 직업의식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지위 지향적 직업관, 직업에 대한 전통적 귀천의식, 블루 칼라직에 대한 천시풍조, 화이트 칼라직에 대한 지나친 선호경향 등은 고쳐져야 할 가치관 또는 태도라고 판단된다.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이 갖는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로지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창(1997)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일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직업 자체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통하여 이상과 같은 직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진로지도의 내용

앞에서 살펴본 진로지도의 목표는 모든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맥락적으로 본다면 위의 목표들이 곧 진로지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로지도의 주안점과 필요점, 그리고 방법론이 학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직업선택에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 및 기능의 습득,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역할의 유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그리고 협동적인 사회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세의 함양 등을 들 수 있다. Super(1953)의 진로발달 단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환상기와 흥미기에 해당된다. 즉 진로결정에 있어서 욕구가 지배적이고 환상적인 역할 연출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아동의 취향이 개인의 목표와 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초등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할 때 저학년에서는 형식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예컨대 견학, 시뮬레이션, 시범,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의 상영 등으로 어린이들이 가능한 한 직접 보고, 만지고, 행동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지도방법을 활용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다가 고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학교

중학교 시절은 진로탐색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특히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결정 기술을 확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강조되던 일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과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을 기하고, 직업정보 및 탐색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워보도록 도와준다. Zunker(1999)도 중학교 진로지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술의 증진, 자아개념을 교육 및 직업적 목표와 연계시키는 일, 학생의 장점과 능력을 다루는 일, 직업탐색 등의 네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초등학교 때보다 좀 더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가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방법에 비해 구체적인 것이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개인별로도 실시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토의나 집단 상담을 이용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또한 모든 교사가 담당교과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도하는 진로지도의 목적과 관계되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학습내용과 관련지으면서 지도할 때 보다 실제적인 진로지도가 될 수 있다.

(3) 고등학교

진로발달 이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는 잠정기와 전환기에 해당된다. 학생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이 환상, 논의, 교과, 일 등을 통해서 시도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현실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계획은 잠정적인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면하게 될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직업포부, 중요한 타인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탐색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계속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세계에 입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학지도와 취업지도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방법은 중학교에서 실시하던 방법 이외에 진학을 위한 상급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동 하에서의 연계 강화 혹은 취업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학협동 방안을 실현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5. 선행연구 고찰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실태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한국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의 개요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1)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각 단계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 청년패널조사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② 조사 대상

청년패널조사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만 15~29세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이다. 청년패널은 2001년 실시된 예비조사에서 청년층 8,296명에 대한 자료 수집을 출발로 2차 조사에서는 1차년도 예비표본 중 5,956명을 패널원 표본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06년 6차 조사에서는 4,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청년패널조사는 크게 가구용 조사와 개인용 조사로 나누어지며, 개

인용 조사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용 조사의 경우 청년패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는 4차년도 이후에 조사 대상이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6차년도 조사에서 2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조사 방법

청년패널의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 타개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구용 설문지의 경우는 가구에 유치하거나 타인이 대리 응답하는 일이 없이 가구주 및 그의 배우자가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용 설문지는 개별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할 때는 설문지를 가구에 유치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2) 조사 내용

청년패널조사의 6차년도 설문 중 가구용 설문 문항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소득 및 주택소유 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용 설문은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년패널 6차년도(2006년) 설문내용

구분	설문 내용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아르바이트 경험 ○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 경로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대학생 및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아르바이트 경험 ○ 교육평가(15개 능력의 중요척도, 고등학교 교육의 각 능력별 도움 여부) ○ 사교육, 취업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 경로 등)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패널 조사의 6차년도 개인용 설문내용 가운데 진로와 관련된 항목은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취업준비, 진로지도(상담) 경험 등이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도 고등학생과 동일한 항목들을 묻고 있다.

청년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들의 진로와 관련된 현상들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널 조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청년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널들의 진로 관련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학교 급별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지표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교육지표조사는 학교현장의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진로교육 촉진을 위해 진로교육 지원체제, 지원 서비스 내용, 그리고 성과 등의 총체적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지연과 정윤경(2006)의 ‘진로교육 지표개발’ 연구를 토대로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오호형, 이지연, 윤형한, 2007).

② 조사 대상

진로교육지표 조사는 학교전수조사와 학생표본조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전수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단위 조사이고, 학생표본조사는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급별 선정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전수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152개교, 중학교 1,892개교, 고등학교 1,471개교, 특수학교 81개교, 전문대학 110개교, 4년제 대학 141개교로서 총 6,847개교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표본조사의 경우 초등학생 4,565명, 중학생 4,441명, 고등학생 6,972명, 전문대학생 399명, 4년제 대학생 401명으로 총 16,77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③ 조사 방법

진로교육지표조사는 웹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교조사의 경우는 웹기반으로 작성된 설문내용에 대해 해당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1인이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대상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체가 학교 내 컴퓨터실에서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집단으로 웹 베이스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 조사 내용

진로교육지표조사는 체계접근 분석 모형에 따라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의 각 영역을 학생수준(개인수준), 학교수준(조직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수준과 관련하여 당초 이지연과 정윤경(2006)의 “진로교육 지표개발”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지표 조사 수준을 국가수준(시·도교육청 수준과 중앙정부 수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을 포함하여 3가지 차원(국가, 학교, 학생 수준)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국가수준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누가 응답하였는지 파악이 용이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진로교육지표조사 구성 요소

구분	투입	과정	산출
개인수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학생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 진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만족도 ○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학교수준 (각급 학교 및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시행계획수립 ○ 전문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확보 ○ 진로지도를 위한 시설, 예산, 시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 일 체험 지원 ○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 정보 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및 취업 ○ 진로교육 관련 실적

진로교육지표조사의 경우는 청년패널조사에 비해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지표조사의 경우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 및 현황 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급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함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9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9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물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a).

② 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생 패널의 경우 2004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표본으로 뽑힌 2,9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a). 한편 중학교 2학년생 패널의 경우 2003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표본으로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 및 학부모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b).

③ 조사 방법

청소년의 경우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수(4인)의 면접원을 투입하여 집단별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 대상으로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전체 조사 내용은 크게 청소년 대상과 부모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 내용

구분	초등학교 4년생 패널 (3차년도 조사 기준)	중학교 2년생 패널 (4차년도 조사 기준)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는 곳 · 학교명 및 반 · 성별 · 출생 년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는 곳 · 학교명 및 반 · 성별 · 출생 년 월
직업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숙도 · 장래 희망직업 선정 여부 · 장래 희망직업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숙도 · 장래 희망직업 선정 여부 · 장래 희망직업 · 장래 희망직업을 갖고 싶게 된 계기 · 장래 희망직업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 · 희망직업생활의 성공 요인 · 희망직업성취의 중요 요인 · 희망직업성취에 필요한 학력 · 희망직업의 주관적 성취 여부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향후 진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준 ·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 · 향후 진로 설정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의 원인 · 전학, 휴학 및 중퇴 의사 · 향후 진로 설정 · 향후 진로 설정과 관련된 생각 · 진로성숙도 ·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준 ·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 · 향후 진로 설정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 · 향후 진로 설정의 계기
진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 진로준비 활동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르바이트 직종 ·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 · 아르바이트 구직 기준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 경험 정도 · 아르바이트 참여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참여시 부모동의서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직업생활 도움 여부 · 아르바이트의 효과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종목 ·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종목 ·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를 보내는 장소 · 여가 만족도 · 여가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를 보내는 장소 · 여가 만족도 · 여가 제약 · 수련활동 참여 실태 ·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 동아리 활동 참여 실태
일탈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애착 · 부모 감독 · 자아 통제 · 공부 압력 · 선생님 애착 · 학교 친구 애착 · 지역사회 애착 · 지역사회 감독 · 친한 친구와의 접촉 빈도 · 친한 친구 애착 · 친한 친구들의 일탈 경험 · 본인의 일탈 경험 · 본인의 인터넷 일탈 경험 · 일주일 평균 용돈 · 용돈의 출처 · 컴퓨터의 주된 이용 장소 ·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 컴퓨터 이용의 목적 · 휴대전화 보유 여부 · 하루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 · 휴대전화 요금 · 휴대전화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애착 · 부모 감독 · 자아 통제 · 공부 압력 · 선생님 애착 · 학교 친구 애착 · 지역사회 애착 · 지역사회 감독 · 친한 친구와의 접촉 빈도 · 친한 친구 애착 · 친한 친구들의 일탈 경험 · 본인의 일탈 경험 · 본인의 인터넷 일탈 경험 · 한 달 평균 용돈 · 용돈의 출처 · 컴퓨터의 주된 이용 장소 ·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 컴퓨터 이용의 목적 · 휴대전화 보유 여부 · 하루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 · 휴대전화 요금 · 휴대전화 이용 목적
생활영역별 시간배분 및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사람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영역별 시간배분 · 생활영역별 중요도 · 친한 사람의 유형
자아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 낙인 ·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착 · 성역할 정체감 · 자기신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 낙인 ·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착 · 성역할 정체감 · 자기신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 · 신체적 공격성 · 분노 · 정서적 조절감 · 불안·우울·자살충동 · 스트레스(긴장)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지난 1년간 전학 경험 · 유치원 다닌 경험 · 보육기관 및 사교육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 · 신체적 공격성 · 분노 · 정서적 조절감 · 불안·우울·자살충동 · 성역할 정체감 · 스트레스(긴장)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유치원 다닌 경험 · 보육기관 및 사교육 이용 경험
학교와 동네의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범죄피해의 두려움 · 지역사회 범죄피해의 두려움
부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가족구성 형태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부모의 학력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근로형태 · 부모이외 다른가족구성원과의 가족구성형태 · 월평균 가구 소득 · 월평균 사교육비 · 주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가족구성 형태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부모의 학력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근로형태 · 부모이외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가족구성형태 · 월평균 가구 소득 · 월평균 사교육비 · 주거 형태

조사 내용 가운데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사 항목을 보면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이를 위한 진로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발달 단계상 자기탐색과 직업탐색, 진로준비 활동 등이 구체화되고 다양해지는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사 내용을 보면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그 자체의 상황(예: 학교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사교육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 특히 패널조사의 특성상 청소년의 성장 및 학령기 변화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학교나 여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수준, 만족도, 체감하는 도움 정도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내용만 조사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제반 진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
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구성개념

III.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이 장에서는 먼저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지표체계와 지표 타당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요소들에 대한 구성개념과 예시문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 및 지표 타당화

1)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

지표개발의 기본 방향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 개발과 조사과정에서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하였듯이 기존의 조사시점, 조사내용, 조사방식 등이 서로 상이한 행정통계 중심의 자료 수집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 및 실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영역의 설정과 하위문항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의 구성 방식은 먼저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지표체계 1차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개발된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 및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지표체계 중 관심영역은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 경험 및 진로·직업 역량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진로·직업의식 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은 진로·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와 태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진로·직업

경험 영역은 진로교육, 진로준비행동 및 아르바이트 체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진로·직업 역량 영역은 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안된 지표체계 1차안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체계(1차안)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1-2	직업관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1-5	직업위신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2-3-2	일의 종류
		2-3-3	일의 내용
		2-3-4	근로 경험에 대한 일반적 사항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타당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구안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와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2차에 걸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1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1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델파이 방식의 의견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되어야 하며(Murphy & Hammons, 1995), 델파이 집단의 크기가 13명 보다 클 때 신뢰성이 0.80이상이 된다(Breja & Ball, 2003; 안선자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수 6명, 진로관련전문가 3명, 통계담당공무원 2명, 진로상담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의견조사 대상자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현황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의견조사 방식은 진로관련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참여를 의뢰한 후,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III-2>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명단

순번	전문가구분	소속기관
1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경인교육대학교
3		명지대학교
4		나사렛대학교
5		백석대학교
6		고려대학교
7	관련전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한국고용정보원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중, 고교 교사	**중학교
13		**고등학교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영역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명의 의견조사 대상자 모두 응답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응답지를 근거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 세부영역, 하위요소 및 하위요소별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개영역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을 채택하는 방식(Murphy & Hammons, 1995)에 근거해 볼 때 모든 관심영역이 이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또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 일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편차에서도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표준편차가 전체 응답범위의 20%보다 크지 않으면 그 문항의 의견일치도가 높다(고재성, 2006)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관심영역에서 표준편차가 0.8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분석결과

영역	관심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 범위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4.38	0.506	100	4	4	4~5
	2. 진로·직업 경험	4.46	0.660	92.3	5	5	4~5
	3. 진로·직업 역량	4.31	0.751	84.6	4	5	4~5

②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세부영역별 분석결과

세부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4>와 같다. 9개의 각 하위영역 모두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통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4.0 이상의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응답률이 모두 75% 이상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모두 0.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분석결과

관심영역	세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 범위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가치	4.31	0.480	100	4	4	4~5
	1.2 진로·직업태도	4.15	0.689	84.6	4	4	4~5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4.38	0.650	92.3	4	4	4~5
	2.2 진로·직업 준비	4.33	0.778	83.3	4.5	5	4~5
	2.3 진로·직업 체험	4.31	0.630	92.3	4	4	4~5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4.31	0.630	92.3	4	4	4~5
	3.2 진로·직업 지식	4.23	0.599	92.3	4	4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4.23	0.599	92.3	4	4	4~5

③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5>와 같다. 먼저 진로·직업 가치 영역의 경우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요소의 경우 평균이 3.75로 나타났고, 긍정률도 66.7%에 그쳐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며, 1-1-5 직업위신 요소의 경우도 모든 기술 통계치에서 기준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진로·직업 체험 영역에서도 2-3-3 일의 내용 요소가 기준치를 벗어나 추후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요소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④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별 분석결과

각 하위요소에 대한 세부문항에 대한 타당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6>과 같다. 각 하위요소의 세부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토 기준은 평균 4.0 이상, 표준편차 0.80 미만 그리고 긍정률 75% 이상을 만족하는 문항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문항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

구진의 논의를 거쳐 수정 혹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개별 문항이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위개념인 하위요소가 타당하지 않은 요소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표 III-5>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분석결과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앙치	최빈값	사분 범위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4.23	0.599	92.3	4	4	4~5
	1-1-2	직업관	4.25	0.622	91.7	4	4	4~5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u>3.75</u>	0.622	<u>66.7</u>	4	4	3~4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4.33	0.778	83.3	4.5	5	4~5
	1-1-5	직업위신	<u>3.54</u>	<u>0.888</u>	<u>58.4</u>	4	4	3~4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4.23	0.599	92.3	4	4	4~5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4.15	0.689	84.6	4	4	4~5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4.31	0.630	92.3	4	4	4~5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4.23	0.725	84.6	4	4	4~5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4.31	0.751	84.6	4	5	4~5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4.38	0.506	100	4	4	4~5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4.38	0.506	100	4	4	4~5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4.31	0.630	92.3	4	4	4~5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4	0.577	84.6	4	4	4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4.25	0.622	91.7	4	4	4~5
	2-3-2	일의 종류	4.08	0.669	83.3	4	4	4~ 4.75
	2-3-3	일의 내용	<u>3.92</u>	<u>0.900</u>	75.0	4	4	<u>3.25</u> ~ <u>4.75</u>
	2-3-4	근로 이유, 정보원, 효과 등 일반적 사항	4.08	0.669	83.3	4	4	4~ 4.75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4.38	0.650	92.3	4	4	4~5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양치	최대값	사분 범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4.54	0.519	100	5	5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4.54	0.519	100	5	5	4~5

<표 III-6> 각 하위요소의 문항 타당성 분석결과

세부 영역	하위요소	문항 번호	문항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1-1 진로 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54	0.519	100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게 일하는 것	4.08	0.515	91.7
		3	많은 돈을 버는 것	4.38	0.506	100
		4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42	0.669	91.7
		5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4.17	0.718	83.3
		6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일하는 것	<u>3.92</u>	0.793	<u>66.7</u>
		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4.00	0.603	83.3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4.23	0.599	92.3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46	0.660	92.3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46	0.660	92.3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4.31	0.630	92.3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38	0.506	100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4.31	0.630	92.3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31	0.630	92.3
		15	일이 쉬워서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것	<u>3.83</u>	<u>0.835</u>	75.0
	1-1-2 직업관	1	직업은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다	4.50	0.674	91.7
		2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u>3.67</u>	<u>1.155</u>	<u>66.7</u>
		3	남자가 유치원 교사나 미용사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u>3.58</u>	<u>0.996</u>	<u>58.3</u>

		4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지금의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u>3.33</u>	<u>0.888</u>	<u>41.6</u>
		5	직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08	0.793	75.0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1	가족생활	4.25	0.622	91.7
		2	친척관계	<u>3.64</u>	0.505	<u>63.6</u>
		3	여가생활	4.17	0.718	84.6
		4	일	<u>3.91</u>	0.539	81.8
		5	종교	<u>3.55</u>	0.522	<u>54.5</u>
		6	학업 또는 능력개발	<u>3.73</u>	<u>0.905</u>	<u>63.6</u>
		7	친구관계	4.00	0.447	90.9
	1-1-4 직업생활에 서의 성공요인	1	돈(자본)	4.08	0.641	84.6
		2	노력과 성실성	4.38	0.650	92.3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31	0.630	92.3
		4	인맥	4.15	0.689	84.6
		5	좋은 성품	4.15	0.689	84.6
		6	자기개발	4.23	0.725	84.6
		7	운이나 요행	4.23	0.725	84.6
		8	가정배경	4.15	0.689	84.6
		9	학벌	4.31	0.630	92.3
		10	뚜렷한 목표의식	4.31	0.630	92.3
	1-1-5 직업위신	1	운전기사	4.08	0.641	84.6
		2	의사(한의사)	4.15	0.555	92.3
		3	프로운동선수	4.15	0.555	92.3
		4	공무원	<u>3.92</u>	0.793	83.4
		5	건축설계사	4.00	0.577	84.6
		6	교사	4.15	0.555	92.3
		7	약사	4.15	0.555	92.3
		8	프로게이머	4.17	0.577	91.7
		9	성직자	4.17	0.577	91.7
		10	대학교수	4.15	0.555	92.3
		11	자영업자	4.08	0.641	84.6
		12	중소기업 과장	<u>3.92</u>	0.669	75.0
		13	컴퓨터 프로그래머	4.17	0.577	91.7
		14	간호사	4.15	0.555	92.3
		15	대기업 사원	4.17	0.577	91.7
		16	국회의원	4.15	0.555	92.3

		17	경찰관	4.15	0.555	92.3
		18	군인	4.15	0.555	92.3
		19	연예인	4.15	0.555	92.3
		20	농업 종사자	4.00	<u>0.853</u>	83.4
		21	요리사	4.15	0.555	92.3
		22	기자	4.15	0.555	92.3
		23	판사	4.15	0.555	92.3
		24	사회복지사	4.15	0.555	92.3
		25	학원 강사	4.08	0.641	84.6
		26	제조업 근로자	4.00	<u>0.853</u>	83.4
		27	아파트 경비원	4.15	0.555	92.3
		28	가사도우미	4.15	0.555	92.3
		29	학습지 교사	4.08	0.641	84.6
		30	디자이너	4.15	0.555	92.3
1-2 진로 직업 태도	1-2-1 결정성	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4.08	0.641	84.6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4.00	0.577	84.6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4.00	0.707	76.9
	1-2-2 목적성	1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R)	4.15	0.689	92.3
		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한다(R)	<u>3.92</u>	0.669	75.0
		3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R)	<u>3.83</u>	0.718	<u>66.7</u>
	1-2-3 확신성	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4.00	0.577	84.6
		2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4.08	0.641	84.6
		3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u>3.75</u>	<u>0.866</u>	<u>66.7</u>
	1-2-4 준비성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4.00	0.577	84.6
		2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받길 원한다	4.15	0.555	92.3
		3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4.23	0.439	100
	1-2-5 독립성	1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	<u>3.85</u>	<u>0.899</u>	<u>69.3</u>
		2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u>3.92</u>	0.669	75.0
		3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4.08	0.669	83.3

2-1 진로 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1	“진로와 직업” 과목을 이용한 진로교육()	4.23	0.599	92.3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4.08	0.641	84.6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38	0.650	92.3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4.31	0.630	92.3
		5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4.46	0.519	100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4.23	0.725	84.6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23	0.725	84.6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4.46	0.519	100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15	0.689	84.6
		10	진로 정보 관련 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4.25	0.754	83.3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08	0.760	76.9
		12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4.15	0.689	84.6
		13	진로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입니까? 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②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③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 해결 ④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 ⑤ 기타()	4.31	0.751	84.6
		14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⑦ 기 타()	4.31	0.630	92.3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 련 요구도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4.00	0.753	83.4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4.25	0.622	91.7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4.17	0.577	91.7
		4	진로교육 담당교사가 부족하다	3.75	0.754	75.0
		5	교사의 진로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3.83	0.577	75.0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4.15	0.689	84.6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4.15	0.689	84.6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다	4.25	0.622	91.7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1	미래의 삶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4.23	0.725	84.6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4.54	0.519	100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	4.46	0.519	100

	만족도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4.08	0.760	76.9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4.31	0.480	100
		6	가족과 함께 진학할 상급학교 방문 경험	4.08	0.669	83.3
		7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진로활동 만족도	4.08	0.641	84.6
2-2 진로 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 행동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4.54	0.519	100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4.38	0.506	100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38	0.506	100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4.46	0.519	100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4.46	0.519	100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4.46	0.519	100
		7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4.31	0.630	92.3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3	0.599	92.3
		9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4.33	0.651	91.7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4.46	0.519	100
2-3 진로 직업 체험	2-3-1 근로경험 유무	1	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를 ()안에 V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는지 ()안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① 한 번 이상 있다 → ()번 (☞ 문2부터 문12까지 응답하세요) ② 없다 → (☞ 문 로 가시오)	4.25	0.622	92.3
	2-3-2 일의 종류	2	2-3-1번 응답자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장 오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08	0.641	84.6
	2-3-3 일의 내용	3	위의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 () 안에 해당되는 번호나 답을 적어주십시오.	4.08	0.641	84.6

		<table><tr><th>문항</th><th>없다</th><th>한두번</th><th>여러번</th></tr><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1</td><td>2</td><td>3</td></tr><tr><td>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td><td>1</td><td>2</td><td>3</td></tr><tr><td>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td><td>1</td><td>2</td><td>3</td></tr><tr><td>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td><td>1</td><td>2</td><td>3</td></tr><tr><td>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able>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9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① 작성하지 않았다 ② 작성했다	4.42	0.669	92.3																																									
10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했나요? () ① 제출하지 않았다 ② 제출했다	4.42	0.669	92.3																																									
11	귀하가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자신이 향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table><tr><td>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td><td>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td><td>보통이다</td><td>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td><td>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td></tr><tr><td>1-----</td><td>2-----</td><td>3-----</td><td>4-----</td><td>5</td></tr></table>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4.50	0.522	1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12	귀하가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겪게 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의 보기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table><tr><th>문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보통 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tr><td>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tr><td>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tr><td>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tabl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4.25	0.754	84.6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3-1 자기 이해	3-1-1 진로선택에 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 성 들 에 대한 이해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4.38	0.506	100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4.46	0.519	100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안다	4.42	0.669	91.7
		4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4.00	<u>1</u>	84.6
3-2 진로· 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 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4.31	0.630	92.3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안다	4.54	0.519	100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안다	4.46	0.519	100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안다	4.46	0.519	100
		5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안다	4.31	0.630	92.3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안다	4.38	0.650	92.3
		7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안다	4.31	0.751	86.4
3-3 합리적 의사 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 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	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4.38	0.506	100
		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4.31	0.480	100
		3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4.31	0.630	92.3
		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4.38	0.650	92.3
		5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4.54	0.519	100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4.62	0.506	100
		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4.38	0.650	92.3
		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4.31	0.480	100
		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4.31	0.480	100
		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4.08	0.760	76.9

(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영역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 1차 의견조사와 같이 13명의 의견조사 대상자 모두 배부된 의견조사에 응답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구성방식은 먼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타당도 기준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회신한 의견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 영역과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과 세부영역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여 수정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하위요소 중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일의 상대적 가치, 1-1-5 직업위신 등은 기준치 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고, 2-3 진로·직업 체험 영역의 경우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지표의 하위요소가 기준치 범위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하위요소의 각 문항이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하위요소 내용과 유사·중복 되는 요소인 1-1-2 직업관, 1-2-2의 목적성 요소는 삭제하였다.

또한 2-1 진로·직업 교육 영역에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 및 만족도 요소를 추가 하였으며,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각 문항은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회의를 통해 추가로 제시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정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 III-7>과 같다.

①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관심영역별 분석결과

4가지 관심영역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차 의견조사 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즉 중위수, 최빈값 모두 5점을 나타냈고, 평균 점수도 4.5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전문가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점수도 1차 조사 때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가 간 의견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7〉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수정된 내용

관심영역	세부영역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1-1-2	직업관 ▶ 삭제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 삭제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1-5	직업위신 ▶ 삭제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 삭제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추가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2-3-2	일의 종류
		2-3-3	일의 내용
		2-3-4	근로 경험에 대한 일반적 사항
	◆ 4개(2.3.1~2.3.4)의 하위요소를 아르바이트 체험(근로 경험 유무, 종류, 내용 및 일반적 사항 등) 1개의 하위요소로 통합		2-3-1로 통합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표 III-8〉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영역	관심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 범위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4.69	0.480	100	5	5	4~5
	2. 진로·직업 경험	4.62	0.506	100	5	5	4~5
	3. 진로·직업 역량	4.54	0.519	100	5	5	4~5

* 긍정률: 타당성 척도 4.0 이상을 보인 빈도

②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세부영역별 분석결과

세부영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9개의 각 하위영역 모두 관심영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다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모두 기준치인 0.80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일치도가 높았다.

〈표 III-9〉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분석 결과

관심영역	세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 범위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가치	4.62	0.506	100	5	5	4~5
	1.2 진로·직업태도	4.31	0.630	92.3	4	4	4~5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4.54	0.519	100	5	5	4~5
	2.2 진로·직업 준비	4.38	0.650	92.3	4	4	4~5
	2.3 진로·직업 체험	4.62	0.506	100	5	5	4~5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4.62	0.506	100	5	5	4~5
	3.2 진로·직업 지식	4.54	0.660	92.3	5	5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4.62	0.506	100	5	5	4~5

③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10>과 같다. 각 하위요소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구성은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회수된 의견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률이 모두 90% 이상을 보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기준치 범위 안에 속해 타당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III-10>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분석 결과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중양치	최대치	사분 범위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4.54	0.519	100	5	5	4~5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4.62	0.506	100	5	5	4~5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4.31	0.630	92.3	4	4	4~5
	1-2-2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4.38	0.650	92.3	4	4	4~5
	1-2-3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4.38	0.650	92.3	4	4	4~5
	1-2-4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4.46	0.660	92.3	5	5	4~5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4.38	0.506	100	4	4	4~5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4.46	0.519	100	4	4	4~5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4.62	0.506	100	5	5	4~5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작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4.31	0.630	92.3	4	4	4~5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4.23	0.439	100	4	4	4~5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	4.31	0.630	92.3	4	4	4~5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 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4.46	0.519	100	4	4	4~5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 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4.62	0.506	100	5	5	4~5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4.62	0.506	100	5	5	4~5

④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문항별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수치가 낮은 문항(평균 4.0 미만, 긍정률 75% 미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도가 낮은 문항(표준편차 0.80 이상)들에 대해서 해당 문항을 삭제하거나 문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소에 대한 세부문항에 대한 타당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1>과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긍정률이 기준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각 하위요소의 문항 타당성 분석결과

세부영역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1-1 진로 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69	0.480	100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게 일하는 것	4.23	0.439	100
		3	많은 돈을 버는 것	4.54	0.519	100
		4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54	0.660	92.3
		5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4.54	0.519	100
		6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	4.23	0.599	92.3
		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4.31	0.630	92.3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4.54	0.519	100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62	0.506	100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69	0.480	100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4.62	0.506	100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62	0.506	100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4.69	0.480	100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69	0.480	100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4.15	0.689	84.6
	1-1-4 직업생활에	1	돈(자본)	4.38	0.506	100
		2	노력과 성실성	4.54	0.519	100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54	0.519	100
		4	인맥	4.46	0.519	100

	서의 성공요인	5	좋은 성품	4.38	0.506	100
		6	자기개발	4.46	0.519	100
		7	운이나 요행	4.31	0.630	92.3
		8	가정배경	4.46	0.519	100
		9	학벌	4.46	0.519	100
		10	뚜렷한 목표의식	4.46	0.519	100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4.38	0.506	100
1-2 진로 직업 태도	1-2-1 결정성	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4.46	0.519	100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4.23	0.439	100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4.08	0.641	84.6
	1-2-2 확신성	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4.31	0.480	100
		2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4.31	0.480	100
	1-2-3 준비성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4.31	0.480	100
		2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 받길 원한다	4.38	0.506	100
		3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4.23	0.439	100
	1-2-4 독립성	1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4.23	0.439	100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R)	4.00	0.603	83.3
2-1 진로 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1	“진로와 직업” 과목을 이용한 진로교육()	4.38	0.506	100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4.15	0.555	92.3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54	0.519	100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4.38	0.506	100
		5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4.46	0.519	100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4.23	0.599	92.3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46	0.519	100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4.46	0.519	100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31	0.630	92.3
		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4.00	0.408	92.3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23	0.725	84.6
		12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4.38	0.506	100
		13	진로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입니까? 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②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4.38	0.650	92.3

		③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 해결 ④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 ⑤ 기타()				
	14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⑦ 기 타()	4.31	0.630	92.3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 련 요구도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4.15	0.689	84.6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4.31	0.480	100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4.23	0.599	92.3	
	4	진로교육 담당교사가 부족하다	4.00	0.707	76.9	
	5	교사의 진로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4.08	0.494	92.3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4.38	0.506	100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4.38	0.506	100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4.31	0.630	92.3	
	9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4.23	0.599	92.3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1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4.62	0.506	100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4.69	0.480	100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	4.62	0.506	100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4.25	0.754	83.3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4.38	0.506	100	
	6	가족과 함께 진학할 상급학교 방문 경험	4.54	0.519	100	
	7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진로활동 만족도	4.38	0.506	100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체험	1	진로박람회(엑스포) ()	4.08	0.760	76.9	
	2	커리어 스쿨(잡 스쿨) ()	4.15	0.754	84.6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 하는 직업체험 교육 ()	4.15	0.689	84.6	
	4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관련 견학 프로그램 ()	4.38	0.651	92.3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	4.08	0.760	76.9	
2-2 진로 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 행동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 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4.69	0.480	100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4.62	0.506	100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54	0.519	100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4.62	0.506	100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4.54	0.519	100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4.62	0.506	100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4.62	0.506	100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38	0.506	100
		9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4.38	0.650	92.3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4.54	0.519	100
2-3 진로 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	1	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를 ()안에 √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는지 ()안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① 한 번 이상 있다 → ()번 (☞ 문2부터 문12까지 응답하세요) ② 없다 → (☞ 문 로 가시오)	4.38	0.506	100
		2	2-3-1번 응답자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장 오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23	0.439	100
		3	위의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 () 안에 해당되는 번호나 답을 적어주십시오. 1) 언제 시작했습니까? 2) 얼마동안이나 계속했습니까? 3)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약 () 시간 4)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약 () 원	4.23	0.439	100
		4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②부모로부터 독립하기위해 ③학비를 마련하기위해 ④용돈이 필요해서 ⑤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⑥개인적인관심과 흥미 때문에	4.31	0.480	100
			① 지난 겨울방학 중 ② 지난 2학기 중 ③ 지난 여름방학 중 ④ 올해 1학기 중			
			① 1주 이하 ② 1주-1개월 ③ 1개월-3개월 ④ 3개월-6개월 ⑤ 6개월-1년			

			⑦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⑧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⑨기타()																																											
	5	귀하가 한 일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에 번호를 적어주세요(1개밖에 없을 경우, 1개만 응답). 첫 번째 ()두 번째 ()	보 기 1) 보수(돈) 4) 근무환경 7)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8)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9) 부모의 허락여부 10) 기타()	2) 시간적 여유 5) 숙식제공 여부 6) 집과의 거리	3) 나의 적성	4.31 0.480 100																																								
	6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벽보의 구인 광고를 보고 ②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③ 학교를 통해 ④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⑤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⑥ 청소년 단체를 통해 ⑦ 기타()				4.23 0.439 100																																								
	7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음②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보수가 적어서 ④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⑤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⑥집안의 반대로 ⑦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⑧계약기간이 끝나서 ⑨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⑩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⑪기타()				4.23 0.439 100																																								
	8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table><tr><th>문항</th><th>없다</th><th>한두번</th><th>여러번</th></tr><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1</td><td>2</td><td>3</td></tr><tr><td>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td><td>1</td><td>2</td><td>3</td></tr><tr><td>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td><td>1</td><td>2</td><td>3</td></tr><tr><td>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td><td>1</td><td>2</td><td>3</td></tr><tr><td>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r><td>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table>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4.31 0.480 100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9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① 작성하지 않았다
--	--	---	---

		7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안다	4.46	0.660	92.3
3-3 합리적 의사 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 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	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4.46	0.519	100
		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4.46	0.519	100
		3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4.54	0.519	100
		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4.54	0.519	100
		5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4.85	0.376	100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4.69	0.480	100
		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4.54	0.519	100
		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4.38	0.506	100
		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4.38	0.506	100
		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4.08	0.515	91.7

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개발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본조사의 조사대상자들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적절성을 검토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절차

예비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각 2개씩 총 4개 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 한 학급씩 표집 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397명(남학생: 308명, 여학생: 8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설문의 필요성과 목적, 응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수거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도 5월 13일에 실시되었고, 설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

(1)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에 대한 판단은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공통성(commu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4개 나왔고, 스크리 검사결과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4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요인부하 계수가 모두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의 문항들은 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명을 ‘결정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명을 ‘준비성’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독립성’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신성’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32.24%를 설명하였고, 고유가는 3.2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23.05%의 설명변량과 2.31의 고유가를 나타냈다. 또한 요인 3은 13.48%의 설명변량과, 1.35의 고유가를 보였고, 요인 4의 경우는 10.72%의 설명량과 1.07의 고유가를 나타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79.49%를 설명하였다.

<표 III-12>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97)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931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924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873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867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801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786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880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879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898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852
고 유 가		3.22	2.31	1.35	1.07
설명변량(%)		32.24	23.05	13.48	10.72
누적변량(%)		32.24	55.29	68.77	79.49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에 대한 판단은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공통성(commu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총 5개 나왔으나, 스크리 검사결과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3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모두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의 문항들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여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에 대한 요인명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에 대한 요인명은 ‘진로·직업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이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52.79%를 설명하였고, 고유가는 11.09이었다. 요인 2는 9.74%의 설명변량과 2.05의 고유가를 나타냈다. 또한 요인 3은 4.86%의 설명변량과, 1.02의 고유가를 보였다. 이들 3개의 요인은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67.39%를 설명하였다.

<표 III-13>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97)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828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753		
16	작업에 대하여 알아볼 때 그 작업이 나의 성향이나 흥미와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742		
18	내가 갖고 싶은 작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736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733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장 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714		
13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697		
15	작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677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659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609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749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731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728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726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715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711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637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28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99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80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07	
	고 유 가	11.09	2.05	1.02
	설명변량(%)	52.79	9.74	4.86
	누적변량(%)	52.79	62.53	67.39

(2)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기본적인 판별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분석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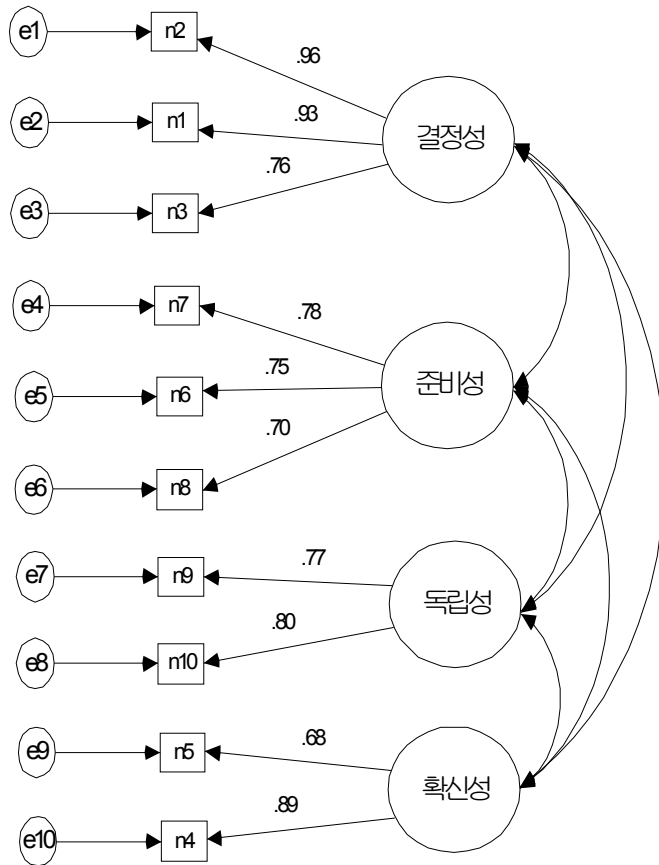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는 Tucker-Lewis Index(TLI)와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등을 모델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 이유는 카이자승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ucker-Lewis Index(TLI 또는 NNFI, Bentler & Bonett, 1980)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를 적합도지수로 사용하였다.

TLI(또는 NNFI),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홍세희, 2000)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 이면 보통적합도, $RMSEA > .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III-14>과 같다.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FI .977, TLI .964, RMSEA .06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모델 적합도 지수는 각각 CFI .915, TLI .904, RMSEA .084로 나타나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척도 모두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그림 III-1]은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측정모형은 지면 관계상 생략)의 각 요인 문항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III-14> 진로·직업 태도 및 진로·직업 역량 모델의 적합도 지수

구 분	χ^2	df	CFI	TLI	RMSEA(90%신뢰구간)
진로·직업 태도	70.969	29	.977	.964	.060(.043-.078)
진로·직업 역량	702.190	186	.915	.904	.084(.077-.090)



주. 표준화 계수는 모두 *** $p < .001$.

[그림 III-1] 청소년 진로·직업 태도의 측정모형(표준화 계수)

3.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구성개념

1) 진로·직업 의식

진로·직업의식이란 한 개인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직업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진로·직업가치와 진로·직업태도로 대별할 수 있다.

(1) 진로·직업 가치

진로·직업가치란 한 개인이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가치를 살펴보았다.

①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가치관이란 개인이 특정상황에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 또는 신념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관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추함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이나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가 접하는 환경과 접촉하는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동일시 기제가 발달하는 어린 시절의 개인은 부모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내면화함으로써 그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교적 정형화 된다.

가치관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검사법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통한 측정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가치관 검사에는 개인 가치관 검사, 대인 가치관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이 있다. 직

업가치관은 이상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가치관이 직업에 투영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가치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②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청소년들이 향후에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을 무엇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을 내적으로 귀인 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귀인 하는지에 따라서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기개발에 대한 노력 등이 달라질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을 돈(자본), 근면함과 성실성, 인맥, 뚜렷한 목표의식 등을 포함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진로·직업 태도

본 조사에서 포함된 진로·직업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로성숙도 중에서 태도영역을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1955년 Super가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을 소개한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진로성숙(career maturity)에 관한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로성숙이란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로성숙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Super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vocational tasks)에 대한 준비도로 주장하는 반면에, Crites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다. Gribbons와 Lohnes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로 생각하고, Hoyt는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를 자신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입장은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성숙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과 유사한 개념들로는 직업성숙, 진로의식성숙 등 ‘성숙’과 관련된 것과 진로발달, 직업발달, 진로의식발달, 직업의식발달 등 ‘발달’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다.

Zunker(1999)는 진로발달과 직업발달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일의 세계에 관한 믿음, 가치, 기능과 능력, 성격, 지식 등을 발달시키는 것은 생애를 통한 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흡사 일과 직업에 관한 용어, 즉 ‘Vocation’, ‘Occupation’ 그리고 ‘Job’이란 용어를 고용의 입장이나 활동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상호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직업정보관리위원회(NOICC)는 직업발달을 하위개념으로 하고 진로발달을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진로발달은 일생을 통하여 어떤 개인의 진로(career)를 형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경제적 요인들, 심지어는 우연적 요인들까지를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았고, 직업발달은 효율적인 직업 활동으로 유도하는 지식, 기술, 가치 등의 획득을 돕는 요인들 및 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업성숙이 진로성숙과 다른 점은 진로성숙은 진로의 계획과 선택이란 점에서, 직업성숙은 직업생활, 즉 직업의 선택과 결정이란 점에서 다를 뿐이고 측정하는 준거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이해라는 면은 자기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 등 자아의 이해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라는 면은 직업정보, 일과 작업의 조건, 직업관 및 직업윤리 등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통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 4개의 하위요소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소의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 자신이 갖고자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② 확신성

진로선택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③ 준비성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④ 독립성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을 뜻한다.

2) 진로·직업경험

진로·직업경험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경험과 체험들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진로·직업교육, 진로·직업준비, 진로·직업체험 등이 포함된다.

(1) 진로·직업교육

진로·직업교육은 학교, 가정 및 기관 등에서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 준비 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들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의 상당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은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경험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조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을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등을 포함

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진로교육 경험별 만족도를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등의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교육을 통해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②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진로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본 조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등을 포함하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③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최근에 이르러 가정에서의 청소년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교과학습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의 성적 중심 진학지도가 아니라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전공 및 직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을 ‘미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진로 관련 경험별 만족도를 ‘매우 도움이 되었다’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까지의 5점 척도 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④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 및 만족도

요즈음에는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 관련 경험의 기회가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을 ‘진로박람회(엑스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등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진로 관련 경험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2) 진로·직업준비: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은 우리나라의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이론에서 준비행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기 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이다. 즉,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본다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논을 한다든지, 취업과 관련된 일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직접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일, 그 직업의 취업절차나 기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 원서 및 이력서 등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등의 직접적인 취업 준비행동을 지칭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을 들고 있다.

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영역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설정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연구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왔던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의 차원을 의미한다. 그는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정보수집활동이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인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은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인 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또는 각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는 활동들이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본 적이 있다’,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3) 진로·직업체험: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여가비용에 보태기도 한다. 하지만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직업체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면서 자신의 진로 체험의 하나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19개로 세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시작시기, 지속기간, 하루에 할당한 시간, 시간당 수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경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이유 등을 묻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중요한 경험으로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등 총 9개 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및 부모동의서 작성여부, 아르바이트 경험이 향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아르바이트의 역기능(수업시간에 잠을 잠, 성적 하락 등)등에 대해서도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3) 진로·직업 역량

진로개발 역량을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정의한 것에 기초할 때, 그것이 진로교육의 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역량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을 곧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체계적 교육활동이 곧 진로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의 목표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에서 역량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운 경우는 캐나다의 Blue Print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것에 근간으로 작용한 미국의 진로개발지침(미국진로개발지침 NCD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은 총 11개의 목표를 행동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목표별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목표별 지표 및 학습 단계에서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활용하여 지식획득(knowledge), 적용(application), 성찰(reflection)의 학습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개발하였다.

진로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도달점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과 역량으로 제시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목표 진술이 학생의 지적, 정의적 변화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역량으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으며,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며, 그것이 향후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진로개발의 상황에서 ‘저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 전이 가능한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관점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의 목표 혹은 진로개발 역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를 수행한 주체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것들이 삭제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 교육의 목표 또는 개발 역량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선행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검토 결과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종합하되, 이 때 항상 새로운 범주화가 발생한다. 즉 요소가 속한 상위 영역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위 요소를 통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동선(2006)은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III-15>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III-1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일과 직업의 이해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형성
	진로정보의 탐색·해석·평가·활용
진로계획 및 관리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진로의사결정
	진로 계획 및 설계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와 영역 및 내용 요소를 <표 III-1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I-16> 「진로와 직업」 교과와 영역 및 내용요소

개정된 7차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요소	
1. 나의 이해와 진로	삶, 진로, 직업
	자아 정체감 및 존중감의 의의 및 확립
	나의 특성 및 제반 여건의 이해
	종합적인 나의 이해와 진로
2. 진로의 탐색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미래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
	계속교육을 위한 이해와 탐색
	다양한 직업인 탐색
3. 진로 의사결정	나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나의 진로 장벽 및 갈등의 진단과 해결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과정 및 방법의 이해
	나의 희망 직업 선택
4. 진로 계획 및 준비	나의 희망 전공 계열과 과정 선택
	진로 계획의 의의 및 수립
	역할 모델의 의의 및 설정
	진학 및 취업 준비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한 준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하위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시된 국가적 수준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 마다, 요소와 영역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가운데, 순서가 바뀌고 정렬이 새롭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외국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진로교육의 목표 혹은 진로개발 역량의 영역 및 하위요소가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NCDG(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캐나다의 Blue Print 등이 그러한 예로서, 이들 나라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의 합의된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언 등(2008)은 기존의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31인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표

III-17>과 같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주요 선행 자료인 최동선(2006)이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요소와 미국 NCDG를 기초로 하여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를 잠정적으로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진로·직업 역량을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이해’와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뜻하는 ‘진로·직업지식’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를 의미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등 총 세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III-17〉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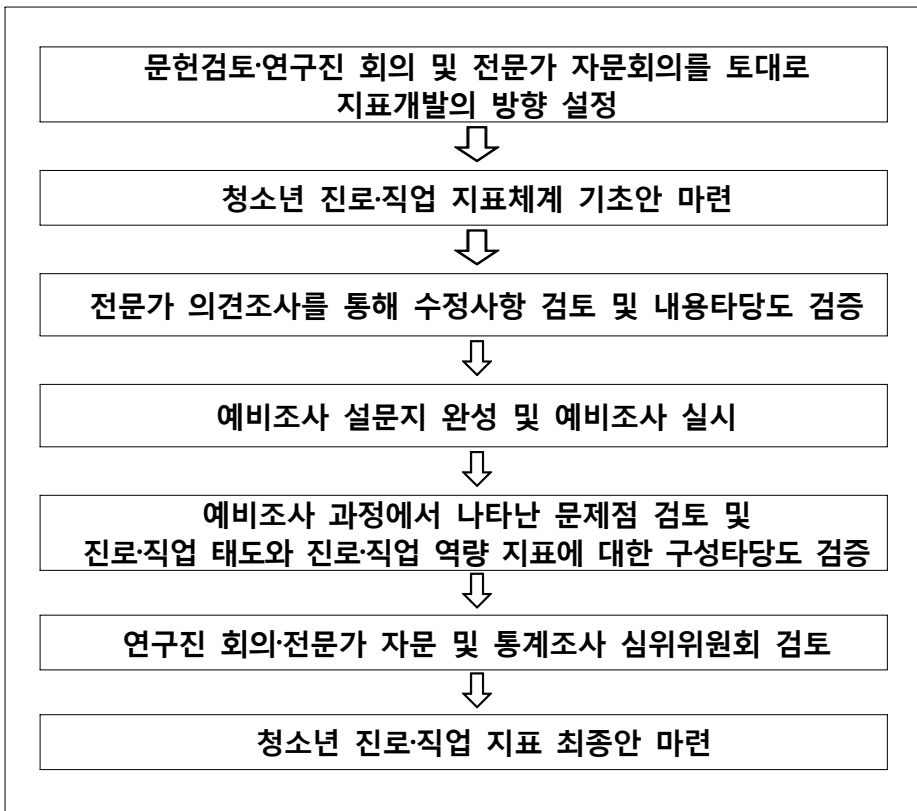
개인적 사회적 발달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자율적이며 능동적 태도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 성역할 및 직업에 대한 고정된 생각 타파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다양한 역할(여가, 지역사회 참여, 학습자, 가족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진로관리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진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활용
	미래사회의 전망, 변화하는 고용동향, 사회적인요구, 경제적인조건 등을 자신의 진로계획에 통합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진로 및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획득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4)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영역에 대한 최종 지표체계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과정으로 먼저 진로·직업 관련 문헌검토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기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

표 영역과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모든 하위영역과 각 문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및 지방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조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과정에 체계도는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최종 지표체계는 다음 <표 III-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각 영역별 최종 설문문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2]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과정

〈표 III-18〉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최종안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3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4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근로 경험 유무, 종류, 내용 및 일반적 사항 등)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IV. 조사개요

1. 조사설계
2. 조사대상
3. 조사내용

IV. 조사개요

1. 조사설계

1) 모집단 및 표집틀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2개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다.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제외하였다.

모집단 층화를 위한 표집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다음 <표 IV-1>과 같이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IV-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표집틀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 학 교	중1	670,675	119,793	45,628	37,629	39,002	23,948	22,710	18,190	163,985	19,841	47,911	52,008	80,030
		(100)	17.9	6.8	5.6	5.8	3.6	3.4	2.7	24.5	3.0	7.1	7.8	11.9
	중2	668,945	122,192	46,443	37,189	39,625	23,580	22,375	18,157	162,651	19,509	47,151	51,102	78,971
		(100)	18.4	6.9	5.7	5.9	3.5	3.3	2.7	24.3	2.9	7.0	7.6	11.8
	중3	673,283	123,594	47,842	37,890	40,289	23,564	22,346	18,390	161,567	19,818	47,636	50,876	79,471
		(100)	18.4	7.1	5.6	6.0	3.5	3.3	2.7	24.0	2.9	7.1	7.6	11.8
고 등 학 교	일반 고1	507,045	105,135	35,675	29,566	31,190	17,814	18,632	14,276	118,662	10,863	33,834	33,795	57,603
		(100)	20.7	7.0	5.8	6.2	3.5	3.7	2.8	23.4	2.1	6.7	6.7	11.4
	일반 고2	478,435	102,551	34,329	28,450	28,928	16,480	17,313	13,699	108,991	10,302	31,148	31,508	54,736
		(100)	21.4	7.2	5.9	6.0	3.5	3.6	2.9	22.8	2.2	6.5	6.6	11.4
	일반 고3	419,518	89,977	29,225	25,383	25,084	14,420	14,944	11,656	93,237	9,473	27,900	28,674	49,545
		(100)	21.4	7.0	6.1	6.0	3.4	3.6	2.8	22.2	2.3	6.6	6.8	11.8
	전문 고1	168,012	22,016	13,441	8,444	8,948	5,529	4,034	3,865	41,064	8,876	13,332	17,449	21,014
		(100)	13.1	8.0	5.0	5.3	3.3	2.4	2.3	24.4	5.4	7.9	10.4	12.5
	전문 고2	160,595	21,338	12,972	8,141	8,767	5,241	4,053	3,822	39,193	8,398	12,441	16,196	20,033
		(100)	13.3	8.1	5.1	5.5	3.3	2.5	2.4	24.4	5.2	7.6	10.1	12.5
	전문 고3	151,069	20,925	13,492	7,643	8,563	4,875	4,062	3,407	35,488	7,584	11,896	14,860	18,274
		(100)	13.8	8.9	5.1	5.7	3.2	2.7	2.3	23.5	5.0	7.9	9.8	12.1
합 계	-	3,897,577	727,521	279,047	220,335	230,396	135,451	130,469	105,462	924,838	114,664	273,249	296,468	459,677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 된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목표 표본 수에 대한 현황은 <표 IV-2>에 제시되어 있고, 각 시도별로 할당된 목표 표본 수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96\%P$ 이다.

<표 IV-2> 목표 표본 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 수	모집단 합계 (제주도 제외)		목표 표본 수 (총 5,724명 기준)	
중학교	중학교 1-3학년	중1	670,675	2,012,903		2,954 (51.6%)	
		중2	668,945				
		중3	673,283				
고등 학교	일반계고 1-3학년	일반고1	507,045	1,404,998	1,884,674	2,064 (74.5%)	2,770 (48.4%)
		일반고2	478,435				
		일반고3	419,518				
	전문계고 1-3학년	전문고1	168,012	479,676		706 (25.5%)	
		전문고2	160,595				
		전문고3	151,069				
합 계	-	-	3,897,577	3,897,577(100.0%)	5,724(100.0%)		

<표 IV-3>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구분	모집단	모집 단수	시도별 · 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 교	중1	989	177	67	55	57	36	34	27	241	30	70	77	118
	중2	986	181	68	56	58	35	33	27	239	29	69	75	116
	중3	993	182	70	56	60	35	33	27	238	29	71	75	117
고등 학교	일반고1	742	154	52	43	46	26	27	21	174	16	49	49	85
	일반고2	699	151	50	41	42	24	25	20	160	15	45	46	80
	일반고3	614	131	43	37	37	21	22	17	137	14	41	42	72
	전문고1	245	32	20	12	13	8	6	6	60	13	19	25	31
	전문고2	235	31	19	12	13	8	6	6	57	12	18	24	29
	전문고3	221	30	20	11	13	7	6	5	52	11	17	22	27
합계	-	5,724	1,069	409	323	339	200	192	156	1,358	169	399	435	675

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 수(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를 할당한 현황은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각 부차모집단별로 예상되는 최종 학생 수(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의 현황은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표집 학생 수($N=7,56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45\%P$ 이다.

<표 IV-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 수

구분	모집단	모집 단수	시도별 · 학년별 학급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교	중1	33	6	2	2	2	2	1	1	7	1	2	3	4
	중2	32	6	2	2	2	1	1	1	7	1	2	3	4
	중3	33	6	2	2	2	1	1	1	7	1	3	3	4
고등학교	일반고1	27	5	2	2	2	1	1	1	5	1	2	2	3
	일반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3
	일반고3	25	4	2	2	2	1	1	1	4	1	2	2	3
	전문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
계	-	216	35	15	15	15	10	9	9	41	9	16	18	24

<표 IV-5>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 수

구분	교급	학생수	시도별 · 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교	중1	1,155	210	70	70	70	70	35	35	245	35	70	105	140
	중2	1,120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중3	1,155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105	105	140
고등학교	일반고1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일반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일반고3	875	140	70	70	70	35	35	35	140	35	70	70	105
	전문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계	-	7,560	1,225	525	525	525	350	315	315	1,435	315	560	630	840

3) 표본추출

(1) 중학교 표본추출

-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 ② 층화 지역별 학생 수 비례 목표 표본 수 할당
- ③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 수 결정
- ④ 층화 지역별 할당된 학교 추출
 - ☞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 수 누적 → 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정해진 학교 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 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 학교 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으로 편성된 학급은 제외
 - ※ 사전 학교 섭외 층화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2) 고등학교 표본추출

-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2개(일반고·전문고) 계열별 층화(two way : 24개 sector)
- ② 층화 sector별 학생 수 비례 목표 표본 수 할당
- ③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 sector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 수 결정
- ④ 층화 sector별 할당된 학교 추출
 - ☞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층화 sector별로 고등학교리스트 정렬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학생 수 누적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정해진 학교 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 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 학교 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 sector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2. 조사대상

전국 12개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 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최종 분석대상 현황은 다음 <표 IV-6>과 같다.

먼저 중학교 학생은 총 3,010명(중1: 968명, 중2: 1,024명, 중3: 1,018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은 3,499명(일반계고1: 849명, 전문계고1: 387명, 일반계고2: 813명, 전문계고2: 404명, 일반계고3: 702명, 전문계고3: 344명)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한 총계는 6,509명이다. 각 시도별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 조사대상자 현황

구분	교급	총계	시도별 · 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교	중1	968	161	63	34	38	33	25	63	193	36	98	93	131
	중2	1024	188	65	98	40	32	0	25	285	34	66	63	128
	중3	1018	163	66	72	69	38	97	33	212	23	65	54	126
소계		3,010	512	194	204	147	103	122	121	690	93	229	210	385
고등학교	일반고1	849	142	30	36	33	116	34	29	142	23	59	67	138
	일반고2	813	140	71	34	44	77	74	0	175	40	33	24	101
	일반고3	702	168	29	35	38	34	22	77	134	51	62	0	52
	전문고1	387	29	29	34	31	29	0	35	93	0	23	25	59
	전문고2	404	30	50	35	31	34	33	26	47	26	34	27	31
	전문고3	344	0	58	30	31	35	28	26	32	35	23	22	24
소계		3,499	509	267	204	208	325	191	193	623	175	234	165	405
총계		6,509	1,021	461	408	355	428	313	314	1,313	268	463	375	790

3. 조사내용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주관적 의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직업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 IV-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먼저

관심영역으로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 경험, 진로·직업 역량 및 배경변인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관심영역별로 세부영역을 진로·직업에 대한 가치, 태도, 교육, 준비, 체험 및 역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세부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문항을 개발하여 청소년 진로·직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최종 설문문항은 다음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7>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항목에 따른 조사내용

관심 영역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조사 항목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 에 대한 전반적 가치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3) 많은 돈을 버는 것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6)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 7)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1-1-2	직업생활 에서의 성공요인	1) 돈(자본)/재산 2) 근면함과 성실성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 인맥 5) 좋은 성품 6) 자기개발 7) 운이나 요행 8) 가정배경 9) 학벌 10) 뚜렷한 목표의식 11) 작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2-2	확신성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2-3	준비성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2-4	독립성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2)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3)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5)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6)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7)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8)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9)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1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1)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3) 학교에서의 진로·직업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4)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15)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4)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5)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9)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1)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여부 2)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3)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4)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5)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6)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7)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8) 가정에서의 진로·직업 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1)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 여부 2) 진로박람회(엑스포)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4)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5)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6)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7)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2 진로작업 준비	2-2-1	진로준비 행동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 (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2-3 진로작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	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 경험여부, 1)-①.경험횟수 2)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3)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3)-① 지속기간 3)-② 하루에 일한 시간 3)-③ 시간당 임금 4) 아르바이트 하게 된 이유 5) 일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6) 아르바이트 정보 입수 방법 7) 아르바이트 그만 둔 이유 ※ 아르바이트 경험내용 8)-①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8)-②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8)-③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8)-④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8)-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8)-⑥ 폭언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8)-⑦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8)-⑧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8)-⑨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9)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0) 부모 동의서 제출여부 11) 향후 직업생활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도움 정도 ※ 아르바이트로 인한 경험 내용 12)-①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2)-②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2)-③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2)-④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 이해	3-1-1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 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13)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15)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6)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1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배경 변인		진로·직업 선택과 향후계획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것) 2) 진로나 직업의 정보의 입수처 3) 졸업 후 계획 4) 나의 장래 희망직업 4)-①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희망직업 5) 성별 6) 현재 동거인 7) 부모의 학력 8) 부모의 직업 소유 여부 9) 가정의 경제수준 10) 거주지 주소 11) 학업성적

V. 조사결과

1. 진로·직업 의식
2. 진로·직업 경험
3. 진로·직업 역량
4. 배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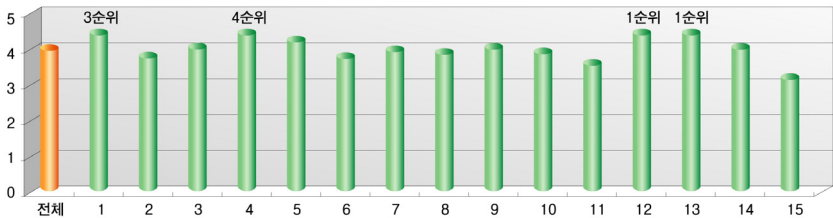
V. 조사결과

1. 진로·직업 인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생활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쾌적한 근무환경(4.53)’에서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4.53)’을 ‘성취감을 갖고(4.31)’, ‘오랫동안 할수있는 것(4.29)’을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V-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31	0.770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3.63	0.884
3	많은 돈을 버는 것	4.09	0.838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29	0.790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4.20	0.851
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3.70	0.947
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3.84	0.917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3.76	0.874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01	0.845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3.88	0.913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3.47	0.939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53	0.717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4.53	0.717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07	0.949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3.21	1.072
전체		3.96	0.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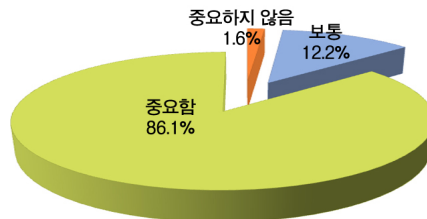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1-1-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자신의 능력 발휘와 성취감을 갖는 것’에 대해 86.1%가 중요하게 생각

○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에서는 여자(88.6%)가 남자(84%)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91.6%)가 전문계고(80.7%)나 중학교(8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표 V-2>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6	1.0	12.2	38.6	47.5		100(6,509)	
성별	남자	0.9	1.3	13.8	37.7	46.3		100(3,487)	35.432***
	여자	0.3	0.7	10.4	39.7	48.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	1.1	14.5	41.0	42.9		100(3,010)	141.342***
	일반계고	0.3	0.8	7.1	36.8	54.8		100(2,364)	
	전문계고	1.1	1.2	17.0	36.0	44.7		100(1,135)	
학년별	중1	0.7	0.9	16.7	38.9	42.7		100(968)	83.253***
	중2	0.7	1.1	13.9	41.8	42.6		100(1,024)	
	중3	0.5	1.2	12.9	42.1	43.3		100(1,018)	
	고1	0.4	1.0	12.6	36.7	49.4		100(1,236)	
	고2	1.0	1.0	9.4	37.7	50.9		100(1,217)	
	고3	0.3	1.0	8.8	35.2	54.7	0.1	100(1,046)	
거주지	서울	1.0	1.0	12.2	40.5	45.2	0.1	100(1,015)	7.779*
	광역시	0.6	1.1	12.4	39.1	46.7		100(2,274)	
	시·군	0.5	1.0	12.1	37.7	48.8		100(3,22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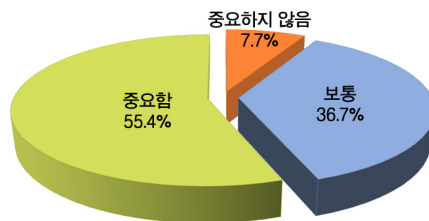
주1) 표의 단위는 %임. 이하 동일, 주2) 소수 응답인 무응답은 그림에서 %표기를 제외함. 이하 동일

1-1-1-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4%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묻는 문항 중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거주지별 차이를 제외하고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3의 경우 60.7%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1의 경우는 47.8%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거주지별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3]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표 V-3>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	6.3	36.7	38.6	16.8	0.1	100(6,509)	
성별	남자	2.0	6.7	35.3	37.4	18.6	0.1	100(3,487)	36.785***
	여자	0.8	5.9	38.4	40.0	14.8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5	6.7	39.4	36.8	15.5	0.1	100(3,010)	58.299***
	일반계고	1.1	5.8	31.6	41.6	19.7	0.1	100(2,364)	
	전문계고	1.9	6.1	40.2	37.3	14.4	0.3	100(1,135)	
학년별	중1	2.0	8.7	41.3	34.5	13.3	0.2	100(968)	56.832***
	중2	1.2	5.8	40.7	37.2	15.1		100(1,024)	
	중3	1.4	5.9	36.2	38.5	18.0		100(1,018)	
	고1	1.5	5.2	36.7	38.2	18.4	0.1	100(1,236)	
	고2	1.3	6.8	34.0	40.3	17.3	0.2	100(1,217)	
	고3	1.3	5.6	32.1	42.5	18.2	0.2	100(1,046)	
거주지	서울	2.0	5.7	37.3	37.7	17.1	0.1	100(1,015)	4.418
	광역시	1.4	6.6	36.9	38.5	16.4	0.2	100(2,274)	
	시·군	1.3	6.2	36.4	39.0	17.0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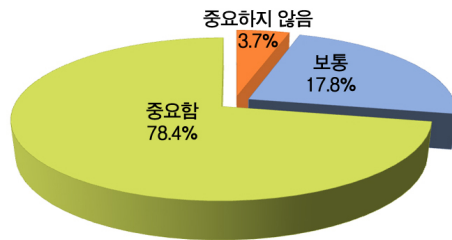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3 많은 돈을 버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를 묻는 문항 중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거주지별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여자(79.2%)가 남자(77.7%)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전문계고(81.0%)가 일반계고(79.9%)나 중학교(76.3%)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업생활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V-4] 많은 돈을 버는 것

<표 V-4> 많은 돈을 버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6	3.1	17.8	43.2	35.3	0.1	100(6,509)	
성별	남자	0.9	3.8	17.5	38.9	38.9	0.1	100(3,487)	80.497***
	여자	0.4	2.2	18.2	48.1	31.1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6	3.5	19.5	43.9	32.5	0.1	100(3,010)	54.931***
	일반계고	0.6	2.7	16.7	45.0	34.9	0.1	100(2,364)	
	전문계고	0.9	2.5	15.7	37.4	43.6		100(1,135)	
학년별	중1	1.0	3.0	22.1	41.3	32.5		100(968)	43.183**
	중2	0.3	3.9	17.8	45.7	32.2	0.1	100(1,024)	
	중3	0.5	3.6	18.7	44.5	32.6	0.1	100(1,018)	
	고1	0.5	3.0	16.1	42.2	38.2		100(1,236)	
	고2	0.7	2.5	16.5	43.3	36.8	0.1	100(1,217)	
	고3	0.9	2.4	16.4	42.0	38.1	0.2	100(1,046)	
	서울	0.9	3.6	16.9	42.4	36.0	0.2	100(1,015)	
거주지	광역시	0.6	2.9	16.9	43.6	35.9		100(2,274)	6.330
	사군	0.6	3.0	18.7	43.1	34.6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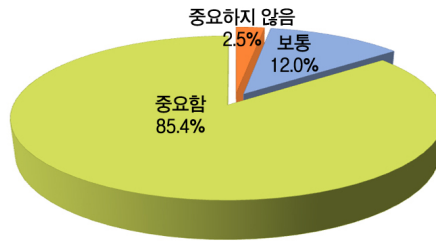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중요하게 생각

○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가 전문계고나 중학
교보다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광역시의 긍정 응답률이
87.4%로 나타나 서울(82%)지역이나 시·군(85.1%)지역 보다 더 높았다.



[그림 V-5]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표 V-5>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5	2.0	12.0	39.1	46.3		100(6,509)	
성별	남자	0.6	2.3	11.6	36.8	48.6		100(3,487)	25.546***
	여자	0.3	1.7	12.5	41.8	43.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4	1.8	13.4	39.5	44.9		100(3,010)	30.008***
	일반계고	0.5	2.4	10.6	40.8	45.6	0.1	100(2,364)	
	전문계고	0.6	1.6	11.5	34.6	51.7		100(1,135)	
학년별	중1	0.4	1.7	14.0	38.8	44.9	0.1	100(968)	29.752
	중2	0.4	1.7	12.5	39.9	45.5		100(1,024)	
	중3	0.4	2.2	13.7	39.7	44.1		100(1,018)	
	고1	0.3	1.6	11.9	38.5	47.7		100(1,236)	
	고2	0.4	2.3	10.4	40.5	46.3	0.1	100(1,217)	
	고3	1.1	2.6	10.2	37.1	48.9	0.1	100(1,046)	
	서울	0.3	3.2	14.5	38.2	43.7	0.1	100(1,015)	24.429**
거주지	광역시	0.4	1.5	10.6	40.2	47.2		100(2,274)	
	시·군	0.7	2.0	12.2	38.6	46.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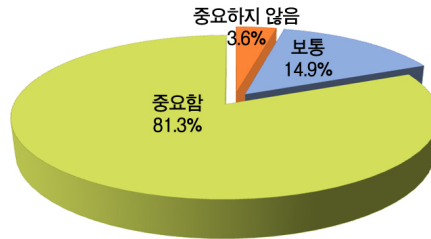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질문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84.2%)가 남자(78.7%)보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광역시의 긍정 응답률 82.5%로 서울(80.4%)이나 시·군(80.7%)지역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표 V-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8	2.8	14.9	38.7	42.5	0.2	100(6,509)	
성별	남자	1.2	3.7	16.2	36.1	42.7	0.2	100(3,487)	53.485***
	여자	0.4	1.9	13.4	41.8	42.4	0.1	100(3,022)	
교육별	중학교	0.9	2.8	15.5	39.5	41.2	0.1	100(3,010)	8.922
	일반계고	0.7	3.1	14.0	38.8	43.1	0.3	100(2,364)	
	전문계고	0.8	2.5	15.2	36.6	44.8	0.1	100(1,135)	
학년별	중1	1.5	3.3	15.9	35.8	43.3	0.1	100(968)	31.494*
	중2	0.8	2.4	15.3	39.3	42.2		100(1,024)	
	중3	0.4	2.7	15.3	43.3	38.2	0.1	100(1,018)	
	고1	0.8	3.0	15.9	37.1	43.0	0.2	100(1,236)	
	고2	0.7	3.0	14.1	38.5	43.5	0.2	100(1,217)	
	고3	0.7	2.6	12.8	38.7	44.7	0.5	100(1,046)	
거주지	서울	1.5	4.0	13.8	38.5	41.9	0.3	100(1,015)	18.645*
	광역시	0.7	2.6	14.1	40.1	42.4	0.2	100(2,274)	
	시·군	0.7	2.6	15.8	37.9	42.9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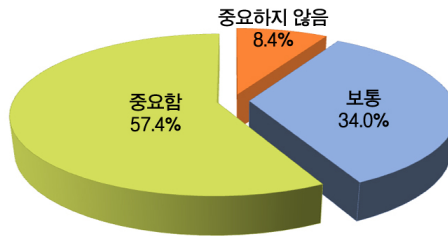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중요하게 생각

○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성별, 학년
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61%로 남학생(54.3%)보다, 약
6.7%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차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흥미로운 점은 중학교 1학년의 긍정 응답률이 61.2%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V-7]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표 V-7>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6	6.8	34.0	34.6	22.8	0.1	100(6,509)	
성별	남자	2.3	8.6	34.6	30.9	23.4	0.1	100(3,487)	93.390***
	여자	0.7	4.8	33.3	38.9	22.1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7	6.1	34.1	34.2	23.8	0.1	100(3,010)	12.470
	일반계고	1.4	7.7	34.3	35.6	20.9	0.1	100(2,364)	
	전문계고	1.4	7.0	33.5	33.8	24.1	0.2	100(1,135)	
학년별	중1	2.0	5.0	31.8	33.1	28.1	0.1	100(968)	32.410*
	중2	1.7	6.4	35.2	34.6	22.0	0.2	100(1,024)	
	중3	1.6	6.9	35.1	34.9	21.5	0.1	100(1,018)	
	고1	1.1	7.3	34.6	34.0	23.0		100(1,236)	
	고2	1.8	7.7	33.9	36.5	20.0	0.2	100(1,217)	
	고3	1.3	7.4	33.5	34.6	23.0	0.2	100(1,046)	
	서울	1.9	8.3	32.8	33.1	23.8	0.1	100(1,015)	12.199
거주지	광역시	1.6	6.9	33.9	36.1	21.2	0.2	100(2,274)	
	사.군	1.5	6.3	34.5	34.1	23.6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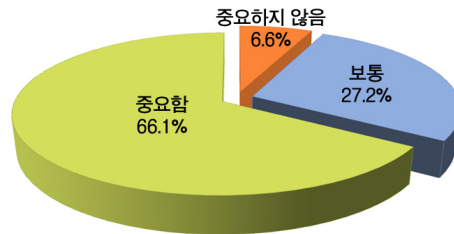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1%가 중요하게 생각

○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성별, 교
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가 69.9%로 여자(61.6%)보다, 약 8.3%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이 내려 갈수록 긍
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표 V-8>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	5.2	27.2	40.3	25.7	0.1	100(6,509)	
성별	남자	1.7	4.5	23.7	39.0	30.9	0.1	100(3,487)	124.017***
	여자	1.1	6.0	31.1	41.9	19.8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3	3.5	26.1	41.0	28.0	0.1	100(3,010)	54.276***
	일반계고	1.6	7.2	28.8	39.4	22.9	0.1	100(2,364)	
	전문계고	1.4	5.5	26.8	40.6	25.5	0.3	100(1,135)	
학년별	중1	1.1	3.4	24.8	38.7	31.8	0.1	100(968)	74.921***
	중2	1.2	3.7	25.5	41.5	28.0	0.1	100(1,024)	
	중3	1.6	3.4	27.9	42.6	24.5		100(1,018)	
	고1	1.1	6.2	28.8	37.9	26.0		100(1,236)	
	고2	1.9	6.4	28.7	41.7	21.1	0.2	100(1,217)	
	고3	1.6	7.5	26.7	39.8	24.1	0.4	100(1,046)	
	서울	2.3	6.9	26.4	36.9	27.3	0.2	100(1,015)	19.576*
거주지	광역시	1.3	5.1	27.4	41.6	24.4	0.2	100(2,274)	
	시·군	1.3	4.8	27.2	40.5	26.1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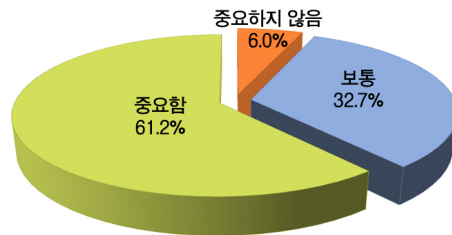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1.2%가 중요하게 생각

○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63.8%로 일반계고(59.4%)나 전문계고(58.2%)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 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9]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표 V-9>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9	5.1	32.7	40.0	21.3	0.1	100(6,509)	
성별	남자	1.1	5.8	32.0	37.4	23.7	0.1	100(3,487)	43.915***
	여자	0.6	4.4	33.5	42.9	18.5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7	4.2	31.3	40.4	23.4		100(3,010)	27.854**
	일반계고	1.0	5.9	33.5	39.7	19.8	0.1	100(2,364)	
	전문계고	0.9	6.2	34.7	39.4	18.9		100(1,135)	
학년별	중1	0.8	3.2	28.3	40.4	27.3		100(968)	62.969***
	중2	0.3	4.3	31.3	41.1	22.9		100(1,024)	
	중3	1.1	4.9	34.1	39.7	20.1	0.1	100(1,018)	
	고1	0.4	5.7	34.0	39.6	20.2		100(1,236)	
	고2	1.2	5.5	34.1	40.8	18.3	0.1	100(1,217)	
	고3	1.4	6.8	33.7	38.0	19.9	0.2	100(1,046)	
거주지	서울	1.3	5.3	32.6	37.4	23.3	0.1	100(1,015)	20.624**
	광역시	0.6	5.3	34.3	41.0	18.8		100(2,274)	
	시·군	0.9	4.9	31.6	40.0	22.4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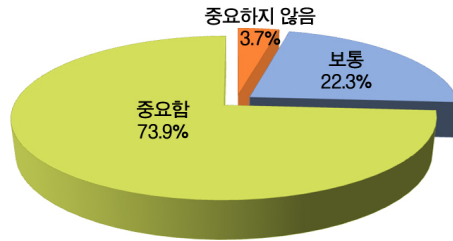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9%가 중요하게 생각

○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 성별, 거주지별 차
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가 75.4%로 남자(72.6%)보다 2.8%가량 더 높았으며, 거주
지별로는 시·군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74.4%로 서울(72.7%)지역이나 광역시
(73.7%)지역 보다 더 높았다.



[그림 V-10]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표 V-10>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6	3.1	22.3	42.9	31.0	0.1	100(6,509)	
성별	남자	0.9	3.6	22.9	40.4	32.2		100(3,487)	31.854***
	여자	0.3	2.6	21.6	45.8	29.6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5	3.0	22.8	43.0	30.7	0.1	100(3,010)	5.135
	일반계고	0.8	3.3	21.2	43.6	31.0	0.1	100(2,364)	
	전문계고	0.6	3.1	23.2	41.5	31.6		100(1,135)	
학년별	중1	0.5	2.4	21.9	41.2	33.9	0.1	100(968)	30.113
	중2	0.6	3.9	21.8	44.1	29.6		100(1,024)	
	중3	0.3	2.8	24.6	43.4	28.9	0.1	100(1,018)	
	고1	0.4	3.0	21.8	41.0	33.7		100(1,236)	
	고2	1.0	3.2	22.8	45.1	27.9	0.1	100(1,217)	
	고3	0.8	3.5	20.8	42.5	32.1	0.2	100(1,046)	
거주지	서울	1.2	3.8	22.0	41.3	31.4	0.3	100(1,015)	17.524*
	광역시	0.4	2.6	23.2	44.5	29.2		100(2,274)	
	시·군	0.5	3.3	21.7	42.4	32.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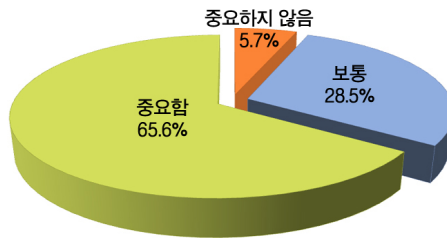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6%가 중요하게 생각

○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28.737, p < .001$).

- 성별로는 남자가 66.4%로 64.8%를 보인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 보다 1.6%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학생이 다른 교급의 학생들보다, 시·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V-11]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표 V-11>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8	4.9	28.5	36.5	29.2	0.1	100(6,509)	
성별	남자	0.9	5.7	26.9	35.4	31.0	0.1	100(3,487)	28.737***
	여자	0.6	4.1	30.4	37.7	27.0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8	4.6	27.9	36.5	30.1	0.1	100(3,010)	9.916
	일반계고	0.5	5.1	28.7	37.2	28.3	0.1	100(2,364)	
	전문계고	1.2	5.5	29.8	35.0	28.4	0.2	100(1,135)	
학년별	중1	0.7	4.1	26.9	34.5	33.5	0.3	100(968)	21.813
	중2	0.9	4.7	28.2	37.1	29.1		100(1,024)	
	중3	0.9	4.9	28.6	37.7	27.9		100(1,018)	
	고1	0.7	5.6	28.1	36.5	29.0	0.1	100(1,236)	
	고2	0.6	4.9	30.8	37.6	26.0	0.1	100(1,217)	
	고3	1.1	5.2	28.1	35.2	30.3	0.2	100(1,046)	
거주지	서울	1.5	5.3	28.0	36.4	28.7	0.2	100(1,015)	15.300
	광역시	0.6	5.3	30.2	35.9	27.9	0.1	100(2,274)	
	시·군	0.7	4.6	27.5	37.0	30.2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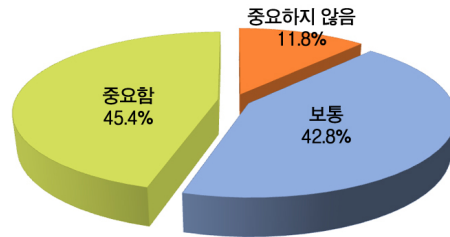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5.4%가 중요하게 생각

○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48.2%)가 여자(42.1%)보다 약 6.1%가량 더 높았다. 또한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47.8%로 다른 교급 보다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2]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표 V-12>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0	9.7	42.8	29.6	15.8	0.1	100(6,509)	
성별	남자	2.5	9.7	39.5	29.9	18.3	0.1	100(3,487)	57.377***
	여자	1.5	9.8	46.6	29.2	12.9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5	10.2	42.2	29.0	16.1	0.1	100(3,010)	25.544**
	일반계고	1.7	9.5	40.9	31.5	16.2	0.1	100(2,364)	
	전문계고	1.5	9.2	48.3	27.1	13.8	0.1	100(1,135)	
학년별	중1	3.0	9.5	42.6	28.7	16.1	0.1	100(968)	22.872
	중2	1.6	11.7	42.7	28.0	15.9	0.1	100(1,024)	
	중3	2.8	9.2	41.4	30.3	16.3		100(1,018)	
	고1	1.6	9.5	42.3	30.8	15.7		100(1,236)	
	고2	1.6	9.0	45.4	29.4	14.5		100(1,217)	
	고3	1.7	9.7	42.0	30.0	16.3	0.4	100(1,046)	
거주지	서울	2.8	9.7	39.6	30.4	17.4	0.1	100(1,015)	16.039*
	광역시	1.6	9.5	44.5	30.0	14.2	0.1	100(2,274)	
	사군	2.1	9.9	42.5	29.0	16.3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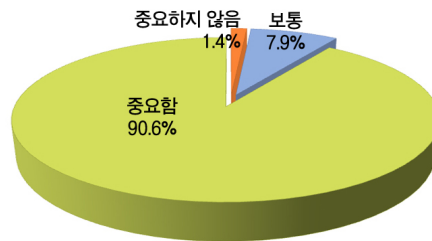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중요하게 생각

○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응답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 긍정 응답률이 90.6%로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 분포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 성별로는 여자가 93.5%로 88.2%를 보인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교급별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94.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년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3]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표 V-13>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4	1.0	7.9	26.5	64.1	0.1	100(6,509)	
성별	남자	0.5	1.3	9.9	26.4	61.8	0.1	100(3,487)	57.726***
	여자	0.2	0.6	5.6	26.7	66.8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5	1.1	9.5	27.3	61.6		100(3,010)	70.399***
	일반계고	0.1	0.5	4.9	25.7	68.6	0.1	100(2,364)	
	전문계고	0.5	1.7	9.9	26.2	61.8		100(1,135)	
학년별	중1	0.7	1.0	13.0	25.1	60.0	0.1	100(968)	72.739***
	중2	0.4	1.5	8.5	28.7	60.9		100(1,024)	
	중3	0.5	0.9	7.1	27.9	63.7		100(1,018)	
	고1	0.1	0.9	7.2	23.6	68.2		100(1,236)	
	고2	0.4	0.7	6.6	28.5	63.7	0.2	100(1,217)	
	고3	0.3	1.2	5.7	25.3	67.3	0.1	100(1,046)	
거주지	서울	0.4	1.0	8.0	26.2	64.2	0.2	100(1,015)	4.887
	광역시	0.3	0.8	7.9	27.8	63.1		100(2,274)	
	시·군	0.4	1.1	7.9	25.7	64.8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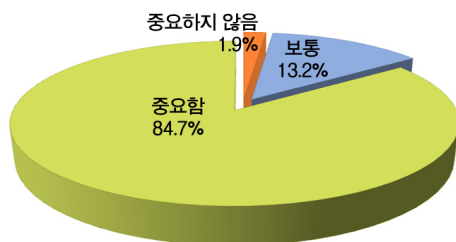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1-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4.7%가 중요하게 생각

○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거주지별 차이를 제외하고 성별, 교급별 및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가 86.2%로 남자(83.4%)보다 더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86.6%로 중학교(83.5%)나, 전문계고(84.1%)보다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4]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표 V-14>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4	1.6	13.2	39.2	45.5	0.2	100(6,509)	
성별	남자	0.6	1.7	14.1	36.2	47.2	0.2	100(3,487)	38.706***
	여자	0.1	1.4	12.1	42.7	43.6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4	1.3	14.6	40.1	43.4	0.2	100(3,010)	24.305**
	일반계고	0.3	1.8	11.3	38.7	47.9	0.1	100(2,364)	
	전문계고	0.6	1.9	13.3	37.8	46.3	0.2	100(1,135)	
학년별	중1	0.4	1.5	16.5	38.8	42.3	0.4	100(968)	32.158*
	중2	0.5	1.2	13.1	40.4	44.5	0.3	100(1,024)	
	중3	0.2	1.2	14.3	41.1	43.2		100(1,018)	
	고1	0.4	1.5	11.7	36.7	49.7		100(1,236)	
	고2	0.4	2.1	12.4	39.5	45.5	0.1	100(1,217)	
	고3	0.3	1.9	11.6	39.2	46.7	0.3	100(1,046)	
거주지	서울	0.4	1.8	12.8	39.4	45.4	0.2	100(1,015)	3.166
	광역시	0.3	1.4	13.9	38.8	45.4	0.2	100(2,274)	
	시·군	0.4	1.6	12.8	39.4	45.6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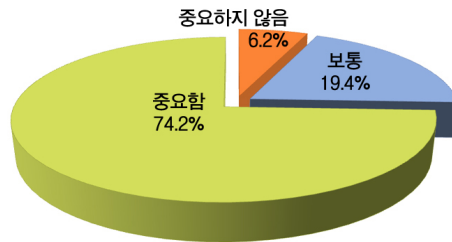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4.2%가 중요하게 생각

○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가 76.1%로 72.6%를 보인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교급별
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77.7%의 긍정 응답률을 나타내, 일반계고(73.9%)
나 중학교(7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5]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표 V-15>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	5.0	19.4	34.1	40.1	0.2	100(6,509)	
성별	남자	1.5	5.8	20.1	31.4	41.1	0.1	100(3,487)	33.356***
	여자	0.9	4.0	18.7	37.1	39.0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3	4.9	20.3	34.6	38.5	0.3	100(3,010)	31.502***
	일반계고	1.1	6.0	18.9	34.5	39.4		100(2,364)	
	전문계고	1.1	2.9	18.2	31.9	45.8		100(1,135)	
학년별	중1	2.1	4.4	22.0	32.9	38.0	0.6	100(968)	23.845
	중2	0.9	4.9	19.5	36.3	38.2	0.2	100(1,024)	
	중3	1.1	5.4	19.5	34.5	39.4	0.1	100(1,018)	
	고1	1.1	4.7	18.9	33.3	42.1		100(1,236)	
	고2	0.8	5.1	18.4	35.3	40.3		100(1,217)	
	고3	1.5	5.4	18.7	32.1	42.2	0.1	100(1,046)	
거주지	서울	1.3	5.9	19.2	34.2	39.2	0.2	100(1,015)	15.093
	광역시	1.1	3.9	19.8	32.9	42.2	0.1	100(2,274)	
	사.군	1.3	5.5	19.3	34.8	38.9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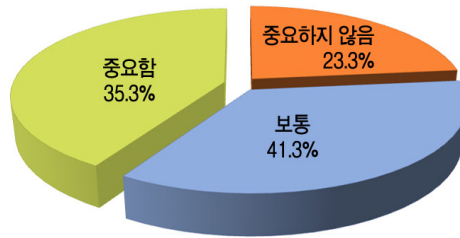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1-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5.3%가 중요하게 생각

○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9.4%)가 여자(30.6%)보다 더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전문 계고가 43.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광역시의 긍정 응답률이 36.9%로 서울(33.3%)이나 시·군(34.8%)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6]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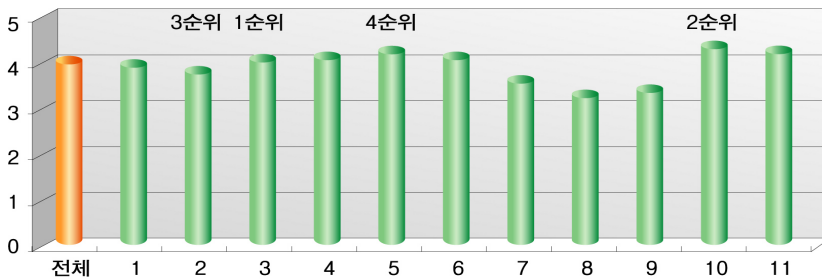
<표 V-16>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5	17.7	41.3	20.6	14.7	0.1	100(6,509)	
성별	남자	6.4	16.4	37.8	21.1	18.3		100(3,487)	106.643***
	여자	4.5	19.3	45.5	20.0	10.6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8	17.7	41.4	20.7	14.2	0.1	100(3,010)	78.687***
	일반계고	6.4	20.1	41.4	19.5	12.5	0.1	100(2,364)	
	전문계고	3.0	12.9	41.0	22.5	20.7		100(1,135)	
학년별	중1	8.1	18.1	43.3	18.4	11.8	0.4	100(968)	47.089**
	중2	4.6	18.9	40.9	20.7	14.8		100(1,024)	
	중3	4.9	16.1	40.2	23.0	15.8		100(1,018)	
	고1	4.6	16.1	43.3	18.9	17.1		100(1,236)	
	고2	4.9	18.2	41.3	21.0	14.5		100(1,217)	
	고3	6.6	19.0	38.8	21.6	13.8	0.2	100(1,046)	
	서울	5.6	20.8	40.0	19.9	13.4	0.3	100(1,015)	
거주지	광역시	4.7	16.2	42.2	21.7	15.2		100(2,274)	18.227*
	시·군	6.1	17.8	41.2	20.0	14.8	0.1	100(3,220)	

* $p<.05$, ** $p<.01$, *** $p<.001$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4.34)’ 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뚜렷한 목표의식(4.33)’, ‘근면함과 성실성(4.31)’, ‘좋은 성품(4.26%)’ 순이었음



[그림 V-17]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17>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돈(자본)/재산	3.99	0.902
2	근면함과 성실성	4.31	0.733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34	0.747
4	인맥	4.18	0.852
5	좋은 성품	4.26	0.781
6	자기개발	4.19	0.801
7	운이나 요행	3.56	0.994
8	가정배경	3.31	1.157
9	학벌	3.42	1.107
10	뚜렷한 목표의식	4.33	0.782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4.23	0.772
전체		4.02	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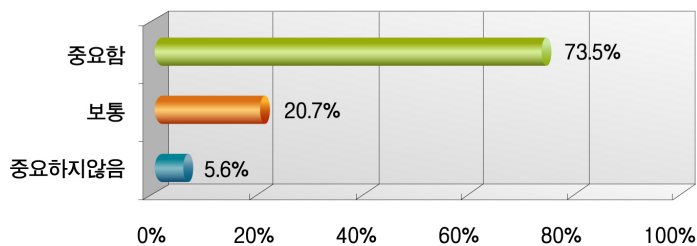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1-2-1 돈(자본)/재산

‘돈(자본)/재산’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돈(자본)/재산’에 대해 성별, 교급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의 긍정 응답률이 78.1%로 나타나, 중학생(73.4%)이나 일반계고(71.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8] 돈(자본)/재산

<표 V-18> 돈(자본)/재산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	4.5	20.7	41.5	32.0	0.1	100(6,509)	
성별	남자	1.6	5.0	20.9	38.7	33.7	0.1	100(3,487)	37.525***
	여자	0.7	3.8	20.5	44.7	30.1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2	3.9	21.5	42.1	31.4	0.1	100(3,010)	48.322***
	일반계고	1.2	5.6	21.5	42.2	29.3	0.2	100(2,364)	
	전문계고	1.1	3.7	17.1	38.5	39.6		100(1,135)	
학년별	중1	1.2	3.4	22.4	40.9	32.0		100(968)	21.427
	중2	0.8	4.9	21.2	42.8	30.3	0.1	100(1,024)	
	중3	1.5	3.2	20.9	42.4	31.8	0.1	100(1,018)	
	고1	1.1	4.8	20.6	39.0	34.4	0.2	100(1,236)	
	고2	1.0	5.4	19.4	42.4	31.8		100(1,217)	
	고3	1.5	4.7	20.3	41.7	31.5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6	5.1	19.2	41.7	32.3	0.1	100(1,015)	7.277
	광역시	1.0	4.3	21.0	40.5	33.2	0.1	100(2,274)	
	사군	1.2	4.3	21.0	42.1	31.2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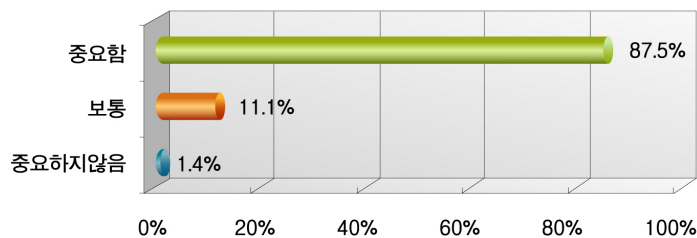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2 근면함과 성실성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해 성별에서만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 = 55.054, p < .001$).

- 성별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해 88.2%의 여학생들이 긍정 응답률을 나타내, 86.8%를 보인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9] 근면함과 성실함

<표 V-19> 근면함과 성실성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4	1.0	11.1	42.8	44.7	0.1	100(6,509)	
성별	남자	0.6	1.4	11.1	39.5	47.3	0.1	100(3,487)	55.054***
	여자	0.1	0.5	11.2	46.6	41.6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3	1.0	11.2	42.7	44.7	0.1	100(3,010)	9.434
	일반계고	0.2	1.0	10.7	44.0	44.0	0.1	100(2,364)	
	전문계고	0.7	1.1	11.7	40.4	46.2		100(1,135)	
학년별	중1	0.3	0.8	10.8	40.2	47.7	0.1	100(968)	19.885
	중2	0.5	1.1	10.6	42.9	44.8	0.1	100(1,024)	
	중3	0.2	1.1	12.1	45.0	41.7		100(1,018)	
	고1	0.5	0.8	11.2	43.4	44.1	0.1	100(1,236)	
	고2	0.2	1.1	11.5	44.9	42.3		100(1,217)	
	고3	0.4	1.1	10.3	39.9	48.1	0.2	100(1,046)	
거주지	서울	0.7	1.4	10.9	41.4	45.5	0.1	100(1,015)	9.493
	광역시	0.3	0.7	11.5	43.5	43.9	0.1	100(2,274)	
	시·군	0.3	1.1	10.9	42.7	45.0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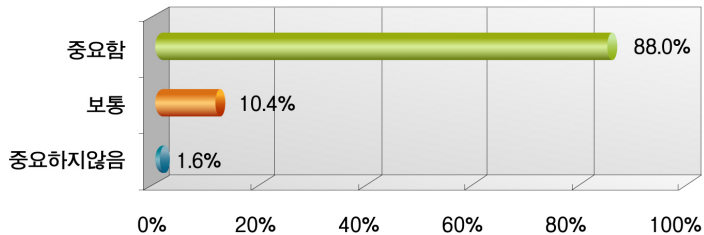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2-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88.0%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 문항 중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90.3%)가 남자(85.9%)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90.5%), 중학교(86.3%)나 전문계고(87.0%)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20]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표 V-20>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5	1.1	10.3	40.1	47.8	0.1	100(6,509)	
성별	남자	0.7	1.4	11.8	38.6	47.3	0.1	100(3,487)	34.586***
	여자	0.2	0.8	8.6	41.9	48.4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4	1.2	12.0	40.8	45.5	0.1	100(3,010)	34.004***
	일반계고	0.4	0.9	8.0	39.9	50.6	0.2	100(2,364)	
	전문계고	0.8	1.5	10.7	38.9	48.1		100(1,135)	
학년별	중1	0.2	1.2	13.9	40.2	44.4		100(968)	52.417***
	중2	0.5	1.1	12.1	39.6	46.7	0.1	100(1,024)	
	중3	0.6	1.2	10.0	42.7	45.4	0.1	100(1,018)	
	고1	0.3	1.3	8.7	40.5	48.9	0.2	100(1,236)	
	고2	0.7	0.9	10.8	40.4	47.2	0.1	100(1,217)	
	고3	0.7	1.1	6.8	37.4	53.8	0.2	100(1,046)	
거주지	서울	0.7	0.8	10.8	39.4	48.1	0.2	100(1,015)	5.081
	광역시	0.3	1.1	10.5	40.2	47.9		100(2,274)	
	시·군	0.6	1.3	10.0	40.3	47.7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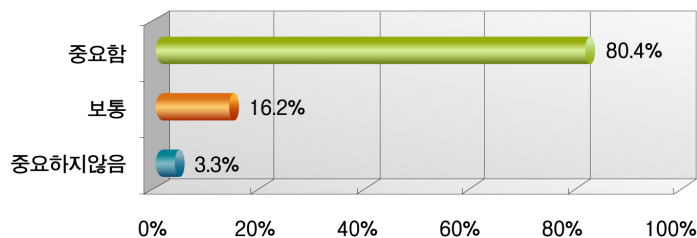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4 인맥

‘인맥’에 대해 응답자의 80.4%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인맥’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82.3%)가 남자(78.7%)보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83.5%)가, 일반계고(82.1%)나 중학교(77.9%)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1] 인맥

<표 V-21> 인맥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9	2.4	16.2	38.8	41.7	0.1	100(6,509)	
성별	남자	1.4	2.7	17.1	35.8	43.0	0.1	100(3,487)	44.747***
	여자	0.4	2.1	15.1	42.2	40.1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1	2.4	18.5	38.6	39.3		100(3,010)	31.405***
	일반계고	0.8	2.6	14.3	39.1	43.0	0.2	100(2,364)	
	전문계고	0.8	2.0	13.7	38.4	45.1		100(1,135)	
학년별	중1	0.8	3.3	20.2	37.7	37.9		100(968)	60.084***
	중2	1.0	1.8	19.4	36.8	40.9	0.1	100(1,024)	
	중3	1.6	2.1	16.0	41.4	39.0		100(1,018)	
	고1	0.6	2.8	14.5	37.9	44.1	0.2	100(1,236)	
	고2	0.9	2.4	15.7	39.5	41.4	0.1	100(1,217)	
	고3	0.9	1.9	11.9	39.3	45.9	0.2	100(1,046)	
	서울	1.2	2.5	16.4	35.1	44.8	0.1	100(1,015)	
거주지	광역시	0.8	2.2	16.0	39.1	41.9		100(2,274)	9.360
	시·군	1.0	2.5	16.2	39.7	40.5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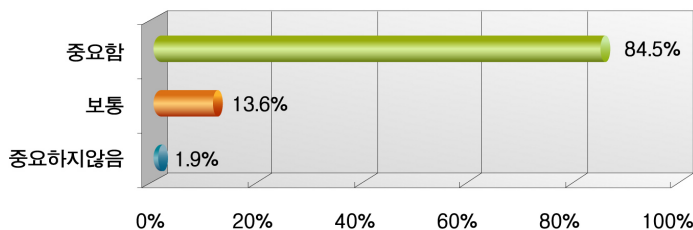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5 좋은 성품

‘좋은 성품’에 대해 응답자의 84.5%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좋은 성품’에 대해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85.7%)가 남자(83.5%)보다, 학년별로는 학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중1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약 2-3%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서울(85.3%)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2] 좋은 성품

<표 V-22> 좋은 성품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6	1.3	13.6	40.9	43.6	0.1	100(6,509)	
성별	남자	0.9	1.6	14.0	38.0	45.5	0.1	100(3,487)	40.391***
	여자	0.2	0.9	13.1	44.3	41.4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5	1.1	13.9	41.3	43.1		100(3,010)	8.913
	일반계고	0.6	1.3	12.4	40.6	45.0	0.1	100(2,364)	
	전문계고	0.7	1.6	15.2	40.5	42.0		100(1,135)	
학년별	중1	0.6	1.1	16.3	38.4	43.5		100(968)	32.010*
	중2	0.7	1.1	13.1	42.0	43.1	0.1	100(1,024)	
	중3	0.3	1.2	12.5	43.4	42.6		100(1,018)	
	고1	0.6	0.9	12.5	40.0	45.8	0.1	100(1,236)	
	고2	0.6	1.2	14.5	43.1	40.6		100(1,217)	
	고3	0.7	2.2	12.6	38.3	46.0	0.2	100(1,046)	
	서울	1.1	1.3	12.2	37.2	48.1	0.1	100(1,015)	
거주지	광역시	0.4	1.1	14.6	41.1	42.8		100(2,274)	19.300*
	사군	0.6	1.4	13.3	42.0	42.7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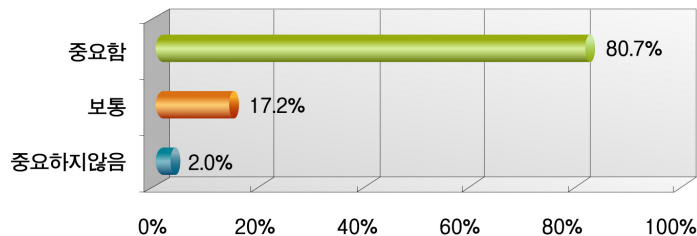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6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 대해 응답자의 80.7%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자기 개발’에 대해 성별, 학년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82.6%)가 남자(79.1%)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1(77.0%)과 고3(82.1)간의 차이는 약 5.1%로 고3 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V-23] 자기 개발

<표 V-23> 자기 개발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4	1.6	17.2	40.4	40.3	0.1	100(6,509)	
성별	남자	0.7	2.0	18.2	38.3	40.8	0.1	100(3,487)	29.132***
	여자	0.2	1.1	16.0	42.8	39.8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5	1.7	18.3	40.1	39.3	0.1	100(3,010)	14.528
	일반계고	0.3	1.4	15.2	41.6	41.3	0.3	100(2,364)	
	전문계고	0.6	1.6	18.1	38.6	41.1		100(1,135)	
학년별	중1	0.5	2.1	20.5	35.6	41.3		100(968)	37.262*
	중2	0.5	1.9	17.8	43.4	36.3	0.2	100(1,024)	
	중3	0.4	1.3	16.8	41.2	40.4		100(1,018)	
	고1	0.2	0.9	16.2	39.6	43.1	0.1	100(1,236)	
	고2	0.4	1.6	17.2	42.0	38.7	0.1	100(1,217)	
	고3	0.7	1.8	15.0	40.2	41.9	0.4	100(1,046)	
	거주지	0.9	1.8	16.6	40.8	39.8	0.2	100(1,015)	
거주지	광역시	0.1	1.6	17.4	40.8	40.0	0.1	100(2,274)	11.158
	시·군	0.5	1.5	17.2	40.0	40.7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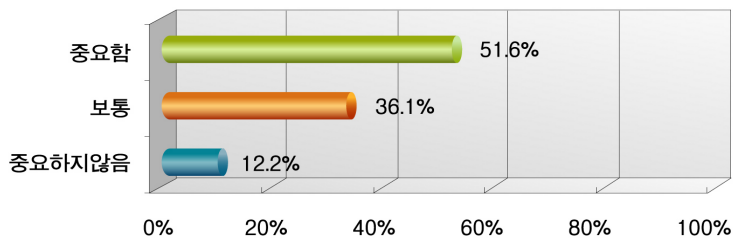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7 운이나 요행

‘운이나 요행’에 대해 응답자의 51.6%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운이나 요행’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52.0%)가 남자(51.2%)보다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54.3%)가 일반계고(52.5%)나 중학교(49.8%)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대체로 고등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중학생들의 긍정 응답률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4] 운이나 요행

<표 V-24> 운이나 요행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7	9.5	36.1	32.2	19.4	0.1	100(6,509)	
성별	남자	3.3	10.6	34.8	29.2	21.9	0.1	100(3,487)	67.846***
	여자	2.1	8.2	37.6	35.6	16.4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2	10.4	36.6	31.3	18.5		100(3,010)	30.530***
	일반계고	2.4	10.2	34.8	33.1	19.4	0.2	100(2,364)	
	전문계고	2.3	5.9	37.5	32.8	21.5		100(1,135)	
학년별	중1	4.2	8.9	37.4	30.9	18.6		100(968)	52.990***
	중2	3.0	13.4	37.6	28.4	17.5	0.1	100(1,024)	
	중3	2.4	8.7	35.0	34.5	19.4		100(1,018)	
	고1	1.8	8.4	35.0	33.7	21.0	0.1	100(1,236)	
	고2	2.5	8.3	38.3	32.4	18.5	0.1	100(1,217)	
	고3	2.9	9.8	33.4	32.9	20.9	0.2	100(1,046)	
거주지	서울	3.3	8.8	33.3	34.3	20.2	0.1	100(1,015)	11.935
	광역시	2.6	8.8	36.5	32.9	19.2		100(2,274)	
	시·군	2.7	10.3	36.7	31.0	19.2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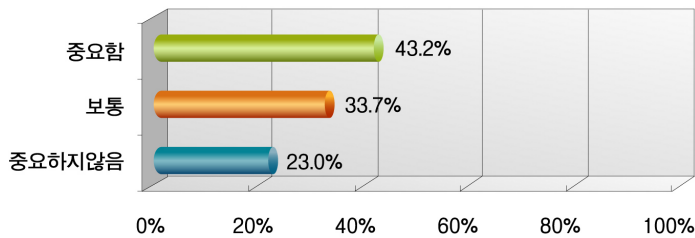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8 가정배경

‘가정배경’에 대해 응답자의 43.2%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가정배경’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46.8%)가 여자(39.1%)보다, 교급별로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특징적으로 중학교(49.7%)가 일반계고(34.7%)나 전문계고(43.8%)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대체로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5] 가정배경

<표 V-25> 가정배경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6	15.4	33.7	25.1	18.1	0.1	100(6,509)	
성별	남자	7.9	13.4	31.9	24.9	21.9	0.1	100(3,487)	88.460***
	여자	7.2	17.8	35.8	25.4	13.7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9	12.9	31.5	27.8	21.9	0.1	100(3,010)	151.184***
	일반계고	9.5	19.1	36.5	22.3	12.4	0.1	100(2,364)	
	전문계고	7.9	14.4	33.7	23.9	19.9	0.1	100(1,135)	
학년별	중1	5.5	9.7	30.4	29.4	25.0		100(968)	158.661***
	중2	6.1	13.7	30.6	27.2	22.4	0.1	100(1,024)	
	중3	6.2	15.1	33.4	26.8	18.4	0.1	100(1,018)	
	고1	9.3	15.6	33.7	24.4	16.9	0.1	100(1,236)	
	고2	8.2	18.9	38.9	20.8	13.1	0.1	100(1,217)	
	고3	9.6	18.4	34.1	23.2	14.5	0.2	100(1,046)	
	서울	7.4	13.2	33.8	26.3	19.2	0.1	100(1,015)	13.887
거주지	광역시	8.3	16.3	34.4	24.6	16.4		100(2,274)	
	시·군	7.1	15.5	33.2	25.1	19.0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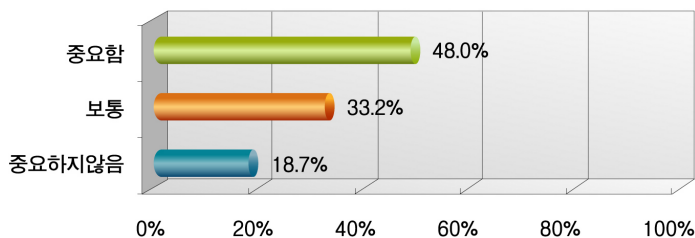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1-2-9 학별

‘학벌’에 대해 응답자의 48.0%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학벌’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49.8%)가 여자(45.8%)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9.7%로 가장 높았고, 학년별로는 중학교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서울(52.3%)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광역시(45.5%)나 시·군(48.4%)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6] 학벌

<표 V-26> 학벌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8	13.0	33.2	29.3	18.7	0.1	100(6,509)	
성별	남자	7.1	12.4	30.5	28.7	21.1	0.2	100(3,487)	64.808***
	여자	4.2	13.7	36.2	29.9	15.9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3	12.1	32.8	29.7	20.0	0.1	100(3,010)	36.377***
	일반계고	6.3	13.7	30.8	30.6	18.4	0.2	100(2,364)	
	전문계고	5.9	14.0	38.9	25.1	16.1		100(1,135)	
학년별	중1	4.1	9.5	32.3	30.3	23.5	0.3	100(968)	40.620**
	중2	5.5	13.0	34.1	29.4	18.0	0.1	100(1,024)	
	중3	6.2	13.6	32.0	29.6	18.7		100(1,018)	
	고1	7.2	13.3	34.3	27.6	17.6	0.1	100(1,236)	
	고2	5.3	13.3	34.2	29.3	17.8		100(1,217)	
	고3	5.9	14.9	31.5	29.7	17.5	0.4	100(1,046)	
	서울	5.9	13.8	27.9	31.1	21.2	0.1	100(1,015)	22.497**
거주지	광역시	5.6	13.0	35.8	28.4	17.1	0.1	100(2,274)	
	시·군	5.8	12.7	33.0	29.3	19.1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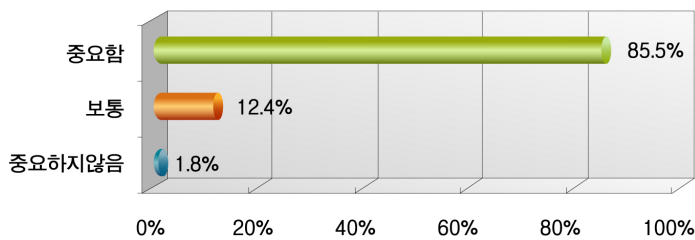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10 뚜렷한 목표의식

‘뚜렷한 목표의식’에 대해 응답자의 85.5%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뚜렷한 목표의식’에 대해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86.0%)가 남자(85.1%)보다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87.8%)가 전문계고(82.8%)나 중학교(84.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시·군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7] 뚜렷한 목표의식

<표 V-27> 뚜렷한 목표의식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5	1.4	12.4	35.8	49.7	0.2	100(6,509)	
성별	남자	0.8	1.3	12.6	34.2	50.8	0.2	100(3,487)	19.367**
	여자	0.2	1.4	12.2	37.6	48.4	0.3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6	1.5	13.0	35.2	49.5	0.2	100(3,010)	22.973**
	일반계고	0.2	1.1	10.5	36.8	51.0	0.3	100(2,364)	
	전문계고	0.7	1.5	14.8	35.2	47.7	0.2	100(1,135)	
학년별	중1	0.4	1.4	13.1	32.0	52.7	0.3	100(968)	24.075
	중2	0.6	1.8	13.6	37.8	46.0	0.3	100(1,024)	
	중3	0.9	1.2	12.4	35.6	50.0		100(1,018)	
	고1	0.4	1.2	11.1	36.3	50.8	0.2	100(1,236)	
	고2	0.2	1.1	12.8	37.6	48.0	0.3	100(1,217)	
	고3	0.5	1.5	11.9	34.7	51.1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0	0.9	12.9	36.3	48.8	0.2	100(1,015)	25.270**
	광역시	0.4	1.3	13.8	37.3	47.1	0.2	100(2,274)	
	시·군	0.4	1.6	11.3	34.5	51.9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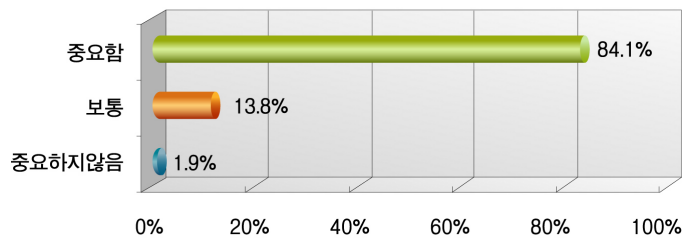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1-2-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84.1%가 중요하게 생각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을 묻는 문항 중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84.4%)가 여자(83.9%)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87.5%)가, 전문계고(83.3%)나 중학교(81.8%)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대체로 고등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중학생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8]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표 V-28>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응답자의 특성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0.4	1.4	13.8	42.8	41.3	0.1	100(6,509)	
성별	남자	0.6	1.8	13.1	39.7	44.7	0.1	100(3,487)	54.115***
	여자	0.2	1.0	14.7	46.5	37.4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0.6	1.7	15.8	41.9	40.0	0.1	100(3,010)	35.608***
	일반계고	0.3	1.2	10.9	44.6	42.9	0.2	100(2,364)	
	전문계고	0.5	1.1	14.8	41.8	41.6	0.2	100(1,135)	
학년별	중1	0.2	1.4	13.8	39.3	45.0	0.2	100(968)	61.721***
	중2	0.9	2.1	17.5	43.8	35.6	0.1	100(1,024)	
	중3	0.6	1.7	15.9	42.3	39.5		100(1,018)	
	고1	0.2	1.1	12.5	41.6	44.5	0.1	100(1,236)	
	고2	0.2	1.3	13.5	45.4	39.4	0.2	100(1,217)	
	고3	0.6	1.1	10.2	44.2	43.6	0.3	100(1,046)	
거주지	서울	0.5	1.6	16.4	39.1	42.3	0.2	100(1,015)	11.985
	광역시	0.3	1.4	13.5	44.2	40.6	0.1	100(2,274)	
	시·군	0.5	1.4	13.3	43.1	41.5	0.2	100(3,220)	

* $p<.05$, ** $p<.01$, *** $p<.001$

■ 1-1 진로·직업 가치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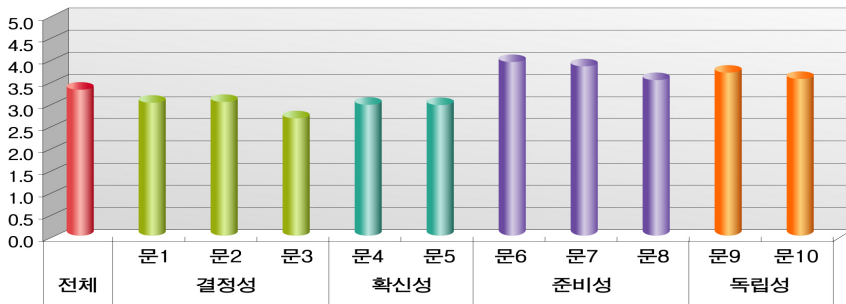
본 지표조사에서의 진로·직업 가치에 관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첫째,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청소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M=4.53)’,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M=4.31)’,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M=4.01)’ 등의 직업의 내적인 측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근무환경(M=4.53)’, ‘높은 고용안정성(M=4.29)’, ‘타인으로부터의 인정(M=4.20)’, ‘높은 보수(M=4.09)’, ‘규칙적인 출퇴근과 휴가의 보장(M=4.07)’ 등의 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가치를 청소년 개개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진로의사결정 사이의 ‘타협(compromise)’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M=4.34)’, ‘뚜렷한 목표의식(M=4.33)’, ‘근면함과 성실성(M=4.31)’, ‘좋은 성품(M=4.26)’, ‘자기개발(M=4.19)’ 등의 내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돈(자본)이나 재산(M=3.99)’, ‘인맥(M=4.18)’ 등의 외적인 요인이 요구된다는 인식도 낮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직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의식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 등의 교육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직업의 가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교과 영역에 관한 다양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학교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각 영역별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는 최동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박사의 원고를 기초로 일부 수정하였음.

1-2 진로·직업 태도 -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준비성(M=3.8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확신성(M=3.10)', '결정성(M=3.08)'의 순으로 나타났음. 세부 항목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M=3.93)'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림 V-29] 진로·직업 태도의 문항별 평균 비교

<표 V-29> 진로·직업 태도의 문항별 및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결정성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3.21	1.163
	2	나는 장애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3.25	1.169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2.74	1.206
소계			3.08	1.078
확신성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3.09	1.059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3.11	1.081
소계			3.10	0.963
준비성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3.93	0.982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3.92	1.077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3.71	1.011
소계			3.86	0.842
독립성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3.84	1.034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R)	3.73	1.063
소계			3.79	0.924
진로·직업태도(전체)			3.46	0.580

주. R은 역척도 문항을 의미함

■ 직업·직업 태도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직업 태도 전체 평균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광역시나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V-30>에 제시되어 있다.

<표 V-30> 진로·직업 태도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직업태도(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3,471)	3.09 (1.062)	1.057	3.13 (0.977)	2.821	3.74 (0.856)	-12.596	3.74 (0.973)	-4.855	3.42 (0.587)	-5.323
	여자 (n=3,009)	3.06 (1.078)		3.06 (0.946)	**	3.99 (0.777)	***	3.85 (0.859)	***	3.50 (0.570)	***
교급별	중학교 (n=2,995)	3.09 (1.071)	10.683 *** (ac, bc)	3.14 (0.976)	4.835 ** (ab, ac)	3.69 (0.835)	142.363 *** (ab, ac, bc)	3.80 (0.941)	12.448 *** (ac, bc)	3.42 (0.575)	38.859 *** (ab, bc)
	일반계고 (n=2,353)	3.12 (1.087)		3.07 (0.969)		4.07 (0.764)		3.83 (0.875)		3.54 (0.586)	
	전문계고 (n=1,132)	2.94 (2.018)		3.05 (0.915)		3.84 (0.847)		3.67 (0.962)		3.38 (0.563)	
학년별	중1 (n=962)	3.23 (1.065)	14.439 *** (de, df, dg, dh, ei, fi, gi, hi)	3.19 (0.988)	8.491 *** (dh, eh, hi)	3.65 (0.863)	54.734 *** (df, dg, dh, di, ef, eg, ei, fg, fh, fi, gi, hi)	3.82 (0.973)	2.664	3.46 (0.588)	20.039 *** (de, di, ei, fi, gi, hi)
	중2 (n=1,019)	2.98 (1.071)		3.13 (0.959)		3.65 (0.831)		3.83 (0.903)		3.38 (0.562)	
	중3 (n=1,014)	3.06 (1.064)		3.10 (0.979)		3.78 (0.807)		3.75 (0.945)		3.42 (0.573)	
	고1 (n=1,232)	3.05 (1.038)		3.06 (0.942)		3.92 (0.828)		3.78 (0.924)		3.46 (0.575)	
	고2 (n=1,212)	2.93 (1.061)		2.97 (0.934)		3.97 (0.811)		3.73 (0.907)		3.41 (0.570)	
	고3 (n=1,041)	3.23 (1.089)		3.18 (0.971)		4.11 (0.736)		3.84 (0.886)		3.61 (0.590)	
	서울 (n=1,011)	3.21 (1.088)		3.15 (0.956)		3.80 (0.854)		3.85 (0.920)		3.50 (0.596)	
거주지	광역시 (n=2,262)	3.03 (1.055)	10.669 *** (jk, ji)	3.06 (0.940)	3.677 * (jk)	3.86 (0.837)	2.933	3.76 (0.900)	3.358 * (jk)	3.43 (0.576)	5.816 ** (jk)
	시·군 (n=3,207)	3.06 (1.071)		3.11 (0.981)		3.87 (0.816)		3.79 (0.939)		3.46 (0.578)	
	전체 M(SD)	3.08(1.078)		3.10(0.963)		3.86(0.842)		3.79(0.924)		3.46(0.580)	

* $p<.05$, ** $p<.01$, *** $p<.001$

주: a=중학교, b=일반계고, c=전문계고, d=중1, e=중2, f=중3, g=고1, h=고2, i=고3, j=서울, k=광역시, l=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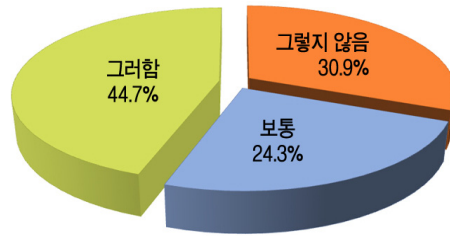
1-2-1 결정성-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2-1-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에서는 여자(46.9%)가 남자(42.8%)보다,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 학년별에서는 학년의 특성상 고3이 다른 학년에 비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서는 서울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V-30]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표 V-3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0	23.9	24.3	30.4	14.3	0.1	100(6,509)	
성별	남자	7.1	23.5	26.6	27.3	15.4	0.1	100(3,487)	45.673***
	여자	7.0	24.3	21.7	33.9	13.0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7.1	24.0	25.8	27.5	15.6	0.1	100(3,010)	71.236***
	일반계고	6.7	23.3	20.3	34.9	14.7	0.1	100(2,364)	
	전문계고	7.6	25.0	28.6	28.5	10.1	0.2	100(1,135)	
학년별	중1	5.8	20.9	26.8	27.7	18.8	0.1	100(968)	118.531***
	중2	8.3	27.5	24.7	25.3	14.1	0.1	100(1,024)	
	중3	7.1	23.3	25.9	29.7	14.0		100(1,018)	
	고1	7.0	23.7	24.7	32.0	12.6		100(1,236)	
	고2	8.1	28.1	23.7	30.2	9.8	0.1	100(1,217)	
	고3	5.7	19.0	20.3	36.8	17.9	0.3	100(1,046)	
	서울	5.9	21.0	22.9	34.1	16.0	0.2	100(1,015)	19.785*
거주지	광역시	6.7	25.5	24.7	29.4	13.5	0.2	100(2,274)	
	시·군	7.6	23.6	24.5	29.9	14.3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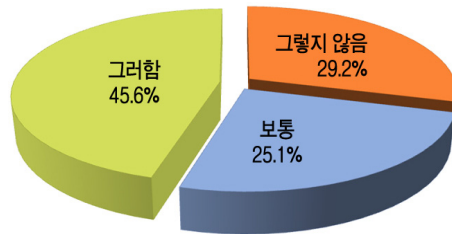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2-1-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48.5%)가 여자(43.1%)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8.9%)가, 전문계고(39.1%)나 중학교(45.4%)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고2(39.6%)와 고3(52.4%)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3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표 V-3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6.9	22.3	25.1	29.7	15.9	0.1	100(6,509)	
성별	남자	6.6	22.3	28.0	26.7	16.4	100(3,487)	48.160***
	여자	7.2	22.4	21.9	33.1	15.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7.1	21.8	25.5	27.6	17.8	100(3,010)	64.647***
	일반계고	5.9	22.8	22.3	32.9	15.9	100(2,364)	
	전문계고	8.3	22.6	30.0	28.4	10.7	100(1,135)	
학년별	중1	5.9	18.5	25.6	28.3	21.6	100(968)	96.232***
	중2	8.4	24.4	25.2	26.2	15.7	100(1,024)	
	중3	7.0	22.4	25.8	28.5	16.3	100(1,018)	
	고1	5.7	23.8	24.5	31.7	14.3	100(1,236)	
	고2	8.0	26.3	26.1	27.7	11.9	100(1,217)	
	고3	6.3	17.5	23.6	35.5	16.9	100(1,046)	
거주지	서울	5.7	20.6	23.2	32.2	18.1	100(1,015)	19.814*
	광역시	6.8	23.9	25.8	29.2	14.2	100(2,274)	
	시·군	7.3	21.8	25.3	29.2	16.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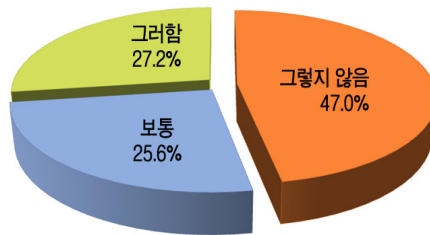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2-1-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28.3%)가 여자(26.0%)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고2가 가장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 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32]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표 V-3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5.9	31.1	25.6	17.3	10.0	0.2	100(6,509)	
성별	남자	14.2	30.6	26.7	17.6	10.8	0.2	100(3,487)	22.983***
	여자	17.9	31.6	24.4	16.9	9.0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5.3	29.7	27.8	16.6	10.4	0.2	100(3,010)	40.885***
	일반계고	15.8	31.7	22.8	18.5	11.1	0.1	100(2,364)	
	전문계고	17.7	33.2	25.7	16.7	6.4	0.3	100(1,135)	
학년별	중1	13.8	24.7	30.1	18.5	12.7	0.2	100(968)	84.453***
	중2	16.3	32.0	28.2	15.2	7.9	0.3	100(1,024)	
	중3	15.8	32.2	25.2	16.1	10.6		100(1,018)	
	고1	16.4	32.3	25.7	16.4	9.1	0.1	100(1,236)	
	고2	17.2	35.7	22.3	16.9	7.8	0.2	100(1,217)	
	고3	15.5	28.1	23.0	20.7	12.3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3.9	27.5	25.6	20.7	11.9	0.4	100(1,015)	22.451**
	광역시	16.2	32.4	25.7	16.1	9.4	0.2	100(2,274)	
	시·군	16.3	31.2	25.5	17.1	9.8	0.1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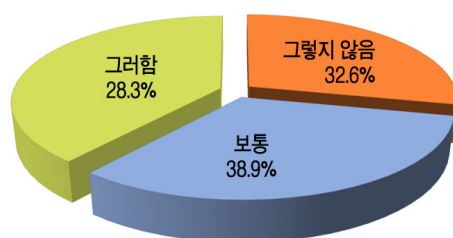
1-2-2 확산성-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2-2-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여자(29.7%)가 남자(27.0%)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고2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V-33]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표 V-3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1.0	21.6	38.9	22.0	6.3	0.2	100(6,509)	
성별	남자	12.4	21.9	38.4	20.4	6.6	0.2	100(3,487)	23.559***
	여자	9.3	21.4	39.4	23.7	6.0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2.0	22.4	38.2	21.4	5.8	0.2	100(3,010)	23.072**
	일반계고	10.8	20.8	37.8	23.3	7.0	0.3	100(2,364)	
	전문계고	8.5	21.6	43.1	20.6	6.2		100(1,135)	
학년별	중1	13.6	22.9	38.7	19.5	5.0	0.2	100(968)	56.256***
	중2	11.0	23.7	37.8	20.6	6.5	0.3	100(1,024)	
	중3	11.4	20.4	38.0	24.0	6.0	0.2	100(1,018)	
	고1	9.6	21.1	39.6	22.7	6.8	0.2	100(1,236)	
	고2	7.8	19.0	40.9	24.4	7.8	0.1	100(1,217)	
	고3	13.3	23.3	37.8	19.8	5.4	0.4	100(1,046)	
거주지	서울	12.1	24.2	36.4	21.7	5.3	0.3	100(1,015)	18.759*
	광역시	9.5	21.0	39.8	23.3	6.2	0.2	100(2,274)	
	시·군	11.6	21.3	39.0	21.1	6.8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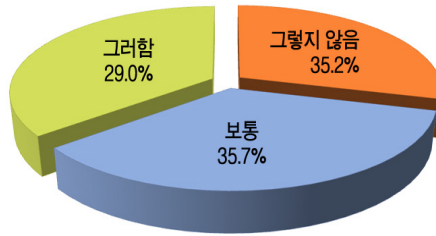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2-2-2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에서는 여자(30.1%)가 남자(28.1%)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2의 긍정 응답률이 33.6%로 나타나 다른 학년에 비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4]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표 V-3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1.3	23.9	35.7	22.4	6.6	0.1	100(6,509)	
성별	남자	12.2	23.7	35.9	21.1	6.9	100(3,487)	12.595*
	여자	10.3	24.1	35.4	23.9	6.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2.4	24.3	35.8	20.1	7.2	100(3,010)	35.088***
	일반계고	11.3	23.7	34.0	25.0	5.9	100(2,364)	
	전문계고	8.4	23.1	38.8	23.3	6.3	100(1,135)	
학년별	중1	13.7	24.8	34.3	19.0	8.1	100(968)	47.488**
	중2	11.1	24.7	37.1	20.2	6.7	100(1,024)	
	중3	12.3	23.4	36.1	21.1	7.0	100(1,018)	
	고1	10.4	23.7	35.6	24.0	6.2	100(1,236)	
	고2	8.7	22.0	35.6	26.9	6.7	100(1,217)	
	고3	12.3	25.0	35.5	22.0	5.0	100(1,046)	
	서울	10.9	23.9	38.7	20.4	5.8	100(1,015)	11.524
거주지	광역시	10.5	23.1	36.0	23.5	6.7	100(2,274)	
	시·군	12.0	24.4	34.5	22.3	6.7	100(3,22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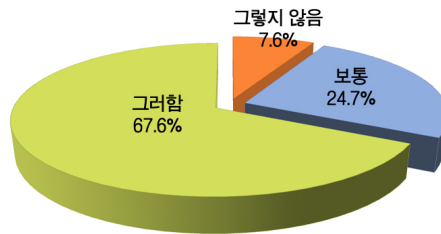
1-2-3 준비성-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2-3-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6%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72.8%)가 남자(63.1%)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가 77.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3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표 V-3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	6.2	24.7	33.1	34.5	0.1	100(6,509)	
성별	남자	1.8	7.1	27.9	31.8	31.3	0.1	100(3,487)	75.114***
	여자	1.0	5.1	21.0	34.5	38.2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8	7.7	29.6	32.6	28.1	0.1	100(3,010)	199.134***
	일반계고	0.6	4.5	17.7	34.4	42.6	0.2	100(2,364)	
	전문계고	2.1	5.6	26.2	31.5	34.5	0.1	100(1,135)	
학년별	중1	2.6	8.4	30.6	31.0	27.3	0.2	100(968)	207.781***
	중2	2.0	8.6	30.2	33.1	26.1	0.1	100(1,024)	
	중3	0.9	6.2	28.1	33.7	31.0	0.1	100(1,018)	
	고1	1.1	6.2	23.1	32.9	36.4	0.2	100(1,236)	
	고2	1.6	4.9	20.5	34.7	38.4		100(1,217)	
	고3	0.7	3.1	17.3	32.8	46.0	0.2	100(1,046)	
거주지	서울	1.8	6.4	26.6	31.0	34.0	0.2	100(1,015)	4.996
	광역시	1.3	6.3	24.2	33.6	34.5	0.2	100(2,274)	
	시·군	1.4	6.0	24.4	33.4	34.7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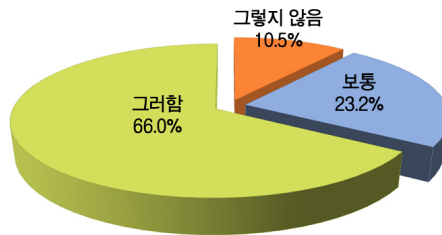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2-3-2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0%가 그렇다고 응답

○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74.2%)가 남자(59.0%)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다른 교급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시·군지역이 가장 높았다.



[그림 V-36]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표 V-3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5	8.0	23.2	27.6	38.4	0.2	100(6,509)	
성별	남자	3.5	10.2	27.1	26.2	32.8	0.2	100(3,487)	191.008***
	여자	1.4	5.5	18.8	29.4	44.9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3	10.2	27.7	27.6	31.0	0.2	100(3,010)	212.726***
	일반계고	1.3	6.2	17.3	27.4	47.6	0.2	100(2,364)	
	전문계고	3.2	6.2	23.7	28.2	38.8		100(1,135)	
학년별	중1	4.3	10.4	30.9	24.4	30.0		100(968)	216.647***
	중2	2.8	11.5	26.5	28.8	30.1	0.3	100(1,024)	
	중3	2.7	8.5	26.0	29.5	33.0	0.3	100(1,018)	
	고1	2.0	6.9	22.6	26.5	41.8	0.2	100(1,236)	
	고2	2.1	6.7	17.9	27.8	45.6		100(1,217)	
	고3	1.5	4.8	17.3	29.0	47.2	0.2	100(1,046)	
거주지	서울	3.2	9.8	26.2	27.1	33.7	0.1	100(1,015)	21.743**
	광역시	2.4	8.4	23.3	27.4	38.3	0.2	100(2,274)	
	시·군	2.4	7.2	22.3	28.0	40.0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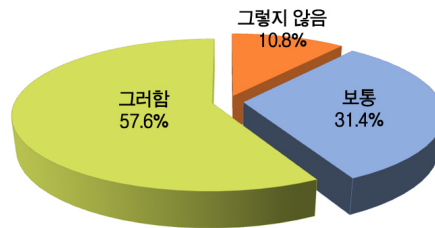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2-3-3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6%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로는 여자(62.2%)가 남자(53.5%)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7.8%)가 전문계고(56.8%)나 중학교(49.8%)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37]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표 V-3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8	9.0	31.4	31.3	26.3	0.2	100(6,509)	
성별	남자	2.4	10.2	33.8	29.7	23.9	0.1	100(3,487)	60.515***
	여자	1.2	7.6	28.8	33.2	29.1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3	11.5	36.1	28.4	21.5	0.2	100(3,010)	197.748***
	일반계고	1.0	6.0	25.1	34.8	33.0	0.1	100(2,364)	
	전문계고	2.5	8.6	32.1	31.7	25.1		100(1,135)	
학년별	중1	2.9	11.3	36.4	25.8	23.5	0.2	100(968)	200.082***
	중2	2.3	13.4	37.4	27.6	18.9	0.3	100(1,024)	
	중3	1.6	9.9	34.7	31.5	22.1	0.2	100(1,018)	
	고1	1.7	7.6	29.0	34.1	27.6	0.1	100(1,236)	
	고2	1.6	8.2	28.0	32.2	30.0		100(1,217)	
	고3	1.1	4.3	24.8	35.3	34.4	0.2	100(1,046)	
	서울	1.9	9.5	30.3	31.3	26.9	0.1	100(1,015)	2.767
거주지	광역시	1.6	9.0	31.2	32.0	25.9	0.2	100(2,274)	
	시·군	2.0	8.9	32.0	30.7	26.4	0.1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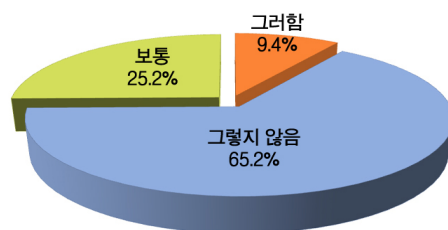
1-2-4 독립성-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2-4-1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대해 응답자의 9.4%만이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에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11.6%)가 여자(6.9%)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중2를 제외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38]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표 V-3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1.1	34.0	25.2	6.4	3.0	0.2	100(6,509)	
성별	남자	30.7	31.7	25.9	7.5	4.1	0.1	100(3,487)	55.889***
	여자	31.6	36.8	24.4	5.1	1.8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2.1	32.6	24.8	6.7	3.7	0.2	100(3,010)	48.980***
	일반계고	31.4	37.1	24.3	4.9	2.0	0.2	100(2,364)	
	전문계고	28.1	31.5	28.2	8.6	3.4	0.1	100(1,135)	
학년별	중1	33.2	30.7	25.0	6.3	4.8	0.1	100(968)	39.001**
	중2	32.7	33.7	24.5	6.2	2.6	0.3	100(1,024)	
	중3	30.4	33.3	24.9	7.7	3.6	0.2	100(1,018)	
	고1	32.1	33.5	24.8	6.8	2.8	0.1	100(1,236)	
	고2	27.1	37.7	26.5	5.9	2.6	0.2	100(1,217)	
	고3	32.0	34.6	25.5	5.6	2.0	0.2	100(1,046)	
거주지	서울	34.7	32.6	23.8	5.7	3.1	0.1	100(1,015)	18.947*
	광역시	28.8	35.6	26.7	6.0	2.6	0.3	100(2,274)	
	시·군	31.7	33.4	24.6	6.9	3.3	0.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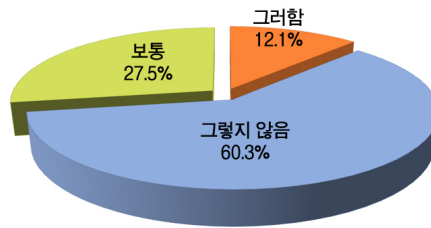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2-4-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2.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13.1%)가 여자(10.9%)보다 약 2.2%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의 긍정 응답률이 14.6%로 나타나, 일반계고(11.3%)나 중학교(11.8%)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학년별에서는 고3의 긍정 응답률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림 V-39]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표 V-4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8.1	32.1	27.5	8.9	3.2	0.1	100(6,509)	
성별	남자	27.9	30.7	28.2	9.1	4.0	0.2	100(3,487)	21.107***
	여자	28.4	33.9	26.7	8.6	2.3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0.2	31.0	26.9	8.3	3.5	0.1	100(3,010)	36.278***
	일반계고	27.2	34.2	27.2	9.1	2.2	0.2	100(2,364)	
	전문계고	24.5	31.0	29.9	10.0	4.6		100(1,135)	
학년별	중1	34.1	28.5	25.5	7.4	4.2	0.2	100(968)	48.474***
	중2	28.8	34.2	25.6	8.1	3.2	0.1	100(1,024)	
	중3	28.0	30.1	29.5	9.3	3.0	0.1	100(1,018)	
	고1	26.3	32.6	28.5	9.5	3.0	0.1	100(1,236)	
	고2	24.6	32.3	29.3	10.4	3.5	0.1	100(1,217)	
	고3	28.4	34.8	26.1	8.1	2.4	0.2	100(1,046)	
거주지	서울	29.9	33.3	26.0	8.1	2.6	0.2	100(1,015)	12.761
	광역시	26.2	32.5	28.6	9.6	3.0	0.1	100(2,274)	
	시·군	28.9	31.5	27.2	8.7	3.6	0.1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 1-2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정적인 결정을 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그 결정에 대해 보통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으나, 관심 분야의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이나 진로상담 등을 통해 감정적인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계속적인 탐색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탐색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독립적인 태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진로탐색의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이나 가설들을 다양한 방식, 특히 현직자나 상담자 등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전체 응답자의 44.7%가 확실한 진로결정을 하였으며, 45.6%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사결정 내용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할 여지가 높다고 할 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높은 진로준비성과 독립성 태도를 촉진시켜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이들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진로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직업 태도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기의 진로결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문계 고교생은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일반계 고교생보다 높게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학년에 따른 진로·직업 태도의 변화 양상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년이 시작할 때는 높게 형성

되었던 진로·직업 태도가 2학년 시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3학년 시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중학교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보다 진로·직업 태도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볼 때, 학년이 증가하고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진로개발을 위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자신감이나 효능감이 약화되는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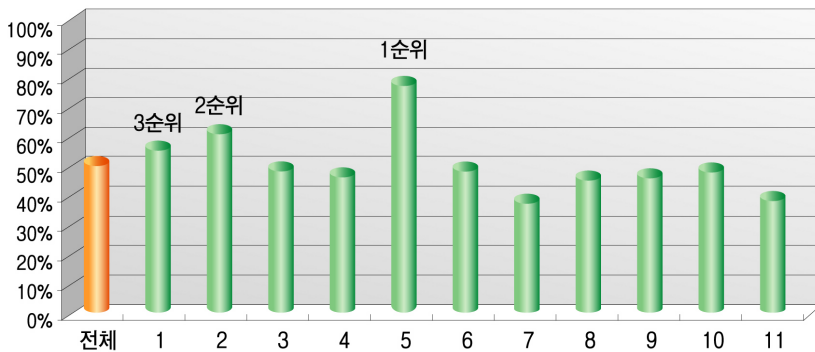
즉 학년의 증가와 함께 진로결정의 요구나 필요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유형의 고려해야 할 요인들 속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자신감 결여 또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진로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구나 개입전략이 조기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단순한 심리검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78.3%)’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61.6%)’,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55.2%)’ 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V-40]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표 V-4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번호	문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55.2	44.8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61.6	38.4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9.3	50.7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45.4	54.6
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78.3	21.7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48.5	51.5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7.2	62.8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45.3	54.7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7.2	52.8
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48.6	51.4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8.6	61.4
전체		50.5	49.5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1-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표 V-42〉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55.2	44.8	100(6,509)	
성별	남자	56.1	43.9	100(3,487)	2.425
	여자	54.2	45.8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3.5	46.5	100(3,010)	7.582*
	일반계고	56.0	44.0	100(2,364)	
	전문계고	58.0	42.0	100(1,135)	
학년별	중1	51.1	48.9	100(968)	36.247***
	중2	50.3	49.7	100(1,024)	
	중3	59.0	41.0	100(1,018)	
	고1	60.3	39.7	100(1,236)	
	고2	53.9	46.1	100(1,217)	
	고3	55.5	44.5	100(1,046)	
거주지	서울	63.1	36.9	100(1,015)	30.077***
	광역시	53.5	46.5	100(2,274)	
	시·군	53.9	46.1	100(3,220)	

* $p<.05$, ** $p<.01$, *** $p<.001$

2-1-1-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표 V-43〉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61.6	38.4	100(6,509)	
성별	남자	62.0	38.0	100(3,487)	0.575
	여자	61.1	38.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8.9	41.1	100(3,010)	16.644***
	일반계고	63.6	36.4	100(2,364)	
	전문계고	64.3	35.7	100(1,135)	
학년별	중1	59.2	40.8	100(968)	58.245***
	중2	52.0	48.0	100(1,024)	
	중3	65.7	34.3	100(1,018)	
	고1	64.8	35.2	100(1,236)	
	고2	63.0	37.0	100(1,217)	
	고3	63.7	36.3	100(1,046)	
거주지	서울	59.9	40.1	100(1,015)	1.904
	광역시	61.3	38.7	100(2,274)	
	시·군	62.3	37.7	100(3,220)	

* $p<.05$, ** $p<.01$, *** $p<.001$

2-1-1-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4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9.3	50.7	100(6,509)	
성별	남자	52.3	47.7	100(3,487)	26.941***
	여자	45.8	54.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2.5	47.5	100(3,010)	127.145***
	일반계고	40.6	59.4	100(2,364)	
	전문계고	59.0	41.0	100(1,135)	
학년별	중1	52.8	47.2	100(968)	28.435***
	중2	50.9	49.1	100(1,024)	
	중3	53.7	46.3	100(1,018)	
	고1	48.5	51.5	100(1,236)	
	고2	44.4	55.6	100(1,217)	
	고3	46.8	53.2	100(1,046)	
거주지	서울	57.9	42.1	100(1,015)	41.657***
	광역시	49.6	50.4	100(2,274)	
	사·군	46.3	53.7	100(3,220)	

* $p<.05$, ** $p<.01$, *** $p<.001$

2-1-1-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표 V-45〉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5.4	54.6	100(6,509)	
성별	남자	48.5	51.5	100(3,487)	28.706***
	여자	41.9	58.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3.9	56.1	100(3,010)	29.095***
	일반계고	44.0	56.0	100(2,364)	
	전문계고	52.7	47.3	100(1,135)	
학년별	중1	40.5	59.5	100(968)	34.580***
	중2	41.4	58.6	100(1,024)	
	중3	49.5	50.5	100(1,018)	
	고1	49.9	50.1	100(1,236)	
	고2	44.0	56.0	100(1,217)	
	고3	46.5	53.5	100(1,046)	
거주지	서울	51.5	48.5	100(1,015)	20.340***
	광역시	45.6	54.4	100(2,274)	
	사·군	43.4	56.6	100(3,220)	

* $p<.05$, ** $p<.01$, *** $p<.001$

2-1-1-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표 V-46〉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78.3	21.7	100(6,509)	
성별	남자	75.4	24.6	100(3,487)	37.924***
	여자	81.7	18.3	100(3,022)	
교육별	중학교	74.0	26.0	100(3,010)	66.210***
	일반계고	83.0	17.0	100(2,364)	
	전문계고	80.3	19.7	100(1,135)	
학년별	중1	68.0	32.0	100(968)	160.064***
	중2	69.8	30.2	100(1,024)	
	중3	83.8	16.2	100(1,018)	
	고1	81.1	18.9	100(1,236)	
	고2	84.8	15.2	100(1,217)	
	고3	80.1	19.9	100(1,046)	
거주지	서울	81.6	18.4	100(1,015)	9.379**
	광역시	78.6	21.4	100(2,274)	
	사.군	77.1	22.9	100(3,220)	

* $p<.05$, ** $p<.01$, *** $p<.001$

2-1-1-6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표 V-47〉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8.5	51.5	100(6,509)	
성별	남자	49.5	50.5	100(3,487)	2.552
	여자	47.5	52.5	100(3,022)	
교육별	중학교	50.8	49.2	100(3,010)	19.726***
	일반계고	44.9	55.1	100(2,364)	
	전문계고	50.0	50.0	100(1,135)	
학년별	중1	49.2	50.8	100(968)	27.270***
	중2	48.1	51.9	100(1,024)	
	중3	55.1	44.9	100(1,018)	
	고1	48.9	51.1	100(1,236)	
	고2	45.7	54.3	100(1,217)	
	고3	44.9	55.1	100(1,046)	
거주지	서울	52.4	47.6	100(1,015)	7.722*
	광역시	48.4	51.6	100(2,274)	
	사.군	47.4	52.6	100(3,220)	

* $p<.05$, ** $p<.01$, *** $p<.001$

2-1-1-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48〉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37.2	62.8	100(6,509)	
성별	남자	40.2	59.8	100(3,487)	28.863***
	여자	33.8	66.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7.9	62.1	100(3,010)	43.326***
	일반계고	32.9	67.1	100(2,364)	
	전문계고	44.2	55.8	100(1,135)	
학년별	중1	37.0	63.0	100(968)	8.916
	중2	36.3	63.7	100(1,024)	
	중3	40.5	59.5	100(1,018)	
	고1	38.0	62.0	100(1,236)	
	고2	34.6	65.4	100(1,217)	
	고3	37.2	62.8	100(1,046)	
거주지	서울	41.2	58.8	100(1,015)	9.346**
	광역시	37.3	62.7	100(2,274)	
	사·군	35.9	64.1	100(3,220)	

* $p<.05$, ** $p<.01$, *** $p<.001$

2-1-1-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표 V-49〉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5.3	54.7	100(6,509)	
성별	남자	47.5	52.5	100(3,487)	14.082***
	여자	42.8	57.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8.0	62.0	100(3,010)	128.782***
	일반계고	50.0	50.0	100(2,364)	
	전문계고	54.9	45.1	100(1,135)	
학년별	중1	33.1	66.9	100(968)	179.859***
	중2	35.4	64.6	100(1,024)	
	중3	45.3	54.7	100(1,018)	
	고1	46.0	54.0	100(1,236)	
	고2	55.0	45.0	100(1,217)	
	고3	54.3	45.7	100(1,046)	
거주지	서울	45.8	54.2	100(1,015)	13.659**
	광역시	48.2	51.8	100(2,274)	
	사·군	43.1	56.9	100(3,220)	

* $p<.05$, ** $p<.01$, *** $p<.001$

2-1-1-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5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7.2	52.8	100(6,509)	
성별	남자	49.2	50.8	100(3,487)	11.371**
	여자	45.0	55.0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1.2	48.8	100(3,010)	57.952***
	일반계고	41.0	59.0	100(2,364)	
	전문계고	49.4	50.6	100(1,135)	
학년별	중1	51.7	48.3	100(968)	48.903***
	중2	49.2	50.8	100(1,024)	
	중3	52.8	47.2	100(1,018)	
	고1	47.3	52.7	100(1,236)	
	고2	42.0	58.0	100(1,217)	
	고3	41.6	58.4	100(1,046)	
거주지	서울	55.3	44.7	100(1,015)	37.510***
	광역시	47.7	52.3	100(2,274)	
	사·군	44.3	55.7	100(3,220)	

* $p<.05$, ** $p<.01$, *** $p<.001$

2-1-1-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표 V-51〉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8.6	51.4	100(6,509)	
성별	남자	49.1	50.9	100(3,487)	0.898
	여자	47.9	52.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5.8	54.2	100(3,010)	19.020***
	일반계고	50.0	50.0	100(2,364)	
	전문계고	52.8	47.2	100(1,135)	
학년별	중1	42.3	57.7	100(968)	43.446***
	중2	43.8	56.2	100(1,024)	
	중3	51.3	48.7	100(1,018)	
	고1	51.7	48.3	100(1,236)	
	고2	47.8	52.2	100(1,217)	
	고3	53.6	46.4	100(1,046)	
거주지	서울	52.5	47.5	100(1,015)	9.947**
	광역시	49.1	50.9	100(2,274)	
	사·군	47.0	53.0	100(3,220)	

* $p<.05$, ** $p<.01$, *** $p<.001$

2-1-1-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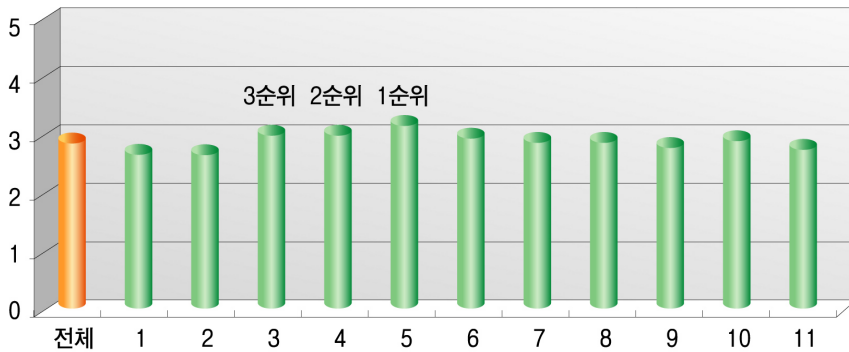
<표 V-5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38.6	61.4	100(6,509)	
성별	남자	42.5	57.5	100(3,487)	48.790***
	여자	34.1	65.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0.0	60.0	100(3,010)	105.848***
	일반계고	31.6	68.4	100(2,364)	
	전문계고	49.3	50.7	100(1,135)	
학년별	중1	41.4	58.6	100(968)	14.522*
	중2	37.8	62.2	100(1,024)	
	중3	41.0	59.0	100(1,018)	
	고1	40.0	60.0	100(1,236)	
	고2	35.4	64.6	100(1,217)	
	고3	36.3	63.7	100(1,046)	
거주지	서울	40.1	59.9	100(1,015)	2.216
	광역시	39.1	60.9	100(2,274)	
	시·군	37.7	62.3	100(3,220)	

* $p<.05$, ** $p<.01$, *** $p<.001$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3.21)’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3.09)’,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3.06)’ 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V-4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53>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2.81	1.035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2.84	0.978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3.06	1.037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3.09	1.017
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3.21	1.000
6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3.02	1.011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2.99	1.057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2.98	1.061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2.90	1.044
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2.97	0.998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2.81	1.132
	전체	2.97	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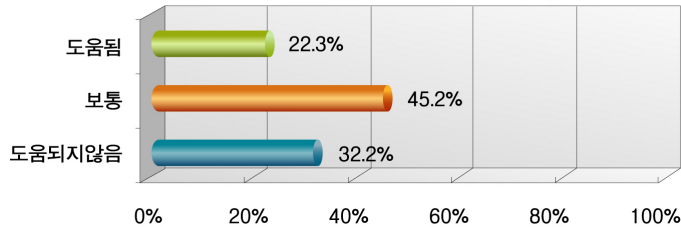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1-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도움정도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25%)가 여자(19%)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9.4%)가 전문계고(19.6%)나 일반계고(1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V-42]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표 V-54>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1	18.2	45.2	17.7	4.6	0.3	100(3,593)	
성별	남자	14.1	16.3	44.3	19.6	5.4	0.3	100(1,956)	24.228***
	여자	14.0	20.4	46.2	15.4	3.6	0.4	100(1,637)	
교급별	중학교	8.4	13.8	48.0	22.6	6.8	0.4	100(1,611)	219.636***
	일반계고	21.2	24.2	39.3	12.4	2.6	0.4	100(1,324)	
	전문계고	13.4	16.9	50.0	16.3	3.3	0.2	100(658)	
학년별	중1	5.9	9.3	45.3	29.1	10.3	0.2	100(495)	344.294***
	중2	9.7	16.9	48.5	19.0	5.2	0.6	100(515)	
	중3	9.5	14.8	49.9	20.3	5.2	0.3	100(601)	
	고1	13.6	20.1	47.5	15.2	3.2	0.4	100(745)	
	고2	13.1	21.8	45.4	16.0	3.2	0.5	100(656)	
	고3	31.3	23.8	33.9	9.1	1.9		100(581)	
	서울	16.3	18.4	39.4	20.0	5.5	0.5	100(640)	19.061*
거주지	광역시	12.1	18.4	47.0	18.3	3.8	0.4	100(1,217)	
	시·군	14.6	17.9	46.0	16.4	4.8	0.2	100(1,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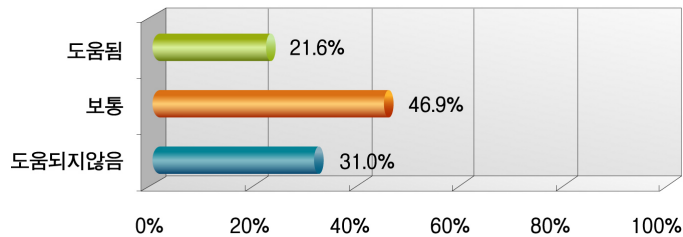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24.7%)가 여자(18%)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8.7%)가 전문계고(18.8%)나 일반계고(14.6%)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없었다.



[그림 V-43]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표 V-55>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0.7	20.3	46.9	17.3	4.3	0.4	100(4,008)	
성별	남자	11.5	18.7	44.7	19.2	5.5	0.4	100(2,162)	37.038***
	여자	9.9	22.2	49.5	15.1	3.0	0.4	100(1,846)	
교급별	중학교	7.2	15.7	48.0	22.3	6.5	0.4	100(1,774)	205.145***
	일반계고	16.0	26.3	42.6	12.2	2.3	0.5	100(1,504)	
	전문계고	8.5	19.2	53.3	15.6	3.2	0.3	100(730)	
학년별	중1	4.4	8.9	49.7	26.0	10.5	0.5	100(573)	312.149***
	중2	8.5	18.6	49.8	17.5	5.5	0.2	100(532)	
	중3	8.7	19.1	45.0	22.9	3.9	0.4	100(669)	
	고1	10.1	20.5	48.1	17.1	3.5	0.7	100(801)	
	고2	10.3	24.3	50.2	12.0	2.7	0.5	100(767)	
	고3	21.3	27.9	39.0	10.4	1.4		100(666)	
거주지	서울	11.8	20.9	43.8	17.4	5.8	0.3	100(608)	13.700
	광역시	9.0	20.1	49.0	17.8	3.7	0.5	100(1,395)	
	시·군	11.6	20.2	46.5	16.9	4.3	0.4	10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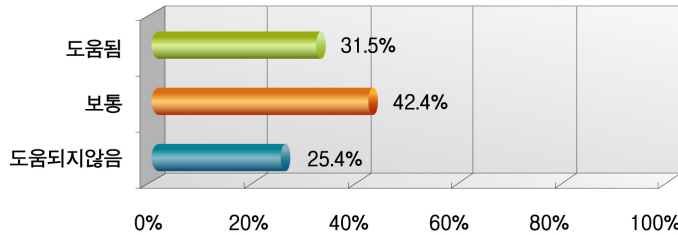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로는 남자(33.7%)가 여자(28.7%)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34.8%)가 전문계고(30.4%)나 일반계고(27%)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V-4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56>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4	17.0	42.4	23.2	8.4	0.7	100(3,208)	
성별	남자	8.8	16.7	40.2	23.9	9.9	0.6	100(1,823)	18.232**
	여자	7.9	17.3	45.3	22.3	6.4	0.7	100(1,385)	
교급별	중학교	6.3	15.3	42.9	24.4	10.4	0.7	100(1,579)	61.801***
	일반계고	11.8	21.6	39.2	21.3	5.7	0.4	100(959)	
	전문계고	8.5	14.3	45.8	23.1	7.3	0.9	100(670)	
학년별	중1	4.3	11.2	43.1	26.4	14.3	0.8	100(511)	96.769***
	중2	7.9	16.1	45.3	22.3	7.9	0.6	100(521)	
	중3	6.8	18.3	40.6	24.5	9.1	0.7	100(547)	
	고1	8.8	16.7	44.4	21.7	7.5	0.8	100(599)	
	고2	9.3	17.2	45.9	20.4	6.5	0.7	100(540)	
	고3	13.7	22.4	34.5	24.3	4.9	0.2	100(490)	
	서울	8.2	17.5	40.1	24.8	8.7	0.7	100(588)	
거주지	광역시	7.4	16.7	43.1	24.9	7.4	0.5	100(1,128)	10.261
	시·군	9.2	17.0	42.8	21.2	9.0	0.7	100(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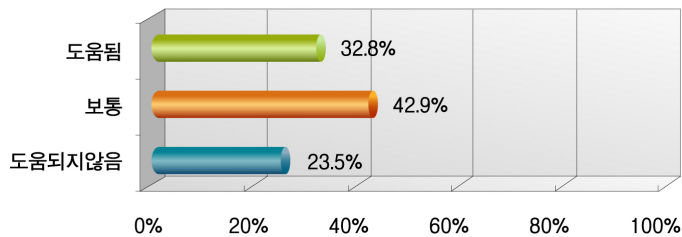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36.2%)가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30.1%)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34.7%)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림 V-45]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표 V-57>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2	15.3	42.9	25.4	7.5	0.8	100(2,958)	
성별	남자	9.1	15.4	42.0	25.4	7.4	0.7	100(1,692)	4.758
	여자	7.0	15.3	44.0	25.3	7.5	0.9	100(1,266)	
교급별	중학교	7.2	13.3	42.4	26.1	10.1	0.8	100(1,320)	47.115***
	일반계고	9.8	18.9	40.4	25.1	5.0	0.8	100(1,040)	
	전문계고	7.5	13.5	48.2	24.1	6.0	0.7	100(598)	
학년별	중1	6.1	10.7	41.8	26.3	14.0	1.0	100(392)	75.565***
	중2	8.7	13.4	44.6	25.2	6.8	1.2	100(424)	
	중3	6.7	15.3	41.1	26.8	9.7	0.4	100(504)	
	고1	8.1	14.1	44.9	25.0	7.0	1.0	100(617)	
	고2	7.1	17.4	43.9	27.1	3.6	0.9	100(535)	
	고3	12.1	20.2	40.3	21.8	5.3	0.2	100(486)	
거주지	서울	9.9	17.4	40.2	23.9	7.5	1.1	100(523)	15.778*
	광역시	6.6	15.4	46.1	24.6	6.5	0.8	100(1,036)	
	시·군	8.7	14.5	41.5	26.4	8.2	0.6	100(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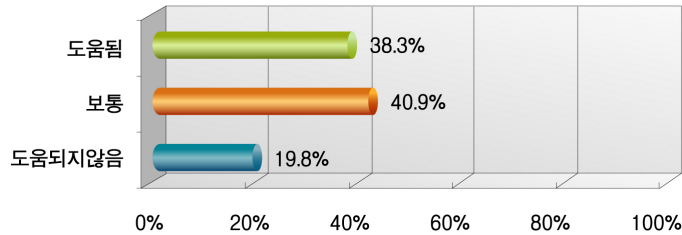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9.8%)가 남자(36.8%)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42.5%)가 일반계고(36.3%)나 전문계고(32/2%)보다 더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41.3%)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46]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표 V-58>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6.3	13.5	40.9	29.5	8.8	1.0	100(5,098)	
성별	남자	7.8	14.2	40.1	27.4	9.4	1.1	100(2,629)	32.093***
	여자	4.7	12.8	41.7	31.6	8.1	1.0	100(2,469)	
교급별	중학교	4.9	12.1	39.4	30.6	11.9	1.1	100(2,226)	80.114***
	일반계고	8.1	14.8	39.7	29.4	6.9	1.2	100(1,961)	
	전문계고	5.8	14.3	47.1	26.8	5.4	0.7	100(911)	
학년별	중1	4.9	9.0	41.2	29.2	15.0	0.8	100(658)	171.345***
	중2	5.3	15.2	40.1	29.8	8.3	1.3	100(715)	
	중3	4.7	12.0	37.3	32.5	12.4	1.2	100(853)	
	고1	5.7	12.1	43.2	29.9	7.9	1.2	100(1,002)	
	고2	5.4	14.5	39.5	32.2	7.3	1.1	100(1,032)	
	고3	11.7	17.8	43.8	22.4	3.6	0.7	100(838)	
거주지	서울	7.1	13.2	36.6	31.8	9.5	1.8	100(828)	16.677*
	광역시	5.5	14.7	42.7	28.4	7.7	0.9	100(1,788)	
	시·군	6.6	12.8	41.0	29.5	9.3	0.9	100(2,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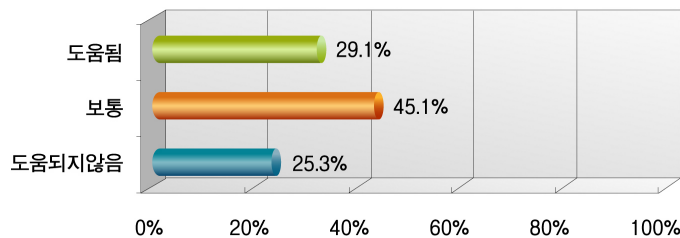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1-6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0.8%)가 여자(26.9%)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32.2%)가 전문계고(26.4%)나 일반계고(25.9%)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V-47]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표 V-59>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9	16.4	45.1	22.2	6.9	0.5	100(3,160)	
성별	남자	9.6	16.2	42.9	23.0	7.9	0.4	100(1,725)	13.261*
	여자	8.0	16.6	47.8	21.3	5.6	0.7	100(1,435)	
교급별	중학교	7.6	14.7	44.7	23.3	9.0	0.7	100(1,530)	51.886***
	일반계고	10.8	20.2	42.6	20.2	5.6	0.5	100(1,062)	
	전문계고	8.6	13.7	51.1	22.9	3.5	0.2	100(568)	
학년별	중1	5.7	10.1	43.3	26.9	13.2	0.8	100(476)	91.659***
	중2	10.1	18.5	44.0	20.3	6.5	0.6	100(493)	
	중3	7.1	15.3	46.5	22.8	7.5	0.7	100(561)	
	고1	8.6	15.4	48.7	22.0	5.0	0.3	100(604)	
	고2	8.3	18.9	45.9	20.9	5.4	0.7	100(556)	
	고3	14.0	20.2	41.1	20.4	4.3		100(470)	
거주지	서울	11.1	18.4	43.8	19.9	6.2	0.6	100(532)	11.825
	광역시	7.4	16.3	45.9	23.6	6.3	0.5	100(1,101)	
	사.군	9.2	15.8	45.1	21.9	7.5	0.5	100(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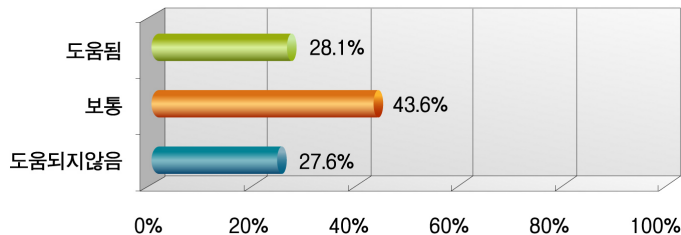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32.1%)가 일반계고(26.1%)나 전문계고(21.9%)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거주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48]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60>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9	17.7	43.6	19.6	8.5	0.7	100(2,422)	
성별	남자	10.5	16.9	42.5	20.2	9.3	0.6	100(1,402)	6.264
	여자	9.1	18.8	45.2	18.7	7.5	0.7	100(1,020)	
교급별	중학교	8.6	15.2	43.3	21.6	10.5	0.8	100(1,142)	57.876***
	일반계고	14.0	19.8	39.5	17.9	8.2	0.6	100(778)	
	전문계고	6.6	20.1	51.0	17.5	4.4	0.4	100(502)	
학년별	중1	9.2	10.6	44.1	22.6	12.6	0.8	100(358)	55.881***
	중2	8.6	16.7	46.2	20.2	7.5	0.8	100(372)	
	중3	8.0	18.0	39.8	22.1	11.4	0.7	100(412)	
	고1	8.7	18.5	44.7	20.4	7.4	0.2	100(470)	
	고2	10.2	20.4	44.9	17.6	6.4	0.5	100(421)	
	고3	14.9	21.1	42.2	14.7	6.2	1.0	100(389)	
거주지	서울	10.3	19.4	41.4	21.1	6.9	1.0	100(418)	9.496
	광역시	8.5	19.1	42.9	19.7	9.2	0.7	100(849)	
	사.군	10.8	16.1	45.0	19.0	8.6	0.5	100(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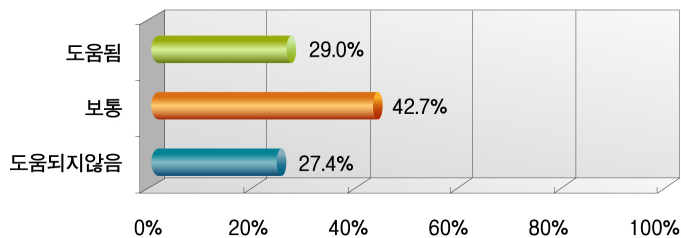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1-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31.4%)가 전문계고(28.9%)나 중학교(26.7%)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대체적으로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없었다.



[그림 V-49]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표 V-61>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1.1	16.3	42.7	21.7	7.3	0.8	100(2,949)	
성별	남자	13.1	16.8	41.2	20.7	7.5	0.7	100(1,655)	17.916**
	여자	8.5	15.8	44.7	23.0	7.1	1.0	100(1,294)	
교급별	중학교	12.2	15.7	44.5	18.4	8.3	0.9	100(1,143)	37.854***
	일반계고	11.9	17.8	38.0	24.0	7.4	0.9	100(1,183)	
	전문계고	7.4	14.8	48.3	23.4	5.5	0.6	100(623)	
학년별	중1	12.5	13.4	45.0	22.2	6.6	0.3	100(320)	38.032**
	중2	13.3	14.6	46.4	16.6	8.0	1.1	100(362)	
	중3	11.1	18.2	42.7	17.1	9.8	1.1	100(461)	
	고1	9.0	14.8	44.5	24.3	7.0	0.5	100(569)	
	고2	9.0	18.4	41.0	23.5	7.0	1.2	100(669)	
	고3	13.4	16.7	39.4	23.8	6.0	0.7	100(568)	
거주지	서울	12.0	15.1	43.4	21.1	7.3	1.1	100(465)	7.955
	광역시	9.2	16.8	42.9	22.2	8.1	0.7	100(1,095)	
	사.군	12.2	16.4	42.3	21.5	6.7	0.9	100(1,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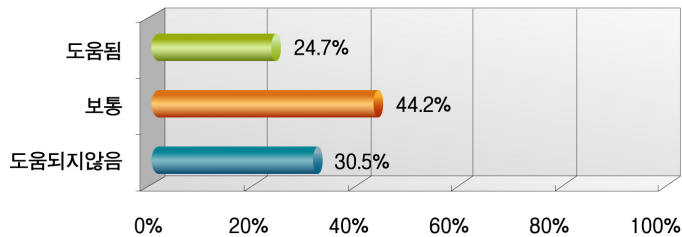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1-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27.8%)가 여자(20.9%)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9.3%)가 일반계고(20.2%)나 전문계고(2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V-5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62>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1.1	19.4	44.2	17.8	6.9	0.7	100(3,073)	
성별	남자	12.4	19.4	39.8	19.9	7.9	0.6	100(1,714)	37.559***
	여자	9.4	19.3	49.7	15.2	5.7	0.7	100(1,359)	
교급별	중학교	8.8	16.2	44.8	20.2	9.1	0.9	100(1,542)	97.031***
	일반계고	16.0	24.5	38.9	15.5	4.7	0.4	100(970)	
	전문계고	9.1	19.1	51.5	15.5	4.5	0.4	100(561)	
학년별	중1	6.8	11.8	43.4	24.0	13.2	0.8	100(500)	137.430***
	중2	9.3	16.7	44.8	20.6	7.1	1.4	100(504)	
	중3	10.0	19.9	46.1	16.2	7.2	0.6	100(538)	
	고1	11.3	19.5	45.3	17.6	6.0	0.3	100(585)	
	고2	10.8	23.1	45.6	15.3	4.5	0.8	100(511)	
	고3	19.5	26.0	38.6	12.9	3.0		100(435)	
거주지	서울	12.3	18.7	42.1	18.2	7.7	1.1	100(561)	13.055
	광역시	10.2	21.9	44.4	17.2	5.5	0.6	100(1,085)	
	시·군	11.3	17.7	44.8	18.1	7.6	0.5	100(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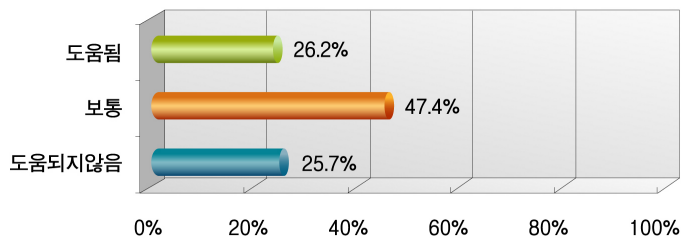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1-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27.8%)가 여자(24.3%)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8.4%)가 일반계고(24.9%)나 전문계고(23.9%)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26.9%)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51]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표 V-63>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7	16.1	47.4	20.2	6.0	0.6	100(3,162)	
성별	남자	11.0	16.2	44.4	20.5	7.3	0.6	100(1,713)	23.568***
	여자	8.1	15.9	50.9	19.7	4.6	0.7	100(1,449)	
교급별	중학교	8.8	13.8	48.1	20.8	7.6	0.9	100(1,380)	34.280***
	일반계고	11.9	18.1	44.5	20.0	4.8	0.7	100(1,183)	
	전문계고	7.2	17.4	51.6	19.0	4.8		100(599)	
학년별	중1	8.1	10.0	46.9	24.2	10.0	0.7	100(409)	64.141***
	중2	10.5	14.7	49.9	17.8	6.2	0.9	100(449)	
	중3	8.0	15.9	47.5	20.7	6.9	1.0	100(522)	
	고1	8.8	14.2	49.0	21.1	6.1	0.8	100(639)	
	고2	8.8	20.6	48.1	17.5	4.6	0.3	100(582)	
	고3	13.7	19.1	43.1	20.3	3.6	0.2	100(561)	
	서울	11.1	19.1	44.8	18.2	5.8	0.9	100(533)	
거주지	광역시	9.0	17.7	46.3	20.9	5.4	0.7	100(1,117)	16.807*
	시·군	9.7	13.8	49.1	20.3	6.6	0.5	100(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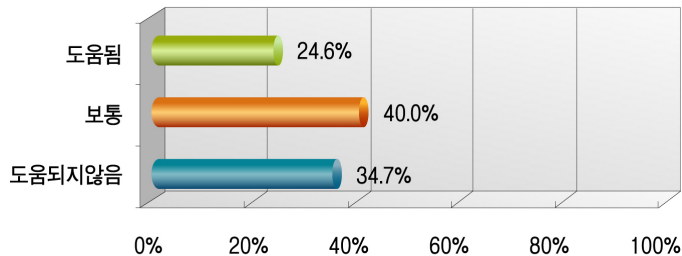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1-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26.8%)가 여자(21.4%)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8.5%)가 전문계고(22.7%)나 일반계고(19.7%)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52]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표 V-64>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6.0	18.6	40.0	16.9	7.7	0.8	100(2,511)	
성별	남자	17.3	17.7	37.9	18.0	8.8	0.3	100(1,482)	17.263**
	여자	14.3	20.0	43.0	15.3	6.1	1.4	100(1,029)	
교급별	중학교	14.4	16.8	39.3	19.4	9.0	0.9	100(1,205)	42.171***
	일반계고	21.0	21.0	37.8	13.0	6.7	0.5	100(747)	
	전문계고	12.9	19.3	44.4	16.6	6.1	0.7	100(559)	
학년별	중1	11.7	13.7	40.4	21.9	11.5	0.7	100(401)	54.864***
	중2	16.3	20.7	37.5	18.1	6.5	1.0	100(387)	
	중3	15.3	16.3	40.0	18.2	9.1	1.0	100(417)	
	고1	15.2	18.8	41.0	17.4	6.9	0.8	100(495)	
	고2	16.0	20.6	43.4	13.2	6.0	0.7	100(431)	
	고3	22.4	21.8	36.8	12.4	6.3	0.3	100(380)	
거주지	서울	17.4	19.2	37.8	15.5	9.3	0.7	100(407)	5.825
	광역시	15.3	19.8	39.8	17.5	6.9	0.7	100(889)	
	시·군	16.1	17.6	40.8	16.9	7.7	0.8	100(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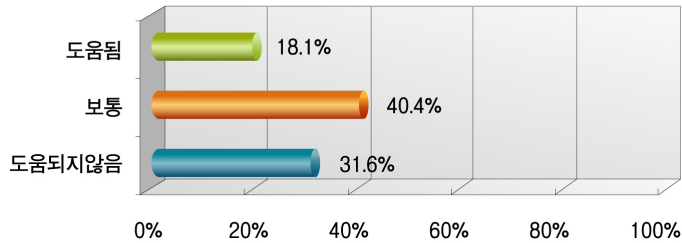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1-12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20.3%)가 여자(15.5%)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3%)가 전
문계고(18.1%)나 일반계고(11.8%)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
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53]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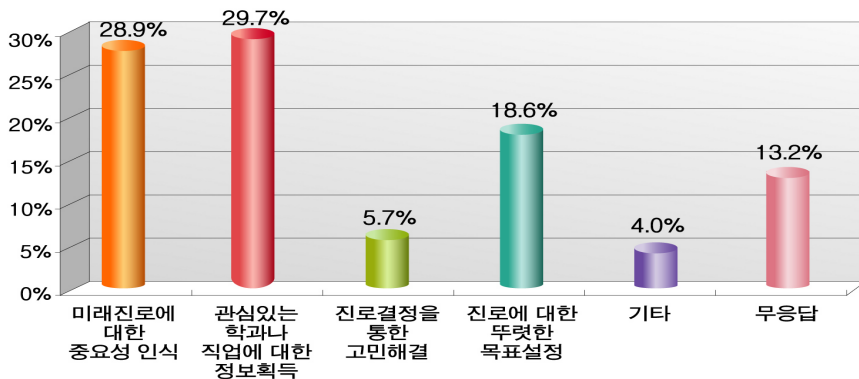
<표 V-65>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7	18.9	40.4	13.9	4.1	10.0	100(6,509)	
성별	남자	13.0	17.2	37.7	15.2	5.1	11.8	100(3,487)	47.490***
	여자	12.4	20.8	43.4	12.5	3.0	7.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7.7	14.7	43.0	17.1	5.9	11.6	100(3,010)	350.536***
	일반계고	19.6	25.4	35.4	9.7	2.1	7.8	100(2,364)	
	전문계고	11.5	16.4	43.9	14.3	3.8	10.2	100(1,135)	
학년별	중1	5.9	9.9	41.8	20.6	8.5	13.3	100(968)	471.585***
	중2	9.0	17.1	43.5	14.0	3.5	13.0	100(1,024)	
	중3	8.3	16.8	43.5	17.0	5.9	8.5	100(1,018)	
	고1	12.0	18.3	42.7	14.2	3.3	9.5	100(1,236)	
	고2	14.6	23.2	39.8	11.3	3.1	8.1	100(1,217)	
	고3	25.5	26.6	30.9	7.6	1.2	8.1	100(1,046)	
거주지	서울	12.7	20.4	40.1	15.1	4.1	7.6	100(1,015)	7.699
	광역시	12.4	18.2	40.7	14.3	3.5	10.9	100(2,274)	
	시·군	12.9	18.8	40.2	13.3	4.6	10.1	100(3,220)	

* $p<.05$, ** $p<.01$, *** $p<.001$

2-1-1-13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28.9%)’,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18.6%)’이 다음 순이었음



[그림 V-54]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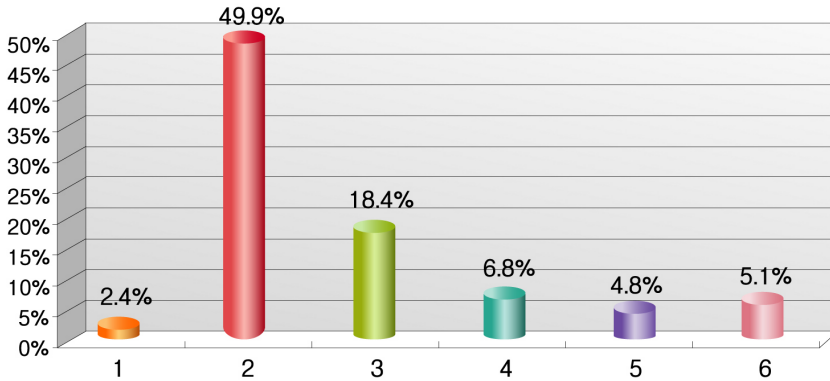
<표 V-66> 진로교육을 통해서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응답자의 특성		미래진로에 대한 중요성인식	관심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해결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χ^2
전체		28.9	29.7	5.7	18.6	4.0	13.2	100(6,509)	
성별	남자	26.4	27.1	6.4	20.0	4.5	15.5	100(3,487)	80.925***
	여자	31.6	32.6	5.0	16.9	3.4	1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8.3	25.7	6.3	21.8	3.6	14.3	100(3,010)	78.431***
	일반계고	29.6	33.6	4.8	15.5	4.7	11.8	100(2,364)	
	전문계고	28.7	31.7	6.2	16.4	3.8	13.2	100(1,135)	
학년별	중1	26.8	23.6	7.4	23.8	3.0	15.5	100(968)	144.286***
	중2	28.5	25.4	5.6	19.9	4.4	16.2	100(1,024)	
	중3	29.6	28.2	6.0	21.8	3.3	11.1	100(1,018)	
	고1	29.0	31.5	6.1	18.0	3.8	11.7	100(1,236)	
	고2	33.8	32.0	5.4	14.2	3.6	11.0	100(1,217)	
	고3	24.5	36.0	4.0	15.1	6.0	14.3	100(1,046)	
거주지	서울	26.0	31.9	7.2	18.7	5.0	11.1	100(1,015)	24.649**
	광역시	30.2	28.7	5.4	17.7	3.4	14.6	100(2,274)	
	시·군	28.8	29.6	5.5	19.1	4.1	12.8	100(3,220)	

* $p<.05$, ** $p<.01$, *** $p<.00$

2-1-1-14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49.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18.4%)’,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V-55]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표 V-67>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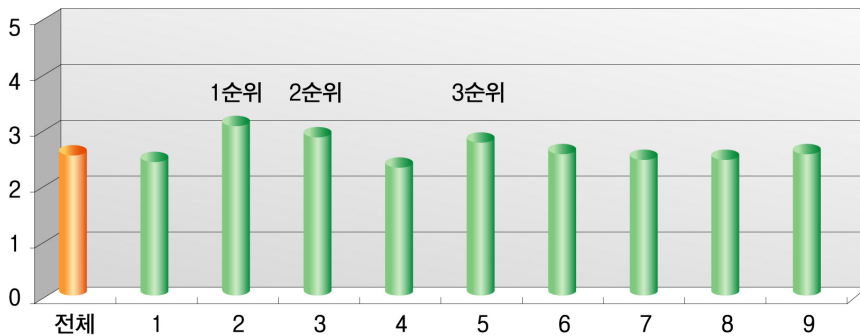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1	2	3	4	5	6	전체(빈도)	χ^2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일과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학교 및 학과 정보의 제공		
전체		2.4	49.9	18.4	6.8	4.8	5.1	100(6,509)	
성별	남자	2.9	47.8	17.2	8.3	5.2	4.1	100(3,487)	91.710***
	여자	1.9	52.4	19.9	5.0	4.4	6.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7	49.6	18.0	7.9	4.9	2.8	100(3,010)	137.180***
	일반계고	1.9	52.4	17.7	4.5	5.0	8.2	100(2,364)	
	전문계고	2.8	45.5	21.0	8.4	4.3	4.7	100(1,135)	
학년별	중1	1.5	47.9	17.3	8.0	6.6	2.5	100(968)	159.612***
	중2	3.1	47.8	19.6	8.6	3.0	2.6	100(1,024)	
	중3	3.3	53.1	17.2	7.2	5.1	3.2	100(1,018)	
	고1	2.3	51.2	16.9	7.3	3.8	6.8	100(1,236)	
	고2	1.9	48.5	21.4	4.8	4.8	8.5	100(1,217)	
	고3	2.4	50.9	17.9	5.1	6.0	5.5	100(1,046)	
거주지	서울	2.9	53.0	15.6	7.6	5.3	5.9	100(1,015)	42.452***
	광역시	2.9	46.4	19.9	7.1	4.7	5.2	100(2,274)	
	시·군	1.9	51.4	18.3	6.2	4.8	4.7	100(3,220)	

* $p<.05$, ** $p<.01$, *** $p<.001$

주) 기타, 무응답은 표와 그림에서 제외함.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의 관심이 부족하다(2.87)’,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2.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V-56]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68>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2.58	1.048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3.17	1.075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2.87	0.972
4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2.46	1.075
5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2.73	1.008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2.54	1.006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46	1.011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2.47	1.028
9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2.54	1.024
전체		2.65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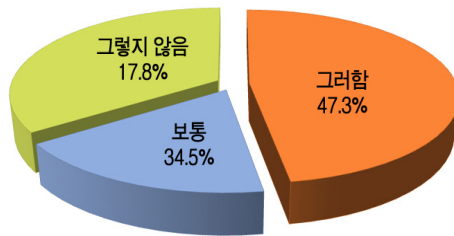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2-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3%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중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문항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2.1%)가 중학교(39.1%)나 전문계고(38.4%) 보다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57]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표 V-69>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6.4	30.9	34.5	13.7	4.2	0.3	100(6,509)	
성별	남자	18.2	28.7	32.4	14.7	5.5	100(3,487)	77.169***
	여자	14.3	33.5	37.0	12.4	2.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1.9	27.2	39.2	15.7	5.6	100(3,010)	365.176***
	일반계고	23.8	38.3	26.4	9.2	1.9	100(2,364)	
	전문계고	13.0	25.4	39.0	17.5	4.9	100(1,135)	
학년별	중1	10.5	21.5	41.4	18.8	7.2	100(968)	331.789***
	중2	12.1	30.4	38.6	14.0	4.8	100(1,024)	
	중3	13.0	29.6	37.8	14.5	5.0	100(1,018)	
	고1	15.8	29.7	35.3	14.4	4.7	100(1,236)	
	고2	19.0	36.2	30.3	12.1	1.8	100(1,217)	
	고3	27.2	37.0	25.0	8.7	2.1	100(1,046)	
거주지	서울	16.3	31.4	32.3	15.3	4.5	100(1,015)	8.574
	광역시	15.6	30.4	36.1	13.4	4.2	100(2,274)	
	시·군	17.0	31.2	34.1	13.4	4.0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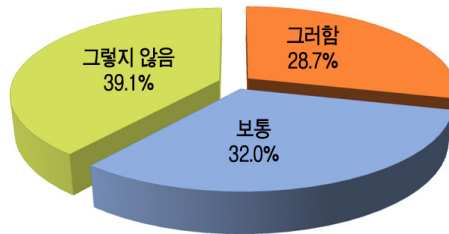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7%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3.3%)가 여자보다(23.4%) 진로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30.8%)가 다른 교급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58]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표 V-70>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0	23.7	32.0	27.3	11.8	0.2	100(6,509)	
성별	남자	6.5	26.8	33.3	22.6	10.5	0.3	100(3,487)	142.179***
	여자	3.3	20.1	30.4	32.8	13.3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2	23.3	33.7	25.6	12.1	0.2	100(3,010)	66.721***
	일반계고	4.4	23.6	27.8	30.3	13.6	0.3	100(2,364)	
	전문계고	5.9	24.9	36.1	25.6	7.3	0.1	100(1,135)	
학년별	중1	4.9	20.9	36.3	24.7	13.0	0.3	100(968)	58.263***
	중2	6.3	27.1	32.9	24.1	9.4	0.3	100(1,024)	
	중3	4.4	21.8	31.9	27.9	13.9	0.1	100(1,018)	
	고1	5.1	22.7	31.8	28.6	11.7	0.2	100(1,236)	
	고2	4.7	26.2	29.9	27.9	10.7	0.6	100(1,217)	
	고3	4.9	23.0	29.6	30.0	12.4		100(1,046)	
거주지	서울	4.4	21.8	33.1	28.2	12.5		100(1,015)	8.570
	광역시	4.9	23.6	31.8	27.8	11.6	0.3	100(2,274)	
	사.군	5.3	24.3	31.7	26.6	11.7	0.3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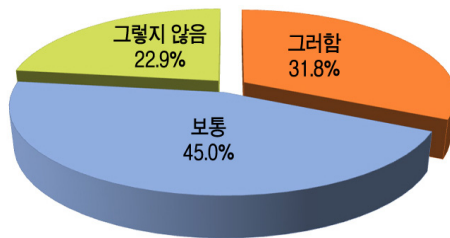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8%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4.6%)가 남자(29.3%)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0.6%)가 전문계고(30.2%)와 중학교(25.4%)보다 부족하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33.0%)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광역시(30.8%)나 서울(29.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59]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표 V-71>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0	22.7	45.0	18.2	4.7	0.4	100(6,509)	
성별	남자	9.7	19.6	45.2	19.2	5.8	0.5	100(3,487)	62.829***
	여자	8.3	26.3	44.7	17.1	3.4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9	18.5	47.3	20.5	6.4	0.4	100(3,010)	176.851***
	일반계고	12.5	28.1	41.2	15.0	2.8	0.5	100(2,364)	
	전문계고	7.4	22.8	46.7	18.9	4.1	0.1	100(1,135)	
학년별	중1	5.7	14.3	46.2	23.3	10.0	0.5	100(968)	308.315***
	중2	8.2	23.5	46.6	17.7	3.6	0.4	100(1,024)	
	중3	6.9	17.5	49.1	20.6	5.7	0.2	100(1,018)	
	고1	7.3	21.1	48.0	19.3	4.2	0.2	100(1,236)	
	고2	10.2	29.7	41.8	14.8	2.8	0.7	100(1,217)	
	고3	15.8	28.7	38.3	14.4	2.6	0.2	100(1,046)	
거주지	서울	7.7	22.2	44.9	20.4	4.7	0.1	100(1,015)	20.435*
	광역시	8.2	22.6	46.3	18.6	3.9	0.4	100(2,274)	
	시·군	10.0	23.0	44.1	17.3	5.2	0.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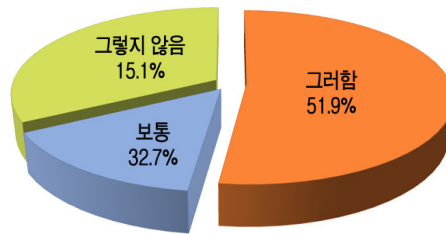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2-4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9%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7.2%)가 남자(47.3%)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2.0%)가 전문계고(53.3%)나 중학교(43.5%)보다 진로교육 담당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53.3%)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0]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표 V-72>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1.2	30.8	32.7	10.6	4.5	0.3	100(6,509)	
성별	남자	20.4	26.9	34.2	12.0	6.0	0.4	100(3,487)	100.025***
	여자	22.0	35.3	30.9	9.0	2.7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7.5	26.0	35.7	14.3	6.2	0.3	100(3,010)	226.497***
	일반계고	25.6	36.4	27.7	7.0	3.0	0.3	100(2,364)	
	전문계고	21.5	31.8	35.0	8.5	3.1	0.1	100(1,135)	
학년별	중1	15.0	21.7	37.3	16.4	9.2	0.4	100(968)	325.132***
	중2	19.4	26.4	34.4	14.8	4.8	0.2	100(1,024)	
	중3	18.1	29.7	35.7	11.6	4.8	0.2	100(1,018)	
	고1	18.9	32.8	34.4	10.0	3.8	0.2	100(1,236)	
	고2	25.1	36.2	29.3	6.2	2.8	0.6	100(1,217)	
	고3	29.6	36.0	25.8	6.2	2.3		100(1,046)	
	서울	18.0	28.3	33.0	14.2	6.4	0.1	100(1,015)	
거주지	광역시	20.3	32.3	32.3	10.6	4.2	0.3	100(2,274)	40.300***
	시·군	22.7	30.5	32.8	9.5	4.1	0.3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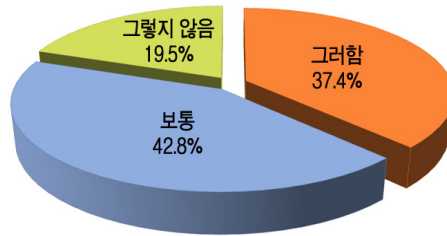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5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4%가 그렇다고 응답

○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40.8%)가 남자(34.4%)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9.0%)가 전문계고(35.3%)나 중학교(29.0%)보다 월등히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지도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V-61]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표 V-73>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9	24.4	42.8	15.3	4.2	0.3	100(6,509)	
성별	남자	13.4	21.0	43.1	16.5	5.5	0.5	100(3,487)	78.209***
	여자	12.4	28.4	42.5	13.8	2.7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9.0	20.0	46.4	18.5	5.8	0.3	100(3,010)	266.004***
	일반계고	18.4	30.7	36.3	11.7	2.6	0.4	100(2,364)	
	전문계고	12.0	23.3	46.6	14.3	3.5	0.3	100(1,135)	
학년별	중1	8.0	14.8	46.9	21.7	8.4	0.3	100(968)	346.719***
	중2	9.0	22.3	47.8	16.7	4.0	0.3	100(1,024)	
	중3	10.0	22.6	44.7	17.2	5.2	0.3	100(1,018)	
	고1	11.9	25.0	43.8	15.7	3.4	0.2	100(1,236)	
	고2	15.6	29.0	40.6	11.1	3.0	0.7	100(1,217)	
	고3	22.3	31.4	33.7	10.4	2.2	0.1	100(1,046)	
거주지	서울	12.2	26.6	40.0	16.0	5.0	0.2	100(1,015)	12.531
	광역시	12.1	24.2	43.5	15.6	4.1	0.5	100(2,274)	
	시·군	13.7	23.9	43.2	14.8	4.1	0.3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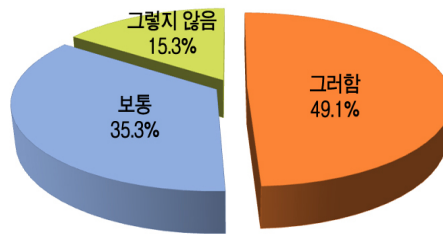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3.3%)가 남자(45.5%)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1.8%)가 전문계고(48.6%)와 중학교(39.3%)보다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광역시(49.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V-62]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표 V-74>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5.7	33.4	35.3	11.7	3.5	0.3	100(6,509)	
성별	남자	15.3	30.2	36.4	13.0	4.7	0.3	100(3,487)	67.393***
	여자	16.1	37.2	34.1	10.3	2.2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1.3	28.1	40.3	15.3	4.7	0.3	100(3,010)	298.954***
	일반계고	21.3	40.5	28.0	7.6	2.3	0.3	100(2,364)	
	전문계고	15.7	33.0	37.4	10.8	3.0	0.1	100(1,135)	
학년별	중1	9.5	22.8	41.5	19.5	6.2	0.4	100(968)	372.440***
	중2	11.8	29.3	42.4	12.9	3.3	0.3	100(1,024)	
	중3	12.4	31.8	37.0	13.9	4.7	0.2	100(1,018)	
	고1	15.5	34.1	35.8	11.3	3.2	0.1	100(1,236)	
	고2	19.2	40.4	29.9	7.7	2.1	0.6	100(1,217)	
	고3	24.6	40.0	26.7	6.5	2.3		100(1,046)	
거주지	서울	15.1	32.8	33.0	14.3	4.8		100(1,015)	20.580*
	광역시	15.9	33.6	36.5	10.5	3.3	0.4	100(2,274)	
	시·군	15.7	33.5	35.2	11.8	3.4	0.3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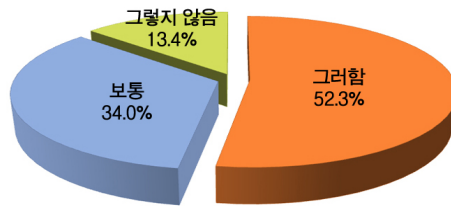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3%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7.2%)가 남자(48.0%)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6.3%)가 전문계고(50.0%)와 중학교(42.1%)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53.9%)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표 V-75>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8.7	33.6	34.0	10.2	3.3	0.3	100(6,509)	
성별	남자	18.2	29.9	35.1	12.0	4.5	0.4	100(3,487)	98.036***
	여자	19.2	38.0	32.8	8.1	1.9	0.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3.6	28.5	39.4	13.5	4.7	0.3	100(3,010)	350.308***
	일반계고	25.4	40.9	25.5	6.4	1.5	0.3	100(2,364)	
	전문계고	17.9	32.2	37.4	9.3	3.1	0.1	100(1,135)	
학년별	중1	10.6	23.3	42.8	16.2	6.6	0.4	100(968)	443.780***
	중2	14.6	31.9	38.7	11.0	3.5	0.3	100(1,024)	
	중3	15.5	30.0	37.0	13.3	4.1	0.1	100(1,018)	
	고1	17.5	33.8	34.8	10.4	3.5	0.1	100(1,236)	
	고2	21.9	40.5	29.3	6.3	1.3	0.6	100(1,217)	
	고3	30.7	40.2	22.9	5.0	1.1	0.1	100(1,046)	
거주지	서울	17.1	33.5	33.1	11.6	4.6		100(1,015)	21.604*
	광역시	18.3	32.4	35.9	9.9	3.2	0.4	100(2,274)	
	시·군	19.4	34.6	33.0	9.9	2.9	0.2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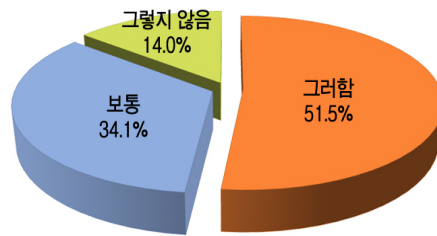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5%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6.1%)가 남자(47.5%)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5.2%)가 전문계고(50.3%)나 중학교(41.2%)보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53.2%)지역이 광역시(51.1%)나 서울(47.3%)보다 진로·직업 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4]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표 V-76>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9.3	32.3	34.1	10.5	3.5	0.3	100(6,509)	
성별	남자	19.3	28.2	35.5	11.9	4.6	100(3,487)	85.070***
	여자	19.2	36.9	32.6	9.0	2.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3.6	27.6	39.1	14.3	5.0	100(3,010)	358.326***
	일반계고	26.7	38.5	26.6	6.2	1.7	100(2,364)	
	전문계고	18.7	31.6	36.7	9.7	3.1	100(1,135)	
학년별	중1	10.8	21.3	42.1	17.6	7.5	100(968)	495.990***
	중2	13.9	30.6	39.6	12.3	3.4	100(1,024)	
	중3	15.9	30.7	35.8	13.2	4.2	100(1,018)	
	고1	18.5	31.6	35.0	11.6	3.2	100(1,236)	
	고2	22.8	39.1	29.9	5.7	1.8	100(1,217)	
	고3	32.2	38.3	23.8	4.2	1.3	100(1,046)	
거주지	서울	15.3	32.0	34.4	14.1	4.2	100(1,015)	38.677***
	광역시	18.7	32.4	35.8	9.8	3.0	100(2,274)	
	시·군	20.9	32.3	32.9	9.9	3.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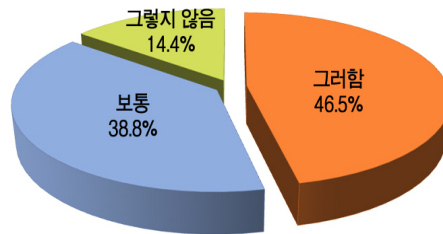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2-9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5%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48.1%)가 남자(45.1%)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56.3%)
가 전문계고(47.0%)나 중학교(38.5%)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
라갈수록, 거주지별로는 광역시(47.1%)가 진로·직업관련 기자재가 필요하
다 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5] 진로·직업관련 기자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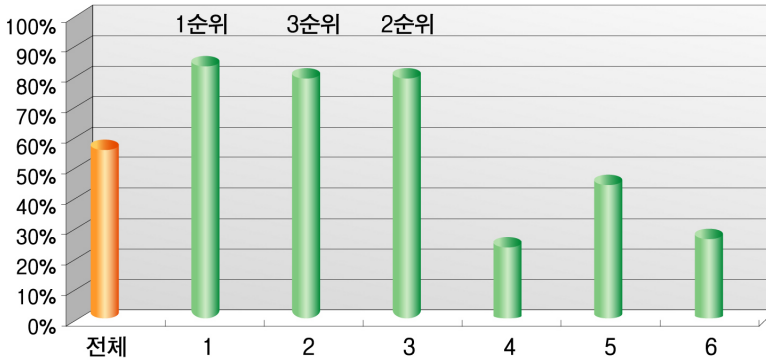
<표 V-77>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응답자의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7.4	29.1	38.8	10.4	4.0	0.3	100(6,509)	
성별	남자	18.3	26.8	37.7	11.7	5.2	0.4	100(3,487)	57.679***
	여자	16.4	31.7	40.1	8.8	2.7	0.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3.7	24.9	42.2	13.3	5.7	0.3	100(3,010)	216.933***
	일반계고	22.6	33.8	33.4	7.9	2.0	0.3	100(2,364)	
	전문계고	16.7	30.3	41.2	7.8	3.8	0.2	100(1,135)	
학년별	중1	12.6	21.9	42.8	14.0	8.3	0.4	100(968)	251.908***
	중2	13.0	25.9	42.7	13.5	4.7	0.3	100(1,024)	
	중3	15.3	26.7	41.2	12.3	4.3	0.2	100(1,018)	
	고1	19.5	28.4	39.5	9.7	2.8	0.2	100(1,236)	
	고2	19.3	35.7	35.1	7.1	2.2	0.6	100(1,217)	
	고3	23.6	34.1	32.8	6.5	2.9	0.1	100(1,046)	
거주지	서울	15.2	30.3	38.2	11.1	5.1		100(1,015)	19.473*
	광역시	16.7	30.5	39.0	9.9	3.6	0.4	100(2,274)	
	시·군	18.7	27.6	38.9	10.4	4.0	0.3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84.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81.1%)’,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80.9%)’가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V-66]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표 V-78>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번호	문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84.7	15.3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80.9	19.1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81.1	18.9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25.7	74.3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44.8	55.2
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28.7	71.3
전체		57.7	42.3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여부-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3-1 미래의 나의 직업 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79>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84.7	15.3	100(6,509)	
성별	남자	82.3	17.7	100(3,487)	33.280***
	여자	87.5	12.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82.4	17.6	100(3,010)	39.347***
	일반계고	88.4	11.6	100(2,364)	
	전문계고	83.3	16.7	100(1,135)	
학년별	중1	79.4	20.6	100(968)	41.927***
	중2	82.8	17.2	100(1,024)	
	중3	84.8	15.2	100(1,018)	
	고1	85.4	14.6	100(1,236)	
	고2	86.0	14.0	100(1,217)	
	고3	89.2	10.8	100(1,046)	
거주지	서울	86.5	13.5	100(1,015)	3.798
	광역시	83.9	16.1	100(2,274)	
	시·군	84.8	15.2	100(3,220)	

* $p<.05$, ** $p<.01$, *** $p<.001$

2-1-3-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80>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80.9	19.1	100(6,509)	
성별	남자	78.5	21.5	100(3,487)	27.983***
	여자	83.7	16.3	100(3,022)	
교급별	중학교	78.8	21.2	100(3,010)	51.759***
	일반계고	85.5	14.5	100(2,364)	
	전문계고	77.1	22.9	100(1,135)	
학년별	중1	77.2	22.8	100(968)	24.543***
	중2	79.9	20.1	100(1,024)	
	중3	79.2	20.8	100(1,018)	
	고1	82.6	17.4	100(1,236)	
	고2	81.1	18.9	100(1,217)	
	고3	84.9	15.1	100(1,046)	
거주지	서울	82.7	17.3	100(1,015)	3.571
	광역시	79.9	20.1	100(2,274)	
	시·군	81.1	18.9	100(3,220)	

* $p<.05$, ** $p<.01$, *** $p<.001$

2-1-3-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81>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81.1	18.9	100(6,509)	
성별	남자	78.5	21.5	100(3,487)	33.933***
	여자	84.2	15.8	100(3,022)	
교급별	중학교	77.6	22.4	100(3,010)	57.780***
	일반계고	85.7	14.3	100(2,364)	
	전문계고	81.1	18.9	100(1,135)	
학년별	중1	75.0	25.0	100(968)	74.548***
	중2	76.2	23.8	100(1,024)	
	중3	81.4	18.6	100(1,018)	
	고1	83.0	17.0	100(1,236)	
	고2	82.4	17.6	100(1,217)	
	고3	87.8	12.2	100(1,046)	
거주지	서울	82.4	17.6	100(1,015)	1.164
	광역시	81.0	19.0	100(2,274)	
	시·군	80.9	19.1	100(3,220)	

* $p<.05$, ** $p<.01$, *** $p<.001$

2-1-3-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표 V-82>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25.7	74.3	100(6,509)	
성별	남자	29.3	70.7	100(3,487)	51.499***
	여자	21.5	78.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8.2	71.8	100(3,010)	57.971***
	일반계고	20.3	79.7	100(2,364)	
	전문계고	30.3	69.7	100(1,135)	
학년별	중1	28.3	71.7	100(968)	43.750***
	중2	26.3	73.7	100(1,024)	
	중3	30.1	69.9	100(1,018)	
	고1	28.0	72.0	100(1,236)	
	고2	19.9	80.1	100(1,217)	
	고3	22.7	77.3	100(1,046)	
거주지	서울	29.3	70.7	100(1,015)	7.937*
	광역시	25.2	74.8	100(2,274)	
	시·군	25.0	75.0	100(3,220)	

* $p<.05$, ** $p<.01$, *** $p<.001$

2-1-3-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표 V-83〉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44.8	55.2	100(6,509)	
성별	남자	45.4	54.6	100(3,487)	1.149
	여자	44.0	56.0	100(3,022)	
교육별	중학교	48.8	51.2	100(3,010)	36.646***
	일반계고	41.1	58.9	100(2,364)	
	전문계고	41.7	58.3	100(1,135)	
학년별	중1	48.9	51.1	100(968)	39.423***
	중2	48.9	51.1	100(1,024)	
	중3	48.5	51.5	100(1,018)	
	고1	43.2	56.8	100(1,236)	
	고2	40.1	59.9	100(1,217)	
	고3	40.4	59.6	100(1,046)	
거주지	서울	48.1	51.9	100(1,015)	11.180**
	광역시	42.2	57.8	100(2,274)	
	시·군	45.5	54.5	100(3,220)	

* $p<.05$, ** $p<.01$, *** $p<.001$

2-1-3-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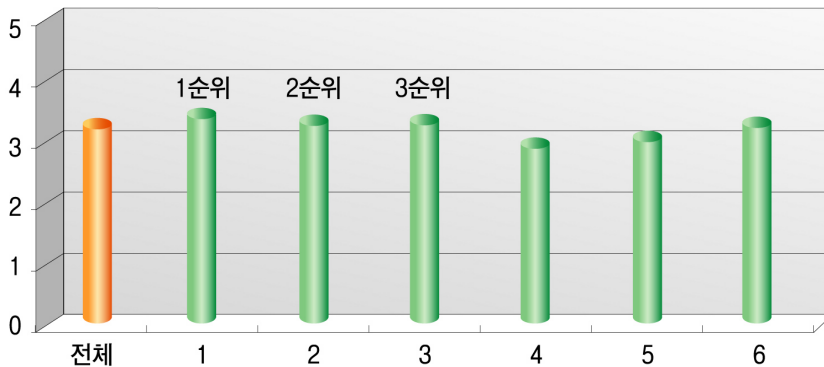
〈표 V-84〉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28.7	71.3	100(6,509)	
성별	남자	31.2	68.8	100(3,487)	22.184***
	여자	25.9	74.1	100(3,022)	
교육별	중학교	29.4	70.6	100(3,010)	13.221**
	일반계고	26.3	73.7	100(2,364)	
	전문계고	32.0	68.0	100(1,135)	
학년별	중1	29.0	71.0	100(968)	31.754***
	중2	27.9	72.1	100(1,024)	
	중3	31.1	68.9	100(1,018)	
	고1	33.5	66.5	100(1,236)	
	고2	24.2	75.8	100(1,217)	
	고3	26.4	73.6	100(1,046)	
거주지	서울	31.3	68.7	100(1,015)	5.632
	광역시	27.3	72.7	100(2,274)	
	시·군	28.9	71.1	100(3,220)	

* $p<.05$, ** $p<.01$, *** $p<.001$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3.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3.4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3.41)’ 순으로 나타남



[그림 V-67]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85>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3.46	0.946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3.43	0.955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3.41	0.938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3.06	1.055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3.12	1.029
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3.26	1.112
전체		3.29	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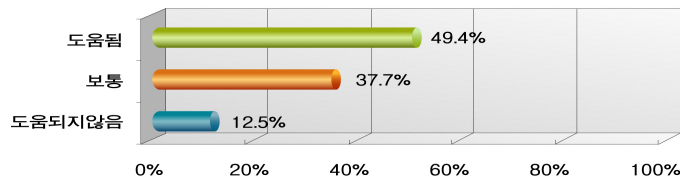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3-1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52.1%)가 일반계고(49.5%)나 전문계고(42.2%)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서울(53.0%)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8]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86>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7	8.8	37.7	37.1	12.3	0.5	100(5,515)	
성별	남자	4.2	8.6	37.3	35.8	13.4	0.5	100(2,871)	13.169*
	여자	3.1	8.9	38.0	38.4	11.2	0.4	100(2,644)	
교급별	중학교	4.1	7.7	35.6	38.4	13.7	0.4	100(2,480)	36.403***
	일반계고	3.3	9.6	37.4	37.3	12.2	0.2	100(2,090)	
	전문계고	3.4	9.6	43.7	33.0	9.2	1.1	100(945)	
학년별	중1	3.1	7.2	33.7	38.0	17.3	0.8	100(769)	43.761**
	중2	3.9	7.4	37.5	39.0	11.8	0.4	100(848)	
	중3	5.2	8.6	35.5	38.2	12.3	0.2	100(863)	
	고1	3.6	10.0	38.4	35.9	11.5	0.7	100(1,055)	
	고2	2.9	9.7	40.5	35.6	10.7	0.6	100(1,047)	
	고3	3.5	9.1	39.1	36.3	11.7	0.2	100(933)	
거주지	서울	3.9	8.4	34.3	38.0	14.9	0.5	100(878)	17.826*
	광역시	3.7	8.9	39.6	37.2	10.2	0.4	100(1,907)	
	시·군	3.6	8.8	37.4	36.7	13.0	0.5	100(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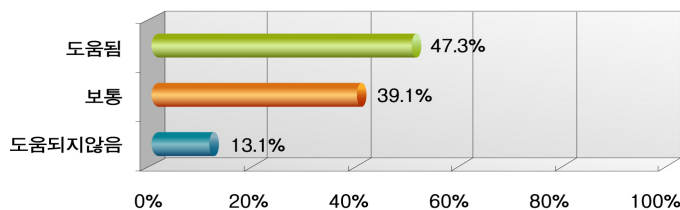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3-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50.1%)가 일반계고(46.3%)나 전문계고(41.9%)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서울(52.3%)지역이 시·군(47.1%)이나 광역시(45.1%)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9]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87>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9	9.2	39.1	34.9	12.4	0.5	100(5,267)	
성별	남자	4.4	9.2	39.2	33.5	13.1	0.6	100(2,738)	10.192*
	여자	3.3	9.3	39.0	36.5	11.5	0.4	100(2,529)	
교급별	중학교	3.5	7.7	38.2	36.1	14.0	0.6	100(2,371)	37.728***
	일반계고	4.6	10.6	38.2	34.2	12.1	0.3	100(2,021)	
	전문계고	3.4	10.3	43.5	33.4	8.6	0.8	100(875)	
학년별	중1	2.9	7.1	37.6	34.5	16.9	0.9	100(747)	41.764**
	중2	3.3	7.6	39.7	35.8	13.0	0.6	100(818)	
	중3	4.1	8.3	37.2	37.7	12.4	0.2	100(806)	
	고1	4.1	9.6	38.8	36.0	11.0	0.5	100(1,021)	
	고2	3.9	10.5	40.8	33.0	11.2	0.5	100(987)	
	고3	4.7	11.5	40.0	32.7	10.8	0.3	100(888)	
	서울	4.6	8.3	34.4	37.7	14.7	0.2	100(839)	
거주지	광역시	4.2	8.9	41.2	34.7	10.5	0.6	100(1,817)	
	시·군	3.4	9.8	39.2	34.2	12.9	0.5	100(2,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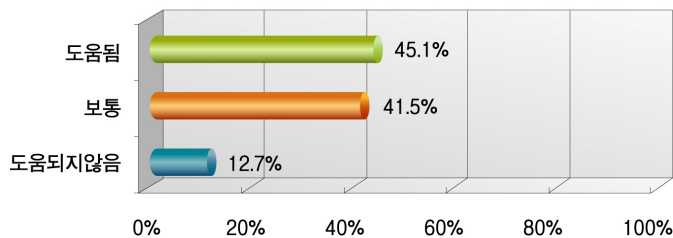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3-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46.2%)가 일반계고(45.9%)나 전문계고(40.4%)보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거주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70]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표 V-88>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6	9.1	41.5	33.2	11.9	0.7	100(5,282)	
성별	남자	4.0	9.1	41.1	32.5	12.7	0.6	100(2,738)	7.990
	여자	3.1	9.2	42.0	34.0	11.0	0.7	100(2,544)	
교급별	중학교	3.5	7.5	42.1	32.7	13.5	0.8	100(2,335)	39.704***
	일반계고	3.9	10.8	38.9	34.3	11.6	0.5	100(2,027)	
	전문계고	2.9	9.8	46.1	32.1	8.4	0.8	100(920)	
학년별	중1	2.5	5.2	42.7	32.6	15.8	1.1	100(726)	44.095**
	중2	3.2	8.2	42.1	33.5	12.3	0.8	100(780)	
	중3	4.6	8.7	41.5	32.1	12.5	0.6	100(829)	
	고1	3.5	9.6	39.7	35.3	11.4	0.6	100(1,026)	
	고2	3.7	10.5	42.4	32.4	10.3	0.8	100(1,003)	
	고3	3.7	11.4	41.4	33.1	10.0	0.3	100(918)	
거주지	서울	4.1	9.0	37.6	34.7	14.1	0.6	100(836)	15.489
	광역시	3.5	8.5	44.1	32.7	10.5	0.7	100(1,841)	
	시·군	3.5	9.6	41.0	33.1	12.1	0.7	100(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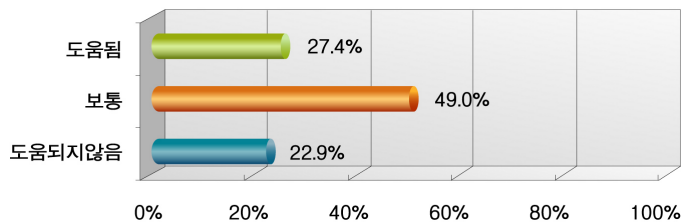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3-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31.1%)가 일반계고(26.0%)나 전문계고(20.3%)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71]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표 V-89>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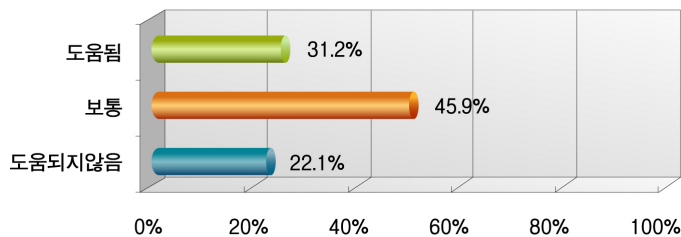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4	13.6	49.0	16.6	10.8	0.7	100(1,674)	
성별	남자	9.8	13.2	47.4	16.7	12.4	0.5	100(1,023)	8.293
	여자	8.8	14.1	51.5	16.4	8.3	0.9	100(651)	
교급별	중학교	9.1	12.0	47.0	18.1	13.0	0.8	100(849)	23.204**
	일반계고	11.0	13.1	49.3	16.2	9.8	0.6	100(481)	
	전문계고	7.8	18.0	53.5	13.4	7.0	0.3	100(344)	
학년별	중1	6.2	9.9	50.7	17.2	15.7	0.4	100(274)	44.602**
	중2	11.5	14.5	43.5	20.1	8.9	1.5	100(269)	
	중3	9.5	11.8	46.7	17.3	14.1	0.7	100(306)	
	고1	9.5	14.2	53.5	13.6	8.7	0.6	100(346)	
	고2	7.0	12.4	56.2	15.3	8.3	0.8	100(242)	
	고3	12.7	19.4	42.2	16.9	8.9		100(237)	
거주지	서울	9.1	14.1	45.8	18.9	11.4	0.7	100(297)	5.276
	광역시	9.8	12.7	50.3	17.3	9.2	0.7	100(573)	
	시·군	9.2	13.9	49.3	15.3	11.7	0.6	100(804)	

* $p < .05$, ** $p < .01$, *** $p < .001$

2-1-3-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에 대해 성별, 교급별로만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4.6%)가 여자(27.2%)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34.4%)가 일반계고(28.7%)나 전문계고(26.4%) 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V-72]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표 V-90>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5	14.6	45.9	21.0	10.2	0.8	100(2,913)	
성별	남자	7.6	14.0	43.0	21.6	13.0	0.8	100(1,582)	34.208***
	여자	7.4	15.3	49.4	20.3	6.9	0.8	100(1,331)	
교급별	중학교	7.3	13.9	43.7	22.5	11.9	0.7	100(1,468)	16.727*
	일반계고	7.4	15.1	47.7	20.1	8.6	1.0	100(972)	
	전문계고	8.2	15.9	49.0	18.0	8.5	0.4	100(473)	
학년별	중1	5.5	13.3	41.6	24.9	13.5	1.1	100(473)	31.274
	중2	8.4	16.4	42.3	21.2	11.0	0.8	100(501)	
	중3	7.9	11.9	47.0	21.7	11.1	0.4	100(494)	
	고1	7.7	14.6	49.6	18.5	8.6	0.9	100(534)	
	고2	6.8	16.8	46.3	20.7	8.6	0.8	100(488)	
	고3	8.7	14.7	48.5	18.9	8.5	0.7	100(423)	
거주지	서울	6.4	13.9	45.7	22.1	11.1	0.8	100(488)	7.288
	광역시	8.3	14.7	46.0	21.5	8.4	1.0	100(960)	
	시·군	7.3	14.8	45.9	20.3	11.1	0.6	100(1,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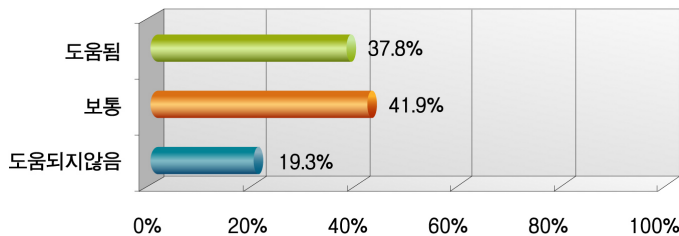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3-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에 대해 성별, 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9.6%)가 남자(36.4%)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2.8%)가 중학교(38.2%)나 전문계고(28.1%)보다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V-73]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표 V-91>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3	11.0	41.9	22.2	15.6	1.0	100(1,869)	
성별	남자	10.1	11.3	41.1	21.3	15.1	1.0	100(1,087)	11.681*
	여자	5.9	10.5	43.0	23.3	16.4	1.0	100(782)	
교급별	중학교	8.7	10.0	41.9	21.3	17.0	1.2	100(884)	31.726***
	일반계고	8.4	9.3	38.7	26.2	16.6	0.8	100(622)	
	전문계고	7.4	16.3	47.4	17.4	10.7	0.8	100(363)	
학년별	중1	6.0	8.2	45.6	18.9	19.9	1.4	100(281)	20.343
	중2	10.1	9.8	42.3	21.3	14.3	2.1	100(286)	
	중3	9.8	11.7	38.2	23.3	16.7	0.3	100(317)	
	고1	7.7	10.4	42.5	24.4	13.5	1.4	100(414)	
	고2	7.5	12.2	43.7	22.4	13.9	0.3	100(295)	
	고3	9.1	13.8	39.1	21.4	16.3	0.4	100(276)	
거주지	서울	9.1	11.3	41.2	21.4	16.4	0.6	100(318)	7.082
	광역시	8.9	12.2	43.3	20.9	13.4	1.3	100(621)	
	시·군	7.7	10.0	41.2	23.2	16.9	1.0	10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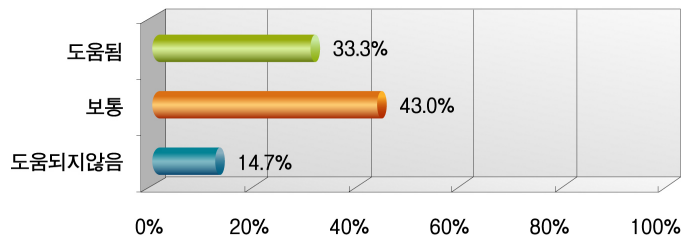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3-7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36.5%)가 일반계고(32.9%)나 전문계고(25.5%)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서울(39.1%)지역이 시·군(33.3%)이나 광역시(30.6%)보다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V-74]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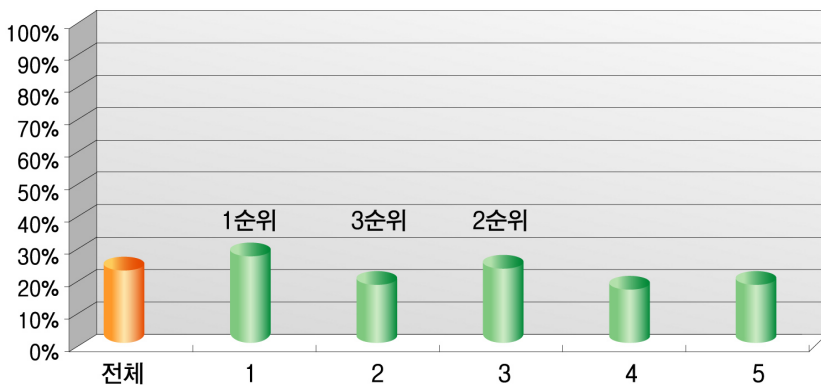
<표 V-92> 가정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5	10.2	43.0	24.6	8.7	9.1	100(6,509)	
성별	남자	4.6	9.8	40.6	24.2	9.5	11.3	100(3,487)	15.017**
	여자	4.3	10.7	45.8	25.0	7.6	6.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9	8.5	41.3	25.6	10.9	9.9	100(3,010)	77.670***
	일반계고	5.1	12.3	42.9	25.8	7.1	6.9	100(2,364)	
	전문계고	4.9	10.4	47.6	19.5	6.0	11.6	100(1,135)	
학년별	중1	3.1	6.6	41.2	24.8	13.4	10.8	100(968)	94.431***
	중2	4.3	9.3	40.6	27.0	9.1	9.8	100(1,024)	
	중3	4.1	9.4	42.0	25.0	10.3	9.0	100(1,018)	
	고1	4.7	10.1	42.6	24.8	8.2	9.5	100(1,236)	
	고2	4.4	12.7	45.8	22.9	5.5	8.7	100(1,217)	
	고3	6.1	12.3	45.0	23.3	6.5	6.7	100(1,046)	
거주지	서울	3.9	9.2	38.8	28.3	10.8	9.0	100(1,015)	27.529**
	광역시	4.9	10.2	44.5	23.5	7.1	9.8	100(2,274)	
	시·군	4.3	10.5	43.3	24.2	9.1	8.6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전체 항목별 비교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 여부에 대해
‘진로박람회(엑스포)’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26.2%)’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V-75]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표 V-93>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번호	문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진로박람회(엑스포)	30.0	70.0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21.3	78.7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26.2	73.8
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1	80.9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21.2	78.8
전체		23.6	76.4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참여 여부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1-4-1 진로박람회(엑스포)

〈표 V-94〉 진로박람회(엑스포)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30.0	70.0	100(6,509)	
성별	남자	32.9	67.1	100(3,487)	31.440***
	여자	26.5	73.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3.0	67.0	100(3,010)	146.689***
	일반계고	21.4	78.6	100(2,364)	
	전문계고	39.6	60.4	100(1,135)	
학년별	중1	33.4	66.6	100(968)	60.894***
	중2	32.5	67.5	100(1,024)	
	중3	33.2	66.8	100(1,018)	
	고1	32.9	67.1	100(1,236)	
	고2	26.6	73.4	100(1,217)	
	고3	21.5	78.5	100(1,046)	
거주지	서울	29.5	70.5	100(1,015)	0.782
	광역시	29.5	70.5	100(2,274)	
	사·군	30.5	69.5	100(3,220)	

* $p<.05$, ** $p<.01$, *** $p<.001$

2-1-4-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표 V-9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21.3	78.7	100(6,509)	
성별	남자	23.4	76.6	100(3,487)	19.607***
	여자	18.9	81.1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2.9	77.1	100(3,010)	74.200***
	일반계고	16.1	83.9	100(2,364)	
	전문계고	28.1	71.9	100(1,135)	
학년별	중1	22.2	77.8	100(968)	39.224***
	중2	19.6	80.4	100(1,024)	
	중3	26.7	73.3	100(1,018)	
	고1	23.6	76.4	100(1,236)	
	고2	18.5	81.5	100(1,217)	
	고3	17.4	82.6	100(1,046)	
거주지	서울	20.7	79.3	100(1,015)	2.817
	광역시	22.5	77.5	100(2,274)	
	사·군	20.7	79.3	100(3,220)	

* $p<.05$, ** $p<.01$, *** $p<.001$

2-1-4-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표 V-96〉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26.2	73.8	100(6,509)	
성별	남자	28.6	71.4	100(3,487)	24.018***
	여자	23.3	76.7	100(3,022)	
교육별	중학교	28.8	71.2	100(3,010)	115.508***
	일반계고	18.9	81.1	100(2,364)	
	전문계고	34.4	65.6	100(1,135)	
학년별	중1	30.5	69.5	100(968)	54.949***
	중2	28.1	71.9	100(1,024)	
	중3	27.9	72.1	100(1,018)	
	고1	29.4	70.6	100(1,236)	
	고2	22.1	77.9	100(1,217)	
	고3	19.4	80.6	100(1,046)	
거주지	서울	29.4	70.6	100(1,015)	6.641
	광역시	25.2	74.8	100(2,274)	
	사·군	25.8	74.2	100(3,220)	

* $p<.05$, ** $p<.01$, *** $p<.001$

2-1-4-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표 V-97〉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19.1	80.9	100(6,509)	
성별	남자	22.3	77.7	100(3,487)	48.844***
	여자	15.5	84.5	100(3,022)	
교육별	중학교	20.4	79.6	100(3,010)	143.431***
	일반계고	12.6	87.4	100(2,364)	
	전문계고	29.3	70.7	100(1,135)	
학년별	중1	20.2	79.8	100(968)	25.956***
	중2	19.0	81.0	100(1,024)	
	중3	21.9	78.1	100(1,018)	
	고1	21.7	78.3	100(1,236)	
	고2	15.4	84.6	100(1,217)	
	고3	16.6	83.4	100(1,046)	
거주지	서울	18.3	81.7	100(1,015)	0.563
	광역시	19.4	80.6	100(2,274)	
	사·군	19.1	80.9	100(3,220)	

* $p<.05$, ** $p<.01$, *** $p<.001$

2-1-4-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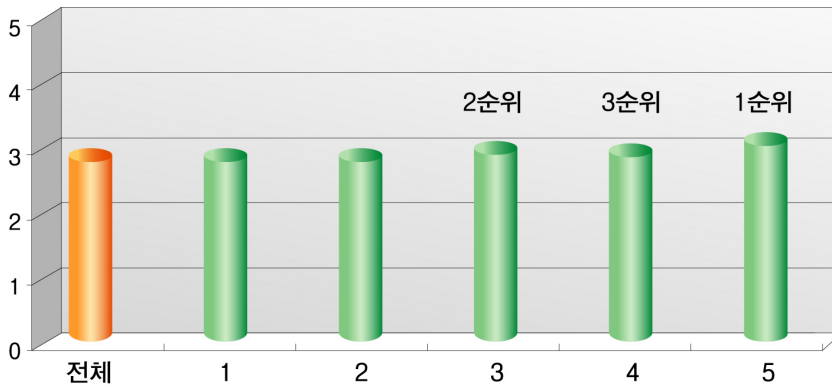
〈표 V-98〉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빈도)	χ^2
전체		21.2	78.8	100(6,509)	
성별	남자	23.4	76.6	100(3,487)	21.755***
	여자	18.7	81.3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0.6	79.4	100(3,010)	116.884***
	일반계고	16.5	83.5	100(2,364)	
	전문계고	32.4	67.6	100(1,135)	
학년별	중1	20.2	79.8	100(968)	12.958*
	중2	19.1	80.9	100(1,024)	
	중3	22.5	77.5	100(1,018)	
	고1	23.4	76.6	100(1,236)	
	고2	19.0	81.0	100(1,217)	
	고3	22.8	77.2	100(1,046)	
거주지	서울	20.2	79.8	100(1,015)	0.786
	광역시	21.5	78.5	100(2,274)	
	사.군	21.3	78.7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3.18)’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3.0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2.99)’ 순으로 나타남



[그림 V-7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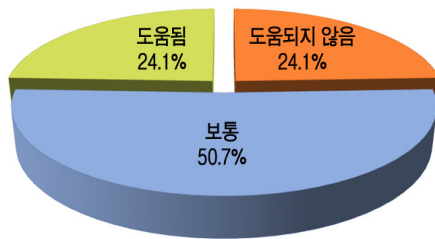
<표 V-99>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진로박람회(엑스포)	2.97	0.956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2.95	0.969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3.03	0.968
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2.99	0.973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3.18	1.050
전체		3.02	0.983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 및 만족도 - 지표 항목별 응답결과
2-1-4-1 진로박람회(엑스포)

‘진로박람회(엑스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진로박람회(엑스포)’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24.9%)가 여자(22.9%)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7.1%)가 일반계고(21.9%)나 전문계고(20.0%)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V-77] 진로박람회(엑스포)

<표 V-100> 진로박람회(엑스포)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4	15.6	50.7	18.4	5.7	1.1	100(1,950)	
성별	남자	10.1	16.8	46.8	18.1	6.8	1.4	100(1,148)	26.556***
	여자	6.0	14.0	56.4	18.8	4.1	0.7	100(802)	
교급별	중학교	8.9	13.0	50.1	20.5	6.5	1.0	100(994)	18.959*
	일반계고	7.5	17.2	51.8	16.8	5.1	1.6	100(506)	
	전문계고	8.4	19.8	50.9	15.6	4.4	0.9	100(450)	
학년별	중1	8.0	10.8	50.5	22.3	7.1	1.2	100(323)	34.667*
	중2	9.3	13.2	53.2	18.0	6.0	0.3	100(333)	
	중3	9.2	14.8	46.7	21.3	6.5	1.5	100(338)	
	고1	9.1	15.7	51.6	17.7	4.7	1.2	100(407)	
	고2	6.8	17.6	52.2	16.7	5.9	0.9	100(324)	
	고3	7.6	24.4	49.8	12.9	3.6	1.8	100(225)	
거주지	서울	6.4	14.0	49.8	20.1	8.7	1.0	100(299)	14.851
	광역시	7.9	18.4	49.4	18.4	4.6	1.3	100(670)	
	시·군	9.4	14.3	51.9	17.9	5.5	1.0	100(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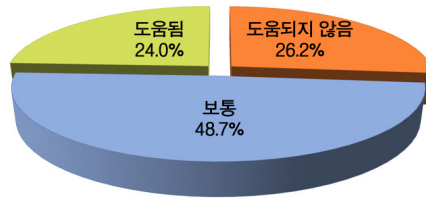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4-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24.8%)가 여자(22.9%)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26.6%)가 중학교(25.1%)나 전문계고(18.5%)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에서는 서울(29.5%)지역이 시·군(24.0%)이나 광역시(21.7%)보다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V-78]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표 V-101>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4	17.8	48.7	18.2	5.8	1.0	100(1,387)	
성별	남자	10.9	18.9	44.1	18.0	6.7	1.3	100(816)	27.010***
	여자	4.9	16.3	55.3	18.4	4.6	0.5	100(571)	
교급별	중학교	9.4	13.8	50.6	18.5	6.7	1.0	100(688)	25.190**
	일반계고	7.9	19.5	44.5	20.3	6.3	1.6	100(380)	
	전문계고	6.9	24.5	49.8	15.0	3.4	0.3	100(319)	
학년별	중1	7.4	13.5	50.7	17.7	9.3	1.4	100(215)	35.697*
	중2	13.9	16.4	46.8	16.9	5.5	0.5	100(201)	
	중3	7.7	12.1	53.3	20.2	5.5	1.1	100(272)	
	고1	7.9	21.6	48.6	16.1	5.1	0.7	100(292)	
	고2	6.2	23.1	43.1	19.6	6.7	1.3	100(225)	
	고3	8.2	20.3	48.9	18.7	2.7	1.1	100(182)	
거주지	서울	5.2	15.2	48.6	23.8	5.7	1.4	100(210)	15.574*
	광역시	8.6	20.4	48.1	17.6	4.1	1.2	100(511)	
	시·군	9.3	16.7	49.2	16.8	7.2	0.8	100(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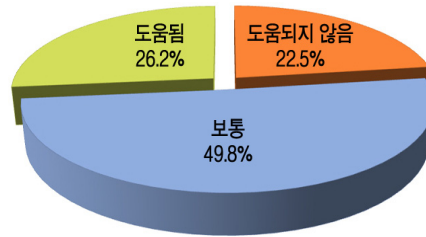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4-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9.9%)가 일반계고(25.6%)나 전문계고(19.0%)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거주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79]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표 V-102>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6	15.0	49.8	19.3	7.0	1.4	100(1,703)	
성별	남자	9.6	16.2	46.6	18.3	7.8	1.4	100(999)	23.949***
	여자	4.7	13.2	54.3	20.6	5.8	1.4	100(704)	
교급별	중학교	7.4	12.3	49.1	21.2	8.7	1.3	100(867)	25.129**
	일반계고	7.8	17.5	46.9	19.1	6.5	2.2	100(446)	
	전문계고	7.7	17.9	54.6	15.1	3.8	0.8	100(390)	
학년별	중1	5.8	10.5	49.2	23.7	9.2	1.7	100(295)	39.191**
	중2	9.4	13.9	53.5	16.0	6.6	0.7	100(288)	
	중3	7.0	12.7	44.7	23.9	10.2	1.4	100(284)	
	고1	7.4	18.7	48.1	17.3	6.6	1.9	100(364)	
	고2	7.8	17.8	52.8	15.2	5.2	1.1	100(269)	
	고3	8.4	15.8	51.7	19.7	3.0	1.5	100(203)	
거주지	서울	5.7	14.8	47.7	21.1	9.1	1.7	100(298)	13.061
	광역시	8.6	16.2	52.2	16.8	4.9	1.4	100(573)	
	시·군	7.6	14.2	48.9	20.3	7.7	1.3	100(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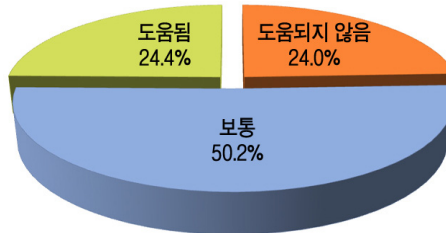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4-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26.8%)가 중학교(25.6%)나 전문계고(19.9%)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0]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표 V-10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3	15.8	50.2	17.7	6.7	1.4	100(1,244)	
성별	남자	9.7	17.0	47.0	17.1	7.7	1.5	100(777)	14.874**
	여자	6.0	13.7	55.7	18.6	4.9	1.1	100(467)	
교급별	중학교	9.8	10.9	52.1	17.6	8.0	1.6	100(614)	41.045***
	일반계고	9.1	15.8	46.6	19.5	7.4	1.7	100(298)	
	전문계고	4.8	24.7	50.0	16.3	3.6	0.6	100(332)	
학년별	중1	8.7	10.7	48.5	20.4	9.2	2.6	100(196)	41.208**
	중2	13.3	12.3	52.3	15.9	5.6	0.5	100(195)	
	중3	7.6	9.9	55.2	16.6	9.0	1.8	100(223)	
	고1	6.7	20.5	47.4	18.3	6.3	0.7	100(268)	
	고2	5.9	19.1	51.6	14.9	6.9	1.6	100(188)	
	고3	8.0	21.8	46.6	20.1	2.3	1.1	100(174)	
거주지	서울	5.4	16.7	50.0	16.7	8.6	2.7	100(186)	8.106
	광역시	8.6	16.5	52.3	16.7	4.8	1.1	100(442)	
	시·군	8.9	14.9	48.9	18.7	7.5	1.1	10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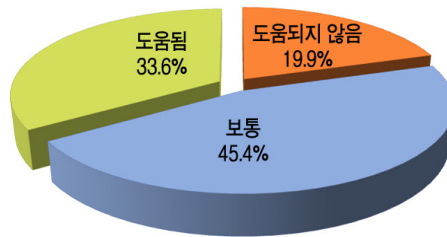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1-4-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성별, 교급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5.5%)가 남자(32.2%)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39.4%)가 중학교(32.5%)나 전문계고(29.1%)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



[그림 V-81]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표 V-10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9	12.0	45.4	22.0	11.6	1.2	100(1,380)	
성별	남자	9.6	13.5	43.5	20.1	12.1	1.2	100(816)	16.004**
	여자	5.5	9.8	48.0	24.6	10.8	1.2	100(564)	
교급별	중학교	9.8	11.0	45.1	19.3	13.2	1.6	100(621)	27.344**
	일반계고	6.9	10.0	41.9	26.3	13.0	1.8	100(391)	
	전문계고	5.7	15.8	49.5	21.7	7.3		100(368)	
학년별	중1	9.7	8.2	42.9	21.9	15.3	2.0	100(196)	31.295
	중2	13.3	11.7	44.9	18.4	11.2	0.5	100(196)	
	중3	7.0	12.7	47.2	17.9	13.1	2.2	100(229)	
	고1	6.6	15.2	44.3	20.8	12.1	1.0	100(289)	
	고2	4.8	10.0	48.9	25.5	10.0	0.9	100(231)	
	고3	7.5	12.6	43.9	26.8	8.4	0.8	100(239)	
거주지	서울	5.9	11.2	43.4	26.3	11.7	1.5	100(205)	7.001
	광역시	8.2	12.0	46.9	21.8	9.6	1.4	100(490)	
	시·군	8.3	12.1	44.8	20.7	13.0	1.0	100(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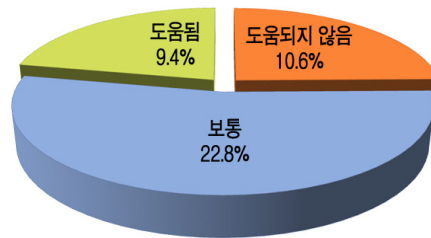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1-4-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10.3%)가 여자(8.4%)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중1(12.4%)과 고3(6.8%)간에 약 5.6%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 V-82]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표 V-105>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5	7.1	22.8	7.1	2.3	57.2	100(6,509)	
성별	남자	4.5	7.3	21.5	7.5	2.8	56.4	100(3,487)	35.139***
	여자	2.4	6.7	24.3	6.7	1.7	58.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1	6.1	23.6	8.2	2.7	55.2	100(3,010)	23.993**
	일반계고	2.7	7.1	18.6	5.3	1.6	64.7	100(2,364)	
	전문계고	3.6	9.3	29.3	8.1	2.7	47.0	100(1,135)	
학년별	중1	3.6	5.9	23.8	9.1	3.3	54.3	100(968)	36.541*
	중2	4.6	6.9	23.2	6.7	2.1	56.3	100(1,024)	
	중3	4.1	5.6	23.9	8.7	2.8	54.9	100(1,018)	
	고1	3.2	7.8	24.3	6.6	2.4	55.8	100(1,236)	
	고2	2.9	8.1	22.4	6.2	2.2	58.2	100(1,217)	
	고3	3.1	7.6	19.0	5.7	1.1	63.6	100(1,046)	
	서울	3.1	7.4	22.9	7.1	2.6	57.0	100(1,015)	5.091
거주지	광역시	3.6	7.7	22.8	6.7	2.2	57.0	100(2,274)	
	시·군	3.6	6.5	22.7	7.4	2.3	57.4	100(3,220)	

* $p<.05$, ** $p<.01$, *** $p<.001$

■ 2-1 진로·직업 교육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진로관련 검사 및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경험하는 주된 경로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진로와 직업」이라는 독립교과를 통한 방법(55.2%) 또는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의 보통교과의 일부 단원으로 진로교육을 전달하는 방법(61.6%)이 주된 진로교육 전달경로라는 것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를 학교 교육과정의 중핵적인 요소로 다루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은 진로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

반면, 현장학습 및 견학(49.3%),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37.2%)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비율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 이는 현행 중·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학교 내 교실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현장감 있는 진로탐색이나 진로계획을 지원하는데 현행 학교 진로교육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로부터의 충분한 역할모델도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이 체험 중심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은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

2)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에 의하면 「진로와 직업」 과목은 고교 2·3학년에 선택하는 교양 과목의 하나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교 1학년의 교과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55.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통계연보의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운영현황에서는 13.3%만이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최동선 외, 2008). 즉 「진로와 직업」 과목은 고교 1학년 시기에 주로 운영되는 교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은 중3과 고1 시기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독립된 교과가 아닌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진로와 직업」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 학년도의 경험까지 누가적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지표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세부항목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체감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평균범위 2.81~3.21). 특히 학년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중·고교생들의 진로에 관한 관심이 학년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학교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진로교육이 교과과정을 통한 ‘보편화’와 함께 개별화된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졸업 이후의 구체적인 진로경로를 설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교생에게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교 안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경험한 기초로 폭넓은 진로대안을 모색하고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학교 내부의 인프라나 정보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교사나 상담가 등의 서비스 제공 주체의 전문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이러한 개별화된 서비스의 기회가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비록 학교 차원에서 진로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비율을 높이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2-1-1-14 참조). 즉 단편적인 진로관련 심리검사의 실시만으로는 학생들의 진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의 개별화를 위한 충분한 후속 활동의 전개, 다양한 직·간접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한 자기 이해의 범위와 깊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집단적인 형태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의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진로교육의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 개인의 관심 부족, 교사들의 관심 부족,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것은 (2-1-2 참조), 학생과 교사(또는 진로교육 전문 인력) 사이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탐색의 기회를 갖고, 이를 계기로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요구사항이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화’된 진로교육 활동과 ‘개별화’된 진로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진로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들(예: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진로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밖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은 부모나 형제 등의 가족과 ‘대화’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실질적인 진로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가족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활동 역시, 이러한 가정이 갖는 진로교육 기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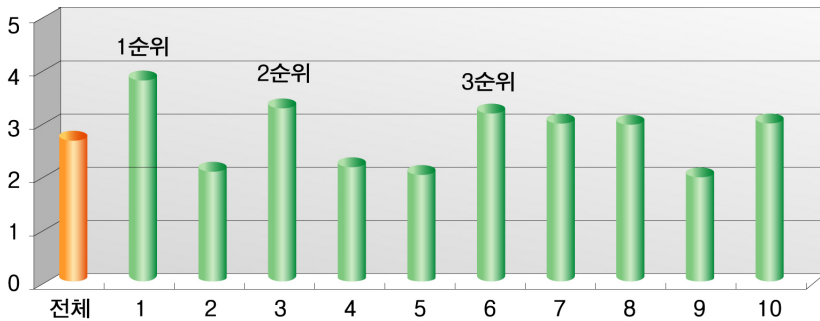
반면 학교나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이들의 진로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이 미약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인프라, 특히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본 지표

조사에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 산업체의 참여도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인 파트너십을 형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이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가짐과 동시에,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한 진로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진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관들 사이의 연계 체계를 토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 전체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3.79)’가 가장 높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3.3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3.21)’가 다음 순이었음



[그림 V-83] 진로준비행동

<표 V-106> 진로준비행동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3.79	1.097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2.21	1.143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3.36	1.190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2.30	1.232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2.20	1.125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3.21	1.238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3.06	1.098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6	1.139
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2.09	1.107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3.05	1.217
전체		2.83	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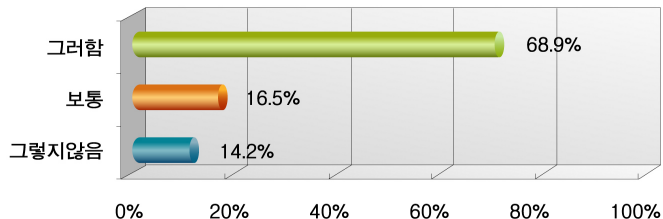
2-2-1 진로준비행동-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2-2-1-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9%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표 V-107>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4	9.8	16.5	40.2	28.7	0.3	100(6,509)	
성별	남자	6.3	12.1	20.0	36.6	24.7	0.3	100(3,487)	221.487***
	여자	2.3	7.2	12.4	44.5	33.3	0.3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1	13.2	19.9	37.6	22.7	0.5	100(3,010)	295.085***
	일반계고	2.1	5.7	11.8	42.9	37.4	0.2	100(2,364)	
	전문계고	4.8	9.4	17.2	41.8	26.6	0.3	100(1,135)	
학년별	중1	8.4	13.4	20.0	34.1	23.5	0.6	100(968)	374.222***
	중2	6.6	13.9	20.9	38.3	19.8	0.5	100(1,024)	
	중3	3.4	12.3	18.9	40.3	24.8	0.4	100(1,018)	
	고1	4.4	9.5	17.2	40.4	28.2	0.2	100(1,236)	
	고2	2.9	6.6	13.7	45.3	31.5	0.1	100(1,217)	
	고3	1.2	4.3	9.0	41.8	43.4	0.3	100(1,046)	
거주지	서울	5.7	9.8	16.7	38.2	29.3	0.3	100(1,015)	8.640
	광역시	4.0	9.8	16.4	39.9	29.6	0.3	100(2,274)	
	사.군	4.3	9.8	16.5	41.1	27.9	0.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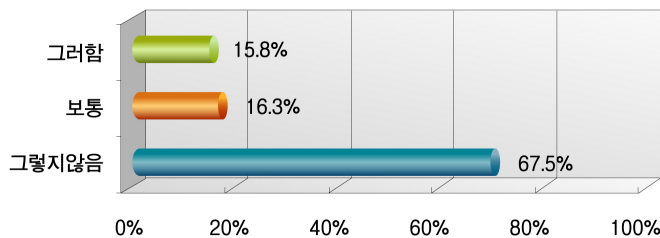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2-1-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5.8%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19.4%)가 전문계고(16.2%)나 중학교(12.7%)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다

<표 V-10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1.4	36.1	16.3	11.0	4.8	0.4	100(6,509)	
성별	남자	33.2	33.1	17.7	10.6	5.0	0.4	100(3,487)	36.980***
	여자	29.4	39.5	14.8	11.4	4.5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1.4	36.1	16.3	11.0	4.8	0.4	100(3,010)	88.330***
	일반계고	33.2	33.1	17.7	10.6	5.0	0.4	100(2,364)	
	전문계고	29.4	39.5	14.8	11.4	4.5	0.4	100(1,135)	
학년별	중1	38.1	31.9	15.6	7.9	5.7	0.8	100(968)	128.016***
	중2	36.6	36.1	15.6	8.1	3.0	0.5	100(1,024)	
	중3	30.0	38.4	17.6	9.3	4.2	0.5	100(1,018)	
	고1	26.8	35.0	19.5	12.9	5.5	0.3	100(1,236)	
	고2	29.7	39.4	15.4	10.9	4.4	0.1	100(1,217)	
	고3	29.1	35.0	13.9	16.1	5.7	0.3	100(1,046)	
거주지	서울	30.6	35.0	16.2	12.1	5.7	0.4	100(1,015)	11.367
	광역시·시·군	31.1	36.1	17.6	10.8	4.0	0.4	100(2,274)	
	시·군	31.9	36.4	15.5	10.8	5.0	0.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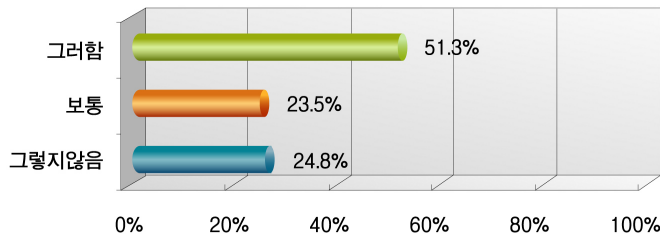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2-1-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3%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4.9%)가 남자(48.1)보다, 교급별로는 인문계고(56.0%)가 가장 높았고, 학년별로는 중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에 비해 고등학교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로는 시·군(51.7%)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6]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표 V-109>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5	16.3	23.5	33.9	17.3	0.5	100(6,509)	
성별	남자	10.1	16.3	24.9	30.9	17.3	0.5	100(3,487)	52.763***
	여자	6.6	16.3	21.8	37.5	17.4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9.7	16.3	24.7	30.7	18.0	0.6	100(3,010)	57.232***
	일반계고	7.1	15.3	21.3	37.7	18.3	0.3	100(2,364)	
	전문계고	8.3	18.4	24.8	34.5	13.5	0.5	100(1,135)	
학년별	중1	10.4	15.2	25.6	28.6	19.5	0.6	100(968)	55.549***
	중2	10.4	16.0	23.8	32.2	16.9	0.7	100(1,024)	
	중3	8.3	17.6	24.7	31.2	17.8	0.5	100(1,018)	
	고1	7.0	16.4	22.7	35.5	18.0	0.4	100(1,236)	
	고2	7.5	15.9	21.7	39.9	14.8	0.3	100(1,217)	
	고3	7.9	16.7	23.0	34.4	17.6	0.3	100(1,046)	
거주지	서울	8.1	16.6	23.4	31.1	20.4	0.4	100(1,015)	19.446*
	광역시	7.7	17.3	24.0	34.9	15.6	0.5	100(2,274)	
	시·군	9.2	15.5	23.1	34.1	17.6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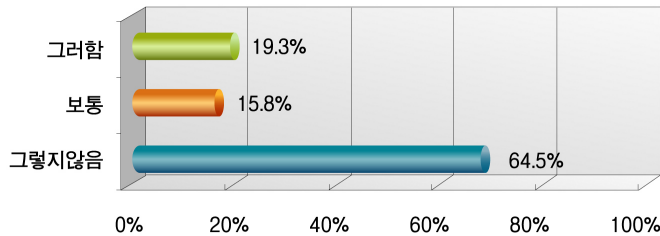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2-1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3%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은 일반계고(22.6%)가 전문계고(20.4%)나 중학교(16.3%)보다 더 높았고, 거주지별로 서울(23.3%)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7]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표 V-1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1.5	33.0	15.8	12.2	7.1	0.4	100(6,509)	
성별	남자	32.8	30.6	17.2	11.0	7.9	0.5	100(3,487)	40.325***
	여자	30.0	35.7	14.1	13.4	6.3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4.9	32.5	15.8	10.0	6.2	0.6	100(3,010)	78.831***
	일반계고	29.9	33.6	13.7	14.1	8.5	0.2	100(2,364)	
	전문계고	26.1	33.0	20.0	13.7	6.8	0.5	100(1,135)	
학년별	중1	37.7	29.9	16.0	9.2	6.4	0.8	100(968)	113.002***
	중2	36.6	31.3	15.7	10.4	5.4	0.5	100(1,024)	
	중3	30.4	36.1	15.7	10.4	7.0	0.5	100(1,018)	
	고1	27.1	31.6	19.3	14.0	7.6	0.5	100(1,236)	
	고2	28.3	37.2	14.9	13.0	6.5	0.1	100(1,217)	
	고3	30.9	31.1	12.7	15.1	9.9	0.3	100(1,046)	
거주지	서울	27.5	32.0	16.7	14.0	9.4	0.4	100(1,015)	36.048***
	광역시	30.1	36.0	15.7	11.6	6.2	0.4	100(2,274)	
	사.군	33.8	31.1	15.6	12.0	7.1	0.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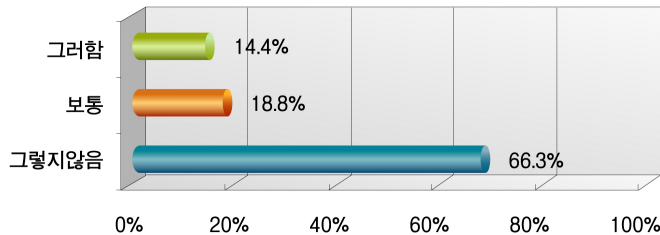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2-1-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4.4%가 그렇다고 응답

○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17.9%)가 전문계고(16.2%)나 중학교(11.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8]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표 V-111>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2.2	34.1	18.8	10.2	4.3	0.4	100(6,509)	
성별	남자	34.2	31.0	20.0	9.6	4.7	0.5	100(3,487)	43.952***
	여자	29.9	37.8	17.4	10.9	3.8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7.2	32.6	18.6	7.5	3.6	0.6	100(3,010)	102.066***
	일반계고	28.7	34.9	18.2	12.8	5.1	0.3	100(2,364)	
	전문계고	26.3	36.5	20.4	11.9	4.3	0.5	100(1,135)	
학년별	중1	42.0	27.5	19.5	6.4	3.9	0.6	100(968)	185.801***
	중2	38.4	34.2	17.7	6.8	2.3	0.6	100(1,024)	
	중3	31.3	35.9	18.8	9.1	4.4	0.5	100(1,018)	
	고1	26.4	35.2	21.2	12.9	3.9	0.5	100(1,236)	
	고2	28.2	38.8	19.0	9.6	4.2	0.2	100(1,217)	
	고3	29.4	31.8	16.3	15.4	6.8	0.3	100(1,046)	
거주지	서울	31.1	32.1	20.0	11.8	4.6	0.3	100(1,015)	11.807
	광역시	31.1	36.0	18.2	10.0	4.2	0.5	100(2,274)	
	시·군	33.3	33.4	18.9	9.8	4.2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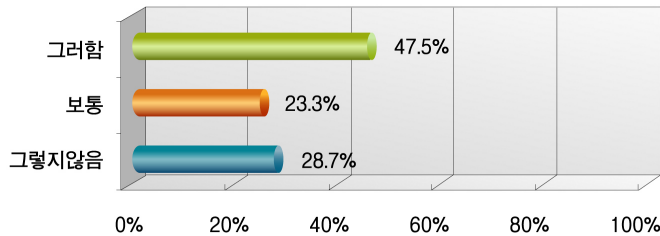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2-1-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5%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5.5%)가 남자(40.7%)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56.2%)가 전문계고(43.4%)나 중학교(42.3%)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89]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표 V-112>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6	16.0	23.3	33.4	14.2	0.5	100(6,509)	
성별	남자	15.6	18.0	25.2	28.9	11.8	0.5	100(3,487)	157.225***
	여자	9.3	13.7	21.2	38.6	16.9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6.0	17.8	23.2	29.7	12.6	0.6	100(3,010)	158.159***
	일반계고	9.0	12.7	21.9	38.5	17.7	0.2	100(2,364)	
	전문계고	11.3	18.0	26.7	32.4	11.0	0.6	100(1,135)	
학년별	중1	20.0	19.2	22.5	24.8	12.6	0.8	100(968)	192.550***
	중2	16.6	19.5	24.6	29.0	9.7	0.6	100(1,024)	
	중3	11.7	14.8	22.5	35.0	15.5	0.5	100(1,018)	
	고1	8.9	13.5	23.5	35.8	17.8	0.5	100(1,236)	
	고2	8.8	13.1	23.0	39.9	15.0	0.2	100(1,217)	
	고3	11.8	17.0	23.9	33.5	13.6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2.8	15.1	22.9	35.1	13.8	0.4	100(1,015)	17.066
	광역시	11.6	17.1	25.1	32.7	12.9	0.5	100(2,274)	
	시·군	13.3	15.5	22.2	33.3	15.2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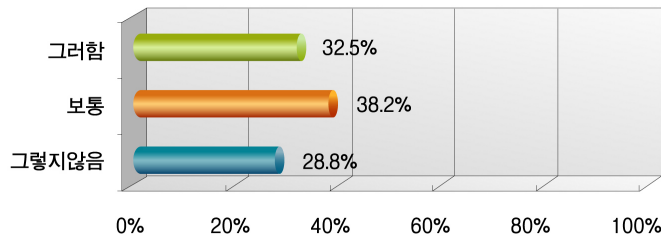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2-1-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5%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34.1%)가 중학교(32.5%)나 전문계고(29.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90]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표 V-113>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6	20.2	38.2	21.5	11.0	0.5	100(6,509)	
성별	남자	10.5	20.2	37.5	20.0	11.3	0.5	100(3,487)	38.908***
	여자	6.5	20.2	39.1	23.1	10.7	0.4	100(3,022)	
교급별	중학교	9.0	19.0	38.9	20.7	11.8	0.6	100(3,010)	27.421**
	일반계고	7.9	21.0	36.8	22.8	11.3	0.2	100(2,364)	
	전문계고	9.3	21.7	39.3	20.8	8.4	0.6	100(1,135)	
학년별	중1	8.4	17.4	39.7	21.2	12.6	0.8	100(968)	63.668***
	중2	10.0	19.8	41.2	18.1	10.4	0.6	100(1,024)	
	중3	8.6	19.6	36.0	22.9	12.4	0.5	100(1,018)	
	고1	7.0	18.5	37.3	25.9	10.8	0.5	100(1,236)	
	고2	9.4	22.9	39.7	18.8	9.0	0.2	100(1,217)	
	고3	8.8	22.4	35.6	21.6	11.4	0.3	100(1,046)	
거주지	서울	8.2	18.9	36.4	22.5	13.7	0.4	100(1,015)	13.296
	광역시	8.4	20.7	39.2	20.6	10.6	0.5	100(2,274)	
	시·군	9.0	20.2	38.1	21.8	10.4	0.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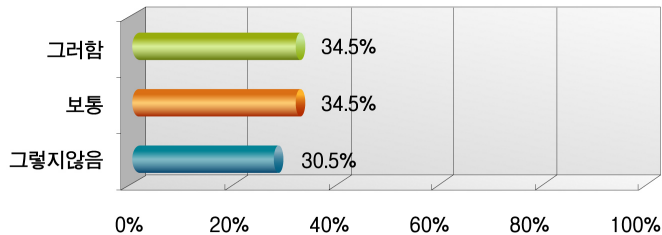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2-1-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5%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및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6.0%)가 남자(33.2%)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37.6%)가 일
반계고(32.7%)나 전문계고(30.0%)보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거주지별
로는 서울(37.4%)이 시·군(35.3%), 광역시(32.1%)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V-91]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V-114>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7	20.8	34.5	22.7	11.8	0.5	100(6,509)	
성별	남자	11.7	20.7	33.9	21.5	11.7	100(3,487)	39.305***
	여자	7.3	20.9	35.3	24.1	11.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8.7	16.0	36.9	25.1	12.5	100(3,010)	125.226***
	일반계고	11.2	25.8	30.1	20.6	12.1	100(2,364)	
	전문계고	9.0	22.9	37.4	20.8	9.2	100(1,135)	
학년별	중1	7.9	14.0	38.0	25.6	13.5	100(968)	164.304***
	중2	10.2	16.1	36.9	25.6	10.7	100(1,024)	
	중3	8.1	17.9	36.0	24.2	13.4	100(1,018)	
	고1	8.1	20.6	33.8	24.6	12.4	100(1,236)	
	고2	10.8	27.3	34.1	17.7	9.8	100(1,217)	
	고3	12.9	27.2	29.0	19.3	11.4	100(1,046)	
거주지	서울	9.3	18.2	34.7	23.3	14.2	100(1,015)	20.676*
	광역시	9.5	22.6	35.4	20.7	11.3	100(2,274)	
	시·군	9.9	20.4	33.9	23.9	11.4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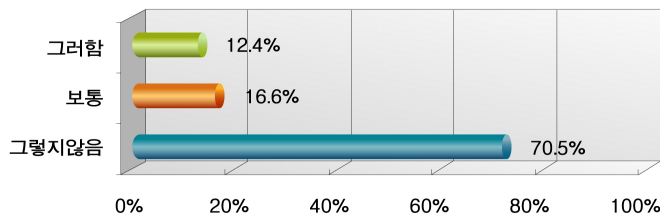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2-1-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2.4%가 그렇다고 응답

○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16.3%)가 중학교
(12.5%)나 인문계고(10.3%)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92]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표 V-115>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6.2	34.3	16.6	8.3	4.1	0.5	100(6,509)	
성별	남자	37.0	30.4	18.8	8.3	5.0	0.5	100(3,487)	72.797***
	여자	35.4	38.8	13.9	8.3	3.1	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5.0	33.5	18.2	8.0	4.5	0.7	100(3,010)	102.645***
	일반계고	40.7	36.3	12.5	7.1	3.3	0.2	100(2,364)	
	전문계고	30.2	32.2	20.6	11.5	4.8	0.7	100(1,135)	
학년별	중1	34.2	30.1	21.1	7.3	6.3	1.0	100(968)	111.258***
	중2	38.1	34.1	15.3	8.5	3.4	0.6	100(1,024)	
	중3	32.8	36.2	18.5	8.2	3.8	0.5	100(1,018)	
	고1	31.6	34.2	18.0	11.2	4.4	0.6	100(1,236)	
	고2	37.6	37.0	14.7	7.3	3.2	0.2	100(1,217)	
	고3	43.6	33.6	12.2	6.7	3.6	0.3	100(1,046)	
거주지	서울	35.2	33.3	17.9	8.9	4.3	0.4	100(1,015)	7.078
	광역시	35.6	34.8	15.9	8.8	4.2	0.6	100(2,274)	
	시·군	37.0	34.3	16.6	7.7	3.9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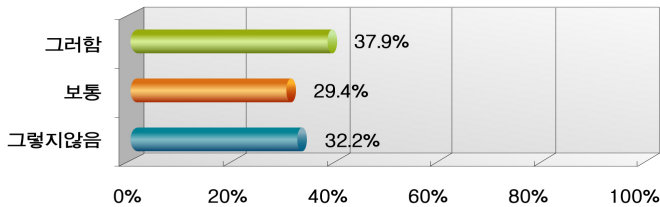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2-1-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9%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43.1%)가 남자(33.3%)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5.5%)가 전문계고(35.7%)나 중학교(32.7%)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9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표 V-116>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3.1	19.0	29.4	25.2	12.7	0.5	100(6,509)	
성별	남자	16.1	19.9	30.1	21.3	12.0	0.6	100(3,487)	100.670***
	여자	9.7	18.0	28.6	29.6	13.5	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6.2	20.9	29.4	21.1	11.6	0.8	100(3,010)	132.168***
	일반계고	9.7	16.5	28.1	30.7	14.8	0.2	100(2,364)	
	전문계고	12.1	19.3	32.2	24.5	11.2	0.7	100(1,135)	
학년별	중1	16.1	20.4	31.3	18.5	12.8	0.9	100(968)	149.738***
	중2	18.5	20.4	28.7	22.2	9.4	0.9	100(1,024)	
	중3	13.9	22.0	28.3	22.5	12.8	0.5	100(1,018)	
	고1	11.1	17.2	30.4	27.8	13.0	0.5	100(1,236)	
	고2	11.3	19.6	30.1	27.3	11.5	0.2	100(1,217)	
	고3	8.8	15.1	27.6	31.4	16.8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2.4	19.4	27.0	27.1	13.6	0.5	100(1,015)	13.746
	광역시	12.1	19.1	31.2	25.1	11.9	0.6	100(2,274)	
	시·군	14.1	18.9	28.9	24.6	13.0	0.5	100(3,220)	

* $p<.05$, ** $p<.01$, *** $p<.001$

■ 2-2 진로·직업 준비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개념(김봉환, 1997)’으로 실천적인 진로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는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 기자재, 교재 등을 구입하는 등의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참여나 인터뷰 등을 통한 방법과 도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방법의 진로준비행동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진로준비를 위하여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M=3.79), 관련 동영상이나 TV를 시청하거나(M=3.36), 온·오프라인을 통한 검사에 참여(M=3.21)하는 것이다. 반면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들, 현직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M=2.21), 현직자와 만남의 기회를 갖거나(M=2.30), 자발적으로 진로상담에 참여하거나(M=2.20), 직업체험에 참여(M=2.09)하는 활동은 활용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진로준비행동 또는 진로탐색행동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자신이나 직업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모호한 기대나 생각들을 검증(hypothesis-testing, Jordaan, 1963)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기회를 조사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될 다양한 역할들을 실험해보거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활동이 중요하지만, 본 지표 결과에서처럼 청소년들에게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활동들이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매체(인터넷, 도서, 동영상 등)나 타인 등의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가설검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에

게 자기 자신이나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적절한 사업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최동선 외, 2007). 또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졌던 청소년이 다시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한상근 외, 2007). 따라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직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에 개관 예정인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 미니 직업체험관을 다수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시설이나 전문계 고교를 비롯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체 역시 단순 전시 위주의 홍보관이 아닌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나 현직자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체험관으로 개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활성화 및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 마련도 요구된다.

이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확충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는 단위 학교와 연계될 필요도 있다.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Job School과 같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의 체험 기회를 확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직업체험의 기회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역 단위 또는 시군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점수 위주의 학교교육 관행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인색하게 하는 주된 환경적인 요인이다. 단위 학교 역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학교 밖에서의 생생한 체험에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일랜드의 전환학년 제도(transition year), 영국의 갭이어(gap year), 핀란드의 직업생활 소개기간(Introduction-to-Working-Life Period,

TET) 등과 같은 제도를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 밖의 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3 진로·직업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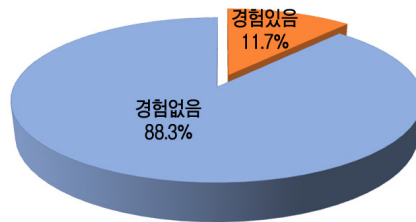
2-3-1 아르바이트 체험

2-3-1-1 지난 1년(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지난 1년(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전문계고(26.9%)가 최근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11.3%), 중학교(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였고, 거주지별로는 시·군(12.5%)지역이 다른 곳보다 더 많았다.



[그림 V-94]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표 V-117>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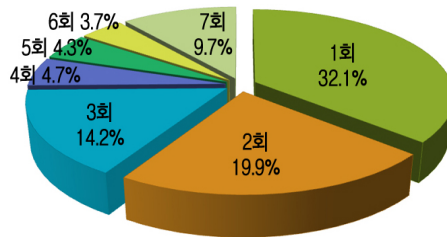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빈도)	χ^2
전체		11.7	88.3	100(6,509)	
성별	남자	11.7	88.3	100(3,487)	0.018
	여자	11.8	88.2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3	93.7	100(3,010)	336.252***
	일반계고	11.3	88.7	100(2,364)	
	전문계고	26.9	73.1	100(1,135)	
학년별	중1	5.3	94.7	100(968)	187.668***
	중2	5.9	94.1	100(1,024)	
	중3	7.9	92.1	100(1,018)	
	고1	12.5	87.5	100(1,236)	
	고2	17.8	82.2	100(1,217)	
	고3	19.1	80.9	100(1,046)	
거주지	서울	8.9	91.1	100(1,015)	10.005**
	광역시	11.9	88.1	100(2,274)	
	시·군	12.5	87.5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2-3-1-2 지난 1년(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 경험 횟수’에 대해
1회 32.1%, 2회 19.9%, 3회 14.2%의 응답률을 보임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3회 이하가 66.2%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1회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회가 19.9%, 3회는 14.2%로 나타났다. 그 밖에 4회 4.7%, 5회 4.3%, 6회 3.7% 등 이었다.



[그림 V-95]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표 V-118>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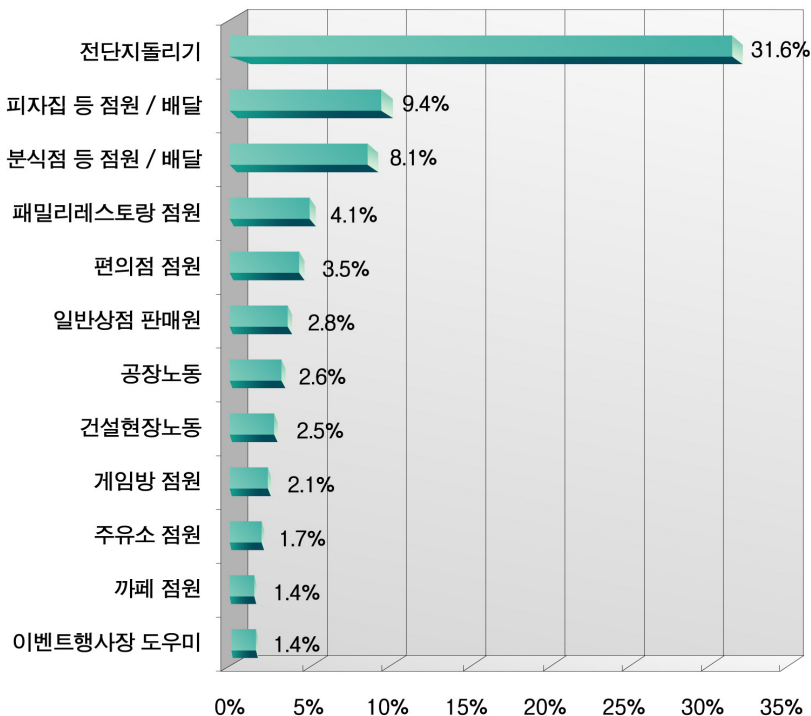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1회	2회	3회	4회	5회	6~9회	10회 이상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32.1	19.9	14.2	4.7	4.3	3.7	9.7	11.4	100(763)
성별	남자	29.0	17.7	13.3	3.7	6.6	4.4	12.8	12.5	100(407)
	여자	35.7	22.5	15.2	5.9	1.7	2.8	6.2	10.1	100(356)
교육별	중학교	27.2	19.9	15.7	4.2	4.7	2.6	8.4	17.3	100(191)
	일반계고	33.3	20.6	13.1	5.6	4.1	4.5	13.1	5.6	100(267)
	전문계고	34.1	19.3	14.1	4.3	4.3	3.6	7.5	12.8	100(305)
학년별	중1	35.3	15.7	17.6	2.0	3.9	3.9	5.9	15.7	100(51)
	중2	21.7	20.0	20.0	5.0	6.7	1.7	5.0	20.0	100(60)
	중3	26.3	22.5	11.3	5.0	3.8	2.5	12.5	16.3	100(80)
	고1	30.3	21.9	15.5	4.5	3.9	7.1	9.0	7.7	100(155)
	고2	35.0	20.3	10.6	6.0	5.1	3.7	9.2	10.1	100(217)
	고3	35.0	18.0	15.5	4.0	3.5	2.0	12.0	10.0	100(200)
거주지	서울	36.7	24.4	10.0	5.6	5.6	3.3	3.3	11.1	100(90)
	광역시	33.3	20.4	13.3	3.3	4.8	2.2	8.9	13.7	100(270)
	시·군	30.3	18.6	15.6	5.5	3.7	4.7	11.7	9.9	100(403)

2-3-1-3 지난 1년(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31.6%)’, ‘피자집 등 점원/배달(9.4%)’,
‘분식점 등 점원/배달(8.1%)’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31.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자집 등 점원/배달(9.4%)’, ‘분식점 등 점원/배달(8.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4.1%)’, ‘편의점 점원(3.5%)’, ‘일반상점판매원(2.8%)’, ‘공장노동(2.6%)’, ‘건설현장노동(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소수 의견으로 ‘카페점원(1.4%)’,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1.4%)’, ‘아기, 노인 돌보기(1.2%)’, ‘신문, 우유배달(1.2%)’ 등이 있었다.



[그림 V-96]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표 V-119>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응답자의 특성		전단지 돌리기	피자집 등점원 /배달	분식점 등점원 /배달	패밀리 레스토 랑점원	편의점 점원	일반 상점 판매원	공장 노동	건설 현장 노동	게임방 점원	주유소 점원	카페 점원
전체		31.6	9.4	8.1	4.1	3.5	2.8	2.6	2.5	2.1	1.7	1.4
성별	남자	31.7	8.8	5.9	4.7	2.9	1.7	4.9	4.4	2.5	2.9	0.2
	여자	31.5	10.1	10.7	3.4	4.2	3.9		0.3	1.7	0.3	2.8
교급별	중학교	64.4	1.6	3.1	0.5	1.6		0.5	1.0	1.6		
	일반계고	27.7	9.0	6.0	5.2	3.0	3.0	4.9	4.9	0.7	2.6	1.9
	전문계고	14.4	14.8	13.1	5.2	5.2	4.3	2.0	1.3	3.6	2.0	2.0
학년별	중1	64.7	2.0			2.0				3.9		
	중2	70.0	1.7	1.7					3.3			
	중3	60.0	1.3	6.3	1.3	2.5		1.3		1.3		
	고1	34.2	9.0	7.7	5.8	1.9	1.3	1.3	2.6	1.3	3.2	1.9
	고2	18.0	12.4	12.0	5.5	5.5	5.1	1.4	2.8	0.9	1.8	2.8
	고3	13.0	14.0	9.0	4.5	4.5	4.0	7.0	3.5	4.5	2.0	1.0
거주지	서울	27.8	17.8	4.4	4.4	1.1	1.1)	2.2		1.1	2.2	2.2
	광역시	28.1	8.9	10.0	4.1	2.6	4.4	2.2	1.5	2.2	2.6	1.5
	시·군	34.7	7.9	7.7	4.0	4.7	2.0	3.0	3.7	2.2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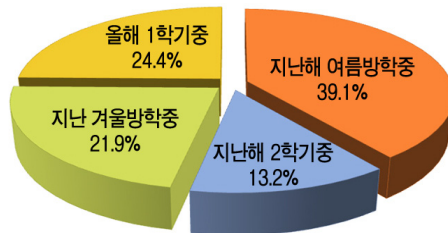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아기 노인 돌보기	신문우유 배달	비디오대 여점점원	사무업무 보조	이삿짐 운반	만화방 점원	공공기관 통한 직장체험	전체 (빈도)
전체		1.4	1.2	1.2	0.8	0.7	0.7	0.4	0.3	100(763)
성별	남자	1.7	1.0	1.0	0.7	0.2	1.2	0.2	0.2	100(407)
	여자	1.1	1.4	1.4	0.8	1.1		0.6	0.3	100(356)
교급별	중학교	2.1	1.6	2.1	2.1	1.0		0.5		100(191)
	일반계고	2.2	1.1	1.1		1.1	0.7	0.4	0.4	100(267)
	전문계고	0.3	1.0	0.7	0.7		1.0	0.3	0.3	100(305)
학년별	중1	3.9		3.9	2.0					100(51)
	중2	1.7	1.7	1.7	1.7			1.7		100(60)
	중3	1.3	2.5	1.3	2.5	2.5				100(80)
	고1	1.3	1.3	1.9	0.6	0.6	0.6		0.6	100(155)
	고2	1.8	0.9	0.9	0.5	0.5	1.8	0.5		100(217)
	고3	0.5	1.0			0.5		0.5	0.5	100(200)
거주지	서울	1.1	1.1	2.2		2.2	1.1	1.1	1.1	100(90)
	광역시	0.7	1.9	0.7	0.7		0.7			100(270)
	시·군	2.0	0.7	1.2	1.0	0.7	0.5	0.5	0.2	100(403)

주. 기타와 무응답은 표에서 제외함.

2-3-1-4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지난해 여름방학 중’ 이 39.1%, ‘올해 1학기 중’ 24.4%,
‘지난 겨울방학 중’ 21.9%, ‘지난해 2학기 중’ 13.2% 등으로 응답

○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를 ‘언제 시작 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여름방학 중(3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올해 1학기 중(24.4%)’, ‘지난 겨울방학 중(21.9%)’, ‘지난해 2학기 중(1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97]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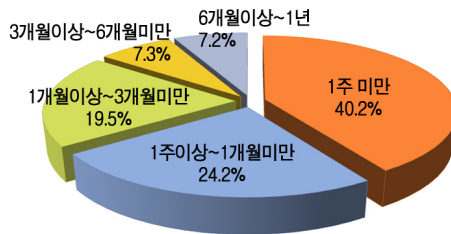
<표 V-120> 지난 1년 중 아르바이트 시작시기

응답자의 특성		지난해 여름방학중	지난해 2학기중	지난 겨울방학중	올해 1학기중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39.1	13.2	21.9	24.4	1.4	100(763)
성별	남자	42.3	13.8	21.6	20.6	1.7	100(407)
	여자	35.4	12.6	22.2	28.7	1.1	100(356)
교급별	중학교	44.5	11.0	18.3	25.1	1.0	100(191)
	일반계고	43.4	12.7	26.2	15.7	1.9	100(267)
	전문계고	31.8	15.1	20.3	31.5	1.3	100(305)
학년별	중1	29.4	5.9	29.4	31.4	3.9	100(51)
	중2	55.0	8.3	10.0	26.7		100(60)
	중3	46.3	16.3	17.5	20.0		100(80)
	고1	35.5	14.8	22.6	25.8	1.3	100(155)
	고2	30.0	13.8	25.8	29.5	0.9	100(217)
	고3	46.5	13.5	20.5	17.0	2.5	100(200)
거주지	서울	44.5	11.0	18.3	25.1	1.0	100(90)
	광역시	43.4	12.7	26.2	15.7	1.9	100(270)
	시·군	31.8	15.1	20.3	31.5	1.3	100(403)

2-3-1-5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1주 미만(40.2%)’, ‘1주 이상~ 1개월 미만(24.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9.5%)’ 등으로 응답

○ 아르바이트를 ‘얼마동안 계속했습니까?’에 대해 ‘1주 미만(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주 이상~1개월 미만(24.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19.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7.3%)’, ‘6개월 이상~1년(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98]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표 V-121>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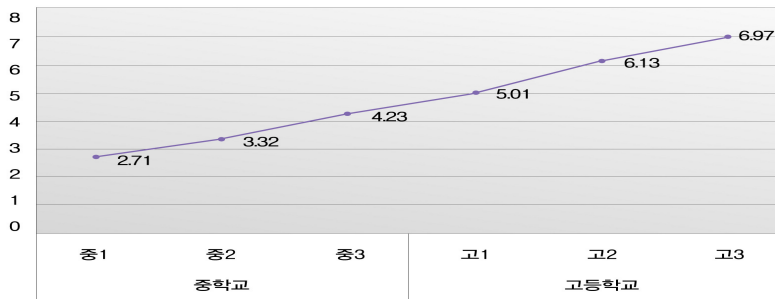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1주미만	1주이상~1개월미만	1개월이상~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40.2	24.2	19.5	7.3	7.2	1.4	100(763)
성별	남자	40.0	26.5	16.7	8.1	7.1	1.5	100(407)
	여자	40.4	21.6	22.8	6.5	7.3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60.7	16.8	11.0	6.3	3.7	1.6	100(191)
	일반계고	45.3	25.8	16.1	6.0	4.9	1.9	100(267)
	전문계고	23.0	27.5	27.9	9.2	11.5	1.0	100(305)
학년별	중1	56.9	23.5	11.8	2.0	2.0	3.9	100(51)
	중2	61.7	20.0	8.3	3.3	5.0	1.7	100(60)
	중3	62.5	10.0	12.5	11.3	3.8		100(80)
	고1	40.0	31.6	14.2	7.7	4.5	1.9	100(155)
	고2	28.1	26.3	27.6	8.3	7.8	1.8	100(217)
	고3	34.0	23.5	23.0	7.0	12.0	0.5	100(200)
거주지	서울	33.3	31.1	20.0	7.8	5.6	2.2	100(90)
	광역시	36.7	25.6	21.9	6.7	8.1	1.1	100(270)
	시·군	44.2	21.8	17.9	7.7	6.9	1.5	100(403)

2-3-1-6 하루의 아르바이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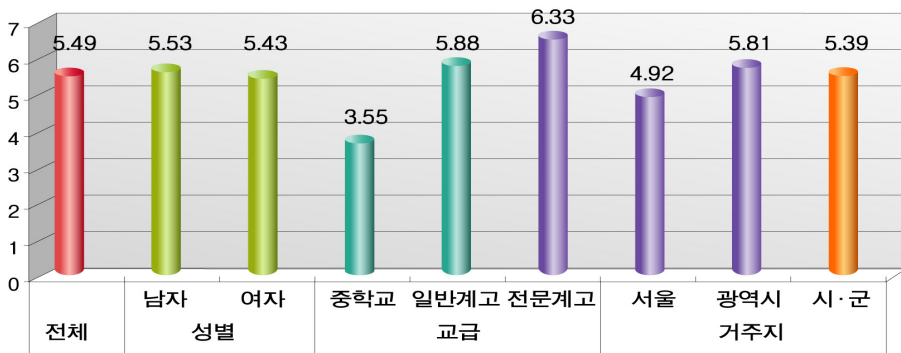
‘하루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 전체 응답자 평균은 5.49시간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증가

○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에 대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5.49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5.53시간)가 여자(5.43시간)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6.33시간)가 일반계고(5.88시간)나 중학교(3.55시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광역시(5.81시간)가 가장 높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림 V-99]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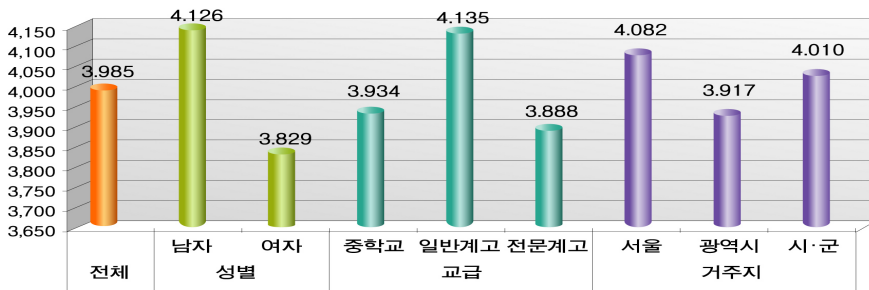


[그림 V-100]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전체,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2-3-1-7 아르바이트 시급

‘아르바이트 시급’에 대해 전체 평균은 3,985원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시급’에 대해 전체 평균은 3,985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4,126원)가 여자(3,829원)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135원)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4,082원)이 시·군(4,010원)이나 광역시(3,917원)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림 V-101] 아르바이트 시급(전체, 성별, 교급, 거주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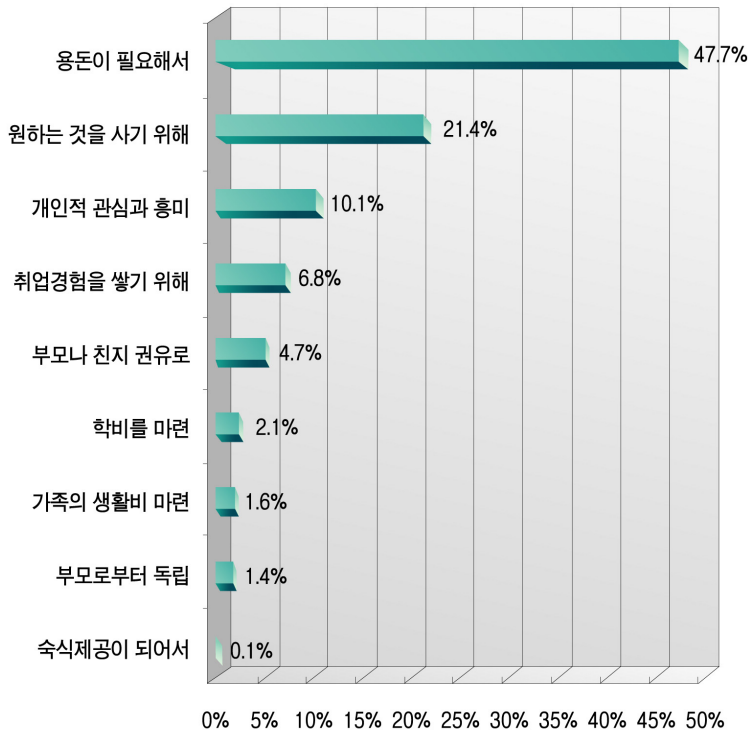
<표 V-122> 아르바이트 시급

응답자의 특성		3000원미만	3000-5000원 미만	5000-7000원 미만	7000-10000 원미만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12.5	56.0	17.3	3.3	5.5	5.5	100(763)
성별	남자	10.1	52.1	21.9	3.9	7.1	4.9	100(407)
	여자	15.2	60.4	12.1	2.5	3.7	6.2	100(356)
교급별	중학교	18.8	34.6	22.5	3.7	10.5	9.9	100(191)
	일반계고	9.7	55.8	19.9	4.5	4.9	5.2	100(267)
	전문계고	10.8	69.5	11.8	2.0	3.0	3.0	100(305)
학년별	중1	21.6	31.4	17.6	2.0	13.7	13.7	100(51)
	중2	23.3	33.3	20.0	3.3	10.0	10.0	100(60)
	중3	13.8	37.5	27.5	5.0	8.8	7.5	100(80)
	고1	12.3	58.1	18.1	1.9	5.2	4.5	100(155)
	고2	7.8	66.4	15.2	3.2	3.7	3.7	100(217)
	고3	11.5	63.5	14.0	4.0	3.0	4.0	100(200)
거주지	서울	10.0	54.4	15.6	5.6	3.3	11.1	100(90)
	광역시	11.1	60.4	14.8	2.6	5.2	5.9	100(270)
	시·군	13.9	53.3	19.4	3.2	6.2	4.0	100(403)

2-3-1-8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7%가 ‘용돈이 필요해서’ 라고 응답

○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용돈이 필요해서(47.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21.4%)’, ‘개인적 관심과 흥미(10.1%)’,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6.8%)’, ‘부모나 친지 권유로(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2] 아르바이트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표 V-12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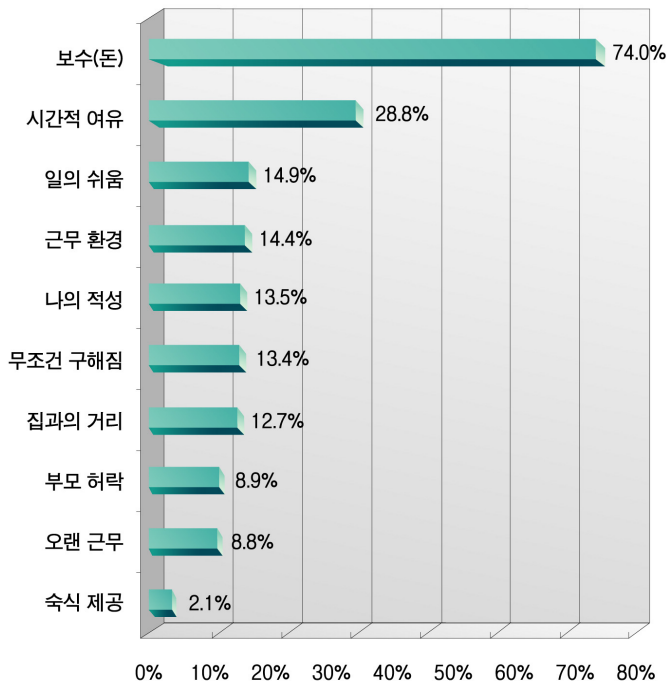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용돈이 필요해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개인적 관심과 흥미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부모나 친지 권유로	학비를 마련
전체		47.7	21.4	10.1	6.8	4.7	2.1
성별	남자	47.9	17.9	10.1	8.6	5.2	2.2
	여자	47.5	25.3	10.1	4.8	4.2	2.0
교급별	중학교	41.9	22.5	9.9	5.8	8.9	2.6
	일반계고	49.1	21.7	9.7	6.7	4.1	1.5
	전문계고	50.2	20.3	10.5	7.5	2.6	2.3
학년별	중1	43.1	9.8	13.7	5.9	15.7	2.0
	중2	41.7	26.7	11.7	3.3	3.3	3.3
	중3	41.3	27.5	6.3	7.5	8.8	2.5
	고1	45.8	18.1	10.3	10.3	5.8	3.2
	고2	51.6	24.4	10.1	4.6	2.3	1.8
	고3	50.5	19.5	10.0	7.5	2.5	1.0
거주지	서울	44.4	18.9	13.3	7.8	5.6	4.4
	광역시	49.6	18.5	10.0	5.9	6.3	1.5
	시·군	47.1	23.8	9.4	7.2	3.5	2.0

응답자의 특성		가족의 생활비 마련	부모로부터 독립	숙식제공이 되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1.6	1.4	0.1	2.9	1.2	100(763)
성별	남자	2.0	0.7	0.2	3.4	1.7	100(407)
	여자	1.1	2.2		2.2	0.6	100(356)
교급별	중학교	2.1	1.6	0.5	2.6	1.6	100(191)
	일반계고	0.7	0.7		4.5	1.1	100(267)
	전문계고	2.0	2.0		1.6	1.0	100(305)
학년별	중1	2.0		2.0	2.0	3.9	100(51)
	중2	3.3	1.7		5.0		100(60)
	중3	1.3	2.5		1.3	1.3	100(80)
	고1	1.9	0.6		3.2	0.6	100(155)
	고2	0.9	0.9		2.8	0.5	100(217)
	고3	1.5	2.5		3.0	2.0	100(200)
거주지	서울	1.1	1.1		1.1	2.2	100(90)
	광역시	1.9	1.5	0.4	3.3	1.1	100(270)
	시·군	1.5	1.5		3.0	1.0	100(403)

2-3-1-9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수/돈(74.0%)’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28.8%)’, ‘일의 쉬움(14.9%)’, ‘나의 적성(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보수/돈(7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28.8%)’, ‘일의 쉬움(14.9%)’, ‘근무 환경(14.4%)’, ‘나의 적성(13.5%)’, ‘무조건 구해짐(13.4%)’, ‘집과의 거리(12.7%)’, ‘부모허락(8.9%)’, ‘오랜 근무(8.8%)’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수 의견으로 ‘숙식 제공(2.1%)’ 등의 응답을 보였다.



[그림 V-103]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첫 번째+두 번째)

〈표 V-124〉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첫 번째+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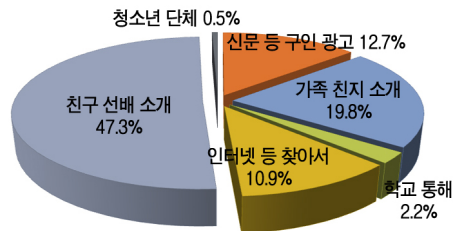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보수 (돈)	시간적 여유	일의 쉬움	근무 환경	나의 적성	무조건 구해짐
전체		74.0	28.8	14.9	14.4	13.5	13.4
성별	남자	75.2	30.7	13.0	13.3	17.2	10.1
	여자	72.8	26.7	17.1	15.7	9.3	17.1
교육별	중학교	69.1	30.9	16.2	8.4	17.8	11.0
	일반계고	73.8	30.7	15.0	14.2	13.5	18.0
	전문계고	77.4	25.9	14.1	18.4	10.8	10.8
학년별	중1	62.7	27.5	19.6	9.8	13.7	9.8
	중2	65.0	38.3	13.3	8.3	18.3	8.3
	중3	76.3	27.5	16.3	7.5	20.0	13.8
	고1	72.9	32.3	11.6	13.5	12.9	15.5
	고2	75.1	29.5	13.8	16.6	11.1	15.2
	고3	78.5	23.5	17.5	18.5	12.5	12.0
거주지	서울	64.4	28.9	11.1	20.0	12.2	10.0
	광역시	74.1	27.8	15.9	14.8	13.7	11.9
	시·군	76.2	29.5	15.1	12.9	13.6	15.1

응답자의 특성		집과의 거리	부모 허락	오랜 근무	숙식 제공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12.7	8.9	8.8	2.1	0.3	2.5	763
성별	남자	8.8	9.1	9.8	3.4		3.4	407
	여자	17.1	8.7	7.6	0.6	0.6	1.4	356
교육별	중학교	5.8	11.5	8.9	2.6	0.5	6.3	191
	일반계고	10.5	7.1	7.9	3.0		1.9	267
	전문계고	19.0	8.9	9.5	1.0	0.3	0.7	305
학년별	중1	7.8	15.7	3.9	3.9		11.8	51
	중2	3.3	10.0	13.3	3.3		6.7	60
	중3	6.3	10.0	8.8	1.3	1.3	2.5	80
	고1	10.3	12.9	9.7	0.6		1.9	155
	고2	16.1	5.1	10.6	2.8		0.9	217
	고3	17.5	7.5	6.0	2.0	0.5	1.0	200
거주지	서울	14.4	8.9	6.7	4.4	1.1	6.7	90
	광역시	15.6	9.3	7.8	1.1		2.2	270
	시·군	10.4	8.7	9.9	2.2	0.2	1.7	403

2-3-1-10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친구나 선배의 소개’가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가 19.8%, ‘신문 등 구인광고’가 12.7% 순으로 나타남

○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구나 선배의 소개’가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가 19.8%, ‘신문 등 구인광고’가 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4] 아르바이트 구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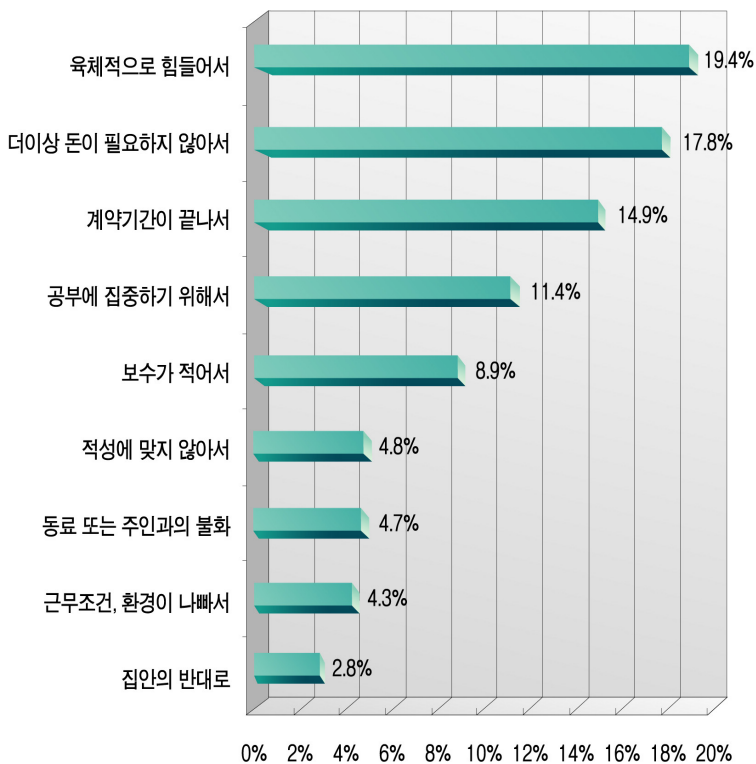
<표 V-125> 아르바이트 구한 방법

응답자의 특성		친구나 선배의 소개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	신문 등 구인 광고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학교를 통해	청소년 단체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전체		47.3	19.8	12.7	10.9	2.2	0.5	5.1	1.4	100(763)
성별	남자	50.4	20.9	6.9	11.3	2.9	0.7	4.7	2.2	100(407)
	여자	43.8	18.5	19.4	10.4	1.4	0.3	5.6	0.6	100(356)
교급별	중학교	43.5	25.1	15.7	5.8	1.0		6.8	2.1	100(191)
	일반계고	50.6	21.3	9.4	11.6	1.9		3.7	1.5	100(267)
	전문계고	46.9	15.1	13.8	13.4	3.3	1.3	5.2	1.0	100(305)
학년별	중1	43.5	25.1	15.7	5.8	1.0		6.8	2.1	100(51)
	중2	50.6	21.3	9.4	11.6	1.9		3.7	1.5	100(60)
	중3	46.9	15.1	13.8	13.4	3.3	1.3	5.2	1.0	100(80)
	고1	43.5	25.1	15.7	5.8	1.0		6.8	2.1	100(155)
	고2	50.6	21.3	9.4	11.6	1.9		3.7	1.5	100(217)
	고3	46.9	15.1	13.8	13.4	3.3	1.3	5.2	1.0	100(200)
거주지	서울	44.4	17.8	6.7	16.7	5.6		5.6	3.3	100(90)
	광역시	44.8	20.4	10.0	14.8	2.2	0.7	5.2	1.9	100(270)
	시·군	49.6	19.9	15.9	6.9	1.5	0.5	5.0	0.7	100(403)

2-3-1-11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4%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고 응답

○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1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17.8%)’, ‘계약기간이 끝나서(14.9%)’,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11.4%)’, ‘보수가 적어서(8.9%)’, ‘적성에 맞지 않아서(4.8%)’,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4.7%)’,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5]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표 V-126>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응답자의 특성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부에집중하기 위해서	보수가 적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체		19.4	17.8	14.9	11.4	8.9	4.8
성별	남자	15.5	19.9	15.2	12.0	8.1	6.6
	여자	23.9	15.4	14.6	10.7	9.8	2.8
교육별	중학교	12.6	29.3	16.2	7.3	8.4	5.2
	일반계고	13.1	21.0	16.9	18.7	7.9	2.6
	전문계고	29.2	7.9	12.5	7.5	10.2	6.6
학년별	중1	9.8	25.5	15.7	13.7	7.8	7.8
	중2	13.3	35.0	16.7	1.7	6.7	5.0
	중3	13.8	27.5	16.3	7.5	10.0	3.8
	고1	17.4	13.5	18.7	14.8	8.4	7.7
	고2	24.9	12.9	13.4	10.1	9.7	3.2
	고3	21.5	15.5	12.5	14.0	9.0	4.0
거주지	서울	18.9	18.9	13.3	12.2	10.0	3.3
	광역시	22.6	17.8	11.9	8.1	10.0	5.9
	시·군	17.4	17.6	17.4	13.4	7.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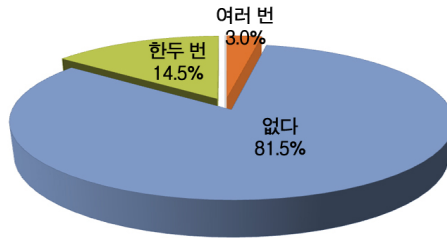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집안의 반대로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4.7	4.3	2.8	6.7	4.2	100(763)
성별	남자	3.7	5.7	2.9	6.4	3.9	100(407)
	여자	5.9	2.8	2.5	7.0	4.5	100(356)
교육별	중학교	2.1	4.2	1.0	6.8	6.8	100(191)
	일반계고	3.4	4.1	3.4	7.1	1.9	100(267)
	전문계고	7.5	4.6	3.3	6.2	4.6	100(305)
학년별	중1		3.9		3.9	11.8	100(51)
	중2	5.0	1.7	3.3	8.3	3.3	100(60)
	중3	1.3	6.3		7.5	6.3	100(80)
	고1	2.6	3.9	3.2	5.8	3.9	100(155)
	고2	9.2	4.1	2.3	7.4	2.8	100(217)
	고3	4.0	5.0	4.5	6.5	3.5	100(200)
거주지	서울	1.1	4.4	5.6	8.9	3.3	100(90)
	광역시	4.8	3.7	3.3	5.6	6.3	100(270)
	시·군	5.5	4.7	1.7	6.9	3.0	100(403)

2-3-1-12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5%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

○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에 대해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84.0%)가 남자(79.4%)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V-106]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표 V-127>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1.5	14.5	3.0	0.9	100(763)	
성별	남자	79.4	15.0	4.7	1.0	100(407)	8.571*
	여자	84.0	14.0	1.1	0.8	100(356)	
교육별	중학교	83.8	10.5	3.7	2.1	100(191)	10.660
	일반계고	83.1	13.1	3.0	0.7	100(267)	
	전문계고	78.7	18.4	2.6	0.3	100(305)	
학년별	중1	86.3	7.8	2.0	3.9	100(51)	25.967*
	중2	76.7	11.7	8.3	3.3	100(60)	
	중3	87.5	11.3	1.3		100(80)	
	고1	81.9	14.2	3.9		100(155)	
	고2	80.2	17.1	2.8		100(217)	
	고3	80.5	16.0	2.0	1.5	100(200)	
	서울	80.0	15.6	1.1	3.3	100(90)	8.227
거주지	광역시	81.1	14.4	3.7	0.7	100(270)	
	시·군	82.1	14.4	3.0	0.5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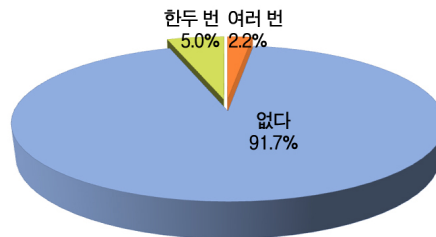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13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7%가 없다고 응답

○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에 대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에서 여자(94.7%)가 남자(89.2%)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V-107]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표 V-128>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1.7	5.0	2.2	1.0	100(763)	
성별	남자	89.2	6.4	3.2	1.2	100(407)	8.015*
	여자	94.7	3.4	1.1	0.8	100(356)	
교급별	중학교	92.7	3.1	2.1	2.1	100(191)	7.971
	일반계고	92.9	4.5	1.5	1.1	100(267)	
	전문계고	90.2	6.6	3.0	0.3	100(305)	
학년별	중1	88.2	5.9	2.0	3.9	100(51)	21.995
	중2	90.0	3.3	3.3	3.3	100(60)	
	중3	97.5	1.3	1.3		100(80)	
	고1	91.0	7.1	1.9		100(155)	
	고2	90.3	6.5	3.2		100(217)	
	고3	93.0	3.5	1.5	2.0	100(200)	
거주지	서울	85.6	7.8	3.3	3.3	100(90)	7.755
	광역시	92.2	4.8	2.2	0.7	100(270)	
	시·군	92.8	4.5	2.0	0.7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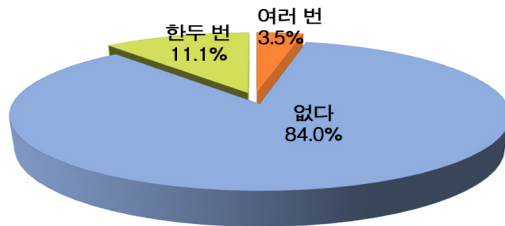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14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0%가 없다고 응답

○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에 대해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학년별 차이를 보면, 없다는 응답에서는 고2(80.6%)와, 고3(82.0%)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학년에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V-108]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표 V-129>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4.0	11.1	3.5	1.3	100(763)	
성별	남자	81.3	12.3	4.7	1.7	100(407)	6.035
	여자	87.1	9.8	2.2	0.8	100(356)	
교급별	중학교	87.4	7.3	2.6	2.6	100(191)	9.716
	일반계고	84.6	10.5	3.7	1.1	100(267)	
	전문계고	81.3	14.1	3.9	0.7	100(305)	
학년별	중1	86.3	3.9	3.9	5.9	100(51)	25.991*
	중2	86.7	6.7	3.3	3.3	100(60)	
	중3	88.8	10.0	1.3		100(80)	
	고1	87.1	9.0	3.2	0.6	100(155)	
	고2	80.6	15.7	3.7		100(217)	
	고3	82.0	11.5	4.5	2.0	100(200)	
거주지	서울	81.1	12.2	3.3	3.3	100(90)	3.594
	광역시	84.1	11.5	3.3	1.1	100(270)	
	시·군	84.6	10.7	3.7	1.0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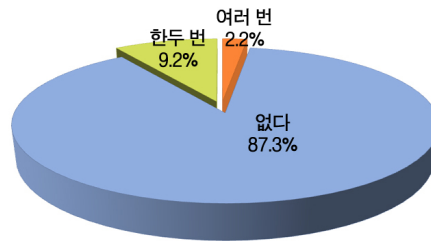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15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응답

○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91.0%)가 남자(84.0%)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89.5%)가 전문계고(86.2%)나 중학교(85.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09]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표 V-130>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7.3	9.2	2.2	1.3	100(763)	
성별	남자	84.0	11.1	3.4	1.5	100(407)	10.356*
	여자	91.0	7.0	0.8	1.1	100(356)	
교급별	중학교	85.9	8.9	2.6	2.6	100(191)	13.478*
	일반계고	89.5	6.0	3.4	1.1	100(267)	
	전문계고	86.2	12.1	1.0	0.7	100(305)	
학년별	중1	84.3	7.8	2.0	5.9	100(51)	20.082
	중2	83.3	10.0	3.3	3.3	100(60)	
	중3	88.8	8.8	2.5		100(80)	
	고1	88.4	8.4	1.9	1.3	100(155)	
	고2	84.8	12.4	2.8		100(217)	
	고3	90.5	6.5	1.5	1.5	100(200)	
거주지	서울	82.2	10.0	5.6	2.2	100(90)	6.706
	광역시	87.0	9.6	2.2	1.1	100(270)	
	시·군	88.6	8.7	1.5	1.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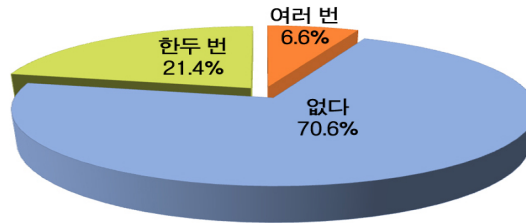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1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6%가 없다고 응답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81.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70.8%), 전문계고(63.9%)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중1을 제외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 두 번 다친 적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V-11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표 V-13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0.6	21.4	6.6	1.4	100(763)	
성별	남자	69.0	21.1	8.1	1.7	100(407)	4.026
	여자	72.5	21.6	4.8	1.1	100(356)	
교급별	중학교	81.2	12.6	3.7	2.6	100(191)	23.603**
	일반계고	70.8	21.3	6.4	1.5	100(267)	
	전문계고	63.9	26.9	8.5	0.7	100(305)	
학년별	중1	76.5	17.6		5.9	100(51)	35.685**
	중2	83.3	10.0	3.3	3.3	100(60)	
	중3	82.5	11.3	6.3		100(80)	
	고1	69.0	24.5	5.2	1.3	100(155)	
	고2	66.4	24.0	9.7		100(217)	
	고3	66.5	24.5	7.0	2.0	100(200)	
거주지	서울	65.6	21.1	10.0	3.3	100(90)	6.984
	광역시	72.2	19.3	7.4	1.1	100(270)	
	시·군	70.7	22.8	5.2	1.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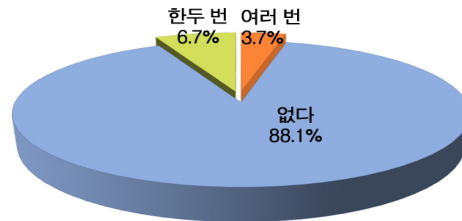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17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8.1%가 없다고 응답

○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91.3%)가 남자(85.3%)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92.1%)가 일반계고(89.5%)나 전문계고(84.3%) 보다 없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V-111]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표 V-132>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8.1	6.7	3.7	1.6	100(763)	
성별	남자	85.3	7.1	5.9	1.7	100(407)	12.949**
	여자	91.3	6.2	1.1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92.1	3.1	2.1	2.6	100(191)	16.628*
	일반계고	89.5	5.2	3.4	1.9	100(267)	
	전문계고	84.3	10.2	4.9	0.7	100(305)	
학년별	중1	88.2	5.9		5.9	100(51)	30.090*
	중2	90.0	5.0	1.7	3.3	100(60)	
	중3	96.3		3.8		100(80)	
	고1	91.0	4.5	3.2	1.3	100(155)	
	고2	82.9	11.5	5.1	0.5	100(217)	
	고3	87.5	6.5	4.0	2.0	100(200)	
거주지	서울	82.2	11.1	3.3	3.3	100(90)	6.322
	광역시	89.6	5.2	4.1	1.1	100(270)	
	시·군	88.3	6.7	3.5	1.5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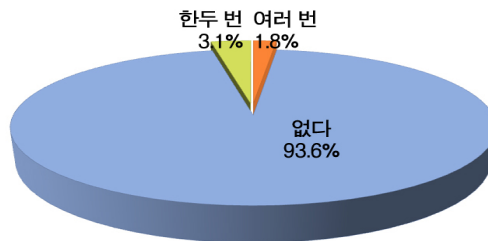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18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6%가 없다고 응답

○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에서는 여자(97.5%)가 남자(90.2%)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112]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표 V-133>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3.6	3.1	1.8	1.4	100(763)	
성별	남자	90.2	4.9	3.2	1.7	100(407)	19.007***
	여자	97.5	1.1	0.3	1.1	100(356)	
교급별	중학교	92.1	2.6	2.6	2.6	100(191)	5.079
	일반계고	94.4	2.6	1.5	1.5	100(267)	
	전문계고	93.8	3.9	1.6	0.7	100(305)	
학년별	중1	88.2	3.9	2.0	5.9	100(51)	19.806
	중2	90.0	3.3	3.3	3.3	100(60)	
	중3	96.3	1.3	2.5		100(80)	
	고1	93.5	2.6	2.6	1.3	100(155)	
	고2	93.5	4.6	1.8		100(217)	
	고3	95.0	2.5	0.5	2.0	100(200)	
거주지	서울	87.8	6.7	2.2	3.3	100(90)	7.511
	광역시	94.1	2.6	2.2	1.1	100(270)	
	시·군	94.5	2.7	1.5	1.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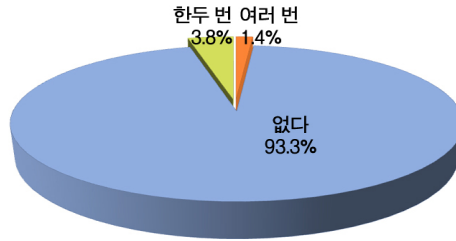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1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3%가 없다고 응답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로 여자(97.2%)가 남자(89.9%)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113]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표 V-13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93.3	3.8	1.4	1.4	100(763)	
성별	남자	89.9	6.4	2.0	1.7	100(407)	18.568***
	여자	97.2	0.8	0.8	1.1	100(356)	
교급별	중학교	90.6	4.7	2.1	2.6	100(191)	6.805
	일반계고	93.3	4.5	0.7	1.5	100(267)	
	전문계고	95.1	2.6	1.6	0.7	100(305)	
학년별	중1	88.2	5.9		5.9	100(51)	22.722
	중2	86.7	6.7	3.3	3.3	100(60)	
	중3	95.0	2.5	2.5		100(80)	
	고1	94.2	2.6	1.9	1.3	100(155)	
	고2	93.5	5.1	1.4		100(217)	
	고3	95.0	2.5	0.5	2.0	100(200)	
거주지	서울	88.9	6.7	1.1	3.3	100(90)	7.202
	광역시	94.8	2.2	1.9	1.1	100(270)	
	시·군	93.3	4.2	1.2	1.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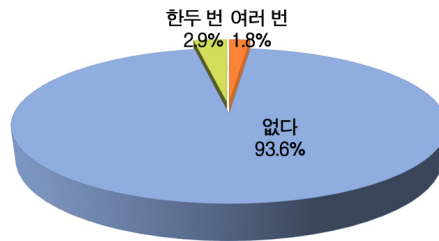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20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6%가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여자(96.6%)가 남자(90.9%)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 차이는 없었다.



[그림 V-114]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표 V-135>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무응답	전체 (빈도)	χ^2
전체		93.6	2.9	1.8	1.7	100(763)	
성별	남자	90.9	3.7	3.4	2.0	100(407)	15.207**
	여자	96.6	2.0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92.1	3.1	2.1	2.6	100(191)	2.685
	일반계고	94.0	2.2	1.9	1.9	100(267)	
	전문계고	94.1	3.3	1.6	1.0	100(305)	
학년별	중1	86.3	7.8		5.9	100(51)	19.560
	중2	90.0	1.7	5.0	3.3	100(60)	
	중3	97.5	1.3	1.3		100(80)	
	고1	94.8	2.6	1.3	1.3	100(155)	
	고2	94.0	2.8	2.3	0.9	100(217)	
	고3	93.5	3.0	1.5	2.0	100(200)	
거주지	서울	90.0	4.4	2.2	3.3	100(90)	4.315
	광역시	94.8	3.0	1.1	1.1	100(270)	
	사·군	93.5	2.5	2.2	1.7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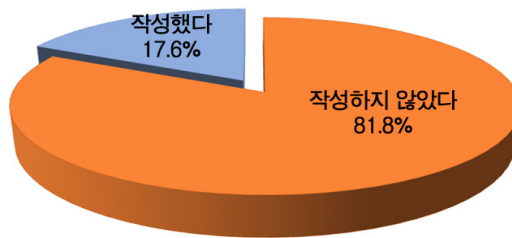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21 회사나 고용주(사장)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에 대해 81.8%가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

○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91.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80.1%) 전문계고(77.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대체적으로 학년이 내려갈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그림 V-115]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표 V-136>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응답자의 특성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81.8	17.6	0.7	100(763)	
성별	남자	80.3	19.2	0.5	100(407)	1.854
	여자	83.4	15.7	0.8	100(356)	
교급별	중학교	91.1	7.3	1.6	100(191)	21.934***
	일반계고	80.1	19.5	0.4	100(267)	
	전문계고	77.4	22.3	0.3	100(305)	
학년별	중1	92.2	5.9	2.0	100(51)	31.526***
	중2	86.7	10.0	3.3	100(60)	
	중3	93.8	6.3		100(80)	
	고1	82.6	16.8	0.6	100(155)	
	고2	78.8	21.2		100(217)	
	고3	75.5	24.0	0.5	100(200)	
거주지	서울	73.3	24.4	2.2	100(90)	8.070
	광역시	82.6	16.7	0.7	100(270)	
	시·군	83.1	16.6	0.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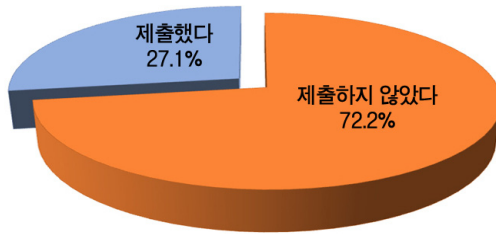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22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했나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2%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

○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했나요?’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82.2%)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75.3%), 전문계고(6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증가했다.



[그림 V-116]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표 V-137>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제출하지않았다	제출했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72.2	27.1	0.7	100(763)	
성별	남자	72.2	27.3	0.5	100(407)	0.364
	여자	72.2	27.0	0.8	100(356)	
교급별	중학교	82.2	16.2	1.6	100(191)	28.394***
	일반계고	75.3	24.3	0.4	100(267)	
	전문계고	63.3	36.4	0.3	100(305)	
학년별	중1	86.3	11.8	2.0	100(51)	26.678**
	중2	75.0	21.7	3.3	100(60)	
	중3	85.0	15.0		100(80)	
	고1	70.3	29.0	0.6	100(155)	
	고2	69.1	30.9		100(217)	
	고3	67.5	32.0	0.5	100(200)	
거주지	서울	65.6	32.2	2.2	100(90)	6.130
	광역시	72.2	27.0	0.7	100(270)	
	시군	73.7	26.1	0.2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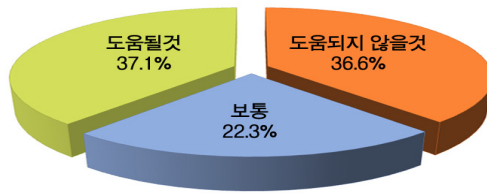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23 아르바이트 경험(지난 1년간)이 미래 직업생활을 위해 도움된 정도

‘미래의 직업생활을 위한 아르바이트의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1%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

○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생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정도’에 대해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 전문계고의 긍정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39.7%) 중학교(2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17] 지난 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표 V-138> 지난 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혀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별로도움 이되지않 을것이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될것이다	아주 도움이 될것이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2.8	13.8	22.3	29.1	8.0	4.1	100(763)	
성별	남자	25.6	12.5	22.9	25.3	8.8	4.9	100(407)	10.623
	여자	19.7	15.2	21.6	33.4	7.0	3.1	100(356)	
교급별	중학교	28.8	17.3	24.6	17.8	5.8	5.8	100(191)	29.134**
	일반계고	25.8	10.9	20.6	31.5	8.2	3.0	100(267)	
	전문계고	16.4	14.1	22.3	34.1	9.2	3.9	100(305)	
학년별	중1	35.3	13.7	19.6	21.6	3.9	5.9	100(51)	36.075
	중2	26.7	21.7	20.0	18.3	6.7	6.7	100(60)	
	중3	26.3	16.3	31.3	15.0	6.3	5.0	100(80)	
	고1	20.6	12.9	23.2	28.4	9.7	5.2	100(155)	
	고2	19.8	12.9	24.4	32.7	6.9	3.2	100(217)	
	고3	22.0	12.0	17.0	36.5	10.0	2.5	100(200)	
거주지	서울	24.4	11.1	16.7	28.9	12.2	6.7	100(90)	13.048
	광역시	23.0	16.7	18.9	29.3	7.4	4.8	100(270)	
	시·군	22.3	12.4	25.8	29.0	7.4	3.0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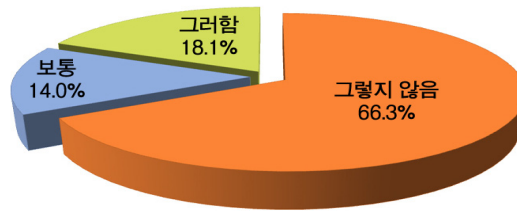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24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1%가 그렇다고 응답

○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전문계고(32.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10.5%), 중학교(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긍정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18]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표 V-139>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7.7	18.6	14.0	11.4	6.7	1.6	100(763)	
성별	남자	48.6	19.2	15.5	9.3	5.7	1.7	100(407)	6.401
	여자	46.6	18.0	12.4	13.8	7.9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68.6	12.0	11.5	2.1	3.7	2.1	100(191)	108.798***
	일반계고	52.1	22.8	13.1	8.2	2.2	1.5	100(267)	
	전문계고	30.8	19.0	16.4	20.0	12.5	1.3	100(305)	
학년별	중1	70.6	15.7	7.8			5.9	100(51)	96.820***
	중2	66.7	11.7	10.0	3.3	6.7	1.7	100(60)	
	중3	68.8	10.0	15.0	2.5	3.8		100(80)	
	고1	52.9	20.0	14.2	9.7	1.9	1.3	100(155)	
	고2	33.2	19.4	15.2	18.4	12.9	0.9	100(217)	
	고3	39.5	23.0	15.0	14.0	6.5	2.0	100(200)	
거주지	서울	47.8	20.0	16.7	8.9	4.4	2.2	100(90)	12.983
	광역시	45.2	15.6	14.4	12.6	10.0	2.2	100(270)	
	시·군	49.4	20.3	13.2	11.2	5.0	1.0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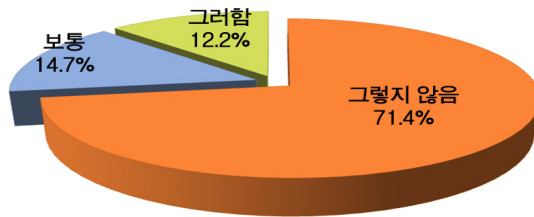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25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2.2%가 그렇다고 응답

○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15.7%)가 남자(9.1%)보다, 교급별로는 전문계고(20.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7.5%), 중학교(6.3%) 순으로 나타났고, 학
년별에서는 중2(3.9%)와 고2(20.3%)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V-119]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표 V-140>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0.2	21.2	14.7	8.8	3.4	1.7	100(763)	
성별	남자	51.1	21.9	16.0	5.4	3.7	2.0	100(407)	13.170*
	여자	49.2	20.5	13.2	12.6	3.1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63.4	13.6	14.7	3.1	3.1	2.1	100(191)	64.607***
	일반계고	57.7	22.8	10.5	5.2	2.2	1.5	100(267)	
	전문계고	35.4	24.6	18.4	15.4	4.6	1.6	100(305)	
학년별	중1	64.7	15.7	9.8	3.9		5.9	100(51)	61.204***
	중2	58.3	16.7	15.0	3.3	5.0	1.7	100(60)	
	중3	66.3	10.0	17.5	2.5	3.8		100(80)	
	고1	56.1	21.3	12.9	7.7	0.6	1.3	100(155)	
	고2	37.3	23.0	18.0	13.8	6.5	1.4	100(217)	
	고3	47.0	26.5	12.5	9.5	2.5	2.0	100(200)	
거주지	서울	48.9	23.3	16.7	5.6	2.2	3.3	100(90)	12.281
	광역시	50.0	19.6	11.9	11.5	4.8	2.2	100(270)	
	시·군	50.6	21.8	16.1	7.7	2.7	1.0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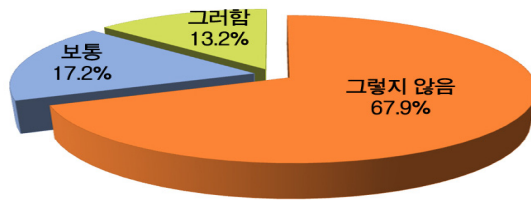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26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3.2%가 그렇다고 응답

○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에서는 전문계고(17.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계고(12.4%), 중학교(7.3%) 순이었다. 학년별에서는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1(3.95%)과 고3(18.5%)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림 V-120]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표 V-141>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9.3	18.6	17.2	8.7	4.6	1.7	100(763)	
성별	남자	50.4	17.0	17.4	8.6	4.7	2.0	100(407)	1.902
	여자	48.0	20.5	16.9	8.7	4.5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65.4	11.5	13.6	3.7	3.7	2.1	100(191)	63.344***
	일반계고	54.7	21.0	10.5	8.6	3.7	1.5	100(267)	
	전문계고	34.4	21.0	25.2	11.8	5.9	1.6	100(305)	
학년별	중1	68.6	7.8	13.7	2.0	2.0	5.9	100(51)	71.429***
	중2	63.3	16.7	8.3	5.0	5.0	1.7	100(60)	
	중3	65.0	10.0	17.5	3.8	3.8		100(80)	
	고1	56.1	20.0	15.5	6.5	0.6	1.3	100(155)	
	고2	35.0	24.9	20.7	9.7	8.3	1.4	100(217)	
	고3	44.0	17.5	18.0	14.0	4.5	2.0	100(200)	
거주지	서울	45.6	18.9	18.9	10.0	3.3	3.3	100(90)	12.365
	광역시	50.4	14.4	16.3	10.7	5.9	2.2	100(270)	
	사군	49.4	21.3	17.4	6.9	4.0	1.0	1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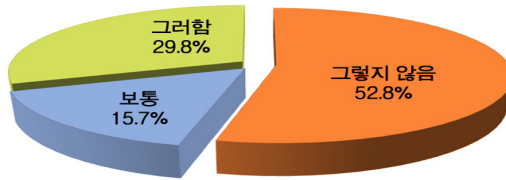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3-1-27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8%가 그렇다고 응답

○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에서는 여자(37.6%)가 남자(22.9%)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전문계고(43.3%)가 일반계고(25.8%)나, 중학교(13.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V-121]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표 V-142>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7.1	15.7	15.7	19.3	10.5	1.7	100(763)	
성별	남자	40.8	17.9	16.5	14.3	8.6	2.0	100(407)	20.915**
	여자	32.9	13.2	14.9	25.0	12.6	1.4	100(356)	
교급별	중학교	56.0	12.0	16.2	8.9	4.7	2.1	100(191)	73.397***
	일반계고	38.6	18.7	15.4	17.2	8.6	1.5	100(267)	
	전문계고	23.9	15.4	15.7	27.5	15.7	1.6	100(305)	
학년별	중1	58.8	7.8	19.6	5.9	2.0	5.9	100(51)	94.491***
	중2	56.7	15.0	11.7	10.0	5.0	1.7	100(60)	
	중3	53.8	12.5	17.5	10.0	6.3		100(80)	
	고1	40.0	23.2	13.5	16.1	5.8	1.3	100(155)	
	고2	22.6	12.9	18.4	26.3	18.4	1.4	100(217)	
	고3	32.5	16.5	14.0	24.0	11.0	2.0	100(200)	
거주지	서울	35.6	20.0	14.4	18.9	7.8	3.3	100(90)	15.554
	광역시	35.6	12.6	14.1	20.7	14.8	2.2	100(270)	
	사.군	38.5	16.9	17.1	18.4	8.2	1.0	100(403)	

* $p < .05$, ** $p < .01$, *** $p < .001$

■ 2-3 진로·직업 체험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지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 특히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몇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0명 중 1명 정도의 비율(11.7%)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전문계 고교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은 더 높게 나타난다. 학교급에 따른 참여비율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거나 음식점 점원 및 배달 등의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직종에 참여한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53.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37.1%만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 응답자의 3명 중 2명(64.2%)은 특정 일자리에서 한 달의 근속기간을 넘기지 못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귀결된다. 용돈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학비 또는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율은 72.8%에 달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금체불 및 미지급(17.5%),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4.6%), 근무 중 상해(28.0%)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부모동의서 제출 등의 제도적인 여건도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여전히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돈벌이 수단에 머물러 있다.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고 친구, 선배, 가족 등의 주변인의 소개방법을 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의 유형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둠으로써 직업생활의 예비체험을 체계적으로 갖지 못한다. 직업·진로 체험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나 의미를 갖는다. Watts(1991)는 직업체험 활동의 의미를 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②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몰입하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선호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련의 일이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을 제도적·문화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인 의미와 학습의 의미를 병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개선 노력에는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제도개선이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최근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이나 초과수당 미지급, 근무 중 상해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 비록 보고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이 굳건하게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경험비율은 10% 내외의 조사결과보다는 높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확보 및 안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강화, 부적절한 채용관행의 개선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습과 기초역량 개발, 그리고 일자리 경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참여와 경제적인 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보고(시사인, 109호 참조)는,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전문계 고교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현실과 관련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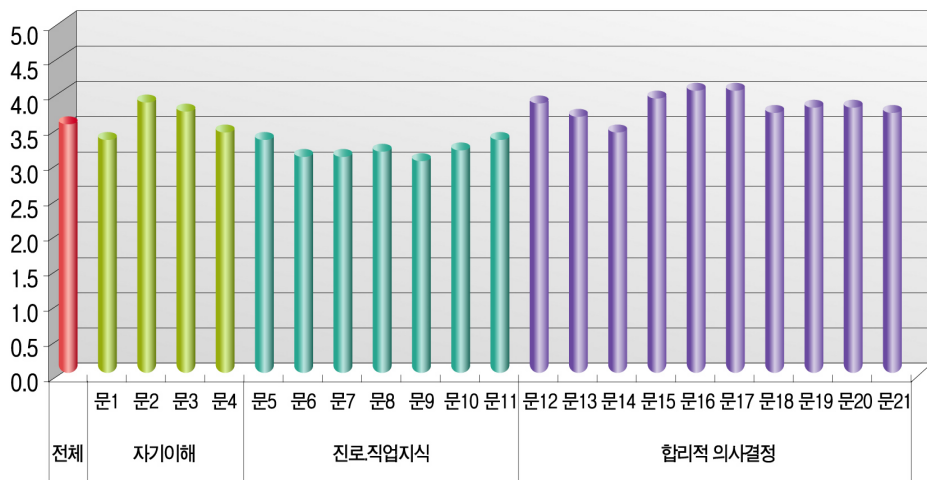
3. 진로·직업 역량

3-1~3-3 진로·직업 역량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별 평균과 각 지표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다음 [그림 V-122]와 <표 V-14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요인별 평균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M=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직업 지식($M=3.21$)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또한 세부 항목별 비교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M=3.98$)’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M=3.97$)’, 자기이해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M=3.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M=3.05$)’,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M=3.0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M=3.07$)’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 V-122] 진로·직업 역량의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표 V-143〉 진로·직업 역량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자기 이해	1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37	1.046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82	0.917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66	0.920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41	1.045
소계			3.61	0.910
진로· 직업 지식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3.24	0.994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07	1.001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3.07	1.015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2	1.012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3.05	1.047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내용, 수입, 근무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19	1.019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34	1.076
소계			3.21	0.935
합리적 의사 결정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74	0.967
	13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3.60	0.958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44	1.009
	15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81	0.872
	16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3.98	0.889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3.97	0.880
	1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할 것이다	3.70	0.874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3.79	0.910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3.79	0.867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3.70	0.965
소계			3.80	0.800
진로·직업 역량(전체)			3.56	0.745

■ 진로·직업 역량-응답자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 분석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직업 역량의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급별에서는 일반계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광역시나 사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V-1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44>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직업역량(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3,487)	3.62 (0.953)	1.320**	3.23 (0.983)	2.107**	3.73 (0.861)	-7.677***	3.54 (0.806)	-2.714***
	여자 (n=3,022)	3.59 (0.857)		3.18 (0.875)		3.88 (0.713)		3.59 (0.666)	
교급별	중학교 (n=3,010)	3.59 (0.949)	21.744*** (ab, ac, bc)	3.23 (0.975)	4.701** (ac, bc)	3.76 (0.843)	40.494*** (ab, ac, bc)	3.55 (0.797)	24.035*** (ab, ac, bc)
	일반계고 (n=2,364)	3.69 (0.848)		3.21 (0.880)		3.91 (0.714)		3.63 (0.657)	
	전문계고 (n=1,135)	3.48 (0.912)		3.13 (0.934)		3.67 (0.821)		3.45 (0.758)	
학년별	중1 (n=968)	3.60 (0.965)	5.761*** (ef, ei)	3.24 (1.014)	4.145** (fh)	3.74 (0.883)	3.156** (dh)	3.55 (0.836)	2.239
	중2 (n=1,024)	3.50 (0.945)		3.16 (0.975)		3.75 (0.844)		3.51 (0.787)	
	중3 (n=1,018)	3.67 (0.930)		3.28 (0.934)		3.80 (0.803)		3.60 (0.767)	
	고1 (n=1,236)	3.62 (0.867)		3.23 (0.869)		3.82 (0.736)		3.58 (0.682)	
	고2 (n=1,217)	3.58 (0.917)		3.12 (0.961)		3.85 (0.831)		3.56 (0.764)	
	고3 (n=1,046)	3.68 (0.829)		3.22 (0.852)		3.81 (0.694)		3.59 (0.628)	
	서울 (n=1,015)	3.73 (0.934)		3.33 (1.003)		3.83 (0.844)		3.65 (0.811)	
거주지	광역시 (n=2,274)	3.59 (0.936)	11.937*** (jk, jl)	3.20 (0.959)	11.597*** (jk, jl)	3.78 (0.827)	1.223	3.55 (0.780)	7.395** (jk, jl)
	사군 (n=3,220)	3.58 (0.880)		3.17 (0.891)		3.80 (0.765)		3.55 (0.695)	
	전체 M(SD)	3.61(0.910)		3.21(0.935)		3.80(0.800)		3.56(0.745)	

* $p<0.05$, ** $p<0.01$, *** $p<0.001$

주: a=중학교, b=일반계고, c=전문계고, d=중1, e=중2, f=중3, g=고1, h=고2, i=고3, j=서울, k=광역시, l=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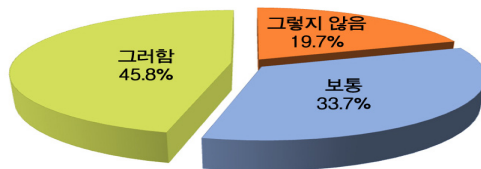
3-1 자기이해- 지표 항목별 응답결과

3-1-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8%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8.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46.6%), 전문계고(38.1%) 순이었다. 그리고 거주지별에서는 서울(51.7%)지역이 시·군(45.0%)지역이나, 광역시(44.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23]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표 V-145>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1	15.6	33.7	31.0	14.8	0.8	100(6,509)	
성별	남자	4.1	14.9	34.3	29.7	16.1	1.0	100(3,487)	15.720**
	여자	4.0	16.5	33.0	32.6	13.4	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8	12.9	34.8	30.9	15.7	1.0	100(3,010)	72.846***
	일반계고	3.0	17.5	30.4	33.5	15.1	0.5	100(2,364)	
	전문계고	4.5	18.9	37.8	26.2	12.0	0.7	100(1,135)	
학년별	중1	4.3	11.9	36.8	30.3	15.7	1.0	100(968)	74.247***
	중2	6.1	13.0	36.2	29.7	14.1	1.0	100(1,024)	
	중3	3.8	13.8	31.4	32.7	17.4	0.9	100(1,018)	
	고1	3.1	17.0	33.1	32.7	13.6	0.6	100(1,236)	
	고2	3.9	20.2	33.9	28.2	12.8	0.9	100(1,217)	
	고3	3.5	16.4	31.1	32.6	16.1	0.3	100(1,046)	
거주지	서울	3.0	12.2	32.0	33.9	17.8	1.1	100(1,015)	26.372**
	광역시	4.0	16.8	34.0	30.4	13.9	0.9	100(2,274)	
	시·군	4.5	15.9	34.0	30.5	14.5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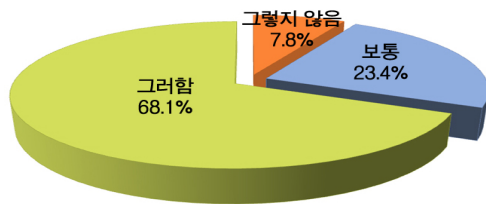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1-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1%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70.4%)가 남자(66.1%)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72.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67.1%), 전문계고(62.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71.7%)지역이 시·군(67.5%)지역이나, 광역시(6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24]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표 V-146>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8	6.0	23.4	45.1	23.0	0.8	100(6,509)	
성별	남자	2.1	6.0	24.9	42.4	23.7	1.0	100(3,487)	24.302***
	여자	1.6	6.0	21.6	48.3	22.1	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2	5.0	24.7	44.1	23.0	0.9	100(3,010)	55.341***
	일반계고	1.1	6.2	20.1	47.4	24.7	0.5	100(2,364)	
	전문계고	2.2	8.1	26.6	43.1	19.3	0.7	100(1,135)	
학년별	중1	1.7	4.3	26.1	41.9	24.9	1.0	100(968)	52.079***
	중2	3.2	5.6	25.0	45.4	19.9	0.9	100(1,024)	
	중3	1.8	5.2	23.1	44.8	24.3	0.9	100(1,018)	
	고1	1.5	6.2	22.3	45.7	23.7	0.6	100(1,236)	
	고2	1.2	7.9	23.0	46.8	20.2	0.9	100(1,217)	
	고3	1.9	6.2	21.0	45.3	25.2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1	4.9	21.2	45.4	26.3	1.1	100(1,015)	19.065*
	광역시	2.3	5.8	23.6	45.7	21.6	0.9	100(2,274)	
	시·군	1.7	6.4	23.9	44.6	22.9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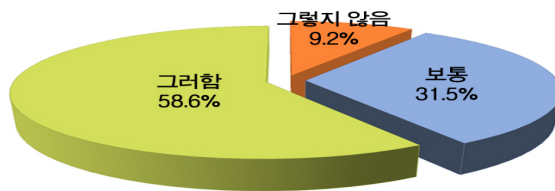
* $p<.05$, ** $p<.01$, *** $p<.00$

3-1-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6%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9.8%)가 남자(57.5%)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 계고(69.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 계고(52.7%), 중학교(5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그림 V-125]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표 V-147>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8	7.3	31.5	40.5	18.0	0.8	100(6,509)	
성별	남자	1.9	7.2	32.4	38.4	19.1	1.0	100(3,487)	15.430**
	여자	1.8	7.5	30.4	43.0	16.8	0.5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5	8.1	36.2	35.5	16.7	1.0	100(3,010)	189.146***
	일반계고	1.1	5.6	23.3	48.0	21.5	0.5	100(2,364)	
	전문계고	1.7	8.7	36.1	38.3	14.4	0.8	100(1,135)	
학년별	중1	2.7	8.4	38.6	32.4	16.7	1.1	100(968)	182.367***
	중2	3.5	10.0	36.8	35.7	13.1	0.9	100(1,024)	
	중3	1.3	6.1	33.2	38.3	20.2	0.9	100(1,018)	
	고1	0.8	7.6	30.8	42.5	17.7	0.6	100(1,236)	
	고2	1.5	7.3	27.4	45.5	17.3	1.0	100(1,217)	
	고3	1.5	4.7	23.4	46.8	23.2	0.3	100(1,046)	
거주지	서울	1.3	6.8	30.0	39.8	20.9	1.2	100(1,015)	9.805
	광역시	1.8	7.5	31.8	40.9	17.1	1.0	100(2,274)	
	사·군	2.0	7.4	31.7	40.5	17.8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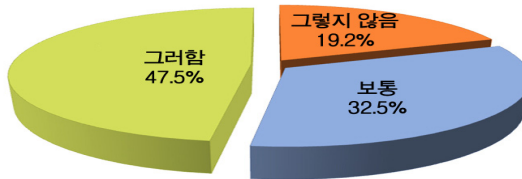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1-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5%가 그렇다고 응답

○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일반계고(53.0%)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45.2%), 전문계고(4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거주지별로는 서울(51.7%) 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군(47.3%), 광역시(4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26]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표 V-148>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7	15.5	32.5	31.8	15.6	0.9	100(6,509)	
성별	남자	3.9	15.2	32.7	30.7	16.5	1.0	100(3,487)	8.045
	여자	3.4	15.9	32.2	33.1	14.7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4	15.8	33.5	29.9	15.3	1.1	100(3,010)	59.253***
	일반계고	2.6	13.7	30.0	35.5	17.5	0.6	100(2,364)	
	전문계고	4.1	18.3	34.9	29.3	12.5	0.9	100(1,135)	
학년별	중1	5.0	15.3	34.8	28.1	15.5	1.3	100(968)	63.444***
	중2	5.5	18.2	32.3	31.0	12.1	1.0	100(1,024)	
	중3	2.8	13.9	33.5	30.5	18.5	0.9	100(1,018)	
	고1	3.2	15.4	32.0	33.1	15.7	0.6	100(1,236)	
	고2	3.3	16.8	32.5	32.2	14.2	1.0	100(1,217)	
	고3	2.8	13.2	30.1	35.5	18.1	0.4	100(1,046)	
거주지	서울	3.3	13.0	30.7	32.3	19.4	1.3	100(1,015)	20.129*
	광역시	3.5	15.9	33.8	31.0	14.9	1.0	100(2,274)	
	시·군	3.9	16.0	32.1	32.3	15.0	0.6	100(3,22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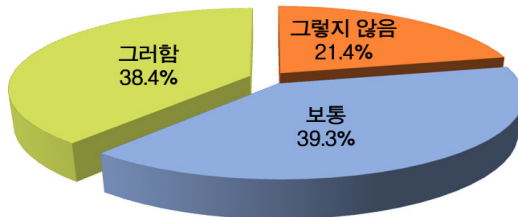
3-2 진로직업 지식

3-2-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4%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43.3%)지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군(38.4%), 광역시(3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2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표 V-149>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0	17.4	39.3	27.8	10.6	0.9	100(6,509)	
성별	남자	4.6	17.6	38.6	26.5	11.7	1.1	100(3,487)	21.087***
	여자	3.3	17.2	40.1	29.4	9.3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2	16.5	38.8	27.8	11.7	1.1	100(3,010)	31.448***
	일반계고	3.5	17.4	38.4	29.5	10.7	0.5	100(2,364)	
	전문계고	4.5	19.7	42.7	24.4	7.7	1.0	100(1,135)	
학년별	중1	4.1	16.9	39.2	26.3	12.1	1.3	100(968)	54.583***
	중2	5.8	15.9	39.6	26.9	10.9	0.9	100(1,024)	
	중3	2.7	16.6	37.5	30.2	12.1	1.0	100(1,018)	
	고1	2.9	17.2	39.4	29.3	10.7	0.6	100(1,236)	
	고2	4.2	20.9	41.4	24.8	7.6	1.2	100(1,217)	
	고3	4.4	16.3	38.4	29.6	11.0	0.3	100(1,046)	
거주지	서울	3.7	14.1	37.6	30.8	12.4	1.3	100(1,015)	20.838**
	광역시	4.0	17.4	41.1	26.7	9.7	1.1	100(2,274)	
	사·군	4.0	18.4	38.6	27.7	10.7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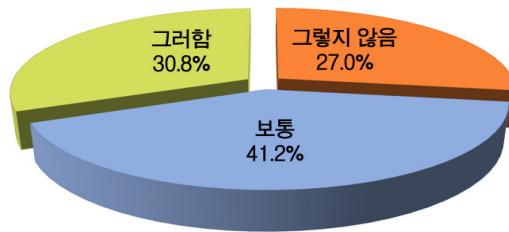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2-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8%가 그렇다고 응답**

○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2.8%)가 여자(28.5%)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
계고(31.9%)가 중학교(31.5%)나, 전문계고(26.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
주지별로는 서울(36.0%)지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군(30.3%), 광
역시(29.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28]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V-150>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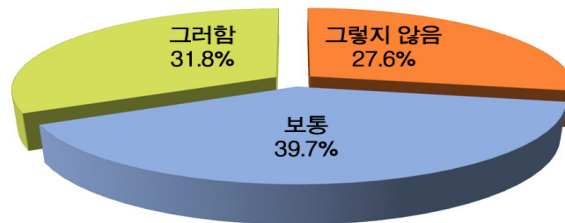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3	21.7	41.2	22.2	8.6	1.0	100(6,509)	
성별	남자	6.3	20.4	39.4	22.5	10.4	1.1	100(3,487)	50.207***
	여자	4.2	23.1	43.3	21.8	6.7	0.8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0	19.1	43.2	22.1	9.4	1.2	100(3,010)	37.991***
	일반계고	5.5	23.3	38.6	23.7	8.2	0.7	100(2,364)	
	전문계고	5.8	25.1	41.5	19.2	7.5	0.9	100(1,135)	
학년별	중1	6.0	18.8	43.4	21.0	9.3	1.5	100(968)	61.679***
	중2	5.5	19.1	44.3	20.9	9.0	1.2	100(1,024)	
	중3	3.6	19.3	41.9	24.4	9.9	0.9	100(1,018)	
	고1	4.9	21.8	41.7	22.6	8.3	0.6	100(1,236)	
	고2	5.8	27.4	38.0	21.7	6.2	1.1	100(1,217)	
	고3	6.2	22.3	38.7	22.6	9.8	0.5	100(1,046)	
거주지	서울	5.3	16.8	40.3	26.4	9.6	1.6	100(1,015)	31.305***
	광역시	4.6	23.7	41.4	21.0	8.2	1.1	100(2,274)	
	시·군	5.9	21.7	41.4	21.7	8.6	0.7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3-2-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3.4%)가 여자(30.0%)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34.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30.4%), 전문계고(28.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더 높아졌고, 거주지별로는 서울(37.4%)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29]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표 V-15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8	21.8	39.7	23.3	8.6	0.9	100(6,509)	
성별	남자	6.2	20.2	39.0	23.2	10.2	1.1	100(3,487)	34.949***
	여자	5.4	23.6	40.4	23.3	6.7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5	18.2	41.1	24.8	9.3	1.1	100(3,010)	52.639***
	일반계고	5.8	25.2	38.0	21.9	8.5	0.6	100(2,364)	
	전문계고	6.8	24.3	39.4	22.0	6.6	0.9	100(1,135)	
학년별	중1	6.2	15.9	41.2	25.2	10.1	1.3	100(968)	80.464***
	중2	6.1	19.0	40.9	24.1	8.9	1.0	100(1,024)	
	중3	4.3	19.4	41.2	25.1	9.0	0.9	100(1,018)	
	고1	5.1	22.9	37.5	26.0	8.0	0.6	100(1,236)	
	고2	6.4	26.4	39.4	19.9	6.8	1.1	100(1,217)	
	고3	6.9	25.6	38.4	19.5	9.1	0.5	100(1,046)	
거주지	서울	4.3	17.7	39.2	26.1	11.3	1.3	100(1,015)	31.912***
	광역시	5.5	23.2	40.0	22.3	7.9	1.1	100(2,274)	
	시·군	6.5	22.1	39.6	23.0	8.2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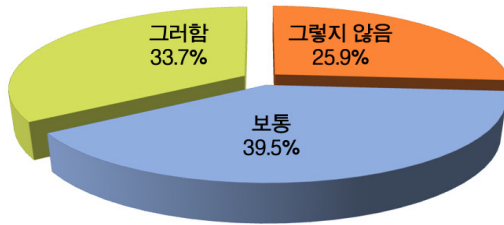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2-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3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계고(32.5%), 전문계고(3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30]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표 V-152>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1	20.8	39.5	24.4	9.3	0.9	100(6,509)	
성별	남자	5.6	19.5	39.6	23.7	10.4	1.1	100(3,487)	20.500***
	여자	4.6	22.2	39.3	25.2	8.0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4.7	18.1	40.4	25.3	10.5	1.1	100(3,010)	35.684***
	일반계고	5.5	23.2	38.2	24.2	8.4	0.6	100(2,364)	
	전문계고	5.8	22.7	39.9	22.5	8.0	1.1	100(1,135)	
학년별	중1	4.6	17.0	40.7	25.5	10.7	1.3	100(968)	78.337***
	중2	5.6	19.7	40.3	24.1	9.2	1.1	100(1,024)	
	중3	3.7	17.4	40.2	26.2	11.6	0.9	100(1,018)	
	고1	4.8	20.4	37.2	26.9	10.1	0.6	100(1,236)	
	고2	5.9	26.0	40.4	20.5	6.1	1.2	100(1,217)	
	고3	6.1	22.8	38.5	23.3	8.6	0.6	100(1,046)	
거주지	서울	5.4	18.4	39.3	25.5	10.0	1.4	100(1,015)	9.951
	광역시	4.9	20.6	40.5	24.5	8.3	1.1	100(2,274)	
	사·군	5.2	21.6	38.8	23.9	9.8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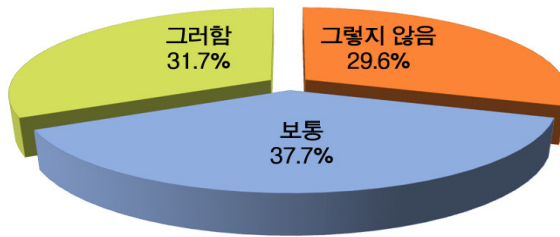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2-5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7%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32.5%)가 여자(30.9%)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34.1%)가 가장 높았고 전문계고(33.4%), 중학교(29.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36.2%)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31.1%), 시·군(3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31]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표 V-153>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6.7	23.0	37.7	22.6	9.1	0.9	100(6,509)	
성별	남자	7.4	21.1	37.9	22.6	9.8	1.1	100(3,487)	21.007***
	여자	5.8	25.1	37.5	22.6	8.3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8	23.0	39.9	20.0	9.3	1.1	100(3,010)	36.545***
	일반계고	7.0	23.8	34.4	24.5	9.6	0.6	100(2,364)	
	전문계고	5.6	21.1	39.0	25.6	7.8	1.0	100(1,135)	
학년별	중1	7.9	21.3	39.9	19.5	10.0	1.4	100(968)	78.290***
	중2	7.5	26.5	37.9	19.5	7.7	0.9	100(1,024)	
	중3	5.1	21.2	41.8	20.8	10.1	0.9	100(1,018)	
	고1	5.7	21.4	37.3	26.4	8.7	0.6	100(1,236)	
	고2	7.6	24.8	37.8	21.0	7.7	1.1	100(1,217)	
	고3	6.2	22.6	32.0	27.6	11.0	0.6	100(1,046)	
거주지	서울	6.3	20.7	35.5	24.4	11.7	1.4	100(1,015)	17.341*
	광역시	6.3	23.0	38.4	22.7	8.4	1.2	100(2,274)	
	시·군	7.0	23.6	38.0	21.9	8.9	0.5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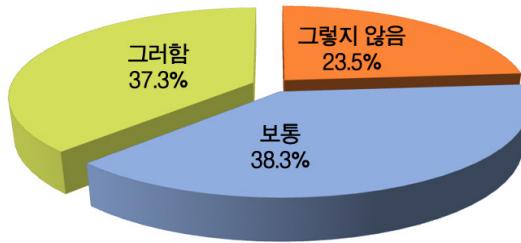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2-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응답자의 37.3%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40.9%)가 가장 높았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서울(40.2%)지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군(37.4%), 광역시(3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32]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V-154>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1	18.3	38.3	27.2	10.1	0.9	100(6,509)	
성별	남자	5.8	17.2	39.3	25.4	11.2	1.1	100(3,487)	30.915***
	여자	4.4	19.7	37.1	29.3	8.8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9	17.9	39.0	24.9	11.2	1.1	100(3,010)	52.028***
	일반계고	4.1	17.0	37.2	30.8	10.1	0.7	100(2,364)	
	전문계고	5.2	22.1	38.8	26.0	7.0	0.9	100(1,135)	
학년별	중1	6.7	17.1	39.6	24.4	10.8	1.3	100(968)	50.761***
	중2	6.9	19.0	39.9	22.4	10.8	0.9	100(1,024)	
	중3	4.1	17.6	37.4	28.0	11.9	1.0	100(1,018)	
	고1	4.0	18.3	38.0	29.5	9.5	0.6	100(1,236)	
	고2	5.1	19.9	37.7	28.3	7.9	1.2	100(1,217)	
	고3	4.3	17.8	37.4	30.0	10.1	0.4	100(1,046)	
거주지	서울	4.2	15.7	38.7	27.2	13.0	1.2	100(1,015)	22.360**
	광역시	4.7	19.5	38.7	27.0	8.8	1.2	100(2,274)	
	시·군	5.7	18.4	37.9	27.4	10.0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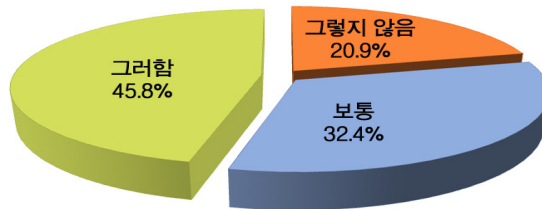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2-7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8%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48.0%)가 남자(44.0%)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5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서울(50.0%)지역이 시·군(45.5%)이나, 광역시(44.5%)지역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33]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표 V-155>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5.5	15.4	32.4	31.4	14.4	0.9	100(6,509)	
성별	남자	6.4	15.3	33.3	28.9	15.0	1.1	100(3,487)	30.937***
	여자	4.3	15.6	31.5	34.2	13.8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6.7	17.3	34.3	26.7	14.0	1.0	100(3,010)	126.007***
	일반계고	4.0	11.9	29.3	37.6	16.6	0.6	100(2,364)	
	전문계고	5.2	17.6	34.2	31.0	11.0	1.0	100(1,135)	
학년별	중1	7.3	17.1	36.0	24.3	14.2	1.1	100(968)	127.397***
	중2	8.3	18.6	33.3	26.8	12.1	1.0	100(1,024)	
	중3	4.5	16.2	33.6	29.0	15.8	0.9	100(1,018)	
	고1	4.1	14.9	32.6	33.5	14.3	0.6	100(1,236)	
	고2	5.3	15.2	30.4	35.0	13.0	1.1	100(1,217)	
	고3	3.5	10.8	29.3	38.2	17.5	0.6	100(1,046)	
거주지	서울	4.8	13.6	30.4	33.4	16.6	1.2	100(1,015)	16.198*
	광역시	4.8	15.7	33.9	30.8	13.7	1.1	100(2,274)	
	시·군	6.1	15.7	32.0	31.2	14.3	0.6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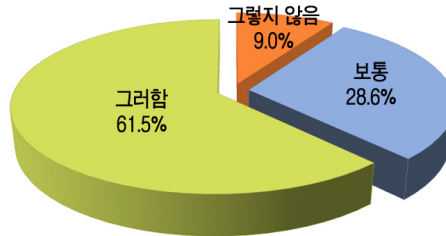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응답

○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67.3%)가 남자(56.5%)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았다.



[그림 V-134]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 후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표 V-156>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2.4	6.6	28.6	38.6	23.0	0.9	100(6,509)	
성별	남자	3.3	7.9	31.2	35.4	21.1	1.1	100(3,487)	93.999***
	여자	1.4	5.1	25.5	42.2	25.1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0	6.9	29.6	36.7	22.7	1.0	100(3,010)	92.923***
	일반계고	1.7	5.3	24.2	41.8	26.2	0.7	100(2,364)	
	전문계고	2.2	8.5	34.8	36.7	16.9	1.0	100(1,135)	
학년별	중1	3.6	7.0	32.9	34.8	20.5	1.2	100(968)	41.753**
	중2	3.4	7.1	28.8	35.9	23.7	1.0	100(1,024)	
	중3	2.0	6.7	27.3	39.4	23.8	0.9	100(1,018)	
	고1	1.4	5.7	29.2	39.2	23.8	0.6	100(1,236)	
	고2	2.3	6.8	26.8	39.6	23.3	1.2	100(1,217)	
	고3	2.0	6.4	26.9	41.9	22.4	0.5	100(1,046)	
거주지	서울	2.7	6.6	28.7	37.2	23.5	1.3	100(1,015)	7.925
	광역시	2.3	6.2	29.3	39.8	21.2	1.2	100(2,274)	
	시·군	2.4	6.9	28.0	38.2	24.0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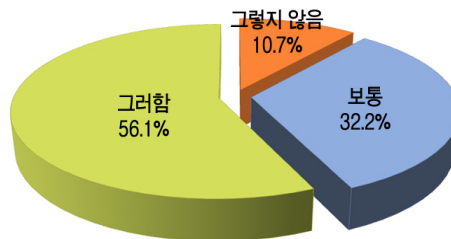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3-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1%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60.7%)가 남자(52.2%)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2.6%)가 전문계고(52.4%)나, 중학교(5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다.



[그림 V-135] 진로 결정하기 전 사람들의 의견 듣고 생각할 것이다

<표 V-157>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0	7.7	32.2	39.2	16.9	0.9	100(6,509)	
성별	남자	3.9	9.0	33.7	36.1	16.1	1.1	100(3,487)	64.525***
	여자	1.9	6.3	30.5	42.8	17.9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7	8.4	34.4	36.6	15.8	1.1	100(3,010)	78.770***
	일반계고	2.0	6.1	28.6	42.6	20.0	0.7	100(2,364)	
	전문계고	3.1	9.5	34.1	39.0	13.4	0.9	100(1,135)	
학년별	중1	4.0	9.0	37.2	34.4	14.2	1.2	100(968)	67.406***
	중2	3.7	8.3	35.8	34.8	16.2	1.2	100(1,024)	
	중3	3.4	7.9	30.3	40.7	16.9	0.9	100(1,018)	
	고1	1.7	7.5	32.6	40.0	17.6	0.6	100(1,236)	
	고2	1.9	7.2	28.4	42.6	18.7	1.2	100(1,217)	
	고3	3.6	6.8	30.1	41.8	17.2	0.5	100(1,046)	
거주지	서울	2.9	8.7	32.0	38.5	16.6	1.4	100(1,015)	8.540
	광역시	2.9	8.1	32.3	40.1	15.5	1.1	100(2,274)	
	시·군	3.0	7.2	32.3	38.9	18.0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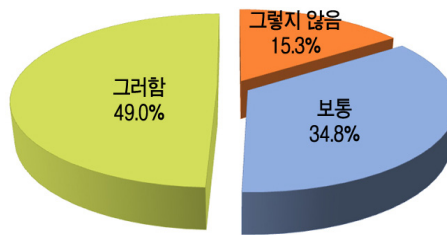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

3-3-3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0%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52.2%)가 남자(46.3%)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5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46.6%), 전문계고(46.4%)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다.



[그림 V-136]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표 V-158>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4.5	10.8	34.8	35.0	14.0	0.9	100(6,509)	
성별	남자	5.9	11.1	35.7	32.1	14.2	1.1	100(3,487)	51.588***
	여자	2.9	10.4	33.8	38.4	13.7	0.8	100(3,022)	
교급별	중학교	5.0	11.2	36.2	32.9	13.8	1.0	100(3,010)	32.662***
	일반계고	4.2	10.3	31.6	37.9	15.4	0.8	100(2,364)	
	전문계고	4.0	10.7	37.9	34.8	11.6	1.1	100(1,135)	
학년별	중1	5.6	9.4	37.4	31.7	14.7	1.2	100(968)	46.368**
	중2	5.0	13.7	34.5	32.8	13.2	0.9	100(1,024)	
	중3	4.3	10.3	36.8	34.1	13.5	1.0	100(1,018)	
	고1	4.0	9.3	35.8	36.5	13.8	0.6	100(1,236)	
	고2	3.0	10.4	34.7	36.9	13.7	1.2	100(1,217)	
	고3	5.5	11.7	29.8	37.3	15.0	0.7	100(1,046)	
거주지	서울	5.8	10.9	34.5	33.0	14.5	1.3	100(1,015)	24.115**
	광역시	3.8	11.6	35.4	36.3	11.8	1.1	100(2,274)	
	시·군	4.6	10.1	34.5	34.8	15.3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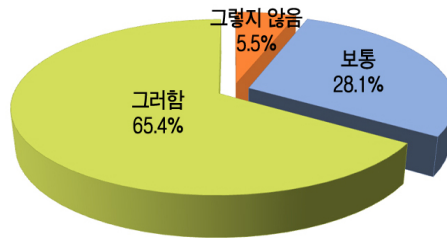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3-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4%가 그렇다고 응답

○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70.8%)가 남자(60.7%)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73.9%)가 중학교(61.5%)나, 전문계고(58.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다.



[그림 V-137] 직업 지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표 V-159>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	4.1	28.1	43.8	21.6	0.9	100(6,509)	
성별	남자	1.9	5.1	31.1	40.5	20.2	1.2	100(3,487)	79.531***
	여자	0.9	2.9	24.8	47.7	23.1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7	4.9	30.9	40.0	21.4	1.0	100(3,010)	139.565***
	일반계고	0.9	2.5	22.0	49.4	24.6	0.7	100(2,364)	
	전문계고	1.8	5.5	33.7	42.3	15.7	1.1	100(1,135)	
학년별	중1	1.8	4.8	32.9	39.0	20.5	1.1	100(968)	56.171***
	중2	2.2	4.8	30.7	40.1	21.2	1.0	100(1,024)	
	중3	1.2	5.0	29.4	40.9	22.6	1.0	100(1,018)	
	고1	1.4	3.4	26.9	46.5	21.0	0.8	100(1,236)	
	고2	0.9	3.7	24.5	48.0	21.7	1.2	100(1,217)	
	고3	1.2	3.3	25.9	46.7	22.5	0.5	100(1,046)	
거주지	서울	1.2	3.9	26.2	44.8	22.6	1.3	100(1,015)	6.600
	광역시	1.5	4.2	28.7	44.4	20.1	1.1	100(2,274)	
	시·군	1.5	4.1	28.4	43.1	22.3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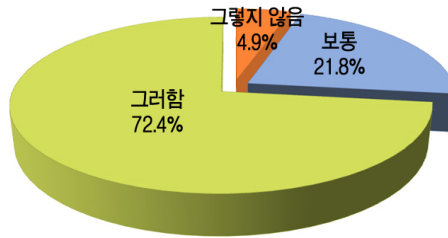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5 직업에 대해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직업에 대해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고 응답

○ ‘직업에 대해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79.4%)가 남자(66.4%)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79.4%)가 중학교(70.0%)나, 전문계고(6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고, 거주지별로는 서울(74.2%)지역이 시·군(72.8%)이나, 광역시(71.1%)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림 V-138] 직업을 알아 볼 때 그것이 내 성격, 흥미와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표 V-160>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	3.6	21.8	41.6	30.8	0.9	100(6,509)	
성별	남자	1.7	4.9	25.8	38.2	28.2	1.1	100(3,487)	139.722***
	여자	0.7	2.2	17.2	45.5	33.8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7	4.2	23.2	40.2	29.8	1.0	100(3,010)	139.983***
	일반계고	0.6	2.2	17.0	42.9	36.4	0.8	100(2,364)	
	전문계고	1.4	5.2	28.0	42.7	21.8	0.9	100(1,135)	
학년별	중1	1.8	4.6	25.6	37.9	28.9	1.1	100(968)	43.849**
	중2	2.1	4.1	22.1	40.2	30.4	1.1	100(1,024)	
	중3	1.1	3.7	21.9	42.2	30.2	0.9	100(1,018)	
	고1	0.9	3.4	22.4	40.5	32.3	0.6	100(1,236)	
	고2	0.7	3.4	18.7	45.4	30.4	1.4	100(1,217)	
	고3	1.1	2.7	20.7	42.8	32.4	0.4	100(1,046)	
거주지	서울	1.2	2.9	20.6	40.7	33.5	1.2	100(1,015)	17.153*
	광역시	1.3	3.5	23.0	43.1	28.0	1.1	100(2,274)	
	시·군	1.2	4.0	21.3	40.8	32.0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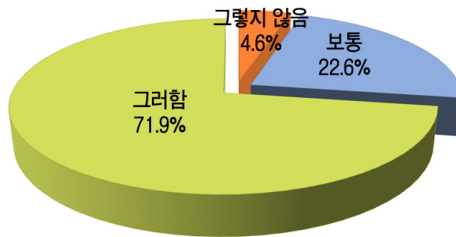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9%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78.9%)가 남자(65.9%)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79.6%)가 중학교(69.2%)나, 전문계고(6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다.



[그림 V-139]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표 V-16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2	3.4	22.6	41.9	30.1	0.9	100(6,509)	
성별	남자	1.7	4.4	26.8	38.9	27.0	1.2	100(3,487)	139.870***
	여자	0.5	2.2	17.7	45.3	33.6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4	3.9	24.4	40.0	29.2	1.2	100(3,010)	147.638***
	일반계고	0.6	2.1	17.0	44.2	35.4	0.7	100(2,364)	
	전문계고	1.7	4.8	29.3	42.0	21.2	0.9	100(1,135)	
학년별	중1	1.7	3.6	25.6	40.3	27.3	1.5	100(968)	38.608**
	중2	2.0	3.7	24.2	38.9	30.2	1.1	100(1,024)	
	중3	0.6	4.2	23.4	40.9	30.1	0.9	100(1,018)	
	고1	0.9	3.2	22.3	41.9	31.1	0.6	100(1,236)	
	고2	1.0	3.3	19.6	45.1	29.9	1.2	100(1,217)	
	고3	1.1	2.5	21.1	43.4	31.5	0.4	100(1,046)	
거주지	서울	1.4	3.3	20.5	41.1	32.6	1.2	100(1,015)	10.677
	광역시	0.9	3.7	24.0	41.5	28.8	1.1	100(2,274)	
	시·군	1.3	3.2	22.2	42.4	30.2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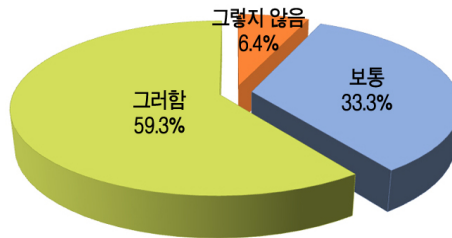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3%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62.9%)가 남자(56.3%)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7.4%)가 중학교(55.8%)나, 전문계고(52.0%)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그림 V-140] 직업이 요구하는 학력 및 자격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표 V-162>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7	4.8	33.3	41.7	17.6	1.0	100(6,509)	
성별	남자	2.3	5.7	34.6	39.2	17.0	100(3,487)	47.903***
	여자	0.9	3.7	31.8	44.6	18.3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3	5.4	35.3	38.4	17.3	100(3,010)	129.881***
	일반계고	1.0	2.9	28.0	47.1	20.3	100(2,364)	
	전문계고	1.4	7.0	38.7	39.1	12.9	100(1,135)	
학년별	중1	2.3	4.6	37.2	36.5	18.2	100(968)	57.492***
	중2	2.9	6.3	34.5	39.2	16.0	100(1,024)	
	중3	1.7	5.3	34.5	39.6	17.9	100(1,018)	
	고1	0.9	4.5	31.7	44.2	18.1	100(1,236)	
	고2	1.5	4.1	32.5	42.9	17.8	100(1,217)	
	고3	1.0	3.9	30.1	46.8	17.7	100(1,046)	
	서울	1.9	4.4	32.5	39.9	19.9	100(1,015)	10.709
거주지	광역시	1.4	4.7	33.7	43.0	16.0	100(2,274)	
	시·군	1.8	4.9	33.2	41.4	18.1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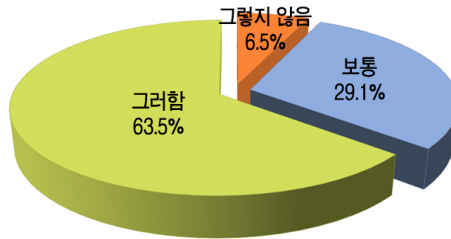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고 응답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68.3%)가 남자(59.3%)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9.2%)가 중학교(61.0%)나, 전문계고(58.0%) 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41]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표 V-163>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7	4.8	29.1	40.6	22.8	1.0	100(6,509)	
성별	남자	2.4	5.9	31.3	36.8	22.5	1.1	100(3,487)	77.644***
	여자	1.0	3.5	26.5	45.0	23.2	0.7	100(3,022)	
교급별	중학교	2.1	5.1	30.7	39.1	22.0	1.1	100(3,010)	69.647***
	일반계고	1.2	3.9	24.9	42.8	26.4	0.8	100(2,364)	
	전문계고	1.7	5.8	33.6	40.4	17.6	1.0	100(1,135)	
학년별	중1	2.3	5.9	31.6	36.7	22.2	1.3	100(968)	30.091
	중2	1.9	4.5	31.2	40.4	21.1	1.0	100(1,024)	
	중3	2.2	5.1	29.3	40.0	22.6	0.9	100(1,018)	
	고1	1.3	5.0	27.2	41.3	24.5	0.6	100(1,236)	
	고2	1.6	4.8	26.1	43.1	23.1	1.2	100(1,217)	
	고3	1.2	3.6	30.1	41.4	22.9	0.7	100(1,046)	
거주지	서울	2.1	4.8	28.3	39.3	24.3	1.2	100(1,015)	8.774
	광역시	1.5	5.1	30.2	40.9	21.2	1.2	100(2,274)	
	시·군	1.8	4.6	28.5	40.9	23.5	0.7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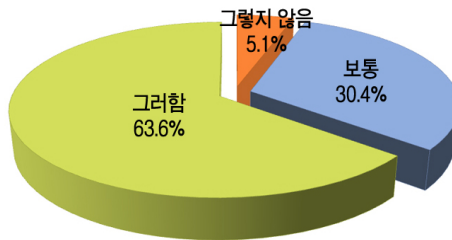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가 그렇다고 응답

○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70.3%)가 남자(57.8%)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70.9%)가 중학교(60.9%)나, 전문계고(5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졌다.



[그림 V-142]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표 V-164>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1.4	3.7	30.4	42.7	20.9	0.8	100(6,509)	
성별	남자	2.0	4.8	34.2	37.4	20.5	1.1	100(3,487)	131.038***
	여자	0.8	2.4	26.0	48.9	21.4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7	3.7	32.8	40.4	20.5	1.0	100(3,010)	104.055***
	일반계고	0.9	2.9	24.6	47.3	23.6	0.6	100(2,364)	
	전문계고	1.9	5.5	36.2	39.4	16.2	0.9	100(1,135)	
학년별	중1	2.1	3.7	34.0	38.4	20.6	1.2	100(968)	42.828**
	중2	2.3	3.6	32.4	41.8	18.9	0.9	100(1,024)	
	중3	0.7	3.7	32.0	40.8	22.0	0.8	100(1,018)	
	고1	1.0	4.1	29.6	44.3	20.5	0.6	100(1,236)	
	고2	1.3	3.4	27.5	46.3	20.3	1.2	100(1,217)	
	고3	1.4	3.6	27.9	43.4	23.2	0.4	100(1,046)	
거주지	서울	1.2	3.2	30.6	41.9	22.0	1.2	100(1,015)	6.438
	광역시	1.5	4.1	31.2	42.7	19.6	1.0	100(2,274)	
	시·군	1.5	3.6	29.8	43.0	21.5	0.6	10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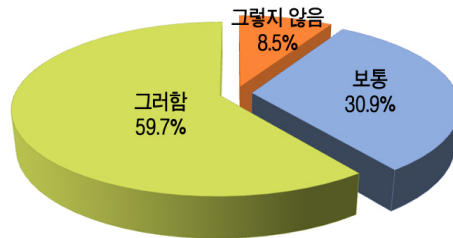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3-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그렇다고 응답

○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에 대해 성별, 교급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65.0%)가 남자(55.2%)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6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그림 V-143] 진로결정에 대해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표 V-165>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빈도)	χ^2
전체		3.1	5.5	30.9	38.7	21.1	0.8	100(6,509)	
성별	남자	4.1	6.7	32.9	34.0	21.2	1.0	100(3,487)	99.896***
	여자	1.9	4.1	28.6	44.1	20.9	0.6	100(3,022)	
교급별	중학교	3.3	5.3	32.3	36.0	22.2	0.9	100(3,010)	50.967***
	일반계고	2.8	4.9	27.4	42.6	21.7	0.6	100(2,364)	
	전문계고	3.2	7.0	34.4	37.7	16.7	0.9	100(1,135)	
학년별	중1	4.0	6.1	33.1	33.3	22.4	1.1	100(968)	39.158**
	중2	3.4	4.3	31.1	38.4	22.0	0.9	100(1,024)	
	중3	2.4	5.5	32.9	36.2	22.2	0.8	100(1,018)	
	고1	2.1	5.1	31.6	40.7	19.9	0.6	100(1,236)	
	고2	3.0	6.1	28.3	40.9	20.5	1.2	100(1,217)	
	고3	3.7	5.7	29.0	41.4	19.8	0.4	100(1,046)	
거주지	서울	3.3	5.1	30.6	38.4	21.4	1.2	100(1,015)	11.629
	광역시	2.9	5.7	33.0	38.1	19.3	1.0	100(2,274)	
	시·군	3.1	5.4	29.5	39.2	22.2	0.6	100(3,220)	

* $p < .05$, ** $p < .01$, *** $p < .001$

■ 3-1~3-3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진로·직업 역량 또는 진로개발 역량은 청소년들이 원활한 진로개발을 전개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진로탐색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진로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기술·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표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각 영역별로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은 세부지표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즉 자신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판단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진로·직업 지식의 영역에서도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작 해당 학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생활에 대해서 역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상적인 개인적인 탐색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넘어 실제적인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안에서 현직자들이 어떠한 직업생활을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탐색과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나 매체를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본 지표조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은,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의 측면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의향이나 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폭넓은 진로탐색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향을 진로개발에 관한 청소년의 욕구

로 이해한다면, 학교나 지역사회 단위의 진로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영역별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진로·직업 역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문계 고교생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진로·직업 역량은 중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시기에 진로를 결정한, 즉 조기 진로결정자보다는, 낮은 학업성적으로 불가피하게 전문계 고교로 진학한 학생이 많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전문계 고교가 특정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학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진로개발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즉 고교 1학년 시기에 자신의 전문계 고교로의 진로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전문계 고교 재학 기간 동안의 진로계획을 다시 설정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진로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진로·직업 역량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 지표조사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진로·직업 역량의 형성과 유사·손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로·직업 역량의 예언적인 성격, 즉 진로·직업 역량이 높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성과도 긍정적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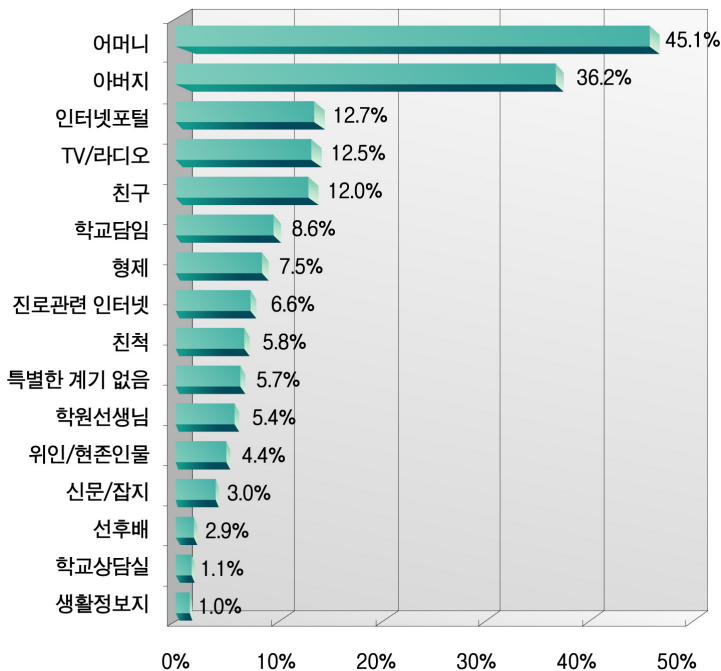
4. 배경변인

1) 진로·직업 선택 및 향후계획

(1) 진로·직업 선택 시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출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누구(혹은 무엇) 때문입니까?’에 대해 응답자의 45.1%가 ‘어머니’라고 대답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누구(혹은 무엇) 때문입니까?’에 대해 ‘어머니(4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36.2%)’,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등)(12.7%)’, ‘TV/라디오(12.5%)’, ‘친구(12.0%)’, ‘학교담임선생님(8.6%)’, ‘형제(7.5%)’,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커리어넷 등)(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44] 진로·직업 선택 시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출처(첫 번째+두 번째)

〈표 V-166〉 진로·직업 선택 시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출처(첫 번째+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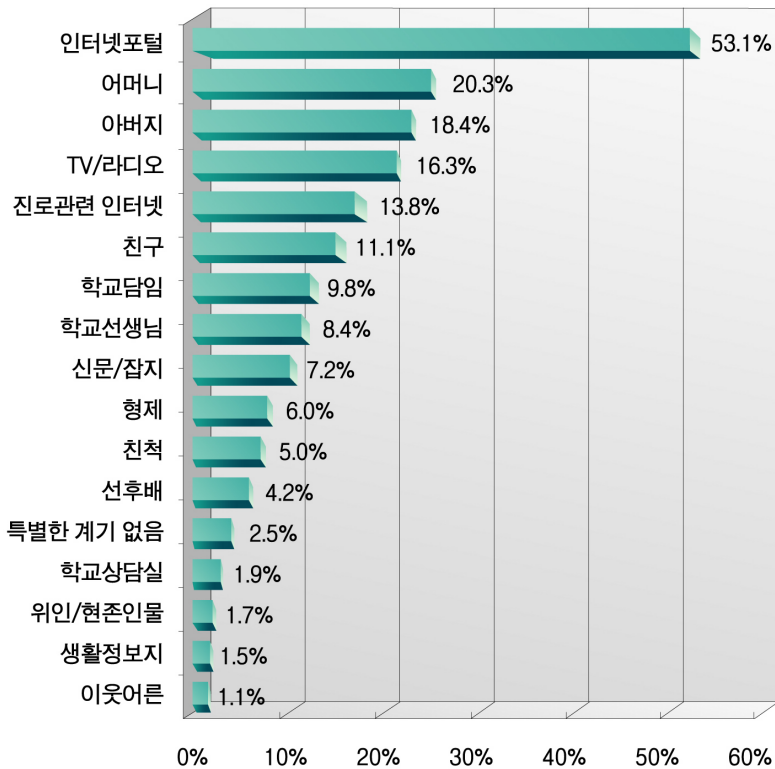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어머니	아버지	인터넷 포털	TV 라디오	친구	학교 담임	형제	진로 관련 인터넷	친척	특별한 계기 없음	학원 선생님	위인 현존 인물	신문 잡지
전체		45.1	36.2	12.7	12.5	12.0	8.6	7.5	6.6	5.8	5.7	5.4	4.4	3.0
성별	남자	42.5	44.0	12.7	10.6	10.6	9.5	7.6	4.6	5.7	5.9	4.1	4.4	2.5
	여자	48.0	27.3	12.8	14.6	13.5	7.4	7.4	8.8	6.0	5.6	6.8	4.4	3.7
교급별	중학교	50.2	39.8	11.1	12.7	11.2	6.8	6.5	6.4	5.6	4.8	5.1	4.8	3.0
	일반계고	39.4	32.1	15.1	12.4	11.4	9.1	8.6	7.4	5.3	7.2	6.5	4.5	3.0
	전문계고	43.2	35.4	12.2	12.2	15.2	12.2	7.8	5.5	7.3	5.2	3.8	3.3	3.2
학년별	중1	52.6	43.8	8.7	11.6	12.4	5.6	6.4	6.9	5.9	4.6	4.1	5.0	2.6
	중2	52.1	40.1	11.7	14.6	10.8	5.7	6.4	3.4	5.9	4.4	6.1	5.3	2.8
	중3	46.2	35.7	12.8	11.7	10.5	9.1	6.8	8.8	5.2	5.2	5.0	4.2	3.6
	고1	42.9	35.1	13.5	11.7	11.4	9.6	9.5	7.0	6.5	6.2	5.6	4.0	2.9
	고2	42.2	32.4	12.8	13.6	13.1	9.1	7.3	7.4	6.2	7.2	5.5	3.5	3.1
	고3	36.2	31.7	16.4	11.6	13.6	11.7	8.2	5.6	5.1	6.2	5.7	4.9	3.2
거주지	서울	43.8	34.2	13.3	13.2	12.8	5.7	6.7	5.5	5.0	7.5	5.4	4.4	2.7
	광역시	45.0	34.7	13.1	11.6	13.5	8.8	8.4	7.1	5.8	5.6	5.8	4.2	3.3
	시·군	45.5	38.0	12.3	12.9	10.7	9.3	7.1	6.6	6.1	5.2	5.1	4.6	3.0

응답자의 특성		선후배	학교 상담실	생활 정보지	이웃 어른	사회 단체	민간 상담 전문가	취업 박람회	공공직 업기관	벽보 현수막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2.9	1.1	1.0	0.9	0.9	0.7	0.5	0.3	0.2	4.5	1.7	100(6,509)
성별	남자	3.4	1.1	0.9	1.1	0.6	0.6	0.5	0.3	0.2	4.0	2.4	100(3,487)
	여자	2.3	1.2	1.1	0.7	1.2	0.7	0.6	0.3	0.2	5.0	1.0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9	0.9	0.7	1.1	0.8	0.7	0.4	0.3	0.2	3.6	2.3	100(3,010)
	일반계고	3.4	1.0	1.2	0.8	1.1	0.8	0.5	0.3	0.2	5.8	1.1	100(2,364)
	전문계고	4.2	1.9	1.3	0.9	0.7	0.3	0.8	0.4	0.4	4.1	1.6	100(1,135)
학년별	중1	1.3	0.9	0.9	0.6	0.6	0.5	0.4	0.4	0.3	3.7	2.8	100(968)
	중2	1.6	0.9	0.8	1.5	0.8	0.6	0.3	0.1	0.2	2.8	2.4	100(1,024)
	중3	2.8	0.9	0.5	1.1	0.9	1.0	0.6	0.3	0.1	4.2	1.8	100(1,018)
	고1	4.3	1.6	1.1	0.8	0.8	0.6	0.5	0.3	0.2	3.4	1.5	100(1,236)
	고2	2.4	1.4	1.6	1.0	1.1	0.9	0.8	0.2	0.3	5.7	1.1	100(1,217)
	고3	4.5	0.8	1.0	0.7	1.1	0.4	0.5	0.3	0.1	6.8	1.1	100(1,046)
거주지	서울	2.0	0.6	0.9	0.4	1.0	1.1	0.6	0.3	0.2	6.3	2.0	100(1,015)
	광역시	3.5	1.1	1.1	0.8	0.8	0.4	0.5	0.1	0.2	4.2	1.7	100(2,274)
	시·군	2.7	1.2	1.0	1.2	0.9	0.7	0.5	0.4	0.2	4.1	1.7	100(3,220)

(2) 진로·직업 관련 정보원

‘진로·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응답

○ ‘진로·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53.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20.3%)’, ‘아버지(18.4%)’, ‘TV/라디오(16.3%)’,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커리어넷 등)(13.8%)’, ‘친구(11.1%)’, ‘학교 담임선생님(9.8%)’, ‘학원 선생님(8.4%)’, ‘신문/잡지(7.2%)’, ‘형제(6.0%)’, ‘친척(5.0%)’, ‘선후배(4.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특별한 계기 없음(2.5%)’, ‘학교 상담실(1.9%)’ 등이 있었다.



[그림 V-145] 진로·직업 관련 정보원(첫 번째+두 번째)

<표 V-167> 진로·직업 관련 정보원(첫 번째+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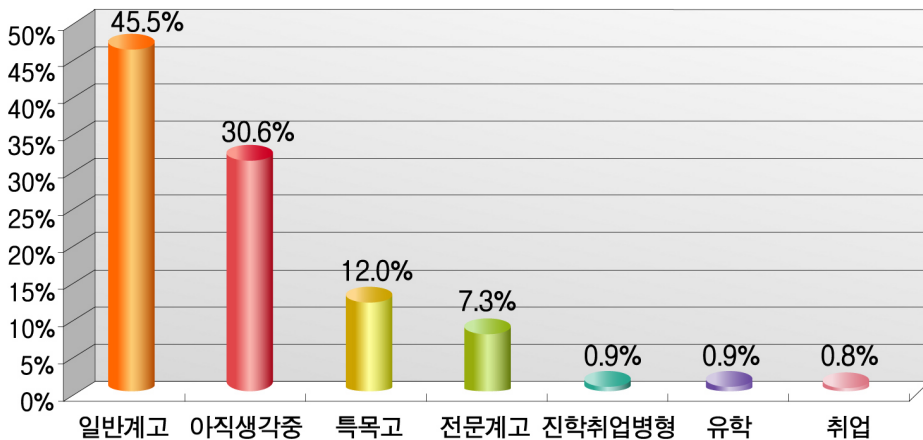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인터넷 포털	어머니	아버지	TV 라디오	진로 관련 인터넷	친구	학교 담임	학원 선생님	신문 잡지	형제	친척	선후배	특별한 계기 없음
전체		53.1	20.3	18.4	16.3	13.8	11.1	9.8	8.4	7.2	6.0	5.0	4.2	2.5
성별	남자	47.3	21.3	24.8	16.2	10.7	10.1	10.9	6.7	6.6	6.3	5.0	4.3	3.4
	여자	59.7	19.1	11.1	16.4	17.3	12.3	8.6	10.2	8.0	5.6	5.1	4.0	1.5
교급별	중학교	47.5	26.7	22.8	20.4	11.7	9.9	7.0	7.4	7.1	5.6	4.7	2.4	2.6
	일반계고	61.8	14.3	14.3	11.9	16.8	10.8	10.3	10.6	7.7	5.7	4.7	4.7	2.8
	전문계고	49.7	15.9	15.5	14.6	12.8	14.9	16.3	6.2	6.6	7.6	6.5	7.9	1.7
학년별	중1	45.7	29.6	24.9	21.4	12.6	9.3	5.5	4.6	6.4	5.9	4.9	1.4	2.6
	중2	47.4	27.7	21.8	22.1	7.9	9.5	5.4	8.7	7.8	5.9	5.6	2.8	2.8
	중3	49.4	22.8	21.7	17.9	14.7	11.0	10.1	8.7	7.1	5.0	3.7	2.8	2.3
	고1	53.1	17.7	17.0	13.8	13.4	11.3	11.7	9.1	6.6	6.9	5.9	6.1	2.8
	고2	56.1	15.5	14.0	13.5	18.3	13.0	10.8	9.4	7.4	6.7	5.6	4.2	2.1
	고3	65.5	10.4	12.9	10.8	14.7	12.1	14.5	9.0	8.1	5.3	4.3	7.0	2.5
거주지	서울	51.7	22.3	17.3	18.5	11.2	11.3	5.7	9.6	8.3	5.6	4.2	3.6	3.0
	광역시	54.2	18.0	16.9	15.3	14.9	12.2	10.8	9.0	7.8	6.2	5.0	5.1	2.2
	시·군	52.7	21.3	19.8	16.3	13.8	10.3	10.4	7.5	6.5	5.9	5.3	3.7	2.5

응답자의 특성		학교 상담실	위인현존인물	생활 정보지	이웃 어른	민간 상담 전문가	사회 단체	취업 박람회	공공직 업기관	벽보 현수막	기타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1.9	1.7	1.5	1.1	0.6	0.6	0.5	0.4	0.2	1.1	1.6	100(6,509)
성별	남자	1.7	1.9	1.6	0.9	0.6	0.5	0.3	0.4	0.3	0.9	2.3	100(3,487)
	여자	2.1	1.5	1.5	1.2	0.6	0.7	0.8	0.4	0.2	1.3	0.9	100(3,022)
교급별	중학교	1.5	2.5	1.2	0.9	0.7	0.8	0.5	0.4	0.2	0.8	2.2	100(3,010)
	일반계고	1.5	1.1	2.0	0.9	0.7	0.5	0.4	0.3	0.3	1.6	1.1	100(2,364)
	전문계고	3.8	1.1	1.4	1.8	0.3	0.4	1.1	0.5	0.3	0.9	1.3	100(1,135)
학년별	중1	1.4	3.0	1.0	0.8	0.9	0.9	0.3	0.6	0.3	0.9	2.7	100(968)
	중2	1.1	2.0	1.2	0.7	0.7	0.8	0.3	0.2	0.3	0.7	2.8	100(1,024)
	중3	1.9	2.5	1.4	1.2	0.6	0.6	0.8	0.5	0.1	0.8	1.1	100(1,018)
	고1	2.8	1.7	1.5	1.1	0.7	0.4	0.2	0.6	0.2	0.8	1.4	100(1,236)
	고2	2.3	0.8	1.8	1.4	0.5	0.7	1.0	0.3	0.3	1.6	1.2	100(1,217)
	고3	1.5	0.7	2.1	1.1	0.4	0.4	0.6	0.2	0.2	1.7	0.8	100(1,046)
거주지	서울	1.5	2.2	1.5	0.6	1.3	0.5	0.7	0.5	0.1	1.0	1.9	100(1,015)
	광역시	2.1	1.3	1.6	1.1	0.6	0.4	0.8	0.4	0.1	0.8	1.6	100(2,274)
	시·군	1.9	1.9	1.5	1.2	0.5	0.8	0.3	0.4	0.4	1.3	1.6	100(3,220)

(3)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5%가 ‘일반계고 진학’이라고 응답

○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일반계고 진학(45.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직 생각 중(30.6%)’, ‘특목고 진학(12.0%)’, ‘전문계고 진학(7.3%)’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진학과 취업 병행(0.9%)’, ‘유학(0.9%)’, ‘취업(0.8%)’ 등이 있었다.



[그림 V-146] 중학교 졸업 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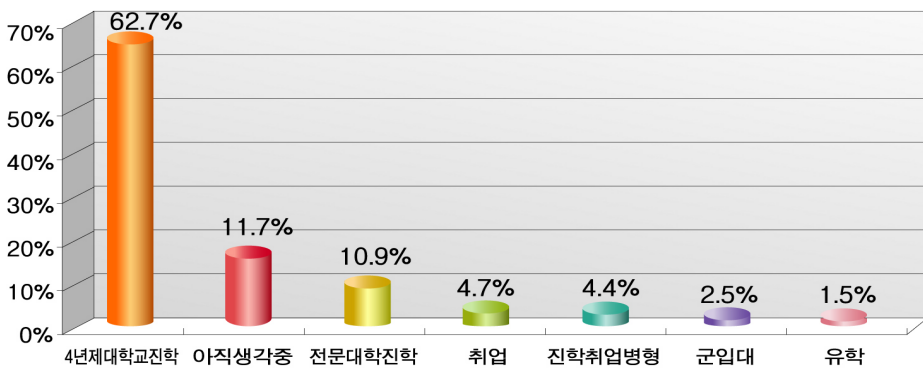
<표 V-168>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응답자의 특성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 고 포함)	특목고	진학과 취업 병행	유학	아직 생각중	취업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전체		45.5	7.3	12.0	0.9	0.9	30.6	0.8	0.7	1.3	100(3,010)	
성별	남자	42.6	7.6	13.4	1.2	1.0	30.5	1.2	0.7	1.7	100(1,532)	
	여자	48.4	7.0	10.4	0.6	0.8	30.7	0.3	0.7	0.9	100(1,478)	
교급별		중학교	45.5	7.3	12.0	0.9	0.9	30.6	0.8	0.7	1.3	100(3,010)
학년별	중1	33.4	6.3	17.1	1.1	1.4	38.3	0.5	0.4	1.3	100(968)	
	중2	46.6	6.6	10.5	1.1	1.0	30.8	0.8	0.7	2.0	100(1,024)	
	중3	55.9	8.8	8.4	0.6	0.4	23.2	1.0	1.0	0.7	100(1,018)	
거주지	서울	33.7	6.2	16.3	1.0	1.4	37.1	0.8	1.6	2.0	100(504)	
	광역시	49.6	7.5	11.5	1.0	0.7	27.4	0.3	0.7	1.2	100(889)	
	시·군	46.9	7.5	10.9	0.9	0.9	30.4	1.0	0.4	1.2	100(1,617)	

(4)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7%가 4년제 대학교 진학이라고 응답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4년제 대학교 진학(6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직 생각 중(11.7%)’, ‘전문대 진학(10.9%)’, ‘취업(4.7%)’, ‘진학과 취업 병행(4.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소수 의견으로 ‘군입대(2.5%)’, ‘유학(1.5%)’ 등이 있었다.



[그림 V-147]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표 V-169>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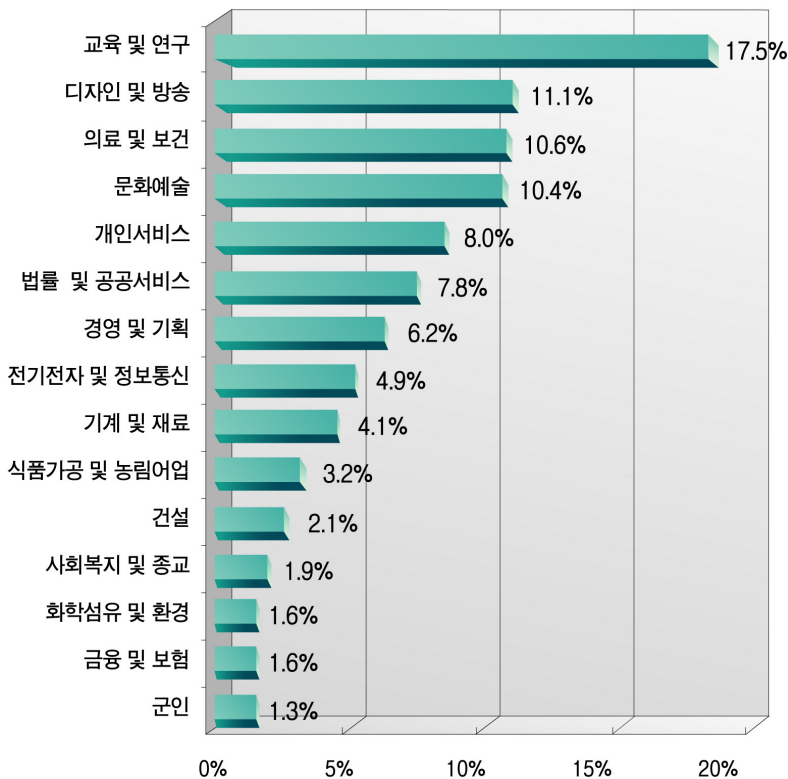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4년제 대학교 진학	아직 생각중	전문 대학 진학	취업	진학과 취업 병행	군입대	유학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전체		62.7	11.7	10.9	4.7	4.4	2.5	1.5	0.3	1.3	100(3,499)
성별	남자	61.5	13.0	10.6	3.7	3.5	4.5	1.1	0.4	1.6	100(1,955)
	여자	64.2	10.1	11.2	5.8	5.5	0.1	2.1	0.1	0.9	100(1,544)
교급별	일반계고	74.9	9.9	5.4	1.3	4.0	1.7	1.4	0.2	1.1	100(2,364)
	전문계고	37.2	15.4	22.4	11.6	5.3	4.2	1.9	0.4	1.7	100(1,135)
학년별	고1	59.5	14.3	9.8	3.9	4.2	4.3	2.7	0.2	1.1	100(1,236)
	고2	61.4	12.1	10.2	6.2	4.8	2.3	0.9	0.4	1.7	100(1,217)
	고3	67.9	8.2	13.0	3.7	4.2	0.8	1.0	0.2	1.1	100(1,046)
거주지	서울	71.0	9.8	5.7	2.2	3.3	4.3	2.0		1.8	100(511)
	광역시	56.5	13.0	14.4	5.6	4.9	2.5	1.4	0.2	1.4	100(1,385)
	사.군	65.4	11.2	9.5	4.6	4.3	2.0	1.6	0.4	1.1	100(1,603)

2) 나의 장래 희망직업 및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

(1) 나의 장래 희망직업(직업 분야별)

‘귀하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5%가 ‘교육 및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

○ ‘귀하의 장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교육 및 연구 관련직(17.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11.1%)’, ‘의료 및 보건 관련직(10.6%)’, ‘문화예술 관련직(10.4%)’, ‘개인서비스 관련직(8.0%)’, ‘법률 및 공공서비스 관련직(7.8%)’, ‘경영 및 기획 관련직(6.2%)’,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48] 나의 장래 희망직업(직업 분야별)

〈표 V-170〉 나의 장래 희망직업(직업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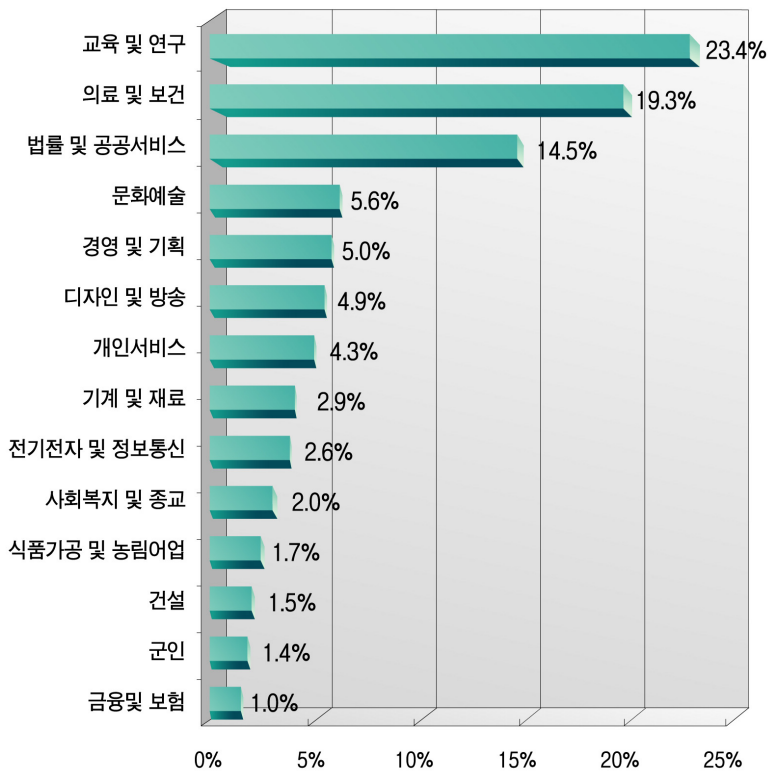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교육 및 연구	디자인 및 방송	의료 및 보건	문화 예술	개인 서비스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경영 및 기획	전기 전자 및 정보 통신	기계 및 재료	식품 가공 및 농림 어업
전체		17.5	11.1	10.6	10.4	8.0	7.8	6.2	4.9	4.1	3.2
성별	남자	13.8	6.9	8.3	6.6	7.8	10.3	6.6	8.5	7.1	2.6
	여자	21.8	15.9	13.3	14.7	8.2	5.0	5.8	0.8	0.7	3.8
교육별	중학교	20.4	12.9	10.8	10.4	8.3	9.2	3.9	3.8	2.4	3.6
	일반계고	17.6	9.2	11.8	11.1	5.4	7.0	8.2	4.7	4.7	1.6
	전문계고	9.6	10.1	7.8	8.6	12.3	5.7	8.3	8.5	7.8	5.3
학년별	중1	19.5	11.9	12.0	10.2	8.3	10.7	3.4	4.2	2.4	3.8
	중2	20.7	13.6	10.4	11.0	8.9	8.4	3.3	3.2	2.1	3.8
	중3	21.0	13.2	10.1	10.0	7.9	8.6	4.9	4.0	2.8	3.0
	고1	15.2	10.3	7.0	13.3	8.5	6.7	5.8	6.2	6.5	4.3
	고2	15.8	8.0	13.7	8.4	7.5	6.3	9.4	6.0	4.9	2.8
	고3	14.0	10.3	10.9	9.0	6.9	6.8	9.8	5.4	5.5	1.1
거주지	서울	16.1	11.2	8.5	11.9	10.0	7.6	6.8	6.0	2.4	3.1
	광역시	17.7	10.7	10.6	9.8	7.3	7.7	7.0	5.1	6.0	2.9
	시·군	17.9	11.3	11.4	10.3	7.9	8.0	5.5	4.5	3.4	3.4

응답자의 특성		건설	사회 복지 및 종교	화학 석유 및 환경	금융 및 보험	군인	운송 및 여행	영업 및 판매	아직 없음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2.1	1.9	1.6	1.6	1.3	0.9	0.4		6.4	100(6,509)
성별	남자	3.2	1.6	2.4	2.1	1.9	1.5	0.6		8.1	100(3,487)
	여자	0.8	2.2	0.6	1.0	0.6	0.2	0.2	0.1	4.4	100(3,022)
교육별	중학교	1.0	1.0	1.0	1.2	1.4	0.9	0.3		7.5	100(3,010)
	일반계고	3.3	2.8	2.5	2.2	1.1	1.1	0.5	0.1	4.9	100(2,364)
	전문계고	2.6	2.4	1.1	1.3	1.3	0.4	0.4		6.3	100(1,135)
학년별	중1	0.5	0.5	1.4	0.9	1.3	0.6	0.2		8.0	100(968)
	중2	1.2	1.0	1.2	1.0	1.4	0.8	0.1		8.1	100(1,024)
	중3	1.2	1.6	0.4	1.6	1.4	1.3	0.7		6.4	100(1,018)
	고1	1.9	2.1	1.1	1.7	1.5	1.0	0.6	0.1	6.1	100(1,236)
	고2	3.1	3.0	2.7	1.8	1.1	0.6	0.2	0.2	4.6	100(1,217)
	고3	4.4	3.0	2.4	2.3	1.0	1.1	0.6		5.5	100(1,046)
거주지	서울	1.9	2.0	1.8	2.3	1.8	1.6	0.3	0.1	4.9	100(1,015)
	광역시	1.8	1.7	1.9	1.4	1.2	0.8	0.4		6.0	100(2,274)
	시·군	2.4	2.0	1.2	1.5	1.1	0.7	0.5	0.1	7.0	100(3,220)

(2)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직업 분야별)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3.4%가 ‘교육 및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

○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교육 및 연구 관련직(23.4%)’이 가장 많았고, ‘의료 및 보건 관련직(19.3%)’, ‘법률 및 공공서비스 관련직(14.5%)’, ‘문화 예술 관련직(5.6%)’, ‘경영 및 기획 관련직(5.0%)’,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4.9%)’, ‘개인서비스 관련직(4.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계 및 재료 관련직(2.9%)’,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2.6%)’ 등이 있었다.



[그림 V-149]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직업 분야별)

〈표 V-171〉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직업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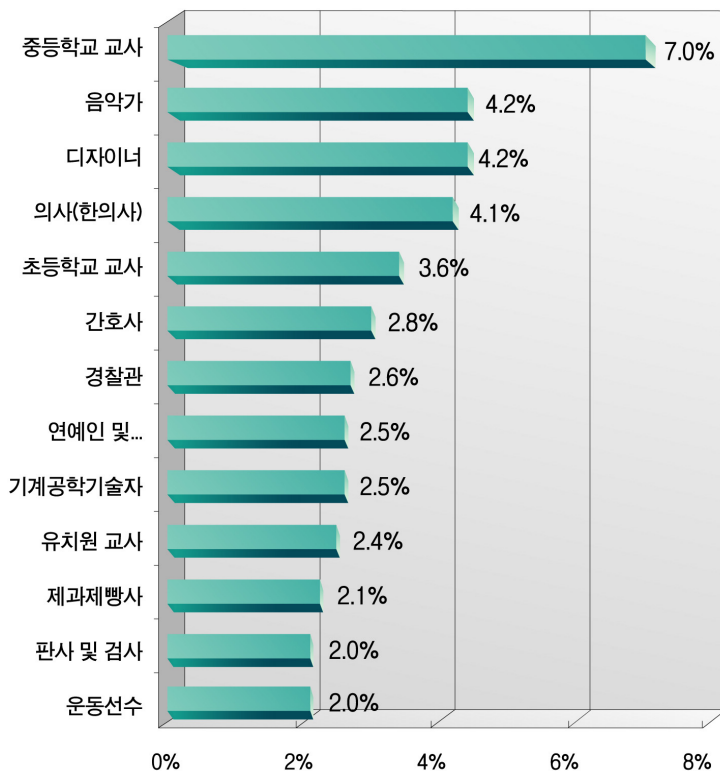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법률 및 공공 서비스	문화 예술	경영 및 기획	디자인 및 방송	개인 서비스	기계 및 재료	전기 전자 및 정보 통신	사회 복지 및 종교
전체		23.4	19.3	14.5	5.6	5.0	4.9	4.3	2.9	2.6	2.0
성별	남자	16.1	17.1	18.9	3.0	6.1	2.6	3.8	5.0	4.4	2.1
	여자	31.9	21.8	9.4	8.7	3.8	7.6	4.8	0.5	0.5	1.9
교육별	중학교	24.8	21.3	17.3	5.3	3.1	5.5	3.9	1.4	1.3	1.5
	일반계고	26.7	18.7	12.2	6.8	6.2	4.0	3.1	2.8	2.2	2.2
	전문계고	13.0	15.2	11.8	4.1	7.5	5.0	7.8	6.9	6.5	3.1
학년별	중1	24.7	24.2	17.3	5.3	2.7	4.6	3.2	1.2	1.4	1.3
	중2	23.6	21.2	17.8	6.1	2.6	6.5	4.4	1.2	1.1	0.8
	중3	26.1	18.8	16.8	4.6	4.0	5.4	3.9	1.9	1.5	2.3
	고1	22.7	14.6	13.5	8.3	3.8	4.4	5.0	4.8	3.8	2.2
	고2	22.9	21.7	11.2	3.9	6.6	3.4	4.1	3.5	4.5	2.9
	고3	20.9	16.3	11.5	5.5	10.0	5.4	4.7	4.0	2.4	2.3
거주지	서울	21.8	14.0	15.0	7.6	6.0	5.4	4.7	1.2	3.6	2.4
	광역시	24.1	19.3	13.0	4.8	5.5	5.1	3.9	4.5	3.1	1.4
	시·군	23.5	21.0	15.4	5.6	4.3	4.6	4.4	2.2	1.8	2.3

응답자의 특성		식품 가공 및 농림 어업	건설	군인	금융 및 보험	운송 및 여행	화학 섬유 및 환경	영업 및 판매	아직 없음	무응답	전체(빈도)
전체		1.7	1.5	1.4	1.0	0.8	0.7	0.3	0.1	8.1	100(6,509)
성별	남자	1.7	2.5	1.7	1.3	1.2	1.1	0.4	0.1	10.9	100(3,487)
	여자	1.7	0.4	1.0	0.8	0.2	0.2	0.1		4.7	100(3,022)
교육별	중학교	1.8	0.8	1.1	0.7	0.7	0.4	0.2		8.8	100(3,010)
	일반계고	0.8	1.9	1.3	1.4	1.0	1.1	0.3	0.2	7.0	100(2,364)
	전문계고	3.4	2.6	2.3	1.0	0.4	0.8	0.4		8.2	100(1,135)
학년별	중1	1.7	0.5	1.0	0.8	0.5	0.2	0.1		9.2	100(968)
	중2	2.0	1.3	0.8	0.4	0.9	0.4	0.1		9.0	100(1,024)
	중3	1.7	0.7	1.4	1.0	0.8	0.5	0.4		8.3	100(1,018)
	고1	2.6	1.1	1.6	1.3	0.7	0.4	0.2	0.1	8.9	100(1,236)
	고2	1.8	2.1	1.6	1.1	0.3	1.2	0.4	0.2	6.7	100(1,217)
	고3	0.5	3.4	1.7	1.5	1.3	1.5	0.4	0.1	6.4	100(1,046)
거주지	서울	1.6	1.9	1.4	1.5	1.3	1.0	0.4	0.3	9.1	100(1,015)
	광역시	1.7	1.0	1.5	1.1	0.7	0.7	0.3		8.2	100(2,274)
	시·군	1.8	1.8	1.2	0.8	0.7	0.6	0.2		7.6	100(3,220)

(3) 나의 장래 희망직업(세부 직업별)

‘나의 장래 희망직업’의 세부직업별 응답결과에서는 ‘중등학교 교사(7.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악가(4.2%)’, ‘디자이너(4.2%)’, ‘의사(한의사) 4.1%’순으로 나타남

○ ‘귀하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중등학교 교사(7.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가(4.2%)’, ‘디자이너(4.2%)’, ‘의사(한의사)(4.1%)’, ‘초등학교 교사(3.6%)’, ‘간호사(2.8%)’, ‘경찰관(2.6%)’,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2.5%)’, ‘기계공학기술자(2.5%)’, ‘유치원 교사(2.4%)’, ‘제과제빵사(2.1%)’, ‘판사 및 검사(2.0%)’, ‘운동선수(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50] 나의 장래 희망직업(세부 직업별)

〈표 V-172〉 나의 장래 희망직업(세부 직업별)

응답자의 특성		중등학교 교사	음악가	디자이너	의사 (한의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경찰관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기계공학 기술자	유치원 교사	제과 제빵사
전체		7.0	4.2	4.2	4.1	3.6	2.8	2.6	2.5	2.5	2.4	2.1
성별	남자	6.4	2.8	1.2	4.0	2.1	0.7	3.6	2.4	4.4	0.2	1.4
	여자	7.8	5.8	7.7	4.2	5.4	5.2	1.3	2.6	0.2	5.0	2.9
교급별	중학교	7.2	3.7	5.0	5.8	5.3	1.5	2.3	3.5	1.4	2.9	2.5
	일반계고	8.4	5.8	3.5	3.8	2.9	3.6	2.8	1.4	3.5	1.4	1.1
	전문계고	3.6	2.5	3.8	0.2	0.7	4.7	2.7	2.3	3.3	3.3	3.1
학년별	중1	4.5	3.5	5.4	6.8	6.4	0.9	2.1	2.9	1.7	2.5	3.0
	중2	7.8	4.3	4.9	6.2	6.1	1.0	2.1	3.8	1.0	2.7	2.4
	중3	9.1	3.2	4.6	4.4	3.5	2.5	2.7	3.7	1.7	3.4	2.1
	고1	8.4	6.2	3.7	2.2	2.3	2.3	3.2	1.9	3.6	1.2	2.4
	고2	5.8	3.5	3.2	3.9	2.4	5.1	2.9	1.6	2.8	2.7	1.8
	고3	6.2	4.3	3.8	1.6	1.7	4.4	2.1	1.5	3.9	2.3	0.8
거주지	서울	6.2	4.8	3.7	5.0	2.9	0.8	1.2	2.9	1.3	2.5	1.8
	광역시	7.3	4.3	4.5	3.3	3.3	3.5	3.1	2.6	3.7	2.8	1.9
	시·군	7.1	4.0	4.1	4.3	4.1	2.9	2.6	2.4	2.0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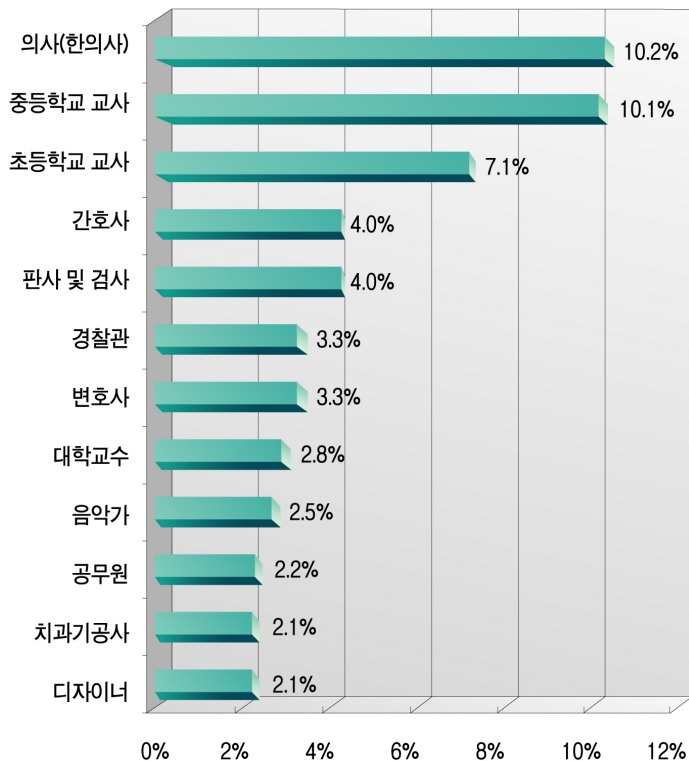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판사 및 검사	운동 선수	연구원	주방장 및 조리사	대학 교수	배우 및 모델	감독 및 연출자	건축공학 기술자	변호사	빈도
전체		2.0	2.0	1.9	1.8	1.7	1.5	1.4	1.4	1.3	6,509
성별	남자	2.6	3.3	2.4	2.2	1.9	1.5	1.1	2.1	1.7	3,487
	여자	1.2	0.4	1.3	1.5	1.4	1.6	1.8	0.6	1.0	3,022
교급별	중학교	2.6	3.0	2.2	1.9	2.2	1.8	0.9	0.7	2.3	3,010
	일반계고	1.4	0.7	2.2	1.3	1.3	0.8	2.2	2.2	0.5	2,364
	전문계고	1.4	1.9	0.2	2.9	1.0	2.2	0.9	1.5	0.4	1,135
학년별	중1	3.4	2.9	2.8	2.6	2.5	1.7	0.6	0.4	3.2	968
	중2	1.9	3.7	1.8	1.6	2.2	1.9	0.8	0.8	2.3	1,024
	중3	2.7	2.3	2.1	1.6	2.0	2.0	1.4	0.8	1.5	1,018
	고1	1.5	1.9	1.1	2.8	1.2	1.2	2.2	1.5	0.6	1,236
	고2	1.3	0.8	2.4	1.6	0.8	1.2	1.1	2.5	0.5	1,217
	고3	1.4	0.5	1.1	1.0	1.6	1.4	2.1	2.0	0.3	1,046
거주지	서울	1.6	2.7	1.7	2.6	1.8	1.8	2.1	1.5	2.2	1,015
	광역시	1.8	2.1	2.0	1.4	1.4	1.2	1.0	1.4	1.0	2,274
	시·군	2.3	1.6	1.8	2.0	1.9	1.6	1.5	1.4	1.3	3,220

주: 단위는 전체 6,509명에 대한 백분율이며, 1.3%이상의 자료만 제시하였음.

(4)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세부 직업별)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의 세부 직업별 응답결과에서는 ‘의사(한의사)’가 1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등학교 교사(10.1%)’, ‘초등학교 교사(7.1%)’ 순으로 나타남

○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의사(한의사)(10.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등학교 교사(10.1%)’, ‘초등학교 교사(7.1%)’, ‘간호사(4.0%)’, ‘판사 및 검사(4.0%)’, ‘경찰관(3.3%)’, ‘변호사(3.3%)’, ‘대학교수(2.8%)’, ‘음악가(2.5%)’, ‘공무원(2.2%)’, ‘치과기공사(2.1%)’, ‘디자이너(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51]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
(세부 직업별)

〈표 V-173〉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의 장래 직업(세부 직업별)

응답자의 특성		의사 (한의사)	중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판사및 검사	경찰관	변호사	대학 교수	음악가	공무원	치과 기공사
전체		10.2	10.1	7.1	4.0	4.0	3.3	3.3	2.8	2.5	2.2	2.1
성별	남자	11.8	7.6	3.2	0.7	5.4	5.0	4.1	2.8	1.4	2.5	2.5
	여자	8.5	13.0	11.6	7.9	2.4	1.4	2.3	2.8	3.7	1.8	1.8
교급별	중학교	14.2	9.1	8.6	2.0	5.3	3.1	5.2	3.9	2.0	1.5	2.6
	일반계고	9.1	13.5	7.5	4.1	2.9	3.4	1.8	2.4	4.0	2.8	2.0
	전문계고	2.2	6.0	2.6	9.3	2.8	4.0	1.3	0.8	0.6	2.6	1.1
학년별	중1	16.8	6.0	11.1	2.1	5.4	2.1	5.8	4.5	2.0	1.3	2.9
	중2	14.7	9.7	8.1	1.0	5.4	3.4	5.3	3.2	2.1	1.5	3.1
	중3	11.0	11.4	6.7	2.9	5.2	3.7	4.6	3.9	1.8	1.7	1.9
	고1	7.1	11.4	6.6	3.3	3.8	3.7	2.7	1.8	4.3	2.0	1.5
	고2	8.4	11.3	6.2	7.7	2.5	4.0	1.2	1.4	1.2	2.5	2.2
	고3	4.8	10.2	4.8	6.4	2.2	2.9	1.1	2.5	3.2	3.9	1.4
거주지	서울	9.4	8.7	6.1	0.8	4.3	2.5	4.5	3.8	3.1	1.8	2.1
	광역시	9.1	10.9	6.9	5.2	3.6	3.3	2.6	2.3	2.2	2.2	1.8
	시·군	11.3	10.0	7.6	4.2	4.2	3.7	3.4	2.8	2.5	2.3	2.4

응답자의 특성		디자인 이너	기계공학 기술자	약사 (한약사)	유치원 교사	연구원	주방장및 조리사	사회 복지사	아나운서 및 리포터	전자 공학 기술자	건축공학 기술자	빈도
전체		2.1	1.6	1.5	1.4	1.2	1.1	1.0	1.0	1.0	1.0	6509
성별	남자	0.8	2.9	1.0	0.1	1.7	1.3	0.8	0.3	1.8	1.5	3487
	여자	3.5	0.1	2.0	2.8	0.6	0.9	1.4	1.8	0.1	0.3	3022
교급별	중학교	2.1	0.9	1.4	1.3	1.4	0.9	0.5	1.4	0.4	0.7	3010
	일반계고	1.6	2.1	2.0	1.0	1.4	0.9	1.3	0.8	1.1	1.1	2364
	전문계고	2.8	2.4	0.6	2.4	0.2	1.9	2.1	0.4	2.5	1.3	1135
학년별	중1	1.5	0.6	1.2	1.0	1.3	0.9	0.7	0.9	0.6	0.3	968
	중2	2.4	0.8	1.2	0.9	1.4	1.0	0.3	2.2	0.2	1.1	1024
	중3	2.4	1.3	1.7	2.0	1.4	0.9	0.4	1.1	0.3	0.6	1018
	고1	1.8	2.6	1.5	1.3	1.0	1.9	1.1	0.9	1.8	0.8	1236
	고2	1.6	1.8	1.7	1.8	1.0	1.0	2.2	0.5	1.3	1.4	1217
	고3	2.7	2.2	1.3	1.2	1.0	0.9	1.2	0.6	1.5	1.4	1046
거주지	서울	1.8	0.8	0.8	1.4	1.0	1.7	1.4	1.1	0.7	1.4	1015
	광역시	2.5	2.5	1.7	1.6	1.4	0.9	0.6	1.0	1.3	0.7	2274
	시·군	1.8	1.2	1.5	1.2	1.1	1.1	1.3	1.0	0.9	1.0	3220

주: 단위는 전체 6,509명에 대한 백분율이며, 1.0%이상의 자료만 제시하였음.

■ 배경변인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과 과제

청소년들의 진로계획과 관련한 본 지표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의 일상생활, 특히 부모에 의한 높은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청소년 개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1.3%에 달한다. 비록 부모의 영향력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가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중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자녀의 진로개발을 위해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진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부모가 자녀의 진로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진로·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학교나 진로 관련 기관 및 매체가 아닌, ‘인터넷 포털’이라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53.1%). 이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들의 진로개발을 촉진하는데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 서비스 인프라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과 같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환경들이 정확한 진로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매체나 요소들을 진로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중학교 졸업 후 고교 진학을,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계획에서 직업교육 트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학생 가운데 전문계 고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다. 반면 중학생 3명 가운데 1명 정도(30.6%)는 졸업 후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결정은 진학 여부보다

는 진학의 내용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높은 미결정 비율은 중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교생 가운데에는 특히 전문계 고교생의 미결정 비율(15.4%)이 높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11.6%(진학 및 취업 병행을 포함하면 16.9%)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계 고교생이 적극적인 진로 교육 서비스의 대상자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육 및 연구 관련직(17.5%)’,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28.6%)’, ‘의료 및 보건 관련직(39.2%)’, ‘문화예술 관련직(10.4%)’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4개 영역에 전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의 49.6%가 몰려있다. 구체적인 세부직업 수준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음악가, 디자이너, 의사 및 한의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경찰관,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기계공학기술자 등을 선호하고 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의 상위 10개에 응답자의 35.9%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이들이 생활하는 영역에 국한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영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업들이라는 것이다. 교사, 의사, 간호사, 경찰관,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사, 의사, 간호사, 판사 및 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대안이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영역 역시 확장하는 계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VI.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정책적 활용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시사점

VI.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정책적 활용

이 장에서는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직업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두 편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결과 분석 보고는 ‘한국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향 분석’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조사결과 분석 보고는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관련 변인’에 대한 것이다.

조사결과 분석 보고 1

한국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향 분석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는 미국 Ginsberg 등(1951)의 중단연구 이후 꾸준히 검증되어 오고 있지만(Super, 1953, 1984; Gottfredson, 1981),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를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다. 진로발달의 대표적 지표는 진로성숙도인데, 실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로의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다른 입장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분명히 진로에서 있어 발달하고 있지만, 진로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진로성숙도 측정도구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민감하지 못한 척도라

는 것이다. 진로발달은 어느 영역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으로 미국의 진로발달 단계와 그에 입각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진로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후자의 입장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진로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가 새롭게 정의되고(이영대 외, 2004),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로발달 과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이성진 외, 2008)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진로·직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역별 진로발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첫째, 진로발달의 중요한 영역인 일에 대한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 면에서 어떤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둘째, 진로발달의 주요 영역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일에 대한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출하고, 각 변인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이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의 중요한 영역들의 발달경향이 진로교육에 만족한 집단과 만족하지 않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2점 이하인 집단을 진로교육 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이상인 집단을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각각에 대해 첫 번째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볼 것이다. 각 지표별 변량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195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Ginzberg 등의 진로발달이론은 1930년대 후반 이래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되어 왔던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광범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개발된 것으로 경제학자, 정신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은 10년이 넘는 종단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직업선택이 삶의 어느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본가정을 갖게 되었고, 1972년과 1984년 두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희영, 2003). Ginzberg 등(1951)의 종단연구에서 출발하여 Super(1953), Crites(1961), Gottfredson(1981)에 이르는 한 진로에 관한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의 진로발달 정도를 진로성숙도로 명명하고 있다.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은 청소년의 직업 흥미의 발달을 연구했던 Carter(1940)와 직업행동은 나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제안한 Strong(1943)의 연구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Dysinger(1950)가 최초로 진로성숙(Vocational Matur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진로성숙도라는 개념을 진로 관련 연구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Super(1955)라고 보고 있다.

1) Super의 진로발달 모형

진로발달의 지표로서 진로성숙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Super(1955)는 1974년에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발달시켜야 할 진로

발달의 차원을 6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 (1)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앞으로 해야 할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태도 측면
- (2) 직업에 대한 정보와 계획: 미래 진로결정 및 이미 성취된 과거의 계획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구체성과 관련된 능력 측면
- (3) 직업선택도의 일관성: 선택도에 있어서의 개인의 일관성
- (4) 특성의 구체화: 자아개념 형성을 향한 개인적 과정
- (5) 직업적 독립성: 일의 경험에서의 독립성
- (6) 직업선택의 현명성: 개인적 과업과 일관된 현실적인 선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적 측면(Zunker, 1994: 33-3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Super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 진로발달의 이론적 모형은 ① 생애발달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 태도, ② 탐색에 대한 태도, ③ 교육정보 및 직업정보, ④ 의사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⑤ 현실성의 5차원으로 다시 정리되었다. 진로유형연구에서 마지막 차원인 현실성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Super와 그의 동료들은 현실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DI)를 개발하였다. CDI는 ‘적합한(sound) 교육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Thompson, Lindeman, Super, Jordaan, & Myers, 1981: 7).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CDI는 1979년에 출간된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용(School Form)과 1982년에 출간된 대학생을 위한 대학교용(College & University Form) 두 가지가 있다. 80문항으로 구성된 CDI 제 1부는 진로발달 태도(CDA)와 진로발달 지식 및 기술(CDK)의 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발달에 대한 태도는 진로계획(CP)과 진로탐색(CE)으로,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은 의사결정(DM)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WW)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 네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체적인 진로성향(COT)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CDI에서 얻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진로성숙의 예측치 이다.

CDI의 제 2부는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평가해 준다. 선호 직업군에 대한 지식(PO) 척도는 선다형의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예를 들면, 고용기회 또는 요구되는 교육수준에 대한 정답)은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제2부는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가 아닌 특정 직업세계와 관련된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서 제1부와 다르다. 제2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2) Crites의 진로발달 모형

1961년 자신의 진로발달 모형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Crites는 1978년 지능 위계 모형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진로발달 모형의 위계 모형을 검증하였다(Crites, 1996). Crites의 진로발달 모델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는 요인의 위계체제를 가지고 있다. 지능검사의 일반요인인 g요인과 유사한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요인이 있고, 몇몇의 영역(group) 요인이 있고, 수많은 특수(specific) 요인이 있다고 한다. 영역 요인은 진로계획 내용(일관성 및 진로선택의 범위)과 진로계획 과정(태도 및 능력)의 두 가지 이다. 즉, 이모형에 의하면 진로성숙은 진로선택의 내용(career choice content)과 진로선택의 과정(career choice process)으로 구분된다.

Crites(1978)는 진로발달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진로발달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개발하였다. CMI는 CDI와 마찬가지로 진로계획의 과정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CDI와 마찬가지로 진로계획 태도와 진로계획 능력의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들만이 CDI의 하위척도들과 다르다.

CMI의 하위척도는 75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100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척도의 세부척도를 보면, 태도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능력은 자기평

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등이다. 또한 CMI는 CDI와는 달리 태도총점이라는 하나의 총점 점수만을 갖는다. 태도척도 가운데 50개 문항은 선별척도로 별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CMI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가 실시되었다. 성별로도 서로 다른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이하이고, 손으로 채점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채점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이 CMI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진로성숙도검사’로 개발하였다.

Crites(1978)는 이론적 기준, 연령 및 학년에 따른 분화의 측면에서 CMI 문항들을 만들었다. 타당화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CMI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태도 총점은 학교 및 직장에서의 수행 및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능력 척도는 준거타당도가 충분하지 않다(Healy, 1994). Healy에 따르면 태도 척도는 진로발달 연구, 진로성숙도 선별, 진로교육의 평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능력 척도는 실험용 측정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 진로 관련 연구에서도 태도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진로발달 진단도구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발달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기 보다는 서구의 진로발달 모형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진로발달 모형에 따라 개발된 서구의 진로발달 검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진로의식발달 검사(임인재, 1990), CMI에 바탕을 둔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장석민 외, 1991), 고등학생용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이기학, 1997), 초등학생용 진로발달 검사(안창규, 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임연 외, 2001)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는 다

음의 세 가지 목적으로 새롭게 문항을 구성하고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진로성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총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진로지도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언어능력과 일반적 인지능력과의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셋째, 검사의 과정 자체가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넷째, 진로성숙만이 아니라 진로미결정의 이유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임언·정운경·상경아, 2001). 총 135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검사는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고, 태도는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의 하위검사, 능력은 자기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의 하위검사,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보면, 모집단의 학교급별, 지역별, 계열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유층표집을 한 결과 전국의 79개 중·고등학교로부터 2,161명의 중학생, 1,956명의 일반계 고등학생, 1,219명의 실업계 고등학생이 참여하여 모두 5,336명이 규준집단에 포함되었다. 검사의 규준은 각 하위영역별로 중2, 중3, 고1, 고2의 전체 집단 및 성별 규준을 제작하였다. 하위영역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값의 범위는 0.68~0.9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각 하위영역별로 진로준비행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신뢰도 계수가 0.61에서 0.73이다.

4)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이렇게 개발된 진로발달 검사 도구를 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문제의 양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진로성숙도 검사에서 나타난 원점수의 변화 양상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일관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진로성숙도란 진로발달의 지표로 자기 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하여 선택·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발달단계의 진단과 더불어 진로 의식과 태도,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선택·결정 등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다. 따라서 진로성숙도 검사의 원점수(규준을 활용하여 표준점수로 전환하기 이전 점수)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표준화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 원점수의 학년별 평균을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꾸준한 증가세를 찾아볼 수 없다. 진로발달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기 보다는 어떤 하위척도는 더 증가하기도 하고, 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도 하고, 변화하지 않기도 하며, 그 변화의 크기도 적은 편이다. 이는 **CMI**의 검사요강에 소개된 미국 청소년의 경우와는 다르다. 미국의 **CMI** 검사결과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평균이 높아지는 발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직업세계 인식에서 발달이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직업에 대한 포부 그리고 인식의 형성, 발달과정을 연구한 황매향·김지현·유정이(2003)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Gottfredson**을 비롯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만 13세경이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실제 직업세계의 지위 서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 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직업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자신의 희망 직업 목록에서 제외되었거나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희망 직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외시켰던 직업들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들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직업의 사회적 서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흥미나 가치관 또는 적성들을 직업 포부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쉽게 지각될 수 있는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자기 자신의 내부세계에 대한 이해보다 선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509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표집 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전문계,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골고루 표집 되었다. 또한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분포와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표 VI-1>과 같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1〉 조사대상의 학년별·성별 분포

학년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중 1	462	47.7	506	52.3	968	100
중 2	546	53.3	478	46.7	1,024	100
중 3	524	51.5	494	48.5	1,018	100
고 1	692	56.0	544	44.0	1,236	100
고 2	633	52.0	584	48.0	1,217	100
고 3	630	60.2	416	39.8	1,046	100
전 체	3,487	53.6	3,022	46.4	6,509	100

2) 연구 도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과 진로교육 및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의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그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진로발달의 지표로 일에 대한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을 선정하였고, 일에 대한 가치는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로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진로미결정 수준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정보를 탐색하는 탐색행동과 자신이 정한 진로에 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준비행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진로·직업 역량은 영역에 따라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의사결정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문항으로 구성한 하위 척도들의 요인 수렴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 번호와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VI-2>와 같다.

<표 VI-2> 하위 척도별 문항 번호 및 내적 합치도 계수

하위 척도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일에 대한 가치	내적 가치 추구	문1의 1,2,5,6,7,8,9,10,11,12	.805
	외적 가치 추구	문1의 3,4,13,14,15	.724
성공요인 귀인	내적 귀인	문2의 2,3,5,6,10,11	.812
	외적 귀인	문2의 1,4,7,8,9	.659
진로미결정	결정성	문3의 1,2,3	.887
	확신성	문3의 4,5	.766
	준비성	문3의 6,7,8	.735
	독립성	문3의 9,10	.711
진로 준비행동	진로탐색	문8의 1,2,3,4,5,6	.715
	진로개발	문8의 7,8,9,10	.707
	준비행동 전체	문8 전체	.818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문21의 1,2,3,4	.802
	직업세계이해	문21의 5,6,7,8,9,10,11	.876
	의사결정	문21의 12,13,14,15,16,17,18,19,20,21	.888
	역량 전체	문21의 전체	.905

또한 진로교육에 따른 진로발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4-1의 12번 문항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진로교육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을 구분하였다.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2점(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하인 집단을 진로교육에 불만인 집단으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4점(도움이 되었다) 이상인 집단을 진로교육에 만족한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에 만족한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1,177명, 진로교육에 불만인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2,054명으로 구분되었다. 나머지 ‘보통이다’에 응답한 3,278명은 진로교육 집단별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4.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 지표로 선

정한 일에 대한 가치(내적 가치, 외적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내적 귀인, 외적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지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에 대한 가치의 발달

청소년 시기는 생애가치관 발달과 함께 일에 대한 가치관(직업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특히,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일에 대한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응답한 내용을 학년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외적 가치의 감소나 내적 가치의 감소가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VI-3>과 <표 VI-4>는 일에 대한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보다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외적 가치 추구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그 이후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을 통해 성취감을 갖거나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일이 주는 내적 가치보다는 많은 돈을 벌거나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주는 외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VI-3> 내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9	3.94	.53	1.046	.389	.
중 2	1,020	3.93	.51			
중 3	1,014	3.92	.52			
고 1	1,232	3.94	.52			
고 2	1,203	3.92	.52			
고 3	1,031	3.96	.55			
전 체	6,459	3.93	.52			

<표 VI-4> 외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7	3.92	.60	4.512	.000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18	3.98	.59			
중 3	1,016	3.98	.62			
고 1	1,236	4.03	.61			
고 2	1,214	4.00	.62			
고 3	1,041	4.00	.64			
전 체	6,482	3.98	.62			

* $p<.05$, ** $p<.01$, *** $p<.001$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의 발달

청소년 시기가 되어 미래의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도 발달하게 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운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성실성이나 자기개발과 같은 내적 요인이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된다.

이러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5>과 <표 V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내적 귀인 수준이 외적 귀인 수준보다 높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 환경보다는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바람직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적 귀인의 수준이나 외적 귀인의 수준이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적 귀인의 경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은 예외였다. 외적 귀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 중학교 1학년 집단만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외적 귀인을 보였다. 즉, 일에 대한 가치 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발달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표 VI-5>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3	4.27	.56	3.747	.002	중1,중2, 중3,고2< 고1,고3
중 2	1,020	4.23	.56			
중 3	1,017	4.26	.55			
고 1	1,233	4.31	.54			
고 2	1,209	4.26	.54			
고 3	1,041	4.32	.56			
전 체	6,483	4.28	.55			

* $p<.05$, ** $p<.01$, *** $p<.001$

<표 VI-6> 성공요인에 대한 외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75	.66	2.901	.013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23	3.69	.66			
중 3	1,016	3.70	.65			
고 1	1,233	3.69	.70			
고 2	1,214	3.65	.64			
고 3	1,041	3.67	.66			
전 체	6,492	3.69	.66			

* $p<.05$, ** $p<.01$, *** $p<.001$

3)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발달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수준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구인이다. 어릴 때는 진로미결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발달적으로 정상이라고 간주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진로결정 수준은 현재 얼마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결정성, 그 결정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신성,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준비성,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독립성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에서의 수준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본 결과는 <표 VI-7>, <표 VI-8>, <표 VI-9>, <표 VI-

-10>과 같다.

전반적인 진로의사결정 수준으로 볼 때 결정성과 확신성 수준은 준비성과 독립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즉,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 면에서는 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운 평균을 보이고 있지만, 진로를 결정한 여부나 그 결정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연령별 변화에서는 준비성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준비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발달 지표로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VI-7> 진로의사결정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6	3.22	1.05	14.946	.000	중2,고2< 중3,고1< 중1,고3
중 2	1,021	2.97	1.07			
중 3	1,018	3.06	1.07			
고 1	1,235	3.04	1.04			
고 2	1,214	2.92	1.05			
고 3	1,042	3.23	1.09			
전 체	6,496	3.07	1.07			

* $p<.05$, ** $p<.01$, *** $p<.001$

<표 VI-8> 진로의사결정 확신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19	.99	8.428	.000	고2<고1< 중2,중3< 중1,고3
중 2	1,021	3.13	.96			
중 3	1,015	3.10	.98			
고 1	1,233	3.06	.94			
고 2	1,215	2.97	.93			
고 3	1,041	3.18	.97			
전 체	6,490	3.10	.96			

* $p<.05$, ** $p<.01$, *** $p<.001$

<표 VI-9> 진로의사결정 준비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4	3.64	.86	57.149	.000	중1,중2<중3<고1,고2<고3
중 2	1,019	3.64	.83			
중 3	1,014	3.78	.80			
고 1	1,231	3.91	.82			
고 2	1,217	3.97	.81			
고 3	1,044	4.11	.74			
전 체	6,489	3.85	.83			

* $p<.05$, ** $p<.01$, *** $p<.001$

<표 VI-10> 진로의사결정 독립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81	.98	2.635	.022	고2<중1,중2,중3,고1<고3
중 2	1,021	3.83	.90			
중 3	1,016	3.75	.94			
고 1	1,235	3.78	.92			
고 2	1,214	3.73	.91			
고 3	1,044	3.84	.89			
전 체	6,495	3.79	.92			

* $p<.05$, ** $p<.01$, *** $p<.001$

4)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진로준비행동이란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실제 얼마나 활발히 행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거나 진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진로정보 탐색행동과 실제 결정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개발을 하는 등과 같은 진로개발 준비행동으로 나뉘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정보 탐색행동의 수준은 <표 VI-11>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보통 이하로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보 탐색행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발달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VI-11> 진로정보 탐색행동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6	2.67	.97	38.267	.000	중1,중2<중3<고1,고2<고3
중 2	1,016	2.66	.72			
중 3	1,013	2.83	.75			
고 1	1,230	2.95	.75			
고 2	1,209	2.91	.71			
고 3	1,043	2.99	.74			
전 체	6,467	2.84	.75			

* $p<.05$, ** $p<.01$, *** $p<.001$

진로개발 준비행동 역시 <표 V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진로개발 준비행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년별 변화를 보면, 비교적 학년별 차이가 적고 연령 증가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도 않는다.

<표 VI-12> 진로개발 준비행동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6	2.87	.87	8.449	.000	중2,고2<중1,중3,고3<고1
중 2	1,015	2.74	.83			
중 3	1,012	2.85	.83			
고 1	1,229	2.91	.82			
고 2	1,214	2.73	.80			
고 3	1,043	2.80	.83			
전 체	6,469	2.82	.83			

* $p<.05$, ** $p<.01$, *** $p<.001$

진로준비행동 전체 점수의 수준도 <표 VI-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학년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보다 낮아 중학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1	2.75	.98	18.128	.000	중1,중2< 중3,고2< 고1,고3
중 2	1,013	2.69	.90			
중 3	1,012	2.84	.94			
고 1	1,229	2.94	.92			
고 2	1,207	2.84	.91			
고 3	1,043	2.91	.89			
전 체	6,455	2.83	.92			

* $p<.05$, ** $p<.01$, *** $p<.001$

5) 진로·직업 역량의 발달

진로·직업 역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고한 자기이해 정도는 평균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표 VI-14〉 참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년별 자기이해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를 보면, 중학생들의 자기이해 수준이 고등학생들의 자기이해 수준보다는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이해 수준이 높아진다는 진로발달 이론을 지지하면서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어 연령 증가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는 변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VI-14〉 자기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5	3.53	.97	10.356	.000	중2<중1, 고2<고1 <중3,고3
중 2	1,013	3.45	.72			
중 3	1,009	3.63	.75			
고 1	1,228	3.58	.75			
고 2	1,205	3.53	.71			
고 3	1,042	3.67	.74			
전 체	6,452	3.56	.75			

* $p<.05$, ** $p<.01$, *** $p<.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자기이해 수준 보다는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학년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변화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표 VI-15> 직업세계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46	3.16	.79	7.526	.000	고2<중1, 중2<중3, 고1,고3
중 2	1,008	3.10	.81			
중 3	1,007	3.23	.76			
고 1	1,227	3.19	.75			
고 2	1,201	3.06	.75			
고 3	1,033	3.19	.78			
전 체	6,422	3.15	.78			

* $p<.05$, ** $p<.01$, *** $p<.001$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수준은 <표 VI-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변인으로 진로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표 VI-16>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49	3.67	.79	6.562	.000	중1,중2<중3<고1, 고2,고3
중 2	1,002	3.70	.81			
중 3	1,005	3.75	.76			
고 1	1,222	3.78	.75			
고 2	1,197	3.79	.75			
고 3	1,032	3.79	.78			
전 체	6,407	3.75	.78			

* $p<.05$, ** $p<.01$, *** $p<.001$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의사결정 능력을 합산하여 진로·직업 역량 점수를 산출하고, 학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진로·직업 역량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고, 대체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진로·직업 역량도 높아지고 있다. 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VI-17> 진로·직업 역량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38	3.46	.62	8.66	.000	중1,중2, 고2<중3, 고1,고3
중 2	995	3.41	.61			
중 3	1,003	3.53	.60			
고 1	1,219	3.52	.57			
고 2	1,194	3.46	.55			
고 3	1,022	3.55	.58			
전 체	6,371	3.49	.59			

* $p<.05$, ** $p<.01$, *** $p<.001$

6) 진로교육의 효과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진로발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교육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내용과 연구도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로교육에 만족한 정도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하고, 만족한 집단과 만족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교육을 받은 횟수보다는 질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진로교육 수혜 정도를 구분하였다. 두 집단의 진로발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8>과 같다.

진로교육에 만족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진로발달 영역은 일에 대한 내적 가치 추구,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외적 귀인, 진로결정성, 의사결정 확신성, 의사결정 독립성, 진로 탐색 행동, 진로개발 행동, 자기이해, 직업이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에 대한 외적 가치 추구하고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성,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진로교육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세 가지 영역은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 자체가 청소년 시기 진로교육의 영향 보다는 청소년기 이전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VI-1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 차이

하위 척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일에 대한 가치	내적 가치	불만족	2,043	3.93	.54	32.196	.000
		만족	1,162	4.04	.52		
	외적 가치	불만족	2,050	4.00	.63	.446	.504
		만족	1,169	3.99	.61		
성공 요인 귀인	내적 귀인	불만족	2,048	4.27	.56	26.134	.000
		만족	1,170	4.38	.53		
	외적 귀인	불만족	2,051	3.63	.68	42.731	.000
		만족	1,174	3.79	.65		
진로 미결정	결정성	불만족	2,051	2.97	1.14	95.769	.000
		만족	1,172	3.36	.98		
	확신성	불만족	2,049	3.07	.99	4.157	.042
		만족	1,171	3.15	1.02		
	준비성	불만족	2,048	3.96	.86	.918	.338
		만족	1,174	3.94	.77		
	독립성	불만족	2,050	3.90	.87	47.398	.000
		만족	1,176	3.65	1.10		
진로 준비 행동	진로 탐색	불만족	2,045	2.82	.77	72.038	.000
		만족	1,168	3.06	.78		
	진로 개발	불만족	2,044	2.69	.86	222.375	.000
		만족	1,170	3.15	.82		
	준비 전체	불만족	2,041	2.77	.73	151.416	.000
		만족	1,164	3.10	.73		
진로·직업 역량	자기 이해	불만족	2,040	3.58	.84	23.850	.000
		만족	1,165	3.72	.76		
	직업세계 이해	불만족	2,030	3.05	.84	126.996	.000
		만족	1,159	3.39	.78		
	의사 결정	불만족	2,036	3.80	.67	2.595	.107
		만족	1,154	3.84	.66		
	역량 전체	불만족	2,012	3.48	.61	59.010	.000
		만족	1,149	3.65	.61		

* $p<.05$, ** $p<.01$, *** $p<.001$

5. 논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509명의 응답내용 중 진로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직업가치 추구,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지각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에 대한 직업가치 추구는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진로의사결정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진로·직업 역량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발달 수준으로 볼 때, 일에 대한 가치 추구하고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진로·직업 역량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진로의사결정에서는 결정성과 확신성이 특히 낮았고, 진로·직업 역량에서는 직업세계 이해 수준이 특히 낮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발달 영역 가운데, 진로의사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확신, 진로준비행동, 직업세계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각 영역의 학년별 변화를 통해 발달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진로의사결정 준비성, 진로정보 탐색행동,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만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즉, 이 세 가지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또래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성숙도라는 하나의 큰 개념으로 진로발달에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양상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는데, 이와 같이 영역별 발달양상을 살펴보아 현 상태에서의 적합한 지표를 추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나머지 발달 영역은 이론적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이 기대되지

만, 이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 추구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지각은 이미 너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높아지면서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다. 일에 대한 가치의 경우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도 다른 연구(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에서 확인된 수준보다도 높다. 이러한 모든 직업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모습은 가치가 분화되지 못한 발달단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각 역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어떤 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진로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업가치의 분화와 성공요인에 대한 현실감 향상이 앞으로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발달에서 낮은 수준에 머문 진로의사결정 수준, 결정에 대한 확신성, 진로준비행동은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사항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고민사항 중 진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진로미결정 상태는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결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진로결정을 요청받는 상황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시기는 확신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계열 선택을 앞둔 혼란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결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진로탐색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부분도 지도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항내용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양을 추출하기도 어렵고, 교육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할 것으로 간주하여, 진로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진로교육에 만족한 집단과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진로교육에 만족했던 학생들이 외적 가치 추구, 진

로결정 준비성,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에 있음이 나타났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는 진로발달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은 청소년들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 내면화될 때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증거로, 진로교육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얼마나 내면화되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모두 응답자의 지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고흥월(2007)의 연구에서 이미 의사결정을 했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의 결정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결정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진로발달 수준을 자기 보고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진로·직업 역량 중 자기이해 점수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자료와 함께 관찰자료,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등 보다 객관화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발달 경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집단을 나누고, 각 진로발달 영역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횡단적 분석으로 진정한 발달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교육은 최근 직업세계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생애개발 측면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선택, 준비 및 결정을 돕고,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학교’에서 ‘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평생 5~7번의 직장을 전환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용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정윤경, 2005).

진로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는 진로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6), 한국청소년상담원(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33개 중·고등학교 2,2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고민유형과 대처방식, 학업과 친구관계, 여가활동 유형, 용돈실태, 인터넷·휴대전화·전화사용 실태, 외모 다이어트, 성형실태, 진로, 미래관 등의 항목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는 진로(39.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 및 학교 부적응(23%), 생활태도 및 습관(20.6%), 성격(14.5%), 가족(10.2%), 정신건강(8.7%), 대인관계(6.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근래 들어 몇 년 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청년 실업의 문제 및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심각성과 더불어 교육정책 입안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연구자 모두의 지속적인 고민과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진로개발 역량이란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포함한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하는 진로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1950년대에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급격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생물학적이 ‘발달’보다는 개인의 의지가 내포된 ‘개발’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호되는 개념이다(임언, 2004).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공교육제도를 수립한 이래 1950년대 초부터 학생 이해를 위한 지능, 적성, 흥미검사 등의 심리검사 도입, 1950년대 후반의 생활지도의 일환인 ‘직업지도’의 실시, 1966년부터 ‘진로지도’라는 용어 사용, 1970년대 후반의 진로교육 이론 도입, 1986년 이후 평생 교육 차원으로의 도약, 2007년도에 실시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 진로교육 영역의 포함 등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최균출, 2004). 또한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7)’에 의하면 응답자의 61.1%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 진로와 관련한 강연 및 수업을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88.5%는 진로 관련 적성검사를, 62.0%는 진로 관련 상담을, 60.3%는 진로 관련 책이나 잡지를 읽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과정 내 선택 교과인 「진로와 직업」은 일반계 고교의 55.6%, 전문계 고교의 44.3%가 선택·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형적인 발전 역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연 이러한 진로교육의 외형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이라는 질적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진로발달의 투입 및 과정 요소로서 학교급·성별·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취와 같은 개인 변인, 학교와 가정, 공공 기관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이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등이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진로교육 성과 분석의 관점에서 개인, 가정, 학교 관련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진로교육 성과 분석의 관점에서 개인, 가정, 학교, 기관 관련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진로개발³⁾ 역량 개념

3) 영어의 ‘career development’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진로발달’, ‘진로개발’, ‘경력개발’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경력개발’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HRD를 위하여 조직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에 비하여 ‘진로발달’과 ‘진로개발’은 서로 혼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인간 발달의 특수영역의 하나로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로발달’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이라는 광범위한 진로지도 강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career development는 개인적 심리적 과정으로서 발달이라는 개념보다, 사회적·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달심리학적인 진로발달이라는 용어에 비해 ‘진로개발’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진미석·윤형한,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로교육의 정책 방향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진로발달’보다는 ‘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인생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이 개인의 생애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Osipow, 1996; 이지연, 2000). ‘career development’는 진로개발(進路開發)과 경력개발(經歷開發)이란 용어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학령기 학생에게는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청소년의 핵심 진로개발 과업이므로 ‘앞으로 나가는 길’인 ‘進路’로 사용되며,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개발과 더불어 일컬어진다. 반면 일정한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 체제 밖 성인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효과적 구직활동·직장적응·직업전환·은퇴계획 등과 같은 일련의 직업생활에서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 혹은 직장 전환의 수평이동 과정이 성인의 핵심 진로개발 과정이 되므로 ‘경험한 역사(history)’의 의미인 ‘經歷’이 통상적으로 지칭되며, 경력개발, 경력 상담 등의 용어와 함께 일컬어지고 있다(이지연, 2000; 이지연, 2001; 김나라,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령기 학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로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Career Development 진로발달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에 발달적인 관점에서 직업 선택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Ginzberg 등이 직업선택은 발달적인 과정이며 수년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이론을 발표하면서 진로발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Patton & McMahon, 1999). 이러한 발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진로발달도 발달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발달의 기본원리를 따른다고 간주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형성된 진로발달 이론들은 ① 연속성의 원리, ②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원리, ③ 패턴의 원리, ④ 현저성(pre-eminence)의 원리, ⑤ 분화와 통합의 원리, ⑥ 속도 차의 원리, ⑦ 상호작용의 원리, ⑧ 개인차의 원리 등을 기본전제로 형성되었다(이희영, 2003).

그 이후 진로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과 관점들이 등장하면서 진로발달의 개념들은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예를 들어 Sears(1982)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 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경제적, 우연적 요소들의 총화(constellation)라고 규정하였으며, Herr와 Cramer(1996)는 진로발달에는 특정한 진로패턴의 형성, 의사결정 유형, 생애역할의 통합, 가치관의 표현, 생애역할(life-role)에 대한 자기 개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진로개발 또는 진로발달에 대한 개념들은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직업의 선택, 취업, 직장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감정, 태도, 가치관, 자기개념 등의 정의적인 경험들 그리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대인관계적·문화적·정치적 요인들이 모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로개발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만의 독특한 진로경로(career path)가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여기에서 최근 ‘진로발달’이라는 용어보다 ‘진로개발’이라는 용어가 보다 선호되는 것은 급격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생물학적이 ‘발달’보다는 개인의 의지가 내포된 ‘개발’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career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초기에는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심리발달 일부로서 간주하여 ‘진로성숙’이라는 용어와 거의 혼용되었다. 그러나 진로발달의 과정이 심리학적 발달의 일반적 전제라 할 수 있는 비가역성의 원리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전 생애를 걸쳐서 순환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진미석·윤형한, 2003), 수동적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구성하는 의지의 측면이 부각(최동선, 2003)되는 가운데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은 기업과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인간의 특성 중 하나로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예언적 요인으로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김도연, 2008; McClelland, 1973).

이러한 역량이 진로발달 분야에 적용되어 진로 역량, 혹은 진로개발 역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기존의 진로(개발)역량은 직업 또는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식, 기술(skill) 및 태도를 의미하는데, 평생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재정의 하면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선택, 준비, 비교 및 평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skill) 및 태도로 정의된다(박가열,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 역량이란 ‘개인이 자기 주동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포함한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하는 진로개발(임연, 2004)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진로개발 역량 관련 변인

진로개발 역량 관련 변인으로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었으나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진로개발 역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물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진로개발 역량에 진로성숙도 개념을 포함하여 정리한 결과임을 밝힌다.

(1) 개인 특성 변인

진로개발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성별(gender), 연령(age), 그리고 학교유형 등이 대표적일 수 있다.

① 성별

진로개발 역량을 남녀별로 비교한 연구들은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김경령, 2001; 정운경, 2005)와 남녀 수준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김관용, 1996)도 있다. 그러나

남자보다는 여자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다소 많다(김상혁, 2001; 권소희, 1996; 오송남, 2003; 이승중, 2003; 장인규, 1998).

② 학년

진로개발 역량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다(Achbe, 1982; 김현옥, 1989; 이효정, 2001). 반면에 권소희(2000)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개발 역량 점수가 조금씩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다고 하였으며, 정채기(199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윤경(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전문계 고교, 일반계 고교 중 일반계 고교가 중학교와 전문계 고교보다는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으나 전문계 고교와 중학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학교 계열(일반계와 전문계)

김상혁(2001)은 고등학교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비교 연구에서 하위 영역으로서 계획성, 결정성, 직업이해, 직업선택, 의사결정 능력에서 일반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고, 전체 점수에 있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종찬(1998), 김선희(2000), 정윤경(2005)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경옥(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이 일반계, 전문계 학생들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나라(2008)의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교생과 일반계 고교생의 진로인식 차이가 입학 이후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학업 성적

형문정(2002), 오송남(2003), 이효자(1993) 등 여러 연구들이 학업성취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점수 전체 또는 하위 변인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김관용(1996)은 두 변인 사이의 부적 관계를, 김경령

(2001) 등은 학교성적과 진로개발 역량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⑤ 일에 대한 가치

정은주(2005)는 일의 외적 가치보다는 일의 내적 가치 요인이 진로개발 역량에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권소희(1996), 이기학(1997) 등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여 일에 대한 가치에 있어 내재적 가치가 외재적 가치보다 진로개발 역량과 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⑥ 아르바이트 경험

전방연(2003)은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차이를 연구한 결과 51.6%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영역인 일에 대한 태도와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 영역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윤경(2005)은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밝히고 있다.

⑦ 진로준비행동

최숙현(2008)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개발 역량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경옥(2002)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진학상담자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하위요인인 계획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에게 상의하는 집단의 계획성과 독립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계획 정도에 있어서는 진로개발 역량 중 결정성만이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세계 이해에 있어서는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요인인 계획성만이 차이를 나타냈다.

(2) 가정 관련 특성

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김환식·류창열(1993)은 중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및 아버지가 없는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김옥숙(2001), 김현옥(1989), 이효정(2001), 탁진국·이기학(2001)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김관용(1996), 박용관(2003), 이승국(1999)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② 부모의 영향력

부모와 진로개발 역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분(1983)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어머니가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3) 학교 관련 특성

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과 만족도

이승중(2003)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송영숙(1998), 정정은(2004) 역시 중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이 진로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등 대체로 학교의 진로지도와 진로개발 역량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방법

나승일(1987)은 학교의 진로 정보 제공 정도에 따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역량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윤경(2005)은 학교의 진로지도 방법 중 진로 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 관련 검사,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진로개발 역량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③ 진로체험

이성도(2002)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경험이 적은 집단보다 학교 적응과 직업 계획 및 전공 계획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박가열(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체험학습에 참여한 1200여명의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자료의 중학생 1, 2, 3학년, 일반계 고교 및 전문계 고교 1, 2, 3학년 학생 총 6,509명이다.

〈표 VI-19〉 연구대상 현황

단위: 명(%)

성별 \ 학교 급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	전문계	
남학생	1,532(23.5)	1,378(21.2)	577(8.9)	3,487(53.6)
여학생	1,478(22.7)	986(15.1)	558(8.6)	3,022(46.4)
계	3,010(46.2)	2,364(36.3)	1,135(17.4)	6,509(100)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진로개발 역량이며, 독립변인은 개인 변인과 진로 의식, 진로·직업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변인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 <표 VI-20>과 같다.

<표 VI-20> 변인 설명 및 분석 방법

차원	변인 명		변인 설명	분석 방법
독립 변인	배경 변인	출신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도	F검증
		성별	남, 여	t검증
		학년	중학생, 일반계, 전문계	F검증
		경제 여건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F검증
		부모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대졸, 대학원 이상	F검증
		학업 성적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F검증
	진로 의식	진로 직업 가치	직업가치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F검증
		직업성공요인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F검증
	진로 직업 경험	진로 직업 교육	학교진로교육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t검증 F검증
		가정진로교육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t검증 F검증
		진로 직업 체험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 및 체험 여부	F검증 t검증
		기관체험	공공 기관의 진로직업 체험 경험 여부 및 만족도	t검증 F검증
종속 변인	진로 개발 역량	자기이해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개인특성에 대해 정도	
		진로직업지식	진로직업정보, 직무, 일의 특성, 전망 등 직업에 대한 지식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	개인특성 및 진로 직업 제반 여건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 정도	
기 타		학교진로교육 요구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요구도	평균

4. 연구결과

1) 개인 특성과 진로개발 역량

(1) 성별과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75.41)이 남학생(74.37)보다 더 높은 진로개발 역량을 나타냈다.

〈표 VI-21〉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i>t</i>	유의도
남	3,487	74.37	16.93	6507	-2.678**	.007
여	3,022	75.41	13.99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급과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고등학생(75.08)이 중학생(74.58) 보다 평균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22〉 학교급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i>t</i>	유의도
중학교	3,010	74.58	16.74	6507	-1.293	.196
고등학교	3,499	75.08	14.63			

(3) 학교 유형과 진로개발 역량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계 고교생(76.33), 중학생(74.58), 전문계 고교생(72.49)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일반계 고교생, 중학생, 전문계 고교생 간에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표 VI-23〉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도	사후검증
중학교	3,010	74.58	16.74	2	24.035***	.000	중학교>전문계고
전문계고	1,135	72.49	15.93				중학교<일반계고
일반계고	2,364	76.33	13.80				전문계고<일반계고

* $p<.05$, ** $p<.01$, *** $p<.001$

(4) 거주지와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거주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서울(76.54)은 광역시(74.53)와 시·군(74.54)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으며, 광역시와 시·군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4〉 거주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도	사후검증
서울	1,021	76.54	17.09	2	7.100**	.001	서울>광역시
광역시	2,279	74.53	16.37				서울>시·군
시·군	3,209	74.54	14.57				광역시=시·군

* $p<.05$, ** $p<.01$, *** $p<.001$

(5) 경제 여건과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정의 경제 여건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 여건이 부유할수록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총 7단계 중 6단계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25〉 경제 여건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도
1A(매우 빈곤)	112	69.41	22.48	6	20.903***	.000
2	327	71.97	17.01			
3	928	72.92	13.54			
4(보통 수준)	3,106	73.97	14.71			
5	1,457	77.10	14.62			
6	347	80.85	14.49			
7(매우 부유)	140	76.61	21.56			

* $p<.05$, ** $p<.01$, *** $p<.001$

(6) 부모 학력과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 학력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 상승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은 높아졌으며, 어머니 역시 학력이 상승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아졌다.

〈표 VI-26〉 부모 학력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도
아버지	무학	26	62.65	25.54	7	14.098*** .000
	초졸	122	71.81	20.17		
	중졸	314	72.94	17.37		
	고졸	2,686	73.54	14.84		
	전문대졸	649	74.14	15.10		
	대졸	1,976	76.56	14.03		
	대학원졸	452	78.74	14.57		
	무응답	284	75.41	25.55		
어머니	무학	25	62.04	24.61	7	12.59*** .000
	초졸	116	71.87	16.98		
	중졸	322	73.02	16.09		
	고졸	3,426	73.85	14.26		
	전문대졸	560	75.13	16.51		
	대졸	1,534	77.33	14.95		
	대학원졸	221	77.97	13.56		
	무응답	305	75.01	26.18		

* $p<.05$, ** $p<.01$, *** $p<.001$

(7) 부모 직업 여부와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 직업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아버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는 직업이 있는 경우(74.86)가 없는 경우(72.52)에 비해 진로개발 역량이 훨씬 높았으며, 어머니는 직업이 있는 경우(74.79)가 직업이 없는 경우(74.75)보다 평균은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7> 부모 직업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도
아버지 직업 여부	예	6,027	74.86	14.97	6306	-2.537*	.011
	아니오	281	72.52	18.39			
어머니 직업 여부	예	2,134	74.79	15.08	6316	-.090	.928
	아니오	4,184	74.75	15.00			

* $p<.05$, ** $p<.01$, *** $p<.001$

(8) 과목별 학업 성취와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각 과목별 학업성취 정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모두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28> 과목별 학업 성취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과목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F	유의도
	M	SD	M	SD	M	SD	M	SD	M	SD		
국어	69.18	20.96	72.71	16.47	74.20	14.11	77.62	14.34	79.85	14.81	31.140***	.000
영어	70.26	16.00	73.80	15.97	74.82	14.17	77.00	13.68	79.94	16.46	32.593***	.000
수학	72.70	15.35	73.72	15.24	74.84	13.67	76.87	17.07	78.80	14.93	18.374***	.000
사회	70.80	16.03	73.03	14.43	74.68	14.66	77.92	14.66	79.37	15.79	29.588***	.000
과학	72.75	17.86	73.27	15.47	74.27	13.81	76.85	15.41	79.59	13.44	23.045***	.000

* $p<.05$, ** $p<.01$, *** $p<.001$

(9)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개발 역량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아버지(27.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22.9%), TV·라디오(7.8%), 특별한 계기 없음(5.7%), 인터넷 포털 사이트(5.4%), 친구(5.3%), 형제(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담임선생님(3.7%)과 공공직업안정기관(0.1%), 진로 관련 사이트(2.9%)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낮았다.

응답자수를 고려하여 백분비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로개발 역량

이 가장 높은 요인은 선후배(78.75)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와 적성(78.39), 위인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78.21), 학원 선생님(78.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진로 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74.47)와 어머니(74.63) 및 담임선생님(73.71), 특별한 계기 없음(73.35), TV·라디오(75.01), 인터넷 사이트(74.46) 등의 진로개발 역량은 높지 않았다.

<표 VI-29>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개발 역량

구분	응답자수	백분비	진로개발 역량평균	구분	응답자수	백분비	진로개발 역량평균
아버지	1,761	27.1	74.47	생활정보지	31	.5	75.19
어머니	1,491	22.9	74.63	인터넷	352	5.4	74.46
형제	203	3.1	75.95	벽보, 현수막	6	.1	62.00
친척	156	2.4	74.84	취업박람회	16	.2	75.00
친구	343	5.3	72.22	사회단체	26	.4	74.04
선후배	73	1.1	78.75	위인·현존 훌륭한 인물	144	2.2	78.21
담임선생님	242	3.7	73.71	학교상담실	26	.4	74.19
학원선생님	140	2.2	78.16	공공직업안정기관	4	.1	75.75
이웃어른	15	.2	76.67	민간상담전문가	18	.3	82.33
TV/라디오	509	7.8	75.01	특별한 계기 없음	373	5.7	73.35
신문/잡지	70	1.1	76.11	진로 관련 사이트	192	2.9	74.42
책	18	.3	79.11	지인	10	.2	81.70
취미, 적성	132	2.0	78.39	해당 직업 종사자	8	.1	75.00
가장 형편	9	.1	72.11	합 계	6,509	100	F=2.427*** p=.000
무응답	113	1.7	79.46				

* $p<.05$, ** $p<.01$, *** $p<.001$

(10) 진로 정보 수집 방법과 진로개발 역량

진로 정보 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인터넷(34.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13.6%), 어머니(8.4%), TV·라디오(7.5%), 친구(5.0%), 진로 관련 사이트(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담임선생님(4.7%)과 학교상담실(0.7%)과 공공직업안정기관(0.1%), 취업박람회(0.2%)는 학생들의 진로 정보 출처로서 활용 빈도가 낮았다.

응답자수를 고려하여 백분비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로정보 출처로서

진로개발 역량이 가장 높은 요인은 선후배(78.42)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원선생님(77.45), 진로 관련 사이트(77.03), 신문/잡지(76.67), 인터넷 사이트(75.80) 등이 뒤를 이었다. 진로 정보 출처로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기록한 아버지(74.52)와 어머니(73.35) 및 담임선생님(72.01) 등의 진로개발 역량은 높지 않았으며, 특히 ‘특별한 계기가 없음’ 집단의 진로개발 역량은 가장 낮은 점수(67.92)를 나타냈다.

〈표 VI-30〉 진로 정보 수집 방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응답자수	백분비	진로개발 역량평균	구분	응답자수	백분비	진로개발 역량평균
아버지	888	13.6	74.52	생활정보지	25	.4	75.24
어머니	550	8.4	73.45	인터넷	2,266	34.8	75.80
형제	207	3.2	74.38	벽보, 현수막	2	.0	81.50
친척	153	2.4	73.56	취업박람회	11	.2	72.82
친구	328	5.0	71.77	사회단체	16	.2	75.19
선후배	109	1.7	78.42	위인, 현존 훌륭한 인물	38	.6	78.68
담임선생님	306	4.7	72.01	학교상담실	44	.7	70.82
학원선생님	274	4.2	77.45	공공직업안정기관	8	.1	75.63
이웃어른	20	.3	76.20	민간상담전문가	20	.3	71.40
TV/라디오	487	7.5	74.47	특별한계기없음	162	2.5	67.92
신문/잡지	129	2.0	76.67	진로관련사이트	328	5.0	77.03
책	10	.2	81.80	지인	2	.0	81.00
취미, 적성	9	.1	78.33	해당직업종사자	3	.0	79.33
가정 형편	1	.0	74.00	합 계	6,509	100	F=4.420***
무응답	106	1.6	81.56				

* $p<.05$, ** $p<.01$, *** $p<.001$

2) 진로·직업 의식

(1) 직업 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가치의 순위를 알아보면 흥미와 적성(4.53), 능력 발휘와 성취감(4.32), 안정성(4.29), 근무환경(4.29) 등으로, 많은 돈(4.10)과 같은 외재적 가치보다 비교적 내재적 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 분석 결과 능력 발휘와 성취감,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외재적 가치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점수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만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개발 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31〉 직업 가치 문항 별 평균

직업 가치	능력 발휘와 성취감	변화 있게 일하기	많은 돈	안정성	타인의 인정	리더쉽 발휘	타인과 함께 일하기	타인에게 도움 되는 일
평균	4.32	3.64	4.10	4.29	4.20	3.71	3.84	3.76
직업 가치	발전성	창의성	독립성	흥미, 적성	근무 환경	규칙적인 출퇴근	간단하고 쉬운 일	
평균	4.01	3.89	3.48	4.53	4.29	4.08	3.22	

〈표 VI-32〉 직업 가치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F
	M	SD	M	SD	M	SD	M	SD	M	SD	
능력발휘, 성취감	59.10	19.07	67.97	17.98	67.73	15.55	73.30	14.53	78.29	15.46	83.242***
적성, 흥미	60.36	34.28	70.61	19.22	70.58	20.67	72.00	14.13	76.71	14.95	37.171***
많은 돈	71.10	18.13	75.65	20.66	73.95	14.71	74.92	14.64	75.21	16.70	1.630
타인의 인정	62.87	17.81	71.69	16.87	71.70	15.25	73.79	14.23	77.37	16.44	32.940***
변화있게일하기	71.40	18.06	73.70	20.83	72.79	15.42	75.13	13.24	79.47	17.67	29.659***
안정성	70.88	18.24	78.61	23.71	73.24	16.48	74.52	14.85	75.43	15.57	4.646***
리더쉽 발휘	68.56	19.54	70.25	15.67	72.69	14.17	75.34	15.43	79.12	16.38	43.578***
타인과함께일하기	73.52	21.43	73.83	14.07	73.90	15.30	74.19	15.33	77.18	16.22	10.167***
타인에게도움되는일	68.05	18.68	72.26	15.12	72.82	14.80	74.97	14.65	78.64	17.83	28.079***
발전성	67.56	21.23	70.17	18.36	71.11	13.49	74.13	14.61	79.13	16.98	55.908***
창의성	63.67	19.50	72.34	16.44	71.64	14.62	74.69	14.27	78.88	16.77	50.650***
독립성	74.40	22.65	72.64	14.52	73.32	14.77	75.89	14.10	78.56	19.08	22.140***
근무환경	62.13	23.84	74.54	24.67	72.98	18.12	73.04	13.17	77.08	16.05	24.975***
규칙적인출퇴근	77.20	23.73	76.01	17.14	73.69	16.17	73.94	14.43	75.95	15.81	6.499***
간단하고쉬운일	79.55	17.06	76.55	15.03	74.37	14.89	73.67	15.86	74.01	17.08	11.968***

* $p < .05$, ** $p < .01$, *** $p < .001$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 요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에서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순위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4.34), 뚜렷한 목표의식(4.34), 근면함과 성실성(4.31), 좋은 성품(4.26), 기술이나 능력(4.24), 자기개발(4.19) 등이었다. 이에 비해 인맥(4.18), 돈/재산(3.99), 운이나 요행(3.56), 가정 배경(3.31), 학벌(3.43)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 앞의 직업 가치 분석 결과와 함께 건강한 직업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생활에서의 성공 요인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분석 결과 자기 개발, 근면함과 성실성,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비해 학벌은 보통을 기점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으며,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역시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이는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양쪽 방향 모두에서 진로개발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VI-33〉 직업생활에서의 성공 요인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F
	M	SD	M	SD	M	SD	M	SD	M	SD	
자기 개발	58.64	19.65	69.13	16.75	70.09	14.18	73.40	13.86	78.73	16.82	69.794***
근면함과성실성	63.61	22.80	66.48	20.79	71.53	18.33	73.62	14.66	77.14	15.26	29.136***
학벌	75.40	17.34	74.73	16.65	73.62	15.18	74.73	13.63	77.12	17.78	8.009***
기술이나 능력	59.45	20.69	69.30	17.97	70.92	15.08	73.94	15.07	77.47	15.77	37.268***
돈/재산	74.08	17.44	74.47	13.74	74.47	15.97	74.97	14.58	74.99	16.77	1.440
대인관계 능력	66.47	18.73	70.77	20.53	70.98	16.69	73.17	14.62	77.28	15.70	32.863***
인맥	70.70	22.96	73.77	12.71	72.63	15.69	73.59	14.28	77.04	16.52	19.434***
좋은 성품	62.61	19.36	69.36	12.14	71.01	16.20	73.50	14.36	77.64	16.13	40.581***
운이나 요행	75.79	19.55	75.30	14.61	74.06	15.15	74.55	14.27	76.46	18.30	4.310**
가정 배경	76.45	15.05	74.78	12.06	74.06	15.16	74.84	16.47	75.75	18.04	2.994**
뚜렷한목표의식	61.81	18.08	66.50	13.18	70.01	16.94	72.84	14.09	77.86	15.75	59.141***

* $p<.05$, ** $p<.01$, *** $p<.001$

3) 진로·직업 경험

(1) 학교 진로교육 경험과 진로개발 역량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 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 관련 읽기 자료 활용, 사회·도덕·기술가정에서의 진로교육,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상담선생님의 진로상담 순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용,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은 평균만 높았을 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방과 후 활동 활용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경험한 집단에 비해 진로개발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영향력이 낮았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진로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과 재량활동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진로개발 역량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현행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며, 나머지 효과를 보이지 못한 진로교육 방법들 역시 세부적인 내용 구성과 절차, 운영 과정에 있어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I-34〉 학교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유	3,593	74.90	16.08	6507	.301
	무	2,916	74.79	15.09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유	4,008	75.28	16.23	6507	2.793**
	무	2,501	74.17	14.64		
현장학습이나 견학	유	3,208	74.96	16.74	6507	.563
	무	3,301	74.74	14.50		
상담선생님의 진로 상담	유	2,958	75.33	17.39	6507	2.256*
	무	3,551	74.45	14.01		
진로관련 검사 통한 진로교육	유	5,098	75.31	15.47	6507	4.462***
	무	1,411	73.21	16.16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유	3,160	75.19	16.20	6507	1.700
	무	3,349	74.53	15.10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	유	2,422	74.93	17.08	6507	.311
	무	4,087	74.80	14.73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유	2,949	75.33	16.38	6507	2.267*
	무	3,560	74.45	15.0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유	3,073	75.02	16.36	6507	.820
	무	3,436	74.70	14.98		
진로관련 읽기자료 활용	유	3,162	75.46	16.26	6507	3.060**
	무	3,347	74.27	15.02		
방과 후 활동 활용	유	2,511	74.52	17.11	6507	-1.368
	무	3,998	75.06	14.65		

* $p<.05$, ** $p<.01$, *** $p<.001$

(2)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 진로교육 방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역량도 높음을 볼 수 있었고, 경험 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방법 역시 만족도에 따라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에 있어 경험 여부보다 만족도가 진로개발 역량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VI-35>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F
	M	SD	M	SD	M	SD	M	SD	M	SD	
A	75.57	18.83	74.42	17.01	72.79	13.90	78.65	16.49	81.27	17.49	18.398***
B	74.55	16.39	75.00	16.84	74.41	16.32	76.86	14.33	81.86	17.30	8.567***
C	73.17	17.73	74.05	17.48	73.77	16.58	76.51	15.48	80.78	17.06	10.646***
D	73.95	20.33	74.25	18.76	73.97	17.66	76.71	15.00	82.12	15.59	10.060***
E	73.24	17.50	73.59	16.83	73.76	15.85	76.69	13.20	81.96	15.07	26.630***
F	74.06	19.57	74.41	18.74	73.83	14.62	76.73	14.41	82.75	18.01	13.664***
G	74.79	18.59	75.12	21.71	72.68	14.79	76.59	14.12	82.42	19.14	12.823***
H	74.74	18.48	74.71	20.03	73.32	14.92	77.86	13.07	81.92	18.61	14.388***
I	74.60	16.79	74.87	19.80	73.28	13.82	77.36	15.30	81.39	20.16	12.073***
J	73.63	16.99	75.32	19.24	74.02	15.50	78.19	14.39	81.29	16.09	11.994***
K	74.55	19.57	74.19	17.37	72.70	15.66	76.18	14.77	81.64	20.69	10.447***
L	74.57	16.82	74.27	13.53	74.39	15.32	77.24	15.30	81.50	20.47	19.208***

* $p<.05$, ** $p<.01$, *** $p<.001$

주) A: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B: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C: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D: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E: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F: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G: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H: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를 통한 진로교육, I: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J: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K: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L: 학교에서 진로직업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 학교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학교 진로교육 관련 장애의 문항별 진로개발 역량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본 결과가 <표 VI-3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3.19)’가 가장 높았고,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2.89)’,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2.75)’,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2.60)’,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2.56)’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현행 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에 있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부족’을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아울러 교과 학습 시간에 비해 진로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6> 학교 진로교육 관련 장애 문항 별 평균 및 순위

문 항	평균	순위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2.60	4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3.19	1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2.89	2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2.48	8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2.75	3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2.56	5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47	9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2.49	7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	2.56	5

(4) 가정 진로교육 경험 여부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살펴본 결과 직업 목표, 적성과 흥미, 학교·학과·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 직장 방문, 상급학교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개발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에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 기관 방문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37> 가정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도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유	5,515	75.72	15.39	6507	10.632***	.000
	무	994	70.04	16.18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유	5,267	76.02	15.58	6507	12.587***	.000
	무	1,242	69.88	14.9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유	5,282	75.87	15.43	6507	11.014***	.000
	무	1,227	70.46	15.82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유	1,674	75.32	18.33	6507	1.427	.154
	무	4,835	74.69	14.60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유	2,913	75.99	16.66	6507	5.301***	.000
	무	3,596	73.93	14.71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유	1,869	76.17	17.93	6507	4.355***	.000
	무	4,640	74.32	14.59			

* $p<.05$, ** $p<.01$, *** $p<.001$

(5) 가정 진로교육 만족도

가정의 진로교육 만족도가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역량 역시 높음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도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개발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진로교육도 경험 여부보다는 만족도가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8> 가정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F	유의도
	M	SD	M	SD	M	SD	M	SD	M	SD		
A	71.84	18.00	71.91	15.31	72.53	14.90	77.27	14.04	84.95	15.40	87.031***	.000
B	71.89	17.24	72.42	17.34	72.62	14.43	77.81	14.01	85.99	16.06	94.383***	.000
C	70.55	18.48	72.87	16.09	73.12	15.24	77.48	13.28	85.24	15.63	78.704***	.000
D	73.13	15.66	74.29	21.56	73.10	16.35	76.62	17.61	86.67	21.50	18.044***	.000
E	72.74	15.20	75.32	20.20	74.14	15.61	77.43	14.59	85.05	17.77	24.98***	.000
F	72.28	20.44	73.15	17.13	73.02	16.71	78.04	16.46	86.48	18.10	30.058***	.000
G	70.11	16.07	72.16	14.98	72.94	14.49	78.61	14.15	85.21	17.31	109.464***	.000

* $p<.05$, ** $p<.01$, *** $p<.001$

주) A: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B: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C: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D: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E: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F: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G: 가정에서의 진로·직업 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경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최근 여러 기관에서 앞 다투어 행사 형식으로 실시하는 기관 주최 진로 프로그램들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 위주의 진로 프로그램 주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VI-39> 기관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도
진로박람회(엑스포)	유	1,950	74.98	18.33	6507	.438	.661
	무	4,559	74.80	14.3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유	1,387	74.84	18.69	6507	-.028	.978
	무	5,122	74.85	14.71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유	1,703	75.25	18.45	6507	1.223	.221
	무	4,806	74.71	14.52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유	1,244	74.77	19.59	6507	-.195	.845
	무	5,265	74.87	14.56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유	1,380	75.12	18.75	6507	.732	.464
	무	5,129	74.78	14.70			

(7)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만족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에 만족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음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기관에서 빈번하게 주최하는 행사 위주의 진로 프로그램 보다는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I-40〉 기관 진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F	유의도
	M	SD	M	SD	M	SD	M	SD	M	SD		
A	72.69	20.94	73.53	17.67	73.38	17.41	78.41	16.98	85.89	23.21	13.221***	.000
B	74.85	20.41	71.95	17.74	73.58	19.03	77.66	15.20	85.03	22.60	8.008***	.000
C	74.06	19.60	72.71	17.41	73.49	17.34	79.44	20.84	82.85	17.55	10.314***	.000
D	75.44	23.51	72.03	18.69	72.32	16.53	80.22	22.02	83.05	22.97	9.903***	.000
E	74.17	22.35	69.81	19.12	72.58	17.06	78.80	17.55	84.04	20.79	15.401***	.000
F	73.97	17.76	73.76	16.73	74.35	16.18	79.34	17.44	83.51	21.14	18.769***	.000

* $p<.05$, ** $p<.01$, *** $p<.001$

주) A: 진로박람회(엑스포), B: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C: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의 직업체험 교육, D: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E: 대학 주최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F: 기관 주최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 아르바이트 체험과 진로개발 역량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주로 ‘용돈이 필요해서(47.7%)’,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21.4%)’ 등이었으며 이에 비해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10.1%)’,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6.8%)’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또한 주로 ‘시간적 여유(19.6%)’, ‘보수

(15.7%)’, ‘근무환경(11.1%)’,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10.7%)’ 등이었으며, ‘나의 적성(7.1%)’은 소수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살펴본 결과 진로개발 역량 평균은 취업 경험(82.13), 부모나 친지 권유(76.11), 원하는 물건 구입(75.18) 순이었으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 VI-41>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문항	응답자수	백분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가족 생활비	12	1.6	71.58	44.02	1.401	.160
부모로부터 독립	11	1.4	69.91	15.71		
학비 마련	16	2.1	65.63	21.04		
용돈 마련	364	47.7	74.21	19.39		
취업 경험	52	6.8	82.13	12.56		
개인적 관심, 흥미	77	10.1	74.82	17.59		
부모나 친지 권유	36	4.7	76.11	24.06		
원하는 물건 구입	163	21.4	75.18	16.45		
숙식제공	1	.1	64.00			
친척집(친구) 도와 줌	6	.8	70.00	11.37		
다이어트	1	.1	73.00			
기타	15	2	75.60	13.25		

아르바이트 체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체험한 학생들(M=74.69)이 아르바이트를 체험하지 않은 학생들(M=74.87)과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체험 여부는 진로개발 역량 증진에 효과가 없으며, 주로 용돈 마련, 원하는 물건 구입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진로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는 등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VI-42> 아르바이트 체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도
아르바이트 체험	유	763	74.69	18.97	6507	-.306	.759
	무	5746	74.87	15.15			

5.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중학생 1, 2, 3학년, 일반계 고교 및 전문계 고교 1, 2, 3학년 학생 총 6,509명을 대상으로 진로개발 역량과 관련 변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와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 관련 역량은 개인 관련 특성 중에서 성별, 학교 유형, 거주 지역, 가정 형편, 부모 학력, 과목 학업 성취, 아버지 직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학교급, 어머니 직업 여부와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계 고교, 중학교, 전문계 고교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광역시와 시도보다 높았으나, 광역시와 시도는 차이가 없었다. 가정 형편은 부유할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목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배경 변인에 따라 진로개발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진로개발 역량 관련 개인 특성 변인에 따라 진로교육 혜택에 대한 우선 순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서는 어머니, TV·라디오, 특별한 계기 없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담임선생님, 공공직업안정기관, 진로 관련 사이트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빈도율이 1%가 넘는 문항만을 가지고 진로개발 역량을 비교한 결과 선후배, 취미와 적성, 위인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학원 선생님 등이, 빈도가 높았던 아버지, 어머니, 담임선생님, 특별한 계기 없음, TV·라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보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TV·라디오, 인터넷 사이트, 친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빈도율이 1%가 넘는 문항만을 가지고 진로개발 역량을 비교한 결과 선후배, 학원선생님, 진로 관련 사이트 등이, 빈도가 높았던 아버지, 어머니, 담임선생님보다 높았다. 이

는 진로결정 및 정보 수집 방법에 있어 부모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 정보 보급을 위해 진로 관련 사이트의 인지도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가치의 순위는 흥미와 적성, 능력 발휘와 성취감, 안정성, 근무환경 등이었으며, 직업가치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능력 발휘와 성취감,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대인관계 능력, 뚜렷한 목표의식,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자기개발, 근면함과 성실성,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선호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 가치에 있어 대체로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등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넷째, 학교 진로교육 경험 여부와 진로개발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도덕·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상담선생님의 진로상담, 진로 관련 검사,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진로관련 읽기자료 활용 등을 경험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과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등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활용 역시 차이가 없었다.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경험 여부보다는 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 진로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진로교육 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및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며,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증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가정 진로교육 경험 여부와 진로개발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 목표, 적성과 흥미, 학교·학과·직업 선택 각각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가정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서 학교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험 여부보다는 만족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역량 증진에 있어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와 진로개발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박람회, 한국고용정보원 주최 커리어 스쿨, 대학 주최 전공 전학 프로그램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만족도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가정, 학교와 마찬가지로 경험 여부보다 만족도가 프로그램 효과 면에 있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로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각 기관에서 일회성 행사로 빈번하게 개최되는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있어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곱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진로 정보 인터넷 검색, 직업 동영상 및 TV프로그램 시청, 진로 관련 심리검사 실시 순으로 많이 하고 있었으며, 모든 문항의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개발 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방법에 있어 앞에서 제시한 직업 가치 위주의 접근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의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체험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로는 주로 ‘용돈이 필요해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등이었으며 이에 비해 진로개발 역량증진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체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분석 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낮아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의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II. 결론 및 제언

1. 종합논의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VII. 결론 및 제언

1.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진로·직업 지표조사의 결과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진로개발 과업(career development tasks)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상태 또는 진로성숙의 상태가 ‘충분하다/충분하지 않다’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진로개발이 전개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 특히 학교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이 적절한가에 관한 시각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지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좋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의 쾌적함, 높은 고용안정성, 높은 보수 등과 같은 외적인 직업가치도 병행하여 추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성향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진로개발 역량이나 준비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입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진로·직업 정보는 획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직종에 제한적인 경우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이 시급하며 중요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요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진로개발 성숙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숙의 정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개발 요구, 또는 진로개발에 있어서 기대되는 정도와 현재 수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전략(intervention strategies)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력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방법과 심리검사로 요약된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진로교육’이라는 활동이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교실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실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진로개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행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전달방법(delivery strategies), 그리고 교사나 시설 등의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집단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 기반의 개별화 서비스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며, 교실 내 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현장체험이 병행됨으로써, 청소년에게 발견되는 진로개발 성숙에서의 불일치한 모습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제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가정은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주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정 스스로도 진로개발 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정이 자체적으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을 내면화하고, 이들의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탐색을 촉진하는 ‘중간자’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종료한 이후에 지역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진로탐색의 기회는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 학교,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학교 밖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받도록 하거나, 산업체 관계자가 학교를 방

문하거나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진로정보를 개발·보급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제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서비스 실행기관(학교, 고용지원센터, 청소년상담기관 등)-지역 단위의 실행기관의 지원주체(교육청, 지역 단위 협의체 등)-중앙 단위의 지원기관(연구기관, 중앙정부 등)’의 중층화된 연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의 실행기관 지원주체에서는 서비스 실행기관의 진로교육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실천가(교사, 상담가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 단위의 지원기관에서는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을 입안·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하며,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간도 정비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진로교육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경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진로개발 성숙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의 탄탄한 진로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원활한 사회생활 영위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의 기회를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지표조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전문계 고교

생의 진로개발 성숙정도나 이들을 위한 지원노력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까지의 9년 동안 충분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는 현실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초·중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가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계 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에 대한 진로교육은 전문계 고교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학/취업의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전문계 고교 재학 동안에 진로개발 준비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졸업 이후에도 적극적인 진로개발을 전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제언

1)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진로·직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긍정적이며, 올바른 직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의식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나 진로개발을 위해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발굴·개발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의 적용도 요구된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 등의 교육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직업의 가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교과 영역에 관한 다양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학교 및 지역사회

회 현장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변화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도록 교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사양직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직업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안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실직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직업의 안정성을 고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최근에 취업한 청년층 재직 근로자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변화하고 있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진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달이 지속되는 영역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달시기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노력으로 이미 초, 중, 고에는 진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 기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으나 실제 진로교육이 각 급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 결과에서도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받아본 학생들은 80% 가까이에 이르지만, 진로 교과를 비롯한 다른 영역의 진로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평균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이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진로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 부족(2위)⁴⁾,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3위)으로 나타났다으며, 진로 선택 및 결정 영향 요인 조사 결과 학교 담임선생님은 3.7%로 나타났다(아버지 27.1%, 어머니 22.9%, TV/라디오 7.8%, 특별한 계기 없음 5.7%, 인터넷 5.4%).

진로 정보 수집 방법 조사 결과 역시 담임선생님은 4.7%(인터넷 34.8%, 아버지 13.6%, 어머니 8.4%, TV/라디오 7.5%)에 불과했다. 이는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전문성 부족에 대한 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연수는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은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속의 진로 프로그램 중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교과통합 진로교육에서만 유일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즉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의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개발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교과통합 진로교육 경험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 학교 진로교육에서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도 및 교사의 지도 능력은 이러한 효과성과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교과별로 교과와 통합한 진

4) 1위는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었음

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수 강화 등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3) 진로교육 지도 방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 방법 중 상담선생님의 진로상담,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 관련 읽기 자료 활용 등을 통한 진로교육은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지만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은 진로개발 역량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현재 현장학습이나 견학, 인터넷 또는 동영상 활용 등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진로지도 방법들인데, 이러한 방법들이 내실화를 위한 노력 없이 그저 경험 제공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성 검토가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진로개발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 ‘진로와 직업’ 교과목과 ‘재량활동에서의 진로교육’이 진로개발 역량 증진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학교 진로교육 관련 요구조사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진로 관련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쳤다고 꼽은 대상 중 학교 교사가 낮은 빈도를 나타낸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일정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상담 교사 양성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진로지도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 어떤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단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기관에서는 충분한 교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교육의 대상이 될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진로지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수적으로 포함될 교과목으로는 진로지도 이론, 진로정보론, 개인진로상담, 집단진로지도, 교과진로지도론, 진로심리검사, 사이버 진로지도, 진로지도 사례연구, 진로지도 연구방법론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양성과정에서 진로지도능력의 기초를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체 교직 이수과목 중에 진로지도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을 최소 4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련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진로지도’ 및 ‘교과진로지도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진로지도’는 각급 학교 교사들이 학생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며, ‘교과진로지도론’은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되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안목과 방법론을 체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진로지도론’의 교수에 있어서는 교직교수와 전공교수와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팀티칭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 및 재량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진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수업이 적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진행하고 있어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 상태를 보면, 진로·직업 역량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점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게 나타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의사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직업가치추구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가치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즉,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직업가치 미분화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로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직업가치추구에서 있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결정한 미래의 직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응답내용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과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자녀와 함께 직접 진로 관련 전문기관, 자신의 직장, 상급학교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문을 한 경우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보다 어딘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진로발달 촉진을 위해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그 필요성에 대해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가진 장래 희망 직업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장래 희망직업의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부모들이 기대하는 장래 희망직업은 ‘교육 및 연구 관련직’, ‘의료 및 보건 관련직’, ‘법률 및 공공서비스 관련직’ 등 높은 수입과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직업에 쏠려있다. 세부 직업별 희망직업 응답에서는 의사(한의사), 중등교사, 초등교사의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장래 희망직업들은 실제 노동시장에서 그리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직업으로 실제 자녀들이 그 직업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부모들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일과시간에 학교에 와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제한적이므로, 직장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 부모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실시가 기획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낮았으며, 학교급이 낮은 중학교 학생들보다도 저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서 밝혀진 진로개발 역량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학력, 아버지 직업 여부, 가정 형편, 가정의 진로교육, 학업 성취 등의 요소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과 두 계열 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김나라, 2008)를 함께 고려한다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 학업중단청소년, 다문화청소년⁶⁾, 위기청소년 등 진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상이었고, 자료 분석 결과 이들 중에서도 취약 집단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적어도 이들은 최소한으로라도 학교 진로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 취약한 집단은 학교 진로지도에서의 소외 집단으로서 학업중단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위기청소년들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본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따라서 학교 밖의 진로 취약 집단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8)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을 분석한 결과 경험을 한 학생들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간에 진로개발 역량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관

6)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2세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6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취학 자녀는 2만5천 명 정도이며 해마다 4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 신생아 중 3분의 1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많은 수가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에서 중도탈락하고 있다.

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할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더라도 진로개발 역량의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기관의 진로 프로그램 개최에 있어 사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요구조사를 하고, 사후에는 효과성 평가를 하여 다음 행사 때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정보의 보급을 위한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인지도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진로 관련 정보 출처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인터넷(27.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13.6%), 어머니(8.4%), TV·라디오(7.5%), 진로 관련 사이트(5.0%), 친구(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위주의 인터넷, 주로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직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TV·라디오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서도 진로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기록한 아버지(74.04)와 어머니(73.35) 및 담임선생님(72.01) 등은 높지 않았으며, 특히 ‘특별한 계기가 없음’ 집단의 진로개발 역량은 가장 낮은 점수(67.92)를 나타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뉴와 정보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고재성(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홍월 (2007).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성숙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교육인적자원부.
- 권소희(1996). 중.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령(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관용(1996). 중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이 직업적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라(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개발 실태 분석: 일반계 고교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도연(2008). 일터경험과 역량개발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6). 학교진로상담(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신영, 임지연(2007).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연구보고 07-R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숙(2001). 수보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환식, 류창열(199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련된 요인. 대한공업교육 학회지, 18(2). 102-125.
-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제2호, 139-159.
- 나승일(1987). 농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3). 제3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청소년 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가열(2007).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직업연구. 제1권(1). pp 213-232.
- 박가열(2008).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e-고용이슈. 2008-23호. 한국고용정보원.
- 박용관(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 사전. 하우동설.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06). 학생연구, 47집.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 10(1), 155-173.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2007). 학생생활연구, 30집.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안창규(1998). 진로발달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오송남(2003).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호형, 이지연, 윤형한(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마꼬시 토오루(2001). 일본의 「교실과괴」의 현황·원인·대책.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학교위기 극복방안(국제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 42-60.
- 이경상, 김기현, 유성렬, 정익중(200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국가청소년 2007-04.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경옥(2002). 여고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 탐색.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성도(2002).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웅(1987). Delphi기술예측기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국(1999). 중등학생의 진로성숙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중(2003).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분(1983). 중고교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199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80-119.
- 이재창(1997). 한국 청소년 진로상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 진로상담모형 기본구상, 1-28.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정윤경(2006). 청소년 진로교육 지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최동선(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효자(1993).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 Adkins 생애기술프로그램 적용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정(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관련 환경변인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학지사.
- 임언(2004).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라나, 장명희, 장석민, 정연순(2008).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인재(1990). 진로의식발달검사 실시요강.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임지연, 김신영(2007). 발달지표 종합부문. 연구보고 07-R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석민(1997). 진로교육의 실천방향과 과제. 청소년 진로상담모형 기본구상, 29-62.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방연(2003). 실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85).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정은주(2005).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의 가치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채기(1990).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고용정보원(2003). 한국직업사전.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진미석(1999).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지도의 방향.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122.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 진미석, 윤형한(2003). 성인 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균출(2004).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변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동선(2003). 청소년진로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성 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2008). 진로교육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숙현(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2008).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적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p. 167-180.
- 한국고용정보원(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2008년 청소년의 삶과 고민. 한국청소년상담원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6a).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초4 패널 1-3차년도 User's Guid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6b).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1-4차년도 User's Guid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형문정(2002).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MIT Press.
- Benson, P. L., and Sati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In P. L. Benson and K. J. Pittman(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rlisle, E..(1972).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ocial indicator. In Shonfield and Shaw(Eds.),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policy*. London on Heimann Educational Books.
- Carter, H. D.(1940).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185-191.
- Crites, J. 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99.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Crites, J. O.(1996). Assessment and counseling for career mastery.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237-250). Palo Alto: Davies-Black.
- Dalky, N.C.(1969).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The RAND Corporation, RM-5888-PR.
- Dysinger, W. S.(1950).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29**, 198-201.
- Edward G. Carmines & Richard A. Zeller(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US: Sage.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elatt, H. B.(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Hamburger, P. L.(1974). *Social indicators: A marketing perspectiv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Herr, E. L. & Cramer, S. H.(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 (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pp. 1-14.
- Moore, W. E., and Sheldon, E. B.(1968).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Moser, C.(1973). Social indicators-system,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2.
- Murry, Jr. J.W. & Hammons, J.O.(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1996a). *Education indicato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ashington:NCES.
- Osipow, S. H.(1996). Development and Use of the Task-Specific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pp. 445-56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Piaget, J.(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Robert F. Devellis.(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US: Sage.
- Scales, P., and Leffert, N.(1999). *Developmental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earch Institute.(2003). Background and history of search institute research efforts. Retrieved June 2, 2003, from [http://www .search-institute.org/research/assets/background.html](http://www.search-institute.org/research/assets/background.html).
- Sears, S.(1982). A definition of career guidance terms: A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perspectiv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31, pp. 137-143

- Steiger, J. H., & Lind, J. M.(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trong, E. K., Jr.(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Super, D. E.(1974).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 Super, D. E.(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A. S., Lindeman, R. H., Super, D. E., Jordaan, J. P., & Myers, R. A.(1981).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Vol. 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Thompson, A. S., Lindeman, R. H., Super, D. E., Jordaan, J. P., & Myers, R. A.(1982).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ollege and University Form*. Supplement to user's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Tigelaar, D.E.H., Dolmans, D.H.J.M., Wolfhagen, I.H.A.P. & Van Der Vleuten, C.P.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ramework for teaching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48, 253-268.
-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Zunker, V. G.(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Zunker, V. G.(1999).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부 록

1. 최종 설문지
2. 전문가 의견조사 1차
3. 전문가 의견조사 2차

[부 록 1: 최종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담당연구자:	최인재 박사	(조사 문의처) (02-6244-07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문1. 다음의 사항들이 장래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 정도를 오른쪽에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많은 돈을 버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문2.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문항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 하다
1	돈(자본)/재산	①	②	③	④	⑤
2	근면함과 성실성	①	②	③	④	⑤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인맥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성품	①	②	③	④	⑤
6	자기개발	①	②	③	④	⑤
7	운이나 요행	①	②	③	④	⑤
8	가정배경	①	②	③	④	⑤
9	학벌	①	②	③	④	⑤
10	뚜렷한 목표의식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①	②	③	④	⑤

진로·직업 태도

문3.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해당되는 번호에 V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문4. 학교에서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되는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표에 제시된 문4. 경험여부 응답 칸에 진로관련 교육경험 여부를 ○, X로 표기해 주십시오.

문4-1. 각 문항에 해당하는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문4의 응답 칸에 귀하가 경험이 있다고 ○표한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 12)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문4. 경험 여부	문4-1.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관련 검사(예:적성검사, 흥미검사 등) 를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①	②	③	④	⑤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에서의 진로·직업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4.2. 진로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입니까? ()

- 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②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③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 해결 ④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
 ⑤ 기타()

문4.3.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⑦ 기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문5. 귀하가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 중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책자등)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문6.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표에 제시된 문6. 경험여부 응답 칸에 경험여부를 ○, X로 표기해 주십시오.

문6-1.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경험의 도움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문6의 응답 칸에 귀하가 경험이 있다고 ○표한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 7)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문6. 경험여부	문6-1.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①	②	③	④	⑤
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에서의 진로·직업 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경험 및 만족도

문7. 다음과 같은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7. 경험여부 응답 칸에 경험여부를 ○, X로 표기해 주십시오.

문7-1.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경험의 도움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문7의 응답 칸에 귀하가 경험이 있다고 ○표한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 6)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문7. 경험여부	문7-1.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박람회(엑스포)		①	②	③	④	⑤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스쿨)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진로준비행동

문8.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 (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아르바이트 체험

문9. 지난 1년(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는지 문9-1의 _____번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 ① 있다 () → (문9-1. 횟수 : _____번) (☞ 문10으로 갈 것)
 ② 없다 () → (☞ 문21로 갈 것)

문10. (문9의 1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 안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일의 종류>		
1) 전단지 돌리기(스티커붙이기)	2) 신문 및 우유배달	3) 카페(커피숍) 점원
4) 24시간 편의점 점원	5) 일반상점(옷가게 등) 판매원	6) 비디오 대여점 점원
7) 게임방 점원	8)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9) 만화방 점원
10) 주유소 주유원	1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	12) 공장노동
13) 아기, 노인 돌보기	14)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5)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점원/배달
16) 건설현장 노동	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8)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점원/배달
19)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20) 기타	

※ 위의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 ()안에 해당되는 번호나 답을 적어주십시오.

문11. 언제 시작했습니까? ()

- | | |
|--------------|-------------|
| ① 지난해 여름방학 중 | ② 지난해 2학기 중 |
| ③ 지난 겨울방학 중 | ④ 올해 1학기 중 |

문11-1) 얼마동안이나 계속했습니까? ()

- | | |
|-----------------|-----------------|
| ① 1주 미만 | ② 1주 이상-1개월 미만 |
|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⑤ 6개월 이상-1년 | |

문11-2)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약 () 시간

문11-3)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약 () 원

문12.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 ②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
| ③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 ④ 용돈이 필요해서 |
| ⑤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 ⑥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
| ⑦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 ⑧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
| ⑨ 숙식제공이 되어서 | ⑩ 기타() |

문13. 귀하가 한 일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보기>		
1) 보수(돈)	2) 시간적 여유	3) 나의 적성
4) 근무환경	5) 숙식제공 여부	6) 집과의 거리
7)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8)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9) 일이 쉽고 편해서	
10) 부모의 허락여부	11) 기타()	

문14.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

- ① 신문·벽보의 구인 광고를 보고 ②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③ 학교를 통해 ④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⑤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⑥ 청소년 단체를 통해
 ⑦ 기타()

문15.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보수가 적어서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④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⑥ 집안의 반대로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⑩ 기타()

문16.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①	②	③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①	②	③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진로·직업 역량

문21.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일치하는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지 따져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직업 선택 및 향후계획

문22. 귀하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누구(혹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기에서 두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에 써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보기>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	4) 친척
5) 친구	6) 선후배	7) 학교 담임선생님	8) 학원 선생님
9) 이웃어른	10) TV/라디오	11) 신문/잡지	12) 생활정보지
13)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	14) 벽보나 현수막	15) 취업박람회	
16) 사회단체(봉사단체, 복지관 등)	17)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18) 학교상담실(학교 진로상담 선생님)	19) 공공직업안전기관(고용지원센터 등)		
20) 민간부문의 상담전문가	21) 특별한 계기 없음		
22)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커리어넷 등)	23) 기타()		

문23. 귀하는 진로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보기에서 두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에 써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보기>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	4) 친척
5) 친구	6) 선후배	7) 학교 담임선생님	8) 학원 선생님
9) 이웃어른	10) TV/라디오	11) 신문/잡지	12) 생활정보지
13)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	14) 벽보나 현수막	15) 취업박람회	
16) 사회단체(봉사단체, 복지관 등)	17)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18) 학교상담실(학교 진로상담 선생님)	19) 공공직업안전기관(고용지원센터 등)		
20) 민간부문의 상담전문가	21) 특별한 계기 없음		
22)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커리어넷 등)	23) 기타()		

문24. (중학생만 응답)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반계고 진학 | ② 전문계고(특성화고 포함) 진학 |
| ③ 특목고 진학 | ④ 진학과 취업 병행 |
| ⑤ 유학 | ⑥ 아직 생각 중이다 |
| ⑦ 취업 | ⑧ 기타 () |

문25. (고등학생만 응답)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 ① 전문대학 진학 ② 4년제 대학교 진학
 ③ 취업 ④ 진학과 취업 병행
 ⑤ 군입대 ⑥ 유학
 ⑦ 아직 생각 중이다 ⑧ 기타 ()

문26. 귀하의 장래 희망직업과 귀하의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직업분류표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직업번호 칸에 4자리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해당되는 직업이 직업분류표에 없을 경우 오른쪽에 해당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① 나의 희망직업 번호	직업번호	직업분류표에 없을 경우, 직업명을 적어주세요.
② 부모님의 원하시는 나의 직업 번호	직업번호	직업분류표에 없을 경우, 직업명을 적어주세요.

<직업분류표>

분야	직업	번호	분야	직업	번호	분야	직업	번호
경영및 기획 관리직	공인노무사	0101	화학 섬유및 환경 관련직	화학공학기술자	0701	식품 가공및 농림 어업 관련직	식품공학기술자	1201
	경영컨설턴트	0102		섬유공학기술자	0702		제과제빵사	1202
	공인회계사	0103		환경공학기술자	0703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1203
	세무사	0104		비파괴검사원	0704		식품제조가공업작원	1204
	광고 및 홍보전문가	0105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0705		작물재배종사자	1205
	행사기획자	0106	군인	영관급 이상	0801	농업 및 사육관련 종사자	낙농 및 사육관련 종사자	1206
	경영지원사무원	0107		위관급	0802		농어업관련종 사자	1207
	생산관련사무원	0108		장기부서관 및 준위	0803	디자인 및방송 관련직	디자이너	1301
	무역·운송관련 사무원	0109	전기 전자및 정보 통신 관련직	전기·전자공학기 술자	0901		감독 및 연출자	1302
	회계 및 경리사무원	0110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0902		배우 및 모델	1303
	비서	0111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0903		아나운서 및 리포터	1304
금융및 보험 관련직	투자 및 신용분석가	0201		통신공학기술자	0904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술 자	1305
	자산운용가	0202		컴퓨터시스템설 계 및 분석가	0905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1306
	증권 및 외환딜러	0203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0906	건설 관련직	건축공학기술자	1401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0204		컴퓨터보안전문 가	0907		토목공학기술자	1402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	0205		시스템소프트웨 어개발자	0908		조경기술자	1403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대학교수	030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0909	운송및 여행 관련직	도시계획 및 교통설계전문가	1404
	연구원	0302		웹전문가	0910		항공기조종사	1501
	중등학교 교사	0303		데이터베이스개발 자	0911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1502
	초등학교 교사	0304		정보시스템운영 자	0912		철도 및 지하철기관사	1503
	특수학교 교사	0305	문화 예술 관련직	작가	1001		운전사	1504
	유치원 교사	0306		번역가	1002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원	1505
	학원 강사 및 학습지교사	0307		통역사	1003		우편집배원	1506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관련직	판사 및 검사	040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1004	영업및 판매 관련직	영업원	1601
	변호사	0402		사서	1005		부동산컨설턴 트 및 중개인	1602
	법무사	0403		기자	1006		상품판매원	1603
	법률관련 사무원	0404		미술가	1007	개인 서비스 관련직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1604
	경찰관	0405		사진가	1008		경호원 및 청원경찰	1701
	소방관	0406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1009		이용사 및 미용사	1702
	교도관	0407		국악 및 전통예능인	1010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1703
의료및 보건 관련직	의사(한 의사)	0501		음악가	1011		애완동물미용 사	1704
	수의사	0502		무용가 및 안무가	1012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1705
	약사(한약사)	0503	기계및 재료 관련직	기계공학기술자	1101		여행서비스관 련 종사자	1706
	간호사	0504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1102		항공기객실승 무원	1707
	물리 및 작업치료사	0505		운송장비정비원	1103		경기감독 및 코치	1708
	임상심리사	0506		자동차정비원	1104		운동선수	1709
	치과기공사	0507		금형 및 공작기계조작원	1105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1710
	안경사	0508		재료공학기술자	1106		주방장 및 조리사	1711
	영양사	0509		단조원 및 주조원	1108		바텐더	1712
사회 복지및 종교 관련직	사회복지사	0601		용접원	1109	총 127개		
	상담전문가	0602		도장원 및 도금원	111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603		공예원	1111			
	사회단체활동가	0604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1112			
	성직자	0605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	1113			

배경사항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란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7.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문28.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에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경우는 포함해 주시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해 주세요.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기타 친척

⑦ 기타_____

⑧ 없음

문29.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구분	학교 안다님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및 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0.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문31.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div>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④/도 (서초)시/군/⑦ (우면)⑤/읍/면으로 표기

문33. 반에서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나 전문교과(전문계 고등학교 해당)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십시오.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전문교과(전문계 고 학생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2: 델파이 1차]

청소년 진로·직업 분야 지표 개발을 위한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주관적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조사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질문지는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각 영역과 조사문항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구성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주관적 지표) 구성 체계(안)는 총 3회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구안된 것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고,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그리고 각 하위요소에 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진술, 추가 혹은 삭제할 문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각 질문영역의 하단 공란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9.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구성 체계(안) ■

※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주관적 지표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문항수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5
		1-1-2	직업관	5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7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0
		1-1-5	직업위신	30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3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3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3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3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3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14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8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7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10
		2-3-1	근로 경험 유무	1
	2-3 진로·직업 체험	2-3-2	일의 종류	1
		2-3-3	일의 내용	4
		2-3-4	근로 경험에 대한 일반적 사항	19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4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7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10

1.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의 타당성 정도를 V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관심영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2. 진로·직업 경험					
	3. 진로·직업 역량					
재진술, 추가, 혹은 삭제할 영역 및 기타 의견						

2.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다음은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세 가지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을 구성한 것입니다. 관심영역에 대한 각 세부영역의 타당성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영역	세부영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2 진로·직업 태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2 진로·직업 준비					
	2-3 진로·직업 체험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2 진로·직업 지식					
	3-3 합리적 의사결정					
재진술, 추가, 혹은 삭제할 영역 및 기타 의견						

3.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다음은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를 구성한 것입니다. 세부영역에 대한 각 “하위요소”의 타당성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 ‘진로·직업 가치’, ‘진로·직업 태도’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 영역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1-2	직업관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1-5	직업위신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재진술, 추가, 혹은 삭제할 요소 및 기타의견								

2-1-2-3. ‘진로직업 교육’, ‘진로직업 준비’, ‘진로직업 체험’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2-3-2		일의 종류					
	2-3-3		일의 내용					
	2-3-4		근로 이유, 정보원, 효과 등 일반적 사항					
	재진술, 추가, 삭제할 요소 및 기타 의견							

3-1-1~3-3-1.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영역	세부 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재진술, 추가, 삭제할 요소 및 기타 의견								

4. 각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의 타당성

다음은 각 하위요소의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고, 재진술, 추가 혹은 삭제할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 다음의 사항들이 장래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5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중요 하지않다</th><th>중요하지 않다</th><th>보통 이다</th><th>중요 하다</th><th>매우 중요하다</th></tr> <tr> <th>①</th><th>②</th><th>③</th><th>④</th><th>⑤</th></tr> </thead> </table>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게 일하는 것															
3	많은 돈을 버는 것															
4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5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6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일하는 것															
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15	일이 쉬워서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것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1-1-2. ‘직업관’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div>-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5번까지 동일</div> <table><tr><td>전혀 그렇지 않다</td><td>그렇지 않다</td><td>보통 이다</td><td>그렇다</td><td>매우 그렇다</td></tr><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직업은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다														
2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남자가 유치원 교사나 미용사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4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지금의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5	직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영역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div>- 귀하가 성인이 되어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다음의 각 항목이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7번까지 동일</div> <table><tr><th>전혀 중요 하지 않다</th><th>중요하지 않다</th><th>보통 이다</th><th>중요 하다</th><th>매우 중요하다</th></tr><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가족생활															
2	친척관계															
3	여가생활															
4	일															
5	종교															
6	학업 또는 능력개발															
7	친구관계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항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0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r> <td>전혀 중요 하지 않다</td><td>중요하지 않다</td><td>보통 이다</td><td>중요 하다</td><td>매우 중요하다</td></tr> <tr>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돈(자본)															
2	노력과 성실성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	인맥															
5	좋은 성품															
6	자기개발															
7	운이나 요행															
8	가정배경															
9	학벌															
10	뚜렷한 목표의식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1-1-5. ‘직업위신’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 다음의 직업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수입, 명예,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시는지 V표 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1-30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낮다</td><td>낮은 편이다</td><td>그저 그렇다</td><td>높은 편이다</td><td>매우 높다</td></tr> <tr>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1	운전기사															
2	의사(한의사)															
3	프로운동선수															
4	공무원															
5	건축설계사															
6	교사															
7	약사															
8	프로게이머															
9	성직자															
10	대학교수															
11	자영업자															
12	중소기업 과장															
13	컴퓨터 프로그래머															
14	간호사															
15	대기업 사원															
16	국회의원															
17	경찰관															
18	군인															
19	연예인															
20	농업 종사자															
21	요리사															

22	기자					
23	판사					
24	사회복지사					
25	학원 강사					
26	제조업 근로자					
27	아파트 경비원					
28	가사도우미					
29	학습지 교사					
30	디자이너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1. 진로·직업 의식

1-2. 진로·직업 태도

1-2-1~1-2-5.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결정성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진로·직업 태도의 5개 하위요소(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동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th>별로 그렇지 않다</th><th>보통 이다</th><th>대체로 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head> <tbody> <tr>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목적성																
1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R).															
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한다(R).															
3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R).															
확신성																
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2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3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준비성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2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 받길 원한다.				
3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독립성					
1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3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 현재 귀하의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의 ()에 √ 해 주시고, 선택한 진로교육 형태가 귀하의 진로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2)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1-12번까지 동일</p> <table><tr><td>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보통 이었다</td><td>도움이 되었다</td><td>매우 도움이 되었다</td></tr><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	“진로와 직업” 과목을 이용한 진로교육()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5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0	진로 정보 관련 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12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13	<p>진로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입니까?</p> <p>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②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③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 해결 ④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p>															

	⑤ 기타()					
14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⑦ 기 타()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div>- 귀하가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 중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div> <div>* 응답방식 1-12번까지 동일</div> <table><tr><th>매우 그렇다</th><th>그렇다</th><th>보통 이다</th><th>그렇지 않다</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r><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4	진로교육 담당교사가 부족하다															
5	교사의 진로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 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보기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경험 해 보았습니까? 아래 보기 중 경험이 있는 항목에 대해(복수응답 가능) 횡수를 써 주시고, 오른쪽에는 만족의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7)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7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경험여부</th><th>전혀 만족 못한다</th><th>만족 못한 다</th><th>보통 이다</th><th>만족 한다</th><th>매우 만족 한다</th></tr> </thead> <tbody> <tr> <td>① 있다() ②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경험여부	전혀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 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경험여부	전혀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 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	미래의 삶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6	가족과 함께 진학할 상급학교 방문 경험																	
7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진로활동 만족도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 진로·직업 경험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 다음의 각 항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0번까지 동일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50%;"> <tr> <td>전혀 아니다</td> <td>아니다</td> <td>보통 이다</td> <td>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 진로·직업 경험

2-2.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경험 유무’요소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를 ()안에 √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는지 ()안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① 한 번 이상 있다→()번(☞ 문2부터 문12까지 응답하세요) ② 없다 → (☞ 문 로 가시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3-2. ‘일의 종류’요소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2-3-1번 응답자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장 오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일의 종류>

- | | | |
|----------------------|-------------------------|------------------------|
| 1)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 | 2) 신문 및 우유배달 | 3) 커피숍 점원 |
| 4) 24시간 편의점 점원 | 5) 일반상점(옷가게 등) 판매원 | 6) 비디오 대여점 점원 |
| 7) 게임방 점원 | 8)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9) 만화방 점원 |
| 10) 주유소 주유원 | 11)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점원 | 12) 공장노동 |
| 13) 아기, 노인 돌보기 | 14)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15)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점원/배달 |
| 16) 건설현장 노동 | 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18) 피자치킨, 패스트푸드점 등 배달 |
| 19)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 | |
| 20) 기타() | | |

2-3-3. ‘일의 내용’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위의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 () 안에 해당되는 번호나 답을 적어주십시오.					
	1) 언제 시작했습니까?					
	2) 얼마동안이나 계속했습니까?					
	3)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약 () 시간 4)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약 () 원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2-3-4. ‘근로이유, 정보원, 효과 등 일반적 사항’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p>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②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③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④ 용돈이 필요해서 ⑤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⑥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⑦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⑧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⑨ 기타(</p>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th>없다</th><th>한두번</th><th>여러번</th></tr> </thead> <tbody> <tr> <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1</td><td>2</td><td>3</td></tr> <tr> <td>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td><td>1</td><td>2</td><td>3</td></tr> <tr> <td>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td><td>1</td><td>2</td><td>3</td></tr> <tr> <td>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td><td>1</td><td>2</td><td>3</td></tr> <tr> <td>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 <tr> <td>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 <tr> <td>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 <tr> <td>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 <tr> <td>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r> </tbody> </table>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문항	없다	한두번	여러번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3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3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3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	2	3																																										
6	<p>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p> <p>① 작성하지 않았다 ② 작성했다</p>																																												
7	<p>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했나요? ()</p> <p>① 제출하지 않았다 ② 제출했다</p>																																												
8	<p>귀하가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자신이 향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r> <td>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td> <td>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td> <td>보통이다</td> <td>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td> <td>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td> </tr>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9	<p>귀하가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겪게 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의 보기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보통 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head> <tbody> <tr> <td>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r> <td>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r> <td>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r> <td>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body> </tabl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기이해’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 당 하 지 않 다	보 통 이 다	타 당 하 다	매우 타 당 하 다
	<div> <div> <div>-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div> <div>* 응답방식 진로·직업 역량영역의 세부영역(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모두 동일</div> <div> <div>전혀 그렇지 않다</div> <div>그렇지 않은 편이다</div> <div>보통 이다</div> <div>그런 편이다</div> <div>매우 그렇다</div> </div> <div> <div>1-----</div> <div>2-----</div> <div>3-----</div> <div>4-----</div> <div>5</div> </div> </div> </div>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안다					
4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3-1-2. ‘진로 · 직업 지식’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 당 하 지 않 다	보 통 이 다	타 당 하 다	매우 타 당 하 다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안다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안다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안다					
5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안다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안다					
7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안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3-3-1. ‘합리적 의사결정’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3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5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지 따져볼 것이다					
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재진술 -추가, 삭제 -기타 의견						

[부록 3: 델파이 2차]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지표개발을 위한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의견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지 구성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수치가 낮은 영역이나 문항(평균이 4.0미만, 리커트 척도 4이상에 응답한 긍정적 반응률이 75%인 미만)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일치도가 낮은 영역과 문항(표준편차가 .80이상)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 하였습니다.

응답방식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과 문항에 대한 타당도의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 옆에 V표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응답방식은 4p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절차상 다소 번거로운 응답 방식과 두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 연구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수정된 내용〉

관심영역	세부영역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1-1-2 직업관 ▶ 삭제
		1-1-3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일의 상대적 가치 ▶ 삭제
		1-1-4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1-5 직업위신 ▶ 삭제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목적성(사회적 인정 추구의 정도) ▶ 삭제
		1-2-3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4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5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2-3-2 일의 종류
		2-3-3 일의 내용
		2-3-4 근로 경험에 대한 일반적 사항
		2-3-1로 통합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주관적 지표 구성 체계(안)>

* 1차 의견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새롭게 체계(안)를 구성했습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3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4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근로 경험 유무, 종류, 내용 및 일반적 사항 등)
		2-3-2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체험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 응답하기 전에....

○ 타당도 영역에 1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범위, 【 】)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1차 조사 때 응답하셨던 항목(*로 표시)을 제시하였습니다.

○ 1차 전문가의견 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 통계수치가 낮은 문항(평균이 4.0 미만, 리커트 척도 4이상 응답한 긍정적 반응률이 75%인 미만)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일치도가 낮은 문항(표준편차가 .80이상)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 1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들은 별도의 표시(음영처리)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음영 처리된 부분 중 **■** 표시가 있는 것은 수정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 표가 없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말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아래 예와 같이 각각의 영역과 문항의 타당성 정도를 두 번째 줄의 해당되는 번호 옆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의 예)

영역	관심영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Md(4.5)	
		1	2	3	【4*】	5
		1	2	3	4	5v

Ⅰ.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에 대한 “관심영역”의 타당성

영역	관심영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	1. 진로·직업 의식				Md(4.5)	
		1	2	3	【4】	5
		1	2	3	4	5
	2. 진로·직업 경험				Md(5)	
		1	2	3	【4】	5
		1	2	3	4	5
	3. 진로·직업 역량				Md(4)	
		1	2	3	【4】	5
		1	2	3	4	5

의견:

II. 각 관심영역에 대한 “세부영역”의 타당성

관심영역	세부영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Md(4)	
		1	2	3	【4	5】
	1-2 진로·직업 태도	1	2	3	4	5
					Md(4)	
		1	2	3	【4	5】
		1	2	3	4	5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Md(4)	
		1	2	3	【4	5】
	2-2 진로·직업 준비	1	2	3	4	5
					Md(4)	
		1	2	3	【4	5】
		1	2	3	4	5
3 진로·직업 역량	2-3 진로·직업 체험				Md(4)	
		1	2	3	【4	5】
	3-1 자기이해	1	2	3	4	5
					Md(4)	
		1	2	3	【4	5】
		1	2	3	4	5
	3-2 진로·직업 지식				Md(4)	
		1	2	3	【4	5】
	3-3 합리적 의사결정	1	2	3	4	5
					Md(4)	
		1	2	3	【4	5】
		1	2	3	4	5

의견:

III. 각 세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의 타당성

1-1~1-2. ‘진로·직업 가치’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진로· 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Md(4)	
				1	2	3	【4	5】
			1	2	3	4	5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Md(4.5)		
			1	2	3	【4	5】	
		1	2	3	4	5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Md(4)	
				1	2	3	【4	5】
			1	2	3	4	5	
1-2-2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Md(4)		
			1	2	3	【4	5】	
		1	2	3	4	5		
1-2-3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Md(4)		
			1	2	3	【4	5】	
		1	2	3	4	5		
1-2-4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Md(4)			
		1	2	3	【4	5】		
	1	2	3	4	5			

의견:

2-1~2-3. ‘진로·직업 교육’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하위요소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Md(4)	
				1	2	3	【4	5】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1	2	3	【4	5】
				1	2	3	4	5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				Md(4)	
				1	2	3	【4	5】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Md(4)	
				1	2	3	【4】	5
	2-3 진로·직업 체험	2-3-1	근로 경험 유무				Md(4)	
				1	2	3	【4	5】
		2-3-2	일의 종류				Md(4)	
				1	2	3	【4	5】
		2-3-3	일의 내용				Md(4)	
				1	2	【3. 25	4.75】	5
		2-3-4	근로 이유, 정보원, 효과 등 일반적 사항				Md(4)	
				1	2	3	【4 4.75】	5
		2-3-1	☐아르바이트체험(근로 경 험 유무, 종류, 내용 등)	1	2	3	4	5
		2-3-2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 업 체험	1	2	3	4	5

의견:

3-1~3-3.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세부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하위요소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Md(4)	
				1	2	3	【4	5】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1	2	3	4	5
								Md(5)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1	2	3	【4	5】
								Md(5)

의견:

IV. 각 하위요소의 세부문항에 대한 타당성

1 진로·직업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다음의 사항들이 장래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5번까지 동일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1 1	2 2	3 3	【4 4	Md(5) 5 5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1 1	2 2	3 3	Md(4) 【4 4	5 5 5
3	많은 돈을 버는 것	1 1	2 2	3 3	Md(4) 【4 4	5 5 5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1 1	2 2	3 3	Md(4.5) 【4 4	5 5 5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1 1	2 2	3 3	Md(4) 【4 4	5 5 5
6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일하는 것	1 1	2 2	【3 3	Md(4) 4.75 4	5 5 5
	☐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	1	2	3	4	5
7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1 1	2 2	3 3	Md(4) 【4 4	5 5 5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하는것	1 1	2 2	3 3	Md(4) 【4 4	5 5 5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Md(5)
		1	2	3	【4	5】
		1	2	3	4	5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Md(5)
		1	2	3	【4	5】
		1	2	3	4	5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Md(4)
		1	2	3	【4	5】
		1	2	3	4	5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Md(4)
		1	2	3	【4	5】
		1	2	3	4	5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Md(4)
		1	2	3	【4	5】
		1	2	3	4	5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Md(4)
		1	2	3	【4	5】
		1	2	3	4	5
15	일이 쉬워서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것					Md(4)
		1	2	【3.25	4】	5
	☐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1	2	3	4	5

의견: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요소에 대한 각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 항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1-10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 중요 하지 않다</th><th>중요 하지 않다</th><th>보통 이다</th><th>중요 하다</th><th>매우 중요 하다</th></tr> <tr> <th>①</th><th>②</th><th>③</th><th>④</th><th>⑤</th></tr> </thead> </table>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돈(자본)				Md(4)											
		1	2	3	4.5	5										
		1	2	3	4	5										
2	근면함과 성실성				Md(4)											
		1	2	3	4	5										
		1	2	3	4	5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Md(4)											
		1	2	3	4	5										
		1	2	3	4	5										
4	인맥				Md(4)											
		1	2	3	4	5										
		1	2	3	4	5										
5	좋은 성품				Md(4)											
		1	2	3	4	5										
		1	2	3	4	5										
6	자기개발				Md(4)											
		1	2	3	4	5										
		1	2	3	4	5										
7	운이나 요행				Md(4)											
		1	2	3	4	5										
		1	2	3	4	5										
8	가정배경				Md(4)											
		1	2	3	4	5										
		1	2	3	4	5										
9	학벌				Md(4)											
		1	2	3	4	5										
		1	2	3	4	5										
10	뚜렷한 목표의식				Md(4)											
		1	2	3	4	5										
		1	2	3	4	5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1	2	3	4	5										
의견:																

1-2. 진로·직업 태도

1-2-1~1-2-4. 직업태도 각 요소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다</td> <td>보통이다</td> <td>대체로 그렇다</td> <td>매우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결정성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1 1	2 2	3 3	Md(4) [4 4.5]	5 5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1 1	2 2	3 3	Md(4) [4]	5 5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1	2 2	[3.5 3	Md(4) 4.5]	5 5										
확신성																
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1 1	2 2	3 3	Md [4]	5 5										
2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R).	1 1	2 2	3 3	Md(4) [4 4.5]	5 5										
3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큰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	1 1	2 2	[3 3	Md(4) 4]	5 5										
준비성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1 1	2 2	3 3	Md(4) [4]	5 5										
2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 받길 원한다.	1 1	2 2	3 3	Md(4) [4 4.5]	5 5										
3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 1	2 2	3 3	Md(4) [4 4.5]	5 5										
독립성																
1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이다.	1 1	2 2	[3.25 3	Md(4) 4.75]	5 5										
2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	1 1	2 2	3 3	Md(4) [4 4.75]	5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R).	1 1	2 2	3 3	4 4	5 5										
의견: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형태 및 만족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귀하는 학교에서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하는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에 √ 해 주시고, 선택한 진로교육 경험이 귀하의 진로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2)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2번까지 동일</p> <table><tr><td>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보통 이었다</td><td>도움이 되었다</td><td>매우 도움이 되었다</td></tr><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2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Md(4)											
		1	2	3	[4,5]	5										
		1	2	3	4	5										
3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4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5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6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Md(4)											
		1	2	3	[4	5]										
		1	2	3	4	5										

9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1	2	3	4	5
10	진로 정보 관련 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	【4	5】
	▶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1	2	3	4	5
11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Md(4)	
		1	2	【3.5	4	5】
		1	2	3	4	5
12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Md(4)	
		1	2	3	【4	5】
		1	2	3	4	5
13	진로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얻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입니까?				Md(4)	
	① 미래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	1	2	3	【4	5】
	②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③ 진로결정을 통한 고민 해결	1	2	3	4	5
14	④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					
	⑤ 기타()					
	진로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Md(4)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1	2	3	【4	5】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1	2	3	4	5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⑦ 기 타()					

의견: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요구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p>귀하가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 중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1-12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r> <td>매우 그렇다</td> <td>그렇다</td> <td>보통이다</td> <td>그렇지 않다</td>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교과학습이 많아 진로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Md(4)											
		1	2	3	【4 4.75】	5										
		1	2	3	4	5										
2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				Md(4)											
		1	2	3	【4 5】											
		1	2	3	4	5										
3	진로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Md(4)											
		1	2	3	【4 4.75】	5										
		1	2	3	4	5										
4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부족하다				Md(4)											
		1	2	【3.25 4】		5										
		1	2	3	4	5										
5	선생님들의 진로지도 능력이 부족하다				Md(4)											
		1	2	【3.25 4】		5										
		1	2	3	4	5										
6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Md(4)											
		1	2	3	【4 5】											
		1	2	3	4	5										
7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Md(4)											
		1	2	3	【4 5】											
		1	2	3	4	5										
8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다				Md(4)											
		1	2	3	【4 5】											
		1	2	3	4	5										
9	<div>▶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이 부족하다.</div> <div>▶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필요하다</div>															
		1	2	3	4	5										
		1	2	3	4	5										
<p>의견:</p>																

2-1-3.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및 만족도’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보기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경험 해 보았습니까? 아래 각 항목에 대해 경험여부를 ()안에 √해 주시고 경험이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는 만족의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7)번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7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경험여부</th><th>전혀 만족 못한다</th><th>만족 못한 다</th><th>보 통 이 다</th><th>만족 한다</th><th>매우 만족 한다</th></tr> </thead> <tbody> <tr> <td>① 있다() ②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경험여부	전혀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 다	보 통 이 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경험여부	전혀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 다	보 통 이 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	미래의 삶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	2	3	Md(4) 【4	5】												
	▶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	2	3	4	5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1	2	3	Md(5) 【4	5】												
		1	2	3	4	5												
3	학교, 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	1	2	3	Md(4) 【4	5】												
		1	2	3	4	5												
4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1	2	【3.5	Md(4) 4	5】												
		1	2	3	4	5												
5	가족의 직장방문 경험()	1	2	3	Md(4) 【4	5】												
		1	2	3	4	5												
6	가족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방문 경험()	1	2	3	Md(4) 【4 4.75】	5												
		1	2	3	4	5												
7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진로관련활동에 대한 만족도()	1	2	3	Md(4) 【4 4.5】	5												
		1	2	3	4	5												
의견: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다음의 각 항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방식 1-10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 아니다</th><th>아니다</th><th>보통 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head> <tbody> <tr>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Md(5) 5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7	<p>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p> <p>▶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p>	1	2	3	Md(4) 4	5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Md(4) 4	5										
9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	2	3	Md(4) 4	5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1	2	3	Md(4) 4	5										
의견: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체험(근로 경험 유무, 일의 종류, 일의 내용, 근로이유, 정보원, 효과 등 일반적 사항’요소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귀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를 ()안에 √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는지 ()안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①한 번 이상 있다→()번(☞ 문2부터 문12까지 응답하세요) ②없다→(☞ 문 로 가시오)				Md(4)	
		1	2	3	【4 5】	
		1	2	3	4	5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2	2-3-1번 응답자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장 오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Md(4)	
		1	2	3	【4 4.5】	5
		1	2	3	4	5

<일의 종류>	
1)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치기)	2) 신문 및 우유배달
3) 커피숍 점원	4) 24시간 편의점 점원
5) 일반상점(옷가게 등) 판매원	6) 비디오 대여점 점원
7) 게임방 점원	8)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9) 만화방 점원	10) 주유소 주유원
1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	12) 공장노동
13) 아기, 노인 돌보기	14)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5)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점원/배달	16) 건설현장 노동
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8) 피자치킨,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점원/배달
19)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20) 기타()

6	귀하가 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벽보의 구인 광고를 보고 ②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③ 학교를 통해 ④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⑤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⑥ 청소년 단체를 통해 ⑦ 기타(
---	--

	<div> <div>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div> <div>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div> <div>보통 이다</div> <div>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div> <div>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div> </div> <div> 1-----2-----3-----4-----5 </div>																																		
12	귀하가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겪게 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의 보기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Md(4)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보통 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	2-----	3-----	4-----	5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1	2	3	4	5																														
<div>의견:</div>																																			

2-3-2.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체험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안에 √ 해 주시고 참여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오른쪽에 도움 정도를 해당 되는 번호에 √ 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1-12번까지 동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도움이 되지 않았다</td><td>보통 이었다</td><td>도움이 되었다</td><td>매우 도움이 되었다</td></tr> <tr>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	진로박람회(엑스포) ()															
2	커리어 스쿨(잡 스쿨) ()															
3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4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관련 견학 프로그램 ()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															

의견: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기이해’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p>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p> <p>* 응답방식 진로·직업 역량영역의 세부영역(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모두 동일</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보통 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1	2 2	3 3	Md(4) 【4 4	5 5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안다	1 1	2 2	3 3	Md(4) 【4 4	5 5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안다	1 1	2 2	3 3	Md(4.5) 【4 4	5 5										
4	<p>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안다</p> <p>▶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p>	1 1	2 2	3 3	Md(4) 【4 4	5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p>의견:</p>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 지식’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Md(5)
		1	2	3	【4	5】
		1	2	3	4	5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7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Md(4)	
		1	2	3	【4	5】
		1	2	3	4	5

의견: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합리적 의사결정’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타당도				
		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3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5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Md(5)	
		1	2	3	【4	5】
		1	2	3	4	5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Md(5)	
		1	2	3	【4	5】
		1	2	3	4	5
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Md(4)	
		1	2	3	【4	5】
		1	2	3	4	5
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Md(4)	
		1	2	【3.5	4	5】
		1	2	3	4	5

의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공윤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수
김진이 백석중학교, 교사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교수
서장혁 중동고등학교, 교사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유현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수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임 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재은 보건복지가족부, 전문위원
조선화 보건복지가족부, 전문위원
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 503-322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828-1(93330)

978-89-7816-827-4(93330)(세트)